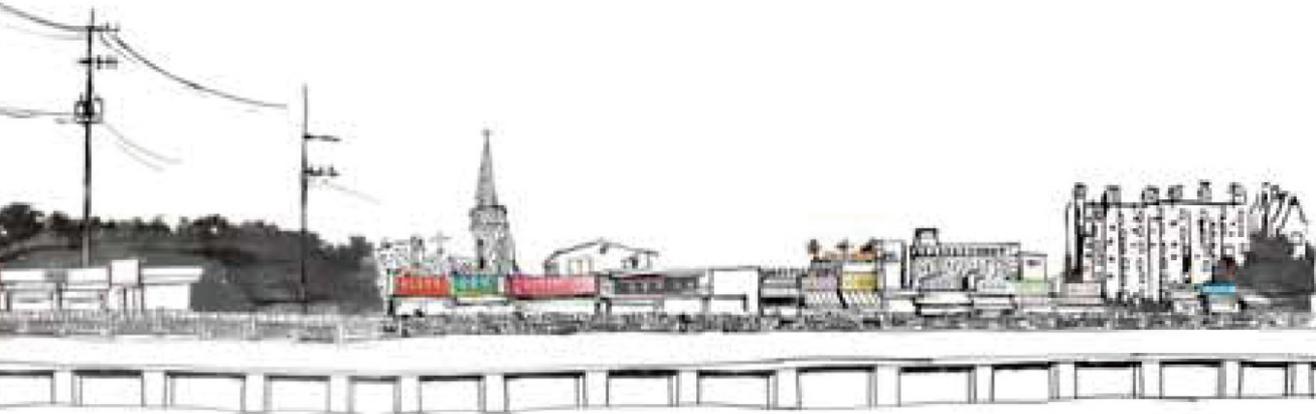


TheHistory
TheHistoryofSuwonCity
TheHistoryofSuwonCity
TheHistoryof
TheHistoryof
TheHistoryofSu
TheHistoryofSuwonCity
TheHistoryof



수원 아파트 주민의 생활과 문화

TheHistory
TheHistoryofSuwon
TheHistoryofSuwon

TheHistory
TheHistoryofSuwon



TheHistoryof
TheHistoryof
TheHistoryof
TheHistoryof

TheHistoryofSuwon
TheHistoryofSuwon
TheHistory
TheHistoryofSuwon
TheHistoryofSuwon
TheHistoryofSuwon

수원시사 15

수원 아파트 주민의 생활과 문화



일리두기

기획 방향과 구성

□ 수원시사는 총 20권으로 제작되었다.

권	제목	권	제목
1	수원의 지리적 환경	11	수원 토박이의 생애 경험과 정체성
2	수원의 도시공간과 도시구조	12	수원 이주민의 정착과 정체성
3	수원의 통치체제와 지방세력	13	수원 여성의 생활과 정체성
4	수원의 정치 변동과 지방자치	14	수원 노동자의 노동세계와 노동문화
5	수원의 토지 소유구조와 농업 경영	15	수원 아파트 주민의 생활과 문화
6	수원의 산업과 경제 성장	16	이곳에 가면 수원의 역사가 보인다
7	수원의 사회 변동과 주민생활	17	수원 화성
8	수원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18	세월과 함께한 수원의 옛 문서
9	수원의 문화와 예술	19	개발과 동원 그리고 일상: 1960~1970년대 수원
10	수원의 종교와 교육	20	수원 자료 목록집

- 제1~10권은 수원시의 지리적 환경과 공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분야별로 구성하였다.
- 제11~15권은 수원 시민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토박이, 이주민, 여성, 노동자, 아파트 주민 등으로 구분하여 그 특성에 맞게 주제를 선정하였다.
- 제16권은 수원의 역사와 문화를 답사기의 형식으로 구성하였고, 제17권은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을 다루었다.
- 제18~20권은 수원시사 편찬 과정에서 조사된 문서와 사진 자료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제18권에서는 수원 지역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는 옛 문서를, 제19권에서는 1960~1970년대 사진 자료를 통해 수원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제20권에는 수원시사 편찬 과정에서 조사된 주요 근현대 문서의 목록과 해제를 수록하였다.

서술의 범위와 원칙

- 공간적 범위: 행정구역상 수원시를 대상으로 하여 서술하되, 역사적 연원을 공유하고 문화적 동질성을 지닌 주변 지역에 대한 이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범위를 확대하여 서술하였다.
- 시간적 범위: 권별로 주제 및 특성에 맞게 시간적 범위를 설정하여 서술하였다.
- 내용적 범위: 권별로 주제와 기획 의도를 고려하여 해당 주제가 요구하는 범위에 부합하도록 서술하였다. 수원시사의 전체적인 체제 통일과 내용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필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출 원고에 대한 윤문과 첨삭이 이루어졌다.

저작권과 출처 표기

- 이 책의 저작권은 수원시에 있다. 이 책에 사용된 도표와 사진 등의 자료에 대해서는 출처와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 두었으며, 출처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수원시가 제작·소장하거나 집필자가 제공한 자료이다. 집필자가 제출한 자료로 발생하는 저작권 및 관련 문제의 책임은 해당 집필자에게 있다.
- 이 책에 수록된 내용과 도표·사진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하며,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 별도의 원 저작자가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해 사용해야 한다.

Contents

일러두기

1 구운동 삼환아파트를 들여다보다

01 구운동 둘러보기 / 13

1. 산과 저수지가 어우러진 자연환경 / 13
2. 행정구역으로 본 구운동 / 18
3. 인구 통계로 본 구운동 / 21
4. 지명 유래와 마을의 전통 / 22
5. 신문기사로 본 구운동 / 24

02 Since1992 삼환아파트 / 31

1. 15동에 1,680세대가 이사 오다 / 31
2. 삼환아파트 공동체운동, 우리 아파트는 우리가 관리한다 / 40

2 지역 생활권과 아파트 공간

01 삼환아파트 지역 생활권 / 47

1. 교통 / 47
2. 교육 / 50



3. 문화시설 / 53
4. 상권 / 56



02 삼환아파트 공공(公共)공간 / 69

1. 놀이터 / 70
2. 쉼터 / 74
3. 주차장 / 76
4. 승강기 / 77
5. 노인정 / 80

03 삼환아파트 실내공간 / 83

1. 평수별 공간구조 / 84
2. 거실 / 87
3. 안방 / 91
4. 주방과 부엌 / 94
5. 욕실 / 98
6. 발코니 / 100
7. 주거공간의 변용 / 103

3 삼환아파트 사람들

01 A+공부방 선생님 최현주 / 113

- 두 번의 전학과 고등학교 중퇴 / 113
'나는 공부를 해야 해.' 라는 마음이 확실했어요 / 117



공부방 선생님이로 다시 시작하다 / 123

02 봉사의 여왕, 28등 통장 백순자 / 131

든든한 장녀에서 한 아이의 엄마로 / 131
“쉬지는 않고 뭔가 계속 꾸준히 했어요.” / 136
‘백순자’ 로 살다 / 137



03 삼환아파트 지킴이 오성근 / 145

이발소 주인에서 삼환아파트 경비원이 되기까지 / 145
삼환아파트 지킴이 / 150
주민들과의 관계 / 157

04 56년 경력의 베테랑 이발사 서양석 / 161

일급 5,000환의 이발소 ‘시다’ / 161
무역박람회 복권 당첨금으로 이룬 혼사 / 165
교도소 재소자들에게 이발 기술 전수 / 166
청와대에서 전두환 대통령 내외와 함께한 저녁 만찬 / 167
34살에 이룬 이발소개업의 꿈 / 168
이발소의 운수 좋은 날과 운수 나쁜 날 / 169
10년 전 삼환아파트 상가에 ‘삼환이발소’ 를 개업하다 / 170

4

시간으로 본 주민들의 삶과 문화

01 일생의 중요한 순간들 / 175



1. 출생의례 _ 생명의 탄생과 함께 시작되는 의례 / 176
2. 혼례 _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다 / 181
3. 상례 _ 죽은 이를 보내는 절차 / 190
4. 제례 _ 조상을 추모하다 / 192
5. 학교 들어가기 / 194
6. 오래 사시기를 기원하는 잔치 / 195

02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일 년 열두 달 / 199

1. 설 / 200
2. 발렌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 / 203
3. 한식 / 204
4.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 204
5. 초파일 / 207
6. 삼복 / 208
7. 추석 / 208
8. 김장 / 212
9. 빼빼로데이 / 213
10. 동지 / 213
11. 성탄절 / 214

03 주민들의 삶과 함께한 드라마와 가요 / 217

1. 드라마 _ 삶을 비추는 기호 / 218
 - 1) 1970년대 _ '인내' 하는 현모양처, 「아씨」와 「여로」 / 218
 - 2) 1970년대 _ 경제성장기 정부 시책 홍보드라마의 양산 / 220
 - 3) 1980년대 _ 멜로드라마의 인기 행진 / 222
 - 4) 1990년대 _ 트렌드드라마와 금기(禁忌)에 대한 열광 / 224
 - 5) 2000년대 _ 초호화 드라마와 유행어 / 229
2. 대중가요 _ 삶을 푸는 활력소 / 233
 - 1) 1970년대 _ 도시에 대한 동경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 233
 - 2) 1980년대 _ 스타 '조용필'의 탄생, 그리고 밝은 뽕짝의 유행 / 236

3) 1990년대 _ 서태지와 아이들 그리고 팬덤문화 / 240

4) 2000년대 _ 대형 기획사와 아이돌 문화 / 244

5

주민들의 살림살이

01 일상 속 물건들 / 251

1. 장롱 / 253

- 1) 혼례가구 1순위 장롱 / 253
- 2) 장롱을 고르는 기준 / 256
- 3) 새집에 새 장롱을 두고 싶은 여자의 마음 / 261
- 4) 집안의 가장 깊숙한 곳 / 264
- 5) 시대별 장롱에 대한 인식 변화 / 267

2. 라면 / 269

- 1) '꼬부랑 국수'의 등장 / 269
- 2) 개인의 다양한 라면 취향 / 272
- 3) 언제 라면을 먹는가? / 277
- 4) 편의점 간편식품 컵라면 / 281
- 5) 부수어 먹는 생라면과 라면으로 만든 과자 / 284

3. 핸드폰 / 286

- 1) 핸드폰이 없던 시절 / 287
- 2) 최초의 전자식 이동통신 '삐삐' / 289
- 3) 발신전용 휴대전화 '시티폰' 과 인터넷 폰, 최초의 핸드폰 / 291
- 4) 다양한 핸드폰 _ 폴더와 슬라이드, 터치폰 / 294
- 5) 2G 핸드폰과 스마트폰 사이 / 299

4. 도장 / 305

- 1) 인감도장과 막도장 / 305
- 2) 도장 선물의 사회적 의미 / 307
- 3) 손으로 피는 도장과 기계로 피는 도장 / 312
- 4) 타인이 찍어 준 '도장' 을 모으는 것 / 315
- 5) 항상 지니고 다니는 도장 / 317

5. 피아노 / 320

- 1) 부잣집에만 있던 피아노 / 320





- 2) 어린이의 필수교양 / 323
- 3) 피아노를 갖는다는 것 / 327
- 4) 대학입시를 위한 피아노 교육 / 332

02 '옷', 삶에 스며들다 / 337

- 1. '옷'에 담는 의미 / 338
- 2. 의복의 관리 / 353
 - 1) 세탁 / 353
 - 2) 의복의 보관 / 363
- 3. 의복의 소비 / 367
 - 1) 구매 동기 / 367
 - 2) 구매정보 수집 / 370
 - 3) 구매 결정 / 374
 - 4) 구입 장소 / 375
- 4. 의복의 재활용 / 379
 - 1) 헌 옷의 기부 / 381
 - 2) 옷 물려 입기 / 382

참고자료 / 386
집필위원





1 구운동 삼환아파트를 들어다보다

1990년대 초반까지 전형적인 농촌이었던 구운동에 변화가 생겼다. 이러한 결정적인 계기는 아파트단지의 건설과 급격한 인구 유입이었다. 1989년 선경아파트가 들어선 이래, 동북쪽을 중심으로 1990년 강남아파트, 1992년 삼환아파트, 1999년 코오롱아파트·성원아파트 등이 속속 건립되었다.

- 
1. 산과 저수지가 어우러진 자연환경
 2. 행정구역으로 본 구운동
 3. 인구 통계로 본 구운동
 4. 지명 유래와 마을의 전통
 5. 신문기사로 본 구운동

01 | 구운동 둘러보기

1. 산과 저수지가 어우러진 자연환경

삼환아파트가 위치한 수원시 권선구는 북쪽으로 장안구, 동쪽으로 팔달구와 영통구, 남쪽으로 화성시 봉담읍, 서쪽으로 안산시와 화성시 매송면에 접한다. 북쪽에는 아담한 여기산이 병풍처럼 이어져 내려오고, 북쪽에서 남쪽 방향으로 황구지천과 서호천이 가로지른다. 특히, 구운동은 서수원권의 대단위 주거단지 조성과 아파트 건축으로 점차 도시화되고 있다. 수원역, 시외버스터미널 등이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경부철도와 서울을 잇는 수도권 전철, 그 밖에 오산과 안산 방면의 국도가 이어져 있어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여기산과 칠보산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등의 영향으로 권선구 구운동은 수원의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친자연적인 환경을 갖추었다. 또한 삼환아파트 앞뒤에 각각 위치한 일월저수지와 서호저수지는 구운동의 생태환경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문화·여가 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다.

일월저수지를 중심으로 한 일월공원은 총면적 38만㎡의 부지에 잔디광장·야외음악당·생태공원을 갖춘 대규모 문화공간으로 건설한다는 계획에 따라 2005년 5월 1단계로 시유지 1만 4,500㎡ 위에 만들어졌다. 일월저수지는 농업용수를 공급할 목적으로 만들었다가 주변이 도시화되면서 주민들의 휴게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일월공원의 여름 풍경



일월공원의 겨울 풍경



여기산공원 재정비계획 및 서호저수지 조성계획도

저수지를 빙 둘러 산책로가 나 있고, 체력 단련기구와 벤치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2007년 농촌진흥청 작물과학원과 수원시가 공원 내 670m²의 부지에 보리·밀·귀리 등을 심어 자연학습장을 조성하였다.



여기산과 서호 여기산 뒤쪽이 구운동이다.



항미정에서 바라본 서호

서호저수지를 둘러싼 서호공원은 면적 0.19km², 둘레 1,900m, 최장 길이 735m, 최단 길이 325m이다. 서호저수지는 1794년(정조 18) 수원 화성을 쌓을 때 함께 축조된 축만제이다. 당시의 수면 면적은 0.4km², 저수량은 14만 8,000t에 이르렀다. 동쪽에 부석산(浮石山), 서쪽에 영봉(營峰), 남서쪽으로 칠보산(七寶山)을 바라다보며 남쪽 끝에 향미정(杭眉亭)이 있다. 수원 화성의 서쪽에 있기 때문에 서호라고 하였으며, 낙조(落照)가 아름다운 곳으로 유명하다. 예로부터 부근 농경지의 관개용수로 이용되었으며, 농촌진흥청과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의 실습답(實習畓)을 비롯하여 수원평야 등 30만 평의 논에 논물을 공급하였다.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폐수 유입으로 오염되기도 하였으나 최근 서호를 되살리려는 주민들의 노력으로 수질이 맑아졌다. 1922년 호수 바닥을 준설할 때 만든 비폭(飛瀑)이 특히 아름답다. 또한 호숫가의 향미정에서는 서호의 풍경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 2005년 10월 17일 경기도기념물 제200호로 지정되었다.



여기산공원

산과 저수지 등의 풍부한 자연환경을 갖춘 구운동은 1990년대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기 전까지만 하여도 논농사와 밭농사가 이루어지던 전형적인 농촌마을이었다. 1990년대 이후 구운동은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건설과 하이테크 산업단지의 조성 등으로 지역이 개발되었다. 1993년에 마련된 『2011년 수원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서수원 지역이 낙후되어 도시 발전의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서수원의 균형 개발을 목표로 하는 도시계획이 실시되었다. 수원시는 중앙 대생활권, 동수원 대생활권, 서수원 대생활권, 북수원 대생활권의 4개의 대생활권을 마련하고 각각의 기능을 부여하여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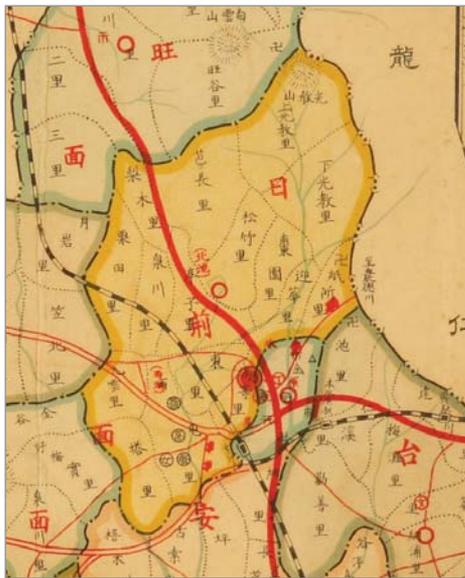
이 가운데 구운동은 서수원 대생활권에서도 중생활권에 편제되었는데, 농업 연구



와 배후 주거지의 기능으로 택지개발사업이 계획, 추진되었다. 또한 구운동의 시외 버스터미널 유치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었다. 이어 1994년에는 앞선 도시개발계획의 기본 방향을 지속하며, 구운동·금곡동·호매실동 일원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확정하고, 구운동 일원을 일월지구, 금곡동 일원을 금곡지구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계획하여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립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2. 행정구역으로 본 구운동

구운동은 수원의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의 4개 행정구역 중 권선구에 속해 있다. 구운동이 자리 잡고 있는 권선구는 수원시에서 1988년 7월 1일 조례 제1452호에 따라 장안구와 함께 가장 먼저 설치된 행정구이다. 1991년 9월 5일 시 조례 제1741호에 따라 서둔동에서 구운동이 분리되었고, 2003년 2월 10일 구운동에서 금호동이 분리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일제시기 수원군 일형면(수원군관내도, 수원박물관 소장)

구운동의 변화는 <표 1>에서 살펴볼 수 있다. 구운동은 오늘날 수원의 구체적 면모가 갖추어지는 정조 대 화성이 축성되던 당시 수원부 형석면에 속한 곳이었음을 알 수 있다. 1895년 지방행정구역을 정리할 때 수원부는 수원군으로 개편되었고, 1912년 당시 구운동은 상구운석(上九雲石), 하구운석(下九雲石)이라는 이름으로, 형석면 관할의 11개 동리에 편제되었다. 이후 1914년 4월 1일(1914년 3월 13일 공포, 조선총독부 경기도령 제3호)에는 경기도 소재 면의 명칭과



수원시 행정구역도

〈표 1〉 구운동의 연혁

시기	내용
1796. (화성 축성 시)	수원부 형석면 관할
1912.	수원군 형석면 관할 : 상구운석, 하구운석
1914. 04. 01.	수원군 일형면 구운리 : 형석면 상구운석 + 하구운석
1936. 10. 01.	수원군 일왕면 구운리
1949. 08. 15.	화성군 일왕면 구운리
1963. 01. 01.	수원시 편입 : 서둔동 관할(서둔동+구운동)
1991. 09. 05.	서둔동과 구운동으로 분동(구운동+금곡동+호매실동)
2003. 02. 10.	구운동과 금호동(금곡동+호매실동)으로 분동



1994년 12월 14일 구운동사무소 준공식

구역 통합 개편할 때 수원군도 동리 명칭과 행정구역을 개편하게 되었다. 이때 상구운석과 하구운석을 통합해 구운리(九雲里)라 명칭을 정하였으며, 일형면(日荊面)에 속하게 되었다. 1936년 10월 1일에는 1936년 9월 26일 공포된 조선총독부령 94호에 의해 수원읍(水原邑)이 확장되면서 일형면과 의왕면이 통합되어 일왕면(日旺面)이 되고, 구운리는 일왕면의 관할이 되었다. 해방 후인 1949년 8월 15일에는 1949년 7월 4일 공포된 법률 제32호에 의해 수원부가 수원시(水原市)로 승격되었고, 나머지 지역을 화성군(華城郡)으로 개칭(改稱)하였다. 이때 일왕면이 화성군에 이속되면서 화성군 일왕면의 관할지역이 되었다.

구운리가 구운동(九雲洞)으로 된 것은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5호에 의해서이다. 구운리가 수원시로 편입되면서 구운동이 되었으며, 탑동과 함께 행정동(行政洞)인 서둔동에 편성되었다. 1991년 9월 5일 수원시 조례 제1752호에 따라 서둔동에서 분동하여 독립 행정동이 되어 법정동(法定洞)인 구운동, 금곡동, 호매실동 등 3개의

동을 관할하게 되었다. 이후 2003년 2월 10일 시 조례 제2397호에 의거한 구운동에서 법정동인 금곡동과 호매실동이 분동되어 행정동 금호동(금곡동+호매실동)이 형성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3. 인구 통계로 본 구운동

1960~1980년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도시화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1985년에는 이미 전 국토의 약 10%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39.1%에 해당하는 1,583만 명이 집중되었다. 특히, 1966~1970년의 연평균 인구 증가율은 9.4%에 달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서울의 인구 성장은 둔화되는 한편 상대적으로 수원, 성남, 부천, 안양 등 서울 근교의 도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1980년대 이후에는 서울과 서울대도시권의 인구 증가율은 점점 둔화되고 있으나 경기도의 인구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대조적이다.

수원의 1980~1985년 인구 증가율을 보면 1980년 7.0%(2만 485명), 1981년 4.3%(1만 3,468명), 1982년 7.3%(2만 3,936명), 1983년 7.3%(2만 5,475명), 1984년 7.7%(2만

〈표 2〉 1986~1994년 수원의 인구 증가율

연도	인구 증가(명)	증가율(%)
1986	31,682	7.4
1987	43,544	9.4
1988	37,682	7.4
1989	61,483	11.3
1990	25,358	6.6
1991	25,358	3.9
1992	16,964	4.0
1993	16,982	2.4
1994	16,040	2.2

출처 : 수원시, 『수원통계연보』, 해당 연도.

〈표 3〉 권선구 인구 현황

(2012년 2월 29일 현재, 단위 : 세대, 명)

지역	세대	인구			세대당 인구
		계	남	여	
수원시	419,454	1,126,827	567,426	559,401	2.7
권선구	124,504	333,266	167,972	165,294	2.7
세류1동	2,111	6,414	3,232	3,182	3.0
세류2동	12,157	28,301	14,410	13,891	2.3
세류3동	10,850	26,218	13,176	13,042	2.4
평동	13,583	38,411	19,353	19,058	2.8
서둔동	16,531	43,653	22,040	21,613	2.6
구운동	10,249	28,422	14,389	14,033	2.8
금호동	16,920	50,284	24,870	25,414	3.0
권선1동	10,724	26,743	13,504	13,239	2.5
권선2동	12,211	39,177	19,516	19,661	3.2
곡선동	14,480	31,137	16,215	14,922	2.2
입북동	4,688	14,506	7,267	7,239	3.1

출처 : 수원시청 자치행정과 제공.
 비교 : ① 외국인세대 제외, ② 외국인 포함.

8,683명), 1985년 7.1%(2만 8,515명)로 연평균 증가율 6.8%로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았다. 이어서 1986~1994년 인구 증가율을 보면 1986~1990년 연평균 증가율은 8.4%로서 더욱 높아졌고 1991~1994년 연평균 증가율은 3.1%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4. 지명 유래와 마을의 전통

구운동은 본래 들녘의 변두리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논과 밭이 많아 들이 무리지어 있다는 뜻에서 ‘군돌’, ‘군들’이라 불리었으며, 군들의 위쪽 마을은 ‘윗군들[上九雲]’ 또는 ‘공석[空石]’이라 하고, 아래쪽 마을은 ‘아랫군들[下九雲]’ 또는 ‘하공석(下空石)’이라 불리었다. 구운이라는 이름과 관련하여 머리가 9개 달려 있는 용(龍)이 이곳에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였다고 해서, 마을 뒷산을 청룡산(靑龍山) 또는 청

룡졸산이라 하고, 마을 이름은 구운(九雲)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왜 구운동인지는 정확히는 모르는데 머리가 아홉 개 달린 용이 승천했다고 해서 구운동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구요. <배순자, 여, 1963년생>

다음 신문기사들을 보면, 구운동의 유래와 관련된 전설을 바탕으로 지역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구운동의 역사와 전통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주민들 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장을 마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기일보

청룡의 전설이 살아 숨 쉬는 구운동

어떤 마을이든 그럴 듯한 전설 하나쯤은 있기 마련이다.

구운동은 본래 들녘의 변두리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논과 밭이 많아 들이 무리지어 있다는 뜻에서 '군들' 또는 '군들'이라 불리었다고 한다. 구전에 의하면 마을 사람들이 우물을 파려고 내리친 정에 허리를 다친 용이 다른 8마리의 부축을 받으며 하늘로 승천하였다고 하여 9개의 구름이 올라간 마을, '구운들'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매년 음력 7월 초하루 정한수와 소머리로 무사안일을 빌고 마을의 안녕을 비는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이러한 전설을 바탕으로 주민이 주도하고 관이 지원하는 마을르네상스 사업 제1회 '군들 청룡문화축제'가 오는 8월 18일 개최될 예정이다. 이처럼 청룡의 전설이 살아 숨 쉬는 구운동은 금호동, 서둔동, 임북동과의 경계에 위치, 서수원버스터미널과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및 이마트 서수원점이 입점한 서수원권 교통·상권의 중심지로,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며 서로 조화롭게 연계된 도농복합도시이다. ……

<『경기일보』, 2012년 7월 20일>



구운동, 제1회 군들 청룡문화제 개최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군들 청룡문화제 추진위원회(위원장 송기환)는 오는 9월 21일 일월공원에서 제1회 '군들 청룡문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에 따르면 구운동은 9마리의 용이 구름을 타고 승천했다고 해 9개의 구름이 올라간 마을, '구운들'이라고 부르게 됐고, 매년 음력 7월 초하루 정한수와 소머리로 무사안일을 빌고 마을의 안녕을 비는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동 관계자는 "구운동의 이러한 전설을 바탕으로 구운동의 유래와 전통을 널리 알리고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문화제를 개최해 주민 간 친목과 화합을 증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한다."고 말했다. 제1회 '군들 청룡문화제'는 승천제 제례의식 및 용의 승천을 재현하는 퍼포먼스, 주민화합 한마당 등 각종 문화행사로 펼쳐질 예정이다.

〈'수원일보', 2012년 8월 27일〉

5. 신문기사로 본 구운동

신문에 나타난 구운동 관련 내용은 사건과 사고보다는 사회봉사 또는 사회조직과 관련된 마음이 따뜻해지는 내용의 좋은 기사가 많았다. 최근 2년간 구운동과 관련된 사회봉사 활동에 대한 기사는 총 54건이었으며, 지역 신문에 실린 주요 내용은 <표 4>에서 살펴볼 수 있다.

사회봉사에 관한 기사가 많은 이유는 구운동의 주요 행정정책과도 연관되어 있다. 구운동은 대동제와 같은 전통적 공동체 문화를 계승하는 의미의 행정을 비롯하여, 평생학습 기회 마련, 소외계층 나눔행사, 동민 화합 및 노인공경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동민척사대회, 마을음악회, 마을경로잔치, 동민체육대회 등을 마련하여 전통적인 마을공동체 문화인 대동제의 의미를 계승하고 있고, 소외된 이웃에 대하여는 1% 사랑나눔행사와 같은 불우이웃돕기운동을 여러 단체와 함께 전개하고 있다.

〈표 4〉 구운동 사회봉사 관련 신문기사

제목	언론사	일자
권선구 구운동 바르게살기위원회 사랑의 반찬	수원일보	2010. 01. 07.
구운동, 독거노인을 위한 무료미용서비스 협약	수원일보	2010. 04. 22.
구운동 삼환아파트 “경로잔치 열었어요”	수원일보	2010. 05. 13.
구운동, 독거노인 삼계탕 대접	수원일보	2010. 07. 29.
구운동 주민자치위원회 경로잔치 개최	수원일보	2010. 10. 15.
구운동 ‘사랑의 순대국데이’ 펼쳐	수원일보	2010. 11. 15.
구운동 ‘하늘돈까스’ 도시락 사랑	수원일보	2011. 03. 21.
구운동, 개천절 맞이 공직자 사랑의 봉사활동	수원일보	2011. 10. 05.
권선구 구운동 주민자치위원회 캄보디아 봉사활동	수원일보	2012. 02. 28.
구운동 경로당 사랑의 국수데이	수원일보	2012. 06. 18.
구운동, 이마트와 함께 ‘희망나눔 바자회’	수원일보	2012. 06. 20.
구운동 통장협의회, 장애아동들과 연극관람	수원일보	2012. 07. 03.

서호복지관에서 설거지 봉사도 하고요. 적십자에서 수해복구 봉사도 다니고. 뭔가 하고 싶어서 시작했어요. 하다 보니까 중독성이 생겨요. 뭔가 대가를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안 하면 허전해요. 그래서 구운동 동사무소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복지관을 소개시켜 줘서 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하기 전에는 월드컵전에서 3년 동안 도시락 봉사했었어요. 동사무소에서 매달 노인정을 돌면서 음식을 대접해요. 한 달에 한 번. 옛날에는 탑동에 있는 명기순대국하고 짜장면 집에서 대접했어요. 익명으로 누가 돈을 조금 지원해 주기도 하고요. 그럼 가서 도와주고 그래요.〈배순자, 여, 1963년생〉

구운동의 주요 단체는 주민자치위원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방위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자율방범대 등이 있는데, 이들 단체에서 주관한 여러 봉사활동들이 기사화되었다.

또한 그동안 고도제한 등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되었던 서수원권이 수원역 역세권 개발과 함께 신분당선과 수인선 건설, 황구지천 생태하천 조성 등의 사업이 검토 중이거나 추진 중이어서 앞으로 비약할 만한 발전이 기대된다는 내용의 서수원권 개발과 관련된 기사들이 있다.

수원일보

구운동 바살협, 사랑의 반찬배달



반찬을 만드는 구운동 바르게살기위원회 회원들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바르게살기위원회(위원장 유재광)는 지난달 30일 구운동 주민센터 주방에서 관내 독거어르신들께 드릴 반찬을 만들어 배달했다고 2일 밝혔다. 바르게살기위원회의 음식나눔사업은 매월 넷째 주 목요일로 관내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반찬 4~5종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배달하고 있다. 이날은 콩나물, 양파무침, 미역국 등을 제공했다. 회원들은 구운동 사회복지 공무원과 함께 관내 독거노인 24분께 음식을 전달하고, 연이은 태풍에 침수피해는 없는지 안부인사를 전했다. 유재광 바르게살기위원장은 “폭우를 동반한 연이은 태풍에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더욱 힘든 생활을 하고 계셔 번덕스러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 회원들이 정성껏 만든 반찬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수원일보, 2012년 9월 3일〉

수원일보

구운동주민센터 '사랑의 국수데이'



구운동 통장협의회에서 준비한 국수

권선구 구운동 통장협의회(회장 박현하)는 27일 선경아파트경로당에서 100여 분의 어르신들에게 정성스럽게 만든 국수를 대접하는 '사랑의 국수데이'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구운동 통장협의회에서 아침부터 따끈한 국물을 우려내어 맛있는 잔치국수와 곁절이로 준비하였으며, 계절과일과 음료를 함께 내놓았다. 구운동에서는 관내 이마트서수원점과 발해항공여행사가 국수 등 물품을 후원하고 구운동 통장협의회에서 식사준비 등의 자원봉사를 하여 매월 1회씩 경로당을 순회하며 65세 이상 노인 및 경로당 회원을 대상으로 사랑의 '음식나눔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원일보, 2011년 10월 31일〉

수원일보

구운동의 얼굴 없는 기부천사

권선구(구청장 김형복) 구운동에서는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주민의 선행이 알려져 훈훈한 연말을 만들고 있다. 20일 오후 3시경 구운동주민센터 사회복지 창구에 40대 후반의 남자가 “몇 년간 저금통에 모았던 돈인데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써 달라.”며 돈이 든 소퐁백을 전했다. 담당자가 인적사항을 알려 달라고 수차례 부탁했으나 한사코 밝히기를 꺼려해 신원을 알 수가 없었다. 주민센터 직원이 소퐁백의 돈을 확인해 보니 10만 원권 수표 3매, 5만 원권 12매, 1만 원권 68매를 비롯해 지폐와 동전 등 총 2,039,460원에 달했다. 구운동은 이날 접수된 기부금을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써 달라는 기부자의 뜻을 따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기탁해 관내 학생이 있는 저소득층 가정 4가구에 약 50만 원씩 전달할 예정이다.

〈『수원일보』, 2010년 12월 24일〉

수원일보

구운동 삼환아파트 “경로잔치 열었어요”

입주자대표회, 노인 400명 초청



구운동 삼환아파트 경로잔치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삼환아파트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아 12일 입주자대표회(회장 김종후) 주관으로, 65세 이상 노인 400명을 대상으로 경로잔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아파트에서 이벤트사에 자선바자회를 개최토록 허락해 37개 점포가 아파트에서 장사를 하고 수익금의 일부를 노인들에게 음식대접과 봉사를 제공하도록 해 개최됐다. 동 관계자는 “올해는 선거로 경로잔치를 개최하지 못해 아쉬움이 많았는데 입주자대표회에서 경로잔치를 추진해 웃어른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경묘효친 분위기 조성해 활기찬 노인문화 정착에 일조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삼환아파트에서는 4년 전부터 5월이면 어버이날을 맞아 해마다 경로잔치를 개최해 왔다. 삼환아파트 노인들만이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아파트 노인들도 동참해 구운동 제2의 경로잔치 행사로 인식이 될 만큼 큰 행사로 자리 잡았다.

〈『수원일보』, 2010년 5월 13일〉



〈표 5〉 서수원권 개발 관련 신문기사

제목	언론사	일자
서·북수원 교통 동맥, 서수원권 발전 건인	수원일보	2008. 08. 19.
신분당선 구운동 역사 신축 정부에 건의	수원일보	2008. 12. 04.
신분당선에 수원 '구운역' 설치 추진	수원일보	2011. 07. 11.
수원시 "신분당선 연장선 2단계 전구간 지하화"…… 국토부에 요구키로	뉴스1	2012. 05. 02.
교통여건 '쑥쑥' …… 서수원 일대 1등 주거지로 부상	한국경제TV	2012. 06. 01.
서수원, 교통여건 호재로 관심 'UP'	건설타임즈	2012. 07. 12.

중앙일보

교통망 확충, 대형 주거타운 조성 ……

신분당선 연장, 봉담~과천 고속도로 등 서울 접근성 향상

최근 서수원 지역의 도로 교통망이 확충되고 전철이 잇따라 개통될 예정으로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호매실지구 개발에 따라 주거환경이 크게 좋아져 서수원 일대가 수원의 중심주거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전까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장안구를 중심으로 한 서수원 일대는 영통구, 팔달구 등 동수원보다도 교통여건이 불편하다는 인식이 많아 수요자들이 주택구입을 꺼려왔다. 한동안 교통환경을 개발하는 축이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의 상황이 반전되고 있다. 교통환경이 동수원 못지않게 좋아진데다 분양가도 저렴한 단지들이 속속 나오면서 서수원 일대로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 현재 서수원은 승용차를 이용하여 서울 강남권까지 출퇴근 시간이 30분대에 이를 정도로 접근성이 좋아졌다. 서수원 일대에서 서울이나 수도권 다른 지역으로 다니려면 과천~봉담 간 고속도로를 타거나, 영동고속도로와 42번 국도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과천~봉담 간 고속도로는 2009년 하반기 개통한 봉담~평택고속도로와 봉담~동탄 고속도로와 이어짐으로써 서수원 주택수요자들이 서수원IC를 이용해 수도권 남부와 동부지역으로 다니기가 한층 쉬워졌다. 대중교통도 편리하다. 전철의 경우 서수원 일대는 현재 1호선 수원역, 화서역이 가까워 이용이 편리하고 올해부터 신분당선 연장선 건설이 예정돼 있어 교통여건이 한층 나아진다. 1단계 연장 정자~광교(12.8km) 구간에 이어 2단계 연장 광교~호매실 구간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할 예정이다. 신분당선 2단계 연장 구간에는 서수원에 있는 화서역, 호매실역이 신설될 예정이다. 또 수원~인천간 복선전철 건설이 추진되고 있고 수원~광명 간 민자도로 개통도 예정돼 있다. 이런 도로와 전철 건설계획이 마무리되면 서수원 일대에서 서울, 인천 등지로 쉽게 다닐 뿐 아니라 인근 도시 접근도 한층 좋아지게 마련이다. ……

〈중앙일보, 2012년 6월 15일〉

1998년에 수립된 『2016년 수원 도시기본계획』에서 서수원 지역의 개발 기본방향은 유통물류단지, 첨단기술 산업단지, 서부터미널, 농업 연구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산업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추진계획의 결과로 이 지역에는 농수산물 유통센터, 서수원점 이마트, 서수원버스터미널 등이 들어섰다.

신문기사에서는 서수원 지역이 교통망의 확충과 대형 유통센터들의 유치로 주거 환경이 크게 좋아졌으며,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주거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경인일보

서수원 개발바람 미래도시 '날갯짓'

평택·광명 연결 고속도 신설 교통요지로 …… 황구지천 공원조성

수원시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던 서수원 지역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과 복합상업시설 조성, 공원 신설, 하천정비사업 등으로 최적의 주거단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더욱이 내년 10월에는 서수원과 오산, 평택, 광명을 잇는 고속도로가 개통될 예정으로 주거는 물론 산업, 교통의 요충지로 대대적인 변신을 준비하고 있다. 11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수원 호매실지구 택지개발에 이어 권선지구 도시개발, 수원산업3단지 조성, 서수원과 평택, 광명을 잇는 고속도로 신설 등 서수원을 중심으로 한 굵직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수원이 시작되는 수원역 서쪽 권선구 서둔동 2%의 3일대 27만여 ㎡를 쇼핑몰 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역세권2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을 고시하고, 이 지역을 쇼핑시설과 영화관, 테마파크 등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결합한 복합 쇼핑몰로 개발할 예정이다. 또 사업비 1조 1천억 원이 투입되는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총연장 38.5km, 왕복 4~6차로)가 2011년 10월 개통될 예정이며,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12.04km 구간)를 기존 왕복 4차로에서 6~8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도 내년부터 민간제안 사업으로 추진된다. 민자사업 협상이 진행 중인 서수원~광명 고속도로(26.3km, 왕복 4~6차로) 사업마저 확정될 경우 서수원은 서울과 경기 서남부를 연결하는 거점지역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 3월부터 491억 원을 들여 권선구 고색동 645 일대 7만 5천 387㎡ 규모로 조성되는 수원산업3단지와 인접한 오목천동 곳집말지구 22만 4천 373㎡에는 단독·공동 주택 2천 157가구가 들어서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로 떠오르고 있다. 또 곳집말지구와 산업3단지 사이를 관통하는 황구지천의 생태하천 조성 등 공원과 개발 사업으로 수변공원 조성 과 수영장, 자전거도로, 산책로, 체합학습장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서수원권 전체가 주거, 산업, 교통, 여가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는 최적의 미래형 신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

(『경인일보』, 2010년 5월 12일)





삼환

6

6

1. 15동에 1,680세대가 이사 오다
2. 삼환아파트 공동체운동, 우리 아파트는 우리가 관리한다

02 | Since 1992 삼환아파트

1. 15동에 1,680세대가 이사 오다

구운동은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건설되기 전인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었고,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 활동이 중심인 지역이었다. 1990년대 초반 삼환아파트에서 화서역까지의 인근 지역은 대부분이 논이거나 포도와 배를 재배하는 밭 농경지였다.

1990년대 초반 전형적인 농촌이었던 구운동에 변화가 생겼다. 이러한 결정적인 계기는 아파트단지의 건설과 급격한 인구 유입이었다. 1989년 선경아파트가 들어선 이래, 동북쪽을 중심으로 1990년 강남아파트, 1992년 삼환아파트, 1999년 코오롱아파트·성원아파트 등이 속속 건립되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각종 상업 및 서비스 시설, 공공기관 등이 들어서면서 기능적으로나 경관적으로 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또한 1970년대에 들어선 성균관대학교와 인접해 있어 학생들을 상대로 한 상권이 나름대로 형성되어 있고, 최근 대규모 유통할인점 이마트와 농수산물센터, 서수원버스터미널 등이 설립되어 상권이 활성화되는 기폭제가 되었다. 이렇듯 전통적인 농촌사회였던 구운동은 1990년대 대규모의 아파트단지가 조성되면서 도시화를 수용하게 되었다.

1992년 건설 당시 삼환아파트는 15동 1,680세대로 큰 규모를 자랑하였다. 삼환아





2000년대 초반 삼환아파트 주변 경관

파트는 주차장과 놀이터, 승강기를 갖춘 현대식 건물이었기 때문에 분양가가 일반 아파트의 2배인 평당 400만 원 정도로 비싼 편이었다. 이곳에 입주하면 주변 사람들로 부터 부러움을 샀을 정도였다. 당시 삼환아파트의 15동만이 섬을 이룬 채 우뚝 솟아 있었다. 삼환아파트 입주시기부터 거주하고 있는 유오목(여, 83세)은 당시 삼환아파트의 모습을 ‘독도’라고 표현하였다.

20년 전에는 삼환아파트 주변은 논이었어. 여기서 화서역까지 걸어갈 때는 옆으로 다논이었어. 이쪽도 다 없었어요. 여기(현, 코오롱 아파트 주변)도 포도밭이었어. 친구들이 서울에서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 화서역으로 걸어왔는데, 시골 같다고 했어요. 근데 10년 뒤에 왔을 때는 너무 많이 바뀌어서 못 찾아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 다 아파트가 생겼잖아요. <이규자, 여, 49세>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삼환아파트의 시설이 노후화하고, 주변에 신식아파트가 생겨나면서 자연스럽게 구식아파트로 인식되었다. 물론, 평당 가격도 신식아파트에 비해 낮게 책정되고 있다.

옛날에는 입주 당시 여기 들어온다고 하면 돈 많은 사람 들어온다고 했고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시청, 도청과 같이 요직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땐 수원에서 삼환아파트 알아줬어요. 보통 4-5층 아파트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재건축소리도 나고 오래됐어요. 그래서 집값이 다른 데 비해 낮아요. <삼환아파트 상가번영회장, 남, 63세>

삼환아파트는 (주)삼환까무가 1992년에 세웠다. 대지면적은 총 2만 458평이고 총 15동에 1,680세대 7,000여 주민이 입주하였다. 아파트단지 내 부대시설로는 관리사무실 1층에 위치해 있는 노인정 1개소, 휴게소 4개소, 어린이놀이터 총 4개소, 테니스장 2면, 기타 주차장 등이 있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테니스장을 없애고 주차장으로 변경하였다.





삼환아파트

〈표 1〉 구운동 삼환아파트 현황

구분		내용		
단지정보	단지명칭	구운 삼환아파트		
	단지주소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462번지		
	대지면적	6만 7,632.61㎡	건축면적	1만 2,518.18㎡(연면적 16만 3,175.76㎡)
	구조방식	PC 및 철근콘크리트	건폐율	18.51%(용적률 228.66%)
	시행회사	삼환끼뮤		
	시공회사	삼환끼뮤		
	사업승인일	1989.10.17.	사업준공일	1차 - 1991. 4. 16. 2차 - 1992. 3. 27.
상세정보	총세대수	1,680세대	층수	15층
	동수	15동		
	주차대수	1,485대	난방방식	지역난방
	평형/세대수	22평 - 300, 26평 - 60, 28평 - 600, 32평 - 600, 39평 - 120		

출처 : 구운삼환아파트 주민자치회 제공.

삼환아파트는 건설된 지 20년이 넘었는데, 현재 놀이터, 엘리베이터, 상가, 아파트 벽면의 벗겨진 페인트 자국과 빛바랜 건물들이 오랜 세월의 흔적을 보여 주고 있다. 1992년 당시 신식아파트로서의 삼환아파트 위용은 20년 사이에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삼환아파트’는 ‘돈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갈 곳 없는 사람들’ 이 머무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 몇몇 주민들은 아파트가 낡았기 때문에 광명시와 같은 신도시에 있는 새 아파트로 이사 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듯 삼환아파트는 오래 정착해서 사는 곳이기보다 조건이 갖추어지면 더 좋은 환경과 편의시설을 찾아 떠날 수 있는 곳으로 변하였다.



삼환아파트 조감도



하지만 주민들은 삼환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에 대해 “교통이 좋다.” 또는 “교육환경이 좋다.” 그리고 “시설이 깨끗하다.”라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

삼환아파트 살기에는 은근히 괜찮아요. 좌석버스가 많이 다녀요. 서울 쪽으로. 강남역, 사당역 은근히 많이 다녀요. 서울역 가는 것도 생겼어요. 여기가 수원 쪽에서도 멀지만 서울이나 화성 등 인근 지역에 위치한 회사로 나가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좌석버스가 많이 생겨서. 아파트 주변으로 초·중·고 있죠. 성균관대 있죠. 우리 애는 못 들어갔지만 실제로 여기 사는 학생들도 많이 입학하나 봐요. 교육환경도 좋고. 화서역이랑 가까워서 교통도 좋아요. <이명재, 남, 49세>

어릴 적에는 주택에서 살았는데 결혼하고 아파트에 처음 살았어요. 살다 보니깐 계속 아파트로 이사를 다니는데, 분리수거라든지, 청소, 교통, 내부 시설들이 주택보다 좋아요. 깨끗하고, 편하니까. 아직은. 좀 더 나이 들면 모르겠지만 저는 아파트에 살아서 아파트가 좋더라고요. 남편도 그렇게 동의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 재개발되길 바라는 마음에 마음대로 나가지도 못해요. <이규자, 여, 49세>

아파트의 건물 자체는 오래되어도 교통이 편리하고, 교육환경과 상권이 발달되면서 살기 편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생각이다.

수원일보

구운동 삼환, 재건축 준비 대단지 강점

구운동 삼환아파트는 1,680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로서 현재 재건축 준비 중에 있다. 또한 평형대가 다양하고 근처에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화서역과 일월저수지 및 서호공원 등이 있어 주거지역으로서는 최적이다.

삼환아파트는 22평형, 26평형, 28평형, 32평형, 39평형으로 매매가는 약 1억4,000만 원부터 3억 2,000만 원 사이에 추천해 드리고 싶은 다양한 물건들이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수원일보, 2009년 9월 11일>



삼한아파트 주변도



삼한아파트 단지 전경



삼환유치원



일월초등학교



삼환아파트상가



삼환아파트 '열린시장'

한편, 주민들은 삼환아파트가 주택재개발지역으로 선정되길 기대하고 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재개발법」을 근거로 하여 불량주택 및 공공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즉, 도시 내에 낡고 오래된 주택이 밀집되어 주거생활이 불편하고, 도로와 상하수도 시설이 불량한 지역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도로·상하수도·공원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낡은 주택은 헐고 새로 건축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계획사업이다.

아직까지 삼환아파트의 주택재개발지역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명시된 바는 없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아파트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 재개발이 되길 바라고 있다. 그래서 그들의 대부분은 자녀가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혹은 노후를 이곳에서 보내고 싶어 한다.

2. 삼환아파트 공동체운동, 우리 아파트는 우리가 관리한다

삼환아파트의 공동체운동은 아파트단지라는 지역적 공간을 매개로 하여 전개된 운동이다. 1997년 아파트 관리비와 관련한 비리가 노출되면서 이의 부당성을 인식한 주민들이 회계사와 설계사 같은 전문가들을 포함한 조직을 구성하였다. 이들을 주축으로 면밀한 조사 과정을 거친 후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대응하여 전체 아파트 운영비 가운데 20%를 절감하였고, 이를 계기로 아파트 관리가 투명해졌다. 아파트 관리비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작한 운동을 통해 아파트 주민들은 이전보다 아파트와 주변 이웃에 대해 관심을 더 갖게 되었고, 이는 열린문화교실의 운영이라는 지속적인 공동체 활동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신문기사들을 보면 삼환아파트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그들의 생활 영역에서 하차보수나 관리비 비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했음을 알 수 있다.

아파트공동체운동 수원 구운동 삼환아파트

“관리비 - 私교육비가 줄어요.”

회계사-설계사-전직 교수 등 전문가들로 동(棟)대표 구성 1년 관리비 1억 원 절감
한문-회화 무료 강좌도

“아무리 난방연료를 버커C유에서 경유로 바뀌도 그렇지, 32평짜리 아파트의 한 달 관리비가 갑자기 10만 원이 더 나오다니 ……” 지난 2월 경기 수원시 구운동삼환아파트 15개동 1천 6백 80가구 7천여 주민들은 1월 아파트 관리비 명세서를 받아 보고 깜짝 놀랐다. 주민들은 즉각 모임을 갖고 4월부터 일할 주민대표 전원을 새 인물들로 갈아치웠다. 그 후 석 달째인 6월



“1년 아파트 총관리비를 1억 원 가까이 절감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다.”고 관리실 직원은 말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청소용역의 경우 작년에 평당 1백 92원에 수의계약했던 것을 6월부터 평당 1백 45원에 새로 계약했다. 난방비는 1당 공장도가 3백 20원 정도 하는 경유를 사용한 뒤 현금으로 13원 80전 싸게 나온다. 청소비는 1년에 약 2천 7백만 원, 경유는 1년에 약 5천여 만 원을 절감하게 되는 셈. 소독비도 평당 50원에서 40원으로 내려 계약할 예정이다. 1년에 6백만 원이 또 절감된다. 엘리베이터(48대)관리비는 1대당 한 달 7만 5천 원에서 훨씬 싼값에 계약할 수 있다. 건물 도색도 페인트를 구입한 후 인부를 고용해서 할 예정이다. 용역업체에 맡기는 것에 비해 반값이면 충분하다는 것. 절감의 비결은 한 마디로 ‘투명관리’, 동대표를 보일러전문가, 회계사, 세무사, 설계사, 주택공사직원 등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전문가들로 구성한 것이 주요했다. 아파트 관리규약도 개정했다. 주민대표 직선, 각종 공사나 물자구입의 공개경쟁입찰 원칙 등이 바로 그것. 언제든지 주민과반수의 찬성으로 동대표를 해임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도 도입했다. 부녀회 등이 수익사업을 통해 버는 모든 잡수입은 특별수선충당금으로 넣도록 했다. 반상회도 자치회로 바꿨다. 관리사무소의 넓은 공간은 ‘열린문화교실’로 활용한다. 5월 19일부터 초등학생과 주부들을 주 대상으로 개강한 이 교실에는 8백여 명이 몰려들었다. 초등학생 강좌로는 한자·미술·영어·장기·비독, 주부들 강좌로는 단전호흡·서예·한국무용·사물놀이·불교기초교리 등이 있다. 이 중 영어와 단전호흡이 최고 인기. 전부 무료다. 강사진은 모두 아파트 주민들 중 자원봉사자들. 한자는 전직 교수, 영어는 이화여대 영문과 출신의 전문 학원 회화강사 등 모두 그 방면에 정쟁한 전문가들이다. 앞으로는 중·고생들의 자습을 위해 아예 ‘열린 문화교실’을 24시간 개방할 예정이다. 주부 최병순(43) 씨는 “초등학생을 둔 가정의 경우 사교육비가 수십만 원까지 절약된다.”고 말했다. 입주자대표회의 박천우(44, 장안전문대 교수) 회장은 “흔히 ‘눈먼 돈’이라고까지 불리는 아파트관리비의 누수현상을 막는 것을 비롯해 아파트 공동체운동은 주민에게 많은 이득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일 잘하는’ 주민대표들의 관공비는 얼마일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한 달에 30만 원, 관리소장이 25만 원, 동대표가 한 달에 한 번 회의 때 받는 2만 원이 전부다.

(“동아일보”, 1997년 6월 12일)



아파트관리비 '눈먼 돈' 인가 곳곳 새나가

수원 '삼환' 주민 감시단 구성, 정화조 청소 등 현장 확인, 열 달 새 한 가구 25만 원 절감
'눈먼 돈을 찾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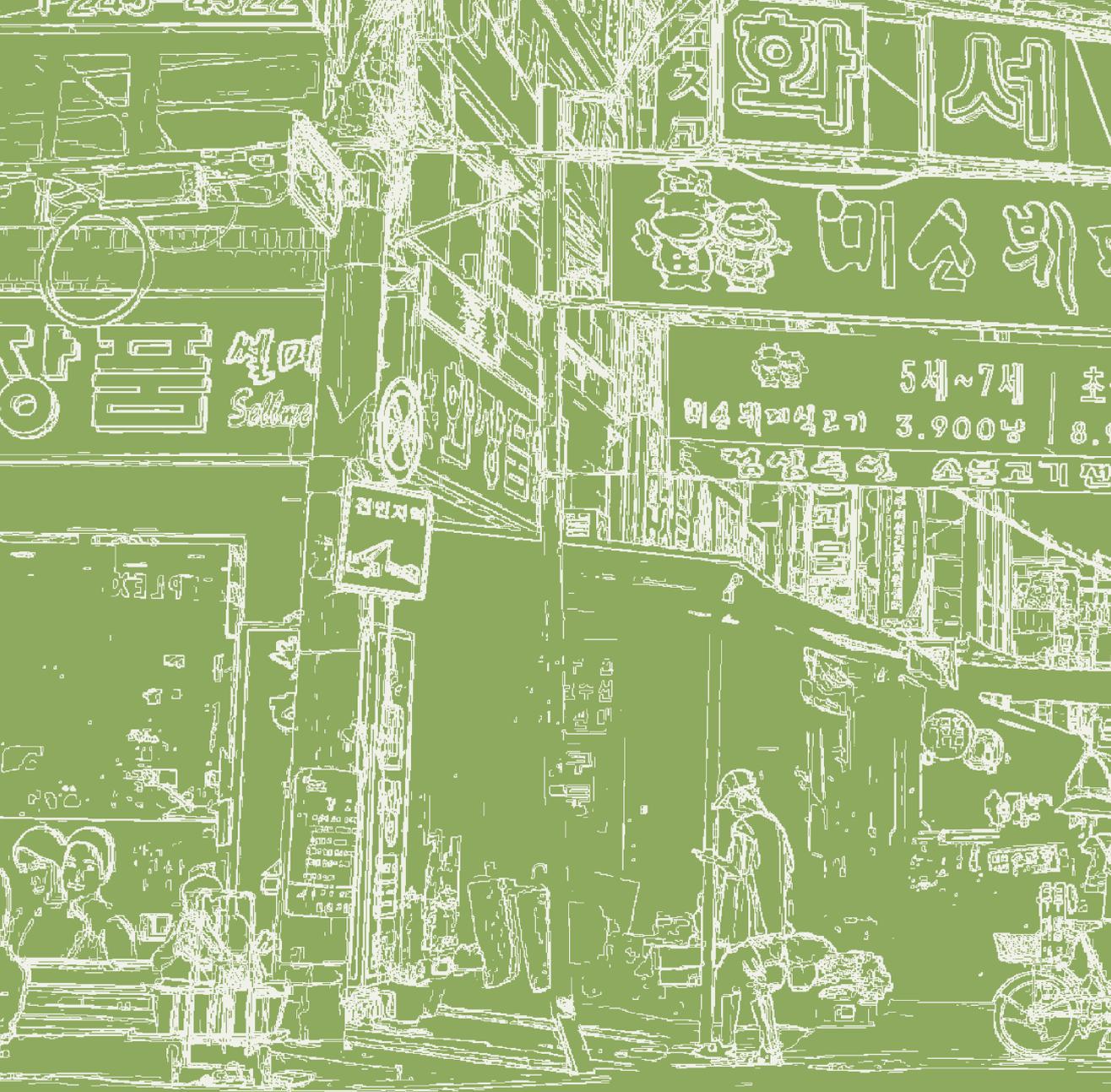
주민들의 '투명관리' 가 한 아파트 단지의 연간 관리비를 4억 원 이상 줄였다. 경기 수원시 구운동 삼환아파트. 지난해 4월부터 16일 현재까지 관리비가 96년에 비해 총 4억 2천만 원 절감됐다. 이 기간 중 1천 6백 80가구가 가구당 25만 원 정도 관리비를 적게 낸 셈. 아파트관리에 대한 주민의 철저감시가 빛난 대목은 '정화조청소', 96년엔 1백 2대의 정화조차가 다녀갔다. 지난해부터 동대표들은 정화조차가 나갈 때마다 꼭 채워 나가지 않음이 계기관을 확인했다. 그 결과 정화조차는 31대로 충분했고 2백 84만 원이 절약됐다. 난방용 경유는 매달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에서 현금구매해 1당 공장도 가격보다 최고 58원까지 싸게 샀다. 사용량도 줄여 2억 8천만 원 절약. 청소 소독 승강기관리 등 용역업체들과 계약할 때마다 공개입찰을 거쳤다. 화재보험은 전년도에 비해 30% 적은 금액으로 계약했다. 또 곤돌라이용비, 주말시장운영비 등 접수율은 모두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했다. 지난해 2월 난방비 인상으로 관리비가 급증한 것을 이상히 여긴 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새로 구성, 관리비 내용을 내 집 살림처럼 꼼꼼히 점검해 온 지 1년. 이전 다른 아파트 단지에 서도 절감 비결을 종종 물어 온다. 입주자대표회의 박천우(朴千佑·45. 장안전문대 교수) 회장은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지 않고 정직하게 운영한 결과"라며 "관리비를 도둑맞고 있지 않은지 주민들이 따지고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1998년 2월 18일)

"아파트관리비 횡령 만연" - 경찰청 단속결과 많아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하거나 아파트 보수 공사입찰과정에서 리베이트를 행하는 비리가 아파트 관리 비리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비리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9월 지난 3월 8일부터 아파트 관리 비리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이날까지 관련자들이 형사 입건된 아파트 관리 비리 526건 중 관리비 횡령 사례가 142건(27%)으로 가장 많고, 공사 입찰 비리가 89건(17%)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전기 등 시설보수비 49건(9%), 청소소독 용역비 47건(9%), 보험가입 관련 40건(8%), 승강기 보수점검비 19건(4%), 오물수거비 17건(3%), 유류·가스요금 관련 17건(3%), 기타 106건 등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들어온 제보 1천 400건 중에서도 관리비 횡령(295건), 공사입찰 관련(301건) 제보가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아파트 관리 비리 중 가장 잦은 비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아파트 관리 비리 혐의로 형사입건된 사람은 1천 387명이며, 이 중 61명이 구속됐고, 1천 326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일부 아파트들은 아파트 용역계약 체결과정의 공개경쟁입찰 도입, 관리비 내역서 전산화제 도입 등 투명한 아파트 관리로 아파트 관리비를 절감한 사례들도 있었다. 15개동 1천 680세대가 사는 경기 수원시 삼환아파트는 관리비 과다징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동 대표들을 전원 교체, 주민자치회의를 구성한 후 아파트 관리용역계약 체결 시 인근 아파트 관리실태와 비교해 최저가 공개경쟁입찰로 97년 4월~99년 3월 2년 동안 6억 7천 866만 원을 절감했다. 또 27개동 1천 688세대가 거주하는 경기 성남시 건영아파트는 주민대표를 선발, 각종 아파트 공사계약 또는 물품구입 시 계약단계에서부터 투명한 절차로 진행하고 주민 대표자치회의의 보고절차를 거치는 방식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세대당 평균 34만 원의 관리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연합뉴스』, 1999년 4월 9일)





2

지역 생활권과 아파트 공간

아파트단지에서 공공공간은 이웃과 함께 쓰는 장소를 말한다. 복도식 형태의 아파트에서 복도는 공공공간이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어 놓으면 지나가는 같은 층 사람들과 마주칠 수 있다. 아파트가 주거문화로 정착하게 되면서 거주자의 편의와 분위기에 따라 주거공간이 변화되고 있다.



1. 교통
2. 교육
3. 문화시설
4. 상권

01 | 삼환아파트 지역 생활권

1. 교통

삼환아파트는 정문 앞의 버스정류장에 강남, 사당, 광화문 등 서울 도심권으로 이동하는 좌석버스가 다니고 있어 인근 도시와의 접근성이 좋다. 또한 도보로 15분 정도 거리에는 전철역(1호선 화서역)이 위치하고 있어 편리한 교통조건을 갖추고

〈표 1〉 삼환아파트 일대 교통편

구분	노선번호	기점	종점	배차간격
일반버스	3	영통회차장	삼환아파트	9분
	2	영통지구	농수산물유통센터	13분
	92	곡반정동	동원고	7분
	92-1	신영동	성대역	10분
	36	복수원공영차고지	동원고등학교	14분
	37	수원(경기대)	한국민속촌	18분
	55	복수원공영차고지	오목천동	25분
좌석버스	1005	외대	광화문	15분
	1009	수원대	잠실역	20~30분
	7780	고색동	사당역	15~30분
	3003	수원여대	강남역	20~30분
지하철	전철 1호선	화서역 도보 15분 거리		





심원아파트 정문 앞 버스정류장



수원과 사당역 간을 운행하는 광역버스 7780번



삼환아파트에서 도보로 1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수도권 전철 1호선 화서역

있다. 삼환아파트 주민 중에는 편리한 교통으로 서울과 화성 등 수원 이외의 지역으로 출퇴근을 하는 이들이 많다. 좌석버스나 전철을 이용하여 서울까지 1~2시간이면 충분히 출퇴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통 조건을 바탕으로 삼환아파트 주민들의 주요 생활권은 수원 이외의 도심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표 2〉 수원시에서 주요 도시 간 거리

거리(km)	주요 도시
10~20	안양시, 과천시, 안산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20~30	광명시, 성남시, 시흥시, 광주시
30~40	서울시, 인천시, 구리시, 하남시, 평택시, 안성시



삼환유치원

2. 교육

삼환아파트 근처에는 삼환유치원을 포함하여 3군데의 사립유치원과 아파트단지 내 5군데의 어린이집이 있다. 삼환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는 아파트 단지 1층에 위치한 가정형 어린이집에 주로 자녀를 맡기는데, 시간의 제약이 없어 편리하고 아파트 주민이 운영하여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삼환아파트 4동 앞에 위치한 삼환유치원은 1991년 3월에 설립되었고 7세반, 6세반, 5세반, 종일반으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다. 삼환유치원은 탐동과 같은 인근 지역

의 유아들도 입학하지만 삼환아파트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정의 유아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맞벌이 부부는 대체로 출근 시간에 맞춰 아침 8시에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오후 5시에 데리러 간다.

초등학교는 일월초등학교, 구운초등학교, 정천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는 율현중학교, 서호중학교, 구운중학교 등이 있다. 고등학교는 친천고등학교, 대평고등학교, 숙지고등학교 등이 있으며, 대학교는 성균관대자연과학 캠퍼스가 있다.

이 가운데 일월초등학교는 1999년에 설립되었고, 2000년에 16학급으로 편성되었다. 삼환아파트와 도보로 10분 거리로 가깝다. 학급수는 1학년 4학급, 2학년 5학급, 3학년 5학급, 4학년 5학급, 5학년 5학급, 6학년 5학급으로 전체 929명이다. 삼환아파트 주민의 자녀들은 대부분 일월초등학교로 진학한다. 올해 2012년부터 특성화 프로그램을 정착시켜 방과 후 프로그램, 토요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구운중학교는 1989년에 설립되어 1993년에 제1회 졸업생을 맞이하였다. 구운중학교는 삼환아파트에서 도보로 10~20분 정도 걸리며, 2012년 현재 1학년 9학급, 2학년 9학급, 3학년 10학급으로 전체 1,068명이 재학 중이다. 2012학년도에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창의 지성교육으로 미래 인재 육성'이라는 비전을 설정하여 미래를 대비하고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다양하고 참신한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삼환아파트 가정형 어린이집





일월초등학교



일월초등학교 학교 숲

3. 문화시설

1997년 5월 삼환아파트에서는 주민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관리사무실 2층 공간에 ‘열린문화교실’을 개설하였다. 입주 당시 주민들을 통해, 초창기에 운영했던 열린문화교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다.

〈표 3〉 1997년 삼환아파트 열린문화교실 프로그램

오전				오후		
요일	대상	교육내용	시간	대상	교육내용	시간
월	주민	꽃꽂이 장구	10~11시 11~12시	어린이	한자교실	2~3시
				어린이(2학년)	아동미술	3~4시
				어린이(4~6학년)	논술	4~5시
				어린이(1~2학년)	영어	5~6시
				어린이(3~5학년)		6~7시
화	주민	단전호흡A	9~10시	어린이	아동미술	2~3시
				어린이	장기	3~4시
		단전호흡B	10~11시	어린이(1~2학년)	영어	4~5시
				어린이(3~5학년)		5~6시
수	주민	장구	11~12시	주민	서예	2~4시 30분
				중고등학생	공부방	8~12시
목	주민	단전호흡A	9~10시	어린이	한자교실	2~3시
		단전호흡B	10~11시	야학(4~6학년)	한자	7~8시
금	주민	종이접기	10~12시	어린이	아동미술	2~3시
				유치부(2)		4~5시
토	유치부	아동미술	10~11시	어린이(2)		1~2시

출처 : 전홍규, 「수원 삼환아파트의 주민공동체 운동」, 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 1997.

기존에 관리사무소가 위치하던 넓은 2층 방을 주민들의 공동체 공간으로 활용하여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장으로 운영하였다. 오전에는 주부반, 오후와 저녁에는 아이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였고 프로그램은 단전호흡, 꽃꽂이, 노래교실, 영어회화, 아동미술 등 다양하였다. ‘열린문화교실’의 특성이자 장점은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게 주민들이 강사로 자원봉사하여 운영한 점이다. 처음 문을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문화역사탐방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주말가족프로그램

열렸을 당시에는 강습비가 무료였으나 등록인원이 너무 많고 등록자 중 결석자들이 비교적 많아 진도 진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2기생부터는 회비를 받게 되었다. 강좌는 3개월 과정이고 회비는 1만 원으로 정하였다. 이규자(여, 1963년생)에 따르면 초창기에는 주민들의 호응이 워낙 좋아서 방학기간 중에도 방학특강을 개설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주민들은 차츰 아파트단지를 자신들의 마을로 받아들이며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등 공동체적 정체성을 형성해 갔다.

그러나 구운동 주민자치센터와 수원 AK PLAZA 문화아카데미에서 저렴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면서 열린문화교실의 수강생들이 줄어들게 되어 현재는 일 년에 두 번 관리사무소 2층에서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복지 차원으로 요가수업만을 운영하고 있다.

삼환아파트 주변에 설치된 문화시설은 여성회관, 복지회관, 문화아카데미,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등이 있다. 문화시설에서는 강좌, 문화행사,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구운동에 위치한 문화시설은 다음과 같다.

□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 여성의 복지, 권익증진,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취업과 창업 지원과정, 자격증 취득과



서호노인복지관



수원 AK PLAZA

정, 외국어과정, 인문·교양과정, 건강·체육과정이 준비되어 있다.

□ 서호노인복지관 : 권선구 구운동 501번지에 위치하고, 2002년 개관하였다. 수원시 노인들에게 상담지원, 의료지원, 취미여가활동지원, 생활지원, 자활증진사업 등의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의 내재되어 있는 잠재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보람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수원 AK PLAZA 문화아카데미 : 수원 지역 특성에 맞는 500여 개의 다양한 문화 강좌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성인, 영유아, 어린이, 단기특강, 특별기획 등 분야 별로 서양화와 한국화, 뷰티스쿨, 아기미술/음악, 유아미술/음악, 어린이발표력/창의/인지, 어린이 예체능(음악), 성인시즌 일일특강, 임산부 일일특강, 이벤트강좌 등을 진행하고 있다.

□ 구운동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 : 주민자치센터는 지역공동체의 구심점으로서 주민과 행정 간의 가교 역할을 한다. 주민자치활동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구운동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통기타교실, 탁구교실, 컴퓨터교실(엑셀, 한글), 요가, 스포츠댄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 서수원지식정보도서관 : 서수원지식정보도서관은 2006년 3월 8일에 개관하여, 수원 시민을 위한 문헌정보 제공, 독서문화프로그램, 도서관체험교실, 동화구연 등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관

문화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관 : 농업과학관은 첨단 농업과학기술과 농경유물 및 새로운 영농자재 전시를 통하여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농업과학기술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과 소비자들에게 농업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시키며, 외국인 방문자들에게 우리나라 농업 현황과 우수성을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농업과학기술 종합 전시 홍보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시 구성은 농업역사실, 현대농업실, 녹색기술관, 기획전시실로 구분

되어 있다.

4. 상권

삼환아파트 주변에는 이마트, 화서시장, 팔달문시장, 아파트상가, 아파트 내 열린시장 등의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 삼환아파트를 중심으로 소비가 이루어지는 상권을 권역별로 살펴볼 수 있는데, 아파트 내부에 위치한 상권은 삼환아파트 상가 그리고 열린시장 등이 있고 외부에 위치한 상권은 이마트, 화서시장, 팔달문시장 등이 있다.

1) 아파트단지 내 상가

삼환아파트 입구에 위치한 상가는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들어섰다. 1992년 당시에는 주변에 상권이 없었고 유일하게 삼환아파트 상가만 있었다. 초창기에는 단지 내 상가만 있었기 때문에 운영이 잘되었다. 주민들이 직장에 출근을 하거나 특별히 쇼핑이나 외출을 할 경우가 아니면 아파트단지 밖을 나오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할



삼환아파트 상가



삼환아파트 상가 안내

정도였다고 한다.

초창기의 상가는 유사한 형태의 가게들의 입점을 제한하였다. 가게 간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상가번영회에서 고안한 방법이었는데, 현재는 별다른 제한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상가 1층에는 부동산업소만 5군데이다. 근래에 주민을 포함한 일반인들이 아파트 매매와 전세 동향에 관심이 많아진 결과이다.

아파트 상가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하 1층 전체는 한아름마트, 지상 1~2층은 부동산업소, 실내인테리어디자인업소, 베이커리가게, 분식점 등 생활물품을 판매하는 가게들이 들어서 있다. 상점은 1~2층에 주로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3~4층은 미술학원, 피아노, 태권도 등 보습학원 위주로 자리하고 있다.

상가에서 1층과 지하 1층은 유동인구가 많아 임대료가 비싸다. 특히, 지하 1층의 한아름마트는 주민뿐만 아니라, 3~4층에 위치한 학원의 학부모들이 많이 이용한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삼환아파트에 장이 열린다. 장은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농·특산물을 포함한 먹거리, 공산품, 의류 등을 판매하는 소규모 이동시장이다. 주민들과 상인들은 이 장을 '열린시장'이라 부른다. 삼환아파트 장은 아파트 5동에서부터 8동까지 가판대를 설치해 다양한 품목들





삼환아파트 5일장 '열린시장'



5일장에서 물건을 고르는 주민

을 판매한다. 여기에 모이는 상인들은 요일마다 경기권 내에 위치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돌아다니며 물건을 판매한다.

삼환아파트 열린시장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은 삼환아파트 상가 관리인의 입찰등록을 받아 임대료를 지불하고 장을 형성한다. 임대료는 한 달 단위 혹은 일 년 단위로 지불하는데, 한 달 단위는 주민들의 선호도가 낮은 제품들을 판매하여 한 달에 두세 번만 찾아와서 판매한다. 일 년 단위로 계약할 경우는 주민들의 선호도가 높고 판매율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제품들이다. 열린시장 농산물 판매자인 손형수에 따르면, 삼환아파트 상가 관리인의 경우는 자리를 선정하고 지목해 줘야 하기 때문에 단기보다는 장기계약을 선호하는 편이라 한다.

열린시장의 자리 선정은 판매물품에 따라 위치가 변하게 된다. 아파트 입구에는 먹거리와 의류 등을 배치하여 주민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물품으로 배치한다. 중간지점에는 공산품과 반찬류, 어패류 등을 배치하고 아파트 안쪽으로는 가장 잘 팔리는 농·특산물, 과일, 어류 등을 배치하고 있다. 물건을 구입하러 온 주민들이 안쪽까지 들어와 모두 구경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아무래도 (아파트) 앞쪽이 낫겠쥬. 그게 뭐냐면 우리 야채가게가 앞에 위치하고 공산품

을 안쪽에 넣으면 야채만 사고가 버리기 때문에 공산품은 장사가 안 돼요. 그러니깐 과일이나 채소같이 잘 팔리는 상품이 구석으로 들어가요. 야채가 아파트 맨 안쪽으로 들어와야 손님이 안쪽까지 들어와 구경하잖아요. 사람들이 야채와 생선을 많이 사 가기 때문에 …….(손형수, 40대 후반, 농산물 판매자, 2012년 2월 26일)

열린시장의 특성은 외부에서 판매되기 때문에 기후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비가 자주 오는 여름과 눈이 많이 오는 겨울에는 판매가 저조하고, 날씨가 좋은 봄·가을에 판매율이 높다. 손형수에 따르면 농산물의 경우는 다양한 나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봄, 가을에 장사가 잘된다고 한다. 물건의 가격은 시중보다 15~20% 싸고 판매자들의 인심 또한 후하다. 주민들도 열린시장을 방문하여 필요한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하고 있다.

그리고 아파트단지 중간에는 흰 장갑에 유니폼을 입고 요구르트를 판매하는 아주머니가 있다. 매일 아침 7시에 삼환아파트로 출근하여 오전 10시까지 아파트단지 내에 요구르트 배달을 하고 이후에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유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요구르트 아주머니는 항상 5동과 8동 사이에 수레를 두고 판매하기 때문에 유제품이 필요한 주민들이 사러 나온다. 항상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판매하고 있어 단골 고객을 확보하고 있으며, 주민들과 말동무가 되기도 한다.

2) 아파트 외부 상권

2005년에 개점한 이마트 서수원점은 삼환아파트에서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삼환아파트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걸리는 서수원점 이마트(경기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925번지)는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서수원시외버스터미널이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도 좋다. 다양하고 가격이 저렴한 물건을 제공하고 있어 삼환아파트 주민들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고 있다. 아파트 주변에 이마트가 들어서면서 아파트 내 상가의 판매율이 위축되기도 하였다.

한편, 아파트단지 주민들은 근방에 있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데, 근처에 위치한

화서시장과 대규모 점포를 가지고 있는 팔달문시장을 이용한다. 주민들은 그 이유로 친근하고 값이 저렴하다는 이점을 들었다. 수원시에는 총 20개의 전통시장(등록시장 3개, 인정시장 15개, 상점가 2개)이 있고, 현재 관광명소로도 활용하고 있다.

수원은 전통시장이 발달되었으며, 팔달문을 중심으로 9개 시장이 밀집하여 중심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그 밖의 전통시장도 접근성이 좋은 부도심에 위치하여 시민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또한 현대화된 시설로 쇼핑의 편리함을 제공하는 동시에 독특한 문화축제 개최로 시민 및 관광객에게 다양한 먹거리·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표 4〉 수원시 전통시장

시장	소재지	등록일	대지면적(m ²)	매장면적(m ²)	점포수(개)
지동시장	팔달구 지동 402	1966. 12. 28.	2,921	4,836	221
영동시장	팔달구 영동 8	1919. 01. 17.	6,656	8,689	300
역전시장	팔달구 매산로1가 57-1	1969. 12. 28.	7,762	20,090	609
팔달문시장	팔달구 팔달문2가 39	2005. 06. 16.	7,674	27,236	215
권선시장	권선구 권선동 1051	2005. 08. 19.	13,333	13,333	76
화서시장	팔달구 화서동 97-1	2005. 07. 21.	10,034	10,034	150
파장시장	장안구 파장동 580-11	2005. 06. 27.	3,500	3,500	114
못골종합시장	팔달구 지동 413	2005. 08. 19.	56,650	56,650	71
시민상가시장	팔달구 영동 10-18	2005. 06. 14.	11,049	14,705	54
남문로데오	팔달구 교동 3-11	2005. 07. 20.	49,875	49,875	224
남문패션1번가	팔달구 영동 43-5	2005. 06. 27.	27,235	27,235	198
구천동 공구상가	팔달구 구천동 46-23	2005. 09. 22.	11,379	2,851	96
구매탄시장	영통구 매탄동 172-98	2006. 05. 09.	2,500	1,695	54
미나리광시장	팔달구 지동 400-17	2006. 09. 19.	5,874	6,979	52
역전지하도상가	팔달구 매산로1가 17	2006. 12. 18.	2,642	3,720	143
조원시장	장안구 조원동 742-23	2008. 05. 22.	60,278	13,312	130
장안문 거북시장	장안구 영화동 273-5	2008. 11. 19.	22,803	35,037	230
정자시장	장안구 정자동 73-10	2009. 09. 29.	10,284	12,645	135
매산로테마거리 상점가	팔달구 매산로1가 42-2	2007. 10. 31.	20,010	55,723	212
가구거리 상점가	권선구 권선동 1029-1	2010. 01. 27.	29,131	20,393	53

출처 : 수원시청 홈페이지.

특히, 삼환아파트와 가까운 화서시장은 주변에 대형마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일 낮에는 장을 보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화서시장을 이용하는 주요 고객은 30대 이상의 주부들로, 명절음식을 준비하거나 저렴하고 신선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방문한다.

〈표 5〉 화서시장 주말 유동인구 현황

조사지점	화서시장 입구(수원시 화서1동)									
조사일자	2010년 10월 9일									
조사시간	남자					여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12~13시	32	25	41	35	62	35	32	65	48	62
18~19시	14	35	46	56	62	10	35	45	68	42

출처 : 소상공인진흥원 조사자료.

〈표 6〉 화서시장 주중 유동인구 현황

조사지점	화서시장 입구(수원시 화서1동)									
조사일자	2010년 10월 8일									
조사시간	남자					여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12~13시	4	9	14	15	36	6	21	48	51	61
18~19시	25	21	36	41	54	23	32	48	65	52

출처 : 소상공인진흥원 조사자료.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3가에 위치한 팔달문시장은 수원을 상업도시로 만들려던 정조의 노력이 배어 있어 ‘왕이 만든 시장’으로 불린다. 삼환아파트에서 팔달문시장까지는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 1시간 정도 걸리지만 215개의 다양한 점포가 있고, 상인과 고객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센터와 방송국이 있다. 쇼핑뿐만 아니라 문화센터에서 노래, 스포츠 댄스, 요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 방문객들이 늘어나고 있다.



화서시장 입구(김현락 제공)



화서시장통(김현락 제공)



야채가게



반찬가게



생선가게



곡물가게



약재가게(김현락 제공)



건어물가게



고추와 기름가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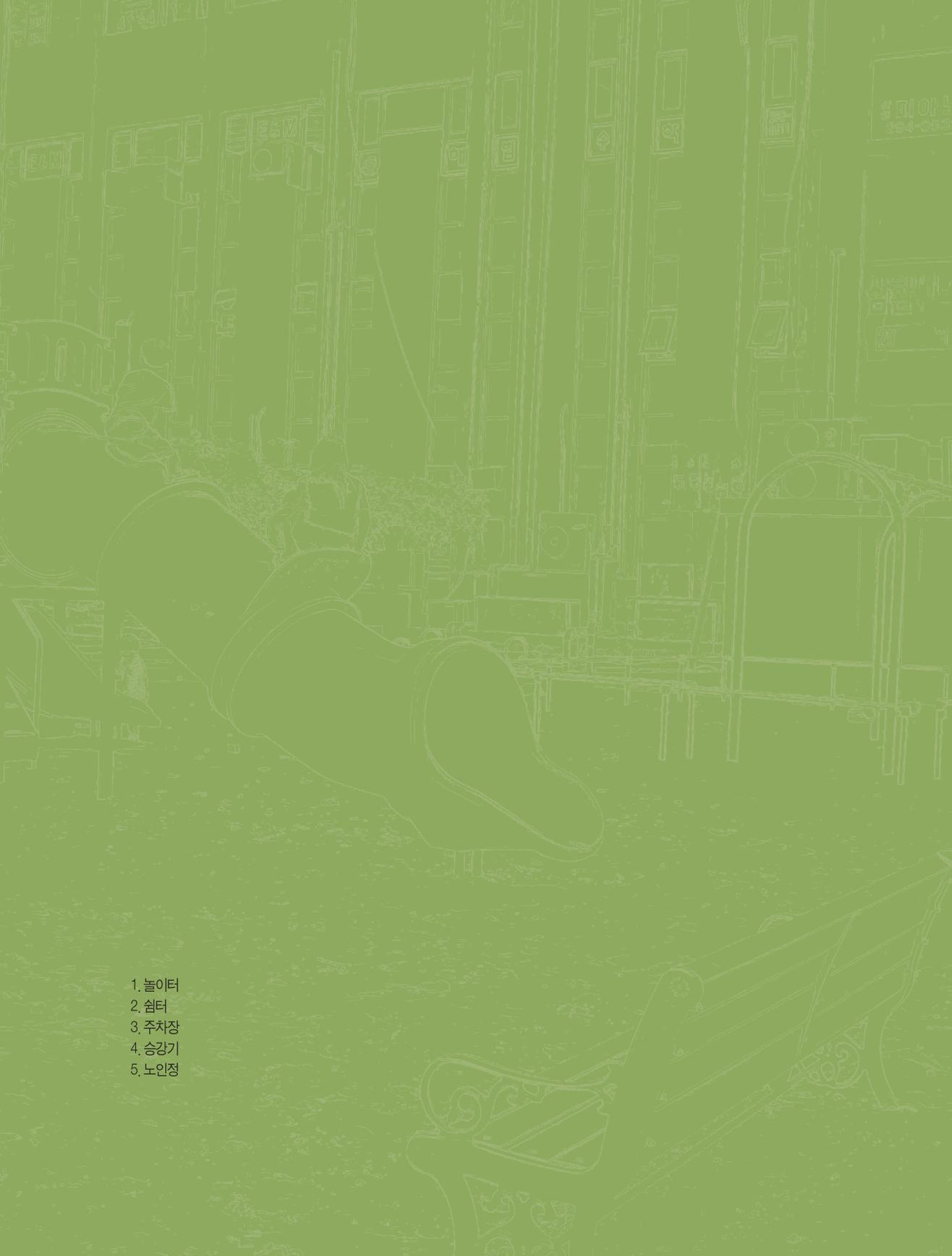
팥달문시장 (브렌드 스토리, 『왕이 만든 시장 - 수원 팥달문시장』, 2011)



팥달문시장 거리축제

특히, 이곳은 중소기업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연속 ‘특성화 시장’으로 선정한 전통시장이다. 특성화 시장은 지역의 문화, 관광자원 등과 연계하여 개별시장 고유의 특성을 발굴하는 개발사업이다. 전통시장도 단순히 물건을 판매하고 구입하는 장소가 아니라 브랜드를 갖추고 쇼핑과 관광까지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인 것이다. 그리고 매년 5월에 ‘팔달문 지역 시장거리축제’, 4월에 ‘팔달문시장 능수벚꽃축제’가 개최되어 방문객들에게 좋은 구경거리를 제공한다.





1. 놀이터
2. 쉼터
3. 주차장
4. 승강기
5. 노인정

02 | 삼환아파트 공공(公共)공간

아파트단지에서 공공공간은 이웃과 함께 쓰는 장소를 말한다. 복도식 형태의 아파트에서 복도는 공공공간이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어 놓으면 지나가는 같은 층 사람들과 마주칠 수 있다. 그리고 이곳에 자전거 및 화분 등을 둔다. 이 외에도 공공공간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아파트 위층과 아래층을 이동하기 위해 이용하는 승강기, 아이들이 뛰어 노는 놀이터, 차를 세워 두는 주차장, 주민들이 모여 쉴 수 있는 휴게 공간 등이 있다. 이 모든 장소는 아파트 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공공공간이다. 이에 삼환아파트 공공공간의 이용 양상과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놀이, 휴식, 주차, 이동, 모임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대표적 공간으로 놀이터, 벤치·퍼걸로, 주차장, 승강기, 노인정 등을 조사하였다.

〈표 1〉 삼환아파트 공공공간

구분	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462
대지면적	67,632.61㎡
규 모	15개동 1,680세대
공공공간	놀이터(4), 휴게시설(4), 주차공간, 승강기, 노인정(1) 등



1. 놀이터

삼환아파트에는 놀이터가 총 4군데 있으며 주로 단지 내 외곽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설계 당시 최대한의 세대수를 확보하기 위한 공간을 먼저 계획한 후, 자투리 대지에 놀이공간을 배치하였기 때문이다. 초창기에는 아파트 15동 쪽에 스케이트장이 있었으나, 지금은 주차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삼환아파트 놀이터는 모래로 덮여 있고, 미끄럼틀, 시소, 그네, 풍풍의자, 철봉, 벤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파트 놀이터의 기능과 의미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아동은 놀이터를 놀이 행위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 유아부터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네, 미끄럼틀, 시소 등의 놀이기구를 타고 모래와 공을 이용한 놀이 장소로 이용한다. 단지 내의 놀이공간은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자녀를 둔 부모들까지도 연결시킬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 놀이터엔 일주일에 한 번은 놀러 와요. 집이 3동이라. 애들이 나오자고 하기도 해서. 나오면 다른 친구들이 없어서 (자녀) 둘이서만 놀아요. 저 어릴 때는 놀이터 말고도 동네에서 같이 모여 다니며 노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네요. 놀이터에 와서 기구 타고 모래에서 놀다 한두 시간 뒤에 집에 들어가요. 애들 잠깐 두고 전 장보러 가기도 하고. 지켜보기도 하고. <최영희, 여, 39세>

지금은 우리 얘기를 데리고 놀러 오지만,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축구하고 와서는 어두워질 때까지 아파트 친구들이랑 혹은 학교 친구들이랑 같이 놀이터에서 놀았어요. 일주일 내내. 지금은 일하고 있어서 주말에만 잠깐 얘기랑 놀아 줘요. 그때는 지금처럼 아파트가 많이 없었고 놀이터가 많이 없었어요. 우리 때는 놀이터에서 구슬치기, 미끄럼틀을 이용한 탈출게임, 야구, 나이 먹기, 땅따먹기, 경찰놀이 등 하며 재미있게 놀았는데……. 지금도 그렇게 놀아요? 요즘 아파트 놀이터에는 정이 없는 것 같아요. 애들 노는 것 쳐다보면 동네친구들이랑 같이 노는 것보다 혼자 놀거나 형제끼리 놀잖아요. 그래도 예전에 내가 놀던 놀이터보다는 시설 면에서 좋아졌죠. 우리는 쇠로 만든 미끄럼틀, 그네, 시소 밖에 없었는데…… 어린이 건강 생각한다며 친환경 소재로 바꾸고. <이동원, 남, 35세>



시소를 타고 있는 어린이

둘째, 중·고등학생은 놀이 행위보다 또래집단과 만나는 장소, 이야기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 즉 이들에게 놀이터는 육체적 놀이 행위의 장소가 아니라 정서적 안정과 휴식을 가져다주는 장소이며, 집을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는 해방구이다.

저, 어릴 때는 아파트에서 안 살았었어요. 놀이터보다는 골목길에서만 놀았어요. 여기 삼환아파트에는 중학교 때 이사 왔는데, 이사 오면서 아파트 친구들이랑 자주 놀러 와요. 학교 놀이터 말고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기는 여기가 처음이에요. 살고 있는 곳은 8동인데 아파트 옆문이랑 가까워서 이쪽 놀이터에만 와요. 항상 오는 데만 와요. 친구들도 그렇게. 놀이기구는 이용하지 않는데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학교 친구 불러서 같이 놀기도 하고. 놀이터는 만남의 장소예요. 친구들 만나려면 어디 놀이터서 보자. 그래서 보통 만나서 다른 데로 이동해요. 아파트 건너 롯데리아나 도서관으로 가요. <정혜선, 여, 17세>

우리 때는 만날 장소가 마땅히 없어서 주로 놀이터에서 만났어요. 낮에는 애들 때문에 시끄





놀이터 벤치에 모여 있는 청소년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자녀와 지켜보고 있는 부모



그네를 타고 있는 어린이



6동 아파트 앞 놀이터

렵고 밤에는 조용하니 주로 저녁 무렵에 놀이터에서 친구들을 만났어요. 동네친구들. 미팅했던 여학우들. 그때는 고등학생 때라 놀이터에서 놀이기구를 타는 것이 아니라 만남의 장소였어요. 놀이터는 집에서 벗어나 좀 해방된 곳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래서 자주 친구들이랑 학교 수업이 끝나고 들르기도 했어요. 뭐 딱히 놀았던 기억은 없어요. <박성수, 남, 33세>

셋째, 놀이터는 부모세대 혹은 어른들에게 추억의 장소이다. 놀이터는 삶에 지쳐 있는 이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주기도 하고 아련한 슬픔을 가져다주기도 한다.

어릴 때 놀이터에서 논 기억은 없는데 나이 들어서 놀이터에서 논 기억은 있어요. 놀이터에서 친구들이랑 놀았다기보다는 밤에 친구 2~3명씩 만나서 고민거리 같이 나누면서 술 마신다거나, 답답할 때마다 놀이터에 나가서 바람 쐬고 와요. <김명진, 남, 37세>

어릴 때 놀이터에서 놀아 봤어요. 그때는 아파트에 안 살아서 근처 아파트 놀이터를 일부러 찾아가기도 했어요. 놀 때가 없었어요. 근데 저는 놀이터에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무엇보다 제가 좋아했던 이성 친구가 있었는데, 그 애랑 싸우고 10시간 넘게 기다렸던 장소예요. 여자친구네 집 아파트 놀이터에서 기다렸는데, 지금 생각하면 공개된 장소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기도 하고. 아휴 민망하네요. <이성훈, 남, 20세>



2. 쉼터

삼환아파트의 대표적 휴게공간은 벤치와 퍼걸로(pergola)이다. 벤치와 퍼걸로가 함께 구성된 쉼터는 2군데이며, 간이 벤치로만 구성된 쉼터는 2군데로 총 4군데가 있다. 벤치와 퍼걸로로 구성된 쉼터는 단지 입구와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간이 벤치는 단지 입구와 중앙 쉼터 사이의 보행통로에 위치하고 있다.

쉼터의 대부분은 주민들이 모여서 쉬고 대화를 나누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나아가 쉼터는 이웃과의 대화 장소와 단순한 휴식기능 이상으로 아파트단지의 축제 장소와 장터로 활용되고 있다.

아파트단지 입구에 위치한 쉼터는 휴식뿐만 아니라, 만남의 장소이기도 하다. 차로 데리러 오거나 같이 모여 이동하기 위한 랜드마크(Land Mark)로서 이용된다.

여기서 잠깐 기다리는 중이에요. 남편이랑 모임이 있어서 나갈건데, 전 상가에 가서 물건을 찾기 위해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남편이랑 여기서 만나서 같이 모임 가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서민정, 여, 40세>

아파트단지 중앙에 위치한 쉼터는 보행로와 연결되어 있어 지나가다 쉬어 가는



아파트단지 입구에 위치한 휴게공간



아파트 중앙에 위치한 휴게공간



중앙휴게공간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중앙 휴게공간까지는 장터로 활용되기도 한다.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간혹 날씨가 더워지면, 아파트 주민들이 몇몇 나와 쉬면서 아이를 재우거나 담소를 나누기도 한다.

날씨 서늘하면 가끔 내려와요. 큰애 부부는 주말에도 일하러 가서. 주말에 이렇게 날씨 좋으면 손자 애 업고 내려와서 재우기도 해요. 내려오면 이는 사람 몇몇 있어요. 인사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재미있으면 우리 집으로 가든지 이는 사람 집으로 가든지 집으로도 들어가요. 가서 맛있는 것도 해 먹기도 하고, 재미있어요. <강현주, 여, 56세>

간이 벤치는 인근 동에서 거주하는 주민이 나와 쉬는 공간으로 활용되며, 주로 연세 드신 분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3. 주차장

자동차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아파트에서 주차공간 확보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삼환아파트는 건설 당시, 지하주차장이 만들어지지 않아 지상 1층의 야외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1대 이상의 차량을 유지하는 가

구가 늘어나고 있어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자동차가 증가함에 따라 단지의 넓은 면적이 주차공간으로 사용되어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있다. 차들이 좁은 간격으로 주차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주민들은 자기 동 앞에 차를 주차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이중주차를 하였다가 상대편 차주인에게 연락이 오면 차를 비켜 주기도 한다. 혹은 경비원이 잘못 주차된 차들의 이동을 요청하는 안내방송을 해 주민들 간의 불화를 해소시켜 주기도 한다.

얼마 전에 아파트 입구 쪽에 주차하려고 하는데 제 차 앞에 외제차가 있는 거예요. 개인 주차공간이 아니라 공용주차라서 신경이 많이 쓰여요. 차 빼 달라고 차 주인에게 전화하니, 바로 나와서 차를 빼 주더라고요. 귀찮아서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고맙긴 했어요. 주차하려면 서로가 불편한데 공용주차장이다 보니 서로 양보해서 스트레스 안 받으며 지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나중에 서로 마주쳐도 불편함이 없이지 않아요. <공기중, 남, 44세>



협소한 주차공간



외부차량 주차금지 표지판



삼환아파트 주차공간

한편, 주차장은 주차의 용도로 사용하다가 차가 나가면 주민들은 그 공간을 운동 공간으로 활용한다. 인라인을 타거나 가벼운 산책, 배드민턴 등의 운동을 한다.

4. 승강기

아파트 공공공간에서 가장 유용하게 활용되는 것이 승강기이다. 승강기는 사람의 이동이나 통행, 물건 운반 수단으로 사용된다. 또한 아파트 1층 승강기 주변 입구에는 개인 우편함과 공공 알림판이 있다. 승강기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 개인 우편함에서 우편물을 확인하고 공공 알림판을 공유할 수 있도록 배치해 놓아 주민들이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

삼환아파트 2~3동의 형태는 복도식이기 때문에 한 승강기를 층마다 10가구의 주





아파트 1층 공공 알림판

민들이 사용하고, 그 외 다른 동은 계단식이기 때문에 층마다 2구가 이용한다. 복도식 승강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같은 층의 주민들과 자주 만나기 때문에 교류가 많다.

승강기의 또 다른 특징은 다른 공공시설에 비해 폐쇄적이라는 것이다. 승강기는 아파트 공공공간에서 주민들 간의 왕래가 가장 많은 곳이지만, 가장 불편한 장소이기도 하다. 승강기를 타기 전에

는 이웃 간에 가벼운 목례 정도를 하지만 승강기를 타고 나면 내부 거울을 본다든지, 휴대폰을 만진다든지, 승강기 문을 쳐다본다든지 하며 가급적 시선을 피하게 된다.

승강기에 관해서 주민들 간에 오기는 이야기가 많았다. 승강기를 빨리 타기 위해 닫히는 문에 몸이나 가방이 눌린 적이 있다든지, 내려가는 승강기가 덜컹거려서 놀랐다든지, 짐이 많아 늦게 타는 주민을 위해 열림 버튼을 눌러 주고 기다려 준다든지 일상생활과 관련된 에피소드는 다양하였다.

제가 초등학교 8살 때인가, 그때는 서울에서 살았는데 동네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가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는 건물 딱 한가운데 있었는데, 어렸을 때 그 엘리베이터 타고 놀다가 경비아저씨한테 걸려서 도망 다니기도 했어요. 말 그대로 놀려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신기하잖아요. 오르락내리락거리고, 지금은 엘리베이터가 많아서 신기하지 않은데, 그때는 많이 없어서 신기했던 것 같아요. 키도 안 닿아서 다리를 뺐기도 했고. <이동원, 남, 35세>

승강기는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마치 놀이기



승강기 교체공사를 알리는 현수막

구처럼 재미를 가져다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승강기는 폐쇄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공포의 공간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승강기에 대해 사람마다 느끼는 인식의 차이가 다름을 알 수 있다.

저는 학창시절 때는 엘리베이터를 못 탔어요. 혼자 못 탔어요. 무서워서. 그래서 계단을 이용해 걸어 다니고 했어요. 고층일 때는 기다려서 사람이 오면 같이 타고 그랬어요. 특히 창문 있는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그게 더 무서워요. 어릴 때 무서운 이야기 있잖아요. 창문이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올라갈 때마다 같은 사람이 보인다는 등 무서운 이야기 있잖아요. 그 이야기 듣고는 혼자 못 타요. 지금은 나이 들어서 무서움이 덜하긴 해요. <김보화, 여, 28세>

엘리베이터 하면 좋은 생각보다 무서운 공간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밀폐된 공간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특히 모르는 사람과 같이 타고 있으면 더 무서워요. 괜히 모르는 사람이 타면 가볍게 인사는 하는데 다른 짓하고, 불편하긴 해요. 그래도 아





승강기를 타는 주민

파트 엘리베이터니깐 동네 주민들과 함께 타면 무서움이 덜한데, 그래도 낯선 사람이랑 같이 타면 무서워요. <최영희, 여, 39세>

최근 삼환아파트에서는 2012년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단지 내 모든 승강기가 교체되었다. 삼환아파트의 승강기는 1992년 아파트가 건설될 당시 설치하여 중간에 멈추기도 하고 시설적인 면에서 노후하였고 운행 중 발생하는 소음으로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5. 노인정

노인정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이 여가를 즐기고, 공동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이다. 삼환아파트 노인정은 아파트 4동과 9동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노인들이 쉽게 모일 수 있는 곳이다. 갈색 벽돌로 된 2층 건물인데, 1층은 노인정, 2층은 관리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노인정은 삼환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50대 이상의 노인 분들이 쉴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다.

노인정의 내부를 살펴보면 거실, 부엌, 화장실, 방 2개로 구성되어 있고 취사시설과 세면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그리고 텔레비전, 냉장고, 선풍기, 에어컨, 노래방기기, 물리치료기구, 장기, 바둑판, 소파 등을 갖추고 있다.

안방(큰방)에는 할아버지, 거실에는 할머니들이 따로 모여 지낸다. 안방에서는 할아버지들끼리 모여 바둑을 두거나 화투를 치고, 몇몇 분은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본다. 거실에서는 할머니들 간의 대화가 이루어진다. 소파에는 최고 고품의

할머니들이 앉아 있고 주변으로는 탁상을 두고 나이순으로 흩어져 앉아 있다. 화장실은 현관과 부엌 사이에 있으며, 남녀 공용으로 사용한다.

부엌 옆으로 작은 방이 있는데, 취침방으로 사용한다. 삼환아파트 경비원들이 새벽 근무를 하고 쉬는 공간으로 사용하거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낮잠을 자는 방으로 사용한다.

노인정에는 오후 12시부터 3시 사이에 모이기 시작한다. 집에서 점심을 간단히 먹고 오거나 노인정에서 점심을 만들어 먹기도 한다. 밀반찬은 노인정 냉장고에 보관하고 국과 밥만 만들어 먹는다.



노인정이 설치되어 있는 관리사무소



노인정 할머니방

딸 내외, 아들 내외가 삼환아파트에 살아요. 하루는 딸 내외 집, 또 다른 하루는 아들 내외 집을 옮겨 다니면서 손자, 손녀들을 봐 줘요. (우리) 애들 출근시키고, 점심 먹고 집 청소도 하고 오후 되면 노인정에 내려와요. 할 것도 없고, 내려오면 그나마 내 또래가 있으니깐. 여기 나오면 심심하진 않아요.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으니깐. <남옥재, 여>

오후 5시나 6시경에는 직장에서 돌아오는 가족들을 맞이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는 분들도 있고, 가족에게서 연락이 와서 돌아가는 분들도 있다. 삼환아파트 노인정은 50대 이상의 노인 분들이 삶의 활력을 찾고 그들만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 
1. 평수별 공간구조
 2. 거실
 3. 안방
 4. 주방과 부엌
 5. 욕실
 6. 발코니
 7. 주거공간의 변용

03 | 삼환아파트 실내공간

아파트 주거공간에서의 주요 행위 패턴은 가사작업행위, 가족 구성원의 개인생활행위, 가족상호교류행위, 생리적 행위, 휴식행위,接客행위 등으로 구성된다. 이에 이 글에서는 거주자의 공간 사용을 결정하는 요소로서 주 행위 패턴을 분류하고 주거 규모, 주거 밀도, 가족 구성 등의 관계성을 밝히고자 한다. 즉, 아파트의 거실, 침실, 주방 및 식당, 다용도실, 발코니, 욕실 공간에서 나타나는 주요 행위를 중심으로 취침, 휴식 및 여가, 가족 단란, 식사, 취사, 세탁의 행위가 행해지는 정도를 파악하고, 삼환아파트 평수에 따른 공간의 구성요소와 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가족 구성원 중 주부는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가장 많고 가족들을 챙겨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의 행동과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관찰하게 된다. 이에 주부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주거공간 활용과 공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1990년대부터는 전통적인 주택문화와 확연하게 다른 아파트가 주거문화로 정착하게 되면서 거주자의 편의와 분위기에 따라 주거공간이 변화되고 있다. 과거의 전통적인 주택공간 속에서 안방, 주방, 거실 등의 개념이 아파트의 공간으로 넘어오게 됨으로써 그 성격과 개념이 모호한 실정이다. 특히, 1992년에 건설된 삼환아파트는 과거 20년 동안 사회·문화적으로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공간 구성에 따른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삼환아파트 주거의 지속성과 변화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1. 평수별 공간구조

조사대상인 삼환아파트의 주거 규모는 22평형, 26평형, 28평형, 32평형, 39평형의 5가지 유형이다. 1,680세대 중 22평형은 300세대, 26평형은 60세대, 28평형은 600세대, 32평형은 600세대, 39평형은 120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조사대상자는 수원시 구운동 삼환아파트 거주자 중 주부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주부들만의 섬세한 시각으로 안방, 거실, 식당 겸 주방, 욕실 등의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삼환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제보자 총 8명을 만났으며,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평수는 각 26평, 28평, 32평, 39평이다. 본 연구의 제약은 각 평수에 해당하는 거주자 한 명씩만을 만났기 때문에 아파트 내부 공간의 이용에 대한 대표성을 추출하는데 한계가 있다. 가족 구성, 자녀의 연령대 등에 따라서 가족들이 사용하는 공간의 특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거주공간의 구성과 이용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기초자료로서 의의가 있다.

삼환아파트의 평수는 22평형, 26평형, 28평형, 32평형, 39평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거 규모에 따른 공간 활용의 차이를 살펴보면 20평과 30평대는 공간 활용의 차이가 있으나, 같은 20평대와 30평대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 평수에 따른 제보자

구분	평수	제보자	비고
1	26평	조영애(여, 45세)	• 부부, 1남 1녀
2	28평	이슬아 어머니(여, 50대)	• 부부, 1녀 • 리모델링
		오미환(여, 50세)	• 부부, 2녀
		조미란(여, 35세)	• 부부, 1남 1녀
3	32평	김혜경(여, 53세)	• 부부, 2남
4	39평	이규자(여, 49세)	• 1992년부터 거주 • 33평에서 거주하다 5년 전부터 39평에 거주 • 부부, 1남 1녀
		김선희(여)	• 세한교회 전도사 • 부부, 1남 1녀
5	목적에 따른 공간이용	최현주(여, 39세)	• 과외방 리모델링 • 부부, 2남



22평 욕실1 거실1 주방1 침실2 발코니2



32평 욕실2 거실1 주방1 침실3 발코니2



26평 욕실1 거실1 주방1 침실3 발코니2



39평 욕실2 거실1 주방1 침실4 발코니2



28평 욕실1 거실1 주방1 침실3 발코니2

평수별 공간구조

아파트 주요 공간을 이용하는 행위는 크게 개인생활행위, 가족상호교류행위, 접객행위, 가사작업행위로 나눌 수 있다.

- 개인생활행위 : 공부, 사색, 휴식, 취미생활 등과 같이 원천적으로 개인적 공간을 필요로 하는 행위이며, 신문구독, 취침 등과 같이 행위 성격상 개인생활이지만 다른 행위와 함께 겸용할 수 있는 행위를 포함한다.
- 가족상호교류행위 : 가족공동의 공적, 사적 성격을 지닌 행위로서 가족 담소, 휴식, 자녀와의 대화, 가족식사, TV 시청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2인 이상의 가족이 동시에 행하는 행위이다.
- 접객행위 : 친한 친구의 접대와 식사, 손님 접대 및 식사 등과 같이 가족 공동행위 중 공적, 사적 성격을 지닌 가족외적인 행위이다.
- 가사작업행위 : 설거지, 요리, 다림질, 옷 손질 등과 같이 주로 주부가 하는 가사노동 행위이다.

거실은 아파트의 현관을 중심으로 전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휴식 및 가족상호교류행위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반면에 과거 전통적인 주택에서는 거실에서 식사를 하였는데, 아파트에서는 주방 및 부엌에 식탁이 놓이게 되면서 거실의 식사행위 기능이 감소하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주택에서 주방은 안방 후면의 폐쇄적인 공간에 위치했는데, 아파트에서 주방은 거실과 연결되면서 개방된 구조로 변화되었다. 욕실(화장실)은 대부분 현관을 마주보고 있거나 주방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30평대 이상은 욕실이 2개이다. 가족공용 욕실은 거실에, 부부욕실은 안방 내부에 위치하고 있다. 전통적인 주택에서 욕실(화장실)은 마당 외부에 설치하는데 비해 아파트 욕실은 안방과 거실 내부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아파트 공간에서의 주거양식은 전통적인 생활양식과 서구적 생활양식이 상호 공존하고 있고 주거자의 편의에 따라 변형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2. 거실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거실이 눈에 들어온다. 거실은 안방과 욕실, 주방을 연결하는 중심 공간이며, 거실의 분위기를 통해 집안의 분위기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공간이다. 아파트 거실은 전통적인 한옥양식에서 대청마루의 기능이 재구성된 공간이다. 대청마루는 주변이 탁 트여 있는 공간이기에 접객 장소이자 조상의 제사를 모셨던 곳이다. 현재의 아파트 거실도 이러한 기능을 수용하고 있다. 삼환아파트의 거실 규모는 안방의 크기와 비슷하다.

여기는 거실이 크지가 않아요. 옛날 구조라 거실이 안방이나 규모 차이가 안 나요. 안방이 커요. 그래서 40평대처럼 거실에 소파를 마주 보고 그런 공간이 안 돼요. 일자 형태인 소파 두고 작은 탁자 하나에 책 같은 것 놓고 차 마시는 테이블 정도만 있어요. 동네 아주머니 4명이 모이면 식탁에 앉고, 넘으면 거실에 상 퍼서 앉아요. <이규자, 여, 49세, 39평 거주>

이것은 요즘에 짓고 있는 브랜드 아파트에 비해 삼환아파트의 거실이 상대적으로 좁고 안방의 공간 비중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거실의 공간 구성을 살펴보면 거주자의 특성에 따라, 특히 주부의 성향에 따라 공간의 활용과 가구의 배치가 달라진다. 삼환아파트의 경우, 거실에 가족사진을 걸어 두거나, 소파를 배치하였고, 좌식공간으로 구성하기도 하였다. 맞은편에는 텔레비전, 오디오를 설치하는 것이 전형적인 거실의 모습이다.

자녀의 성장에 따라서 거실의 구성이 달라지기도 한다. 유아·아동을 키우는 가정은 거실에 책장과 장난감을 두어 자연스럽게 놀이공간으로 조성하였다. 청소년이 있는 가정은 텔레비전, 오디오를 없애고 대신에 장식장이나 책장을 벽면 전체로 꾸며 학습환경을 조성하였다. 그리고 일부 세대에서는 공용 컴퓨터, 책상이나 재봉틀을 거실에 두어 학습과 작업 등이 함께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주생활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김혜경 거실에 걸린 가족사진



조영애 거실에 놓아둔 성물

보통 거실에 TV가 있잖아요. 우리도 처음 이사 왔을 때는 TV가 거실에 있었어요. 그런데 한동안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우리 딸이 고등학생이다 보니깐 일부러 안방으로 옮겼어요. 고등학교 되면서 안방으로 옮겼어요. 가끔 딸이 공부하다 스트레스 받으면 안방에서 TV 보고 다시 자기 방에 가서 공부하곤 해요. TV 소리가 나면 공부하다 소리 들리면 보고 싶잖아요. 거실은 별로 잘 안 모이긴 해요. <이슬아 어머니, 여, 50대, 28평형 거주>

아파트 거실에서는 옷 손질, 빨래 정돈, 다리미질 등 주부의 가사행위가 이루어지고, '가족모임'과 '접객' 등 주택 내의 대표적인 사회 공간이자 가족 공동생활의 장소로서 중추적 역할을 한다. 공식적인 손님 접대는 거실에서 이루어지지만 주부와 친분이 있는 4인 이하의 손님 접대는 주방에 있는 식탁을 이용한다.

이규자의 경우는 친한 친구 혹은 동네 주민을 접대할 때는 거실보다는 식탁 및 주방을 선호한다. 접대의 편의성과 공간의 효율성 때문이다. 거실에서 손님을 접대할 경우는 손님의 수가 4인 식탁의 기준보다 많거나 격식을 차려서 대접할 경우이다.



조영애 거실(26평)



조영애 주방에서 본 거실(26평)



조미란 거실(28평)



김혜경 거실(32평)



이규자 거실(39평)



이규자 거실(39평)

그뿐만 아니라 거실은 제사를 지내거나 종교적 물건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된다. 가령, 삼환아파트 26평에 거주하고 있는 조영애와 28평에 거주하고 있는 조미란은 천주교 신자인데, 거실에 성물(聖物)을 보관하고 있다. 가족들이 모두 사용하는 공간에 성물을 둬으로써 신앙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평수에 따른 거실공간의 특성을 살펴보면 평수가 작을수록 거실과 주방공간의 구분이 모호하다. 이는 주방공간이 좁기 때문에 거실을 주방공간으로도 활용하기 때문이다. 가령, 26평에 거주하고 있는 조영애의 경우는 주방공간이 협소하여 거실에 냉장고와 김치냉장고를 두고 사용하고 있다. 이렇듯 22평, 26평에서 식당 겸 주방의 공간이 협소해서 그 기능이 거실로 분산되고 거실과 주방 간의 가사행위가 중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32평형 이상에서는 식당 겸 주방공간이 여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능이 독립적이다.

또한, 주거 규모에 따라 구성원들 간의 밀집도를 살펴보면 평수가 적을수록 가족 구성원들이 거실을 이용하는 활용도가 높다.

우리 애들은 주로 거실에서 생활해요. 사실 공간의 구분이 나뉘 있지 않아요. 거실에는 컴퓨터가 있어서 컴퓨터 하기도 하고, TV 보고 싶으면 안방에서 보고, 거실에도 TV가 있는데, 안방에도 평면TV가 있어요. 침대에 기대서 보면 편안한가 봐요.〈이슬아 어머니, 여, 50대, 28평형〉

애들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각자 방으로 들어가요. 거실에서 모일 때는 가끔 과일 먹을 때나 밥 먹으러 나올 때, 그 외는 자기 방에서 생활해요.〈이규자, 여, 49세, 39평형 거주〉

자녀가 거실에서 생활하는 빈도는 20평형에서 가장 높으며, 30평형 이상에서 가장 낮다. 이는 22평형과 26평형은 활동반경이 좁아 자녀들도 부모님의 안방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거실에서 생활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30평 이상에서 자녀들은 본인의 침실공간이 비교적 여유 있게 확보되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독립공간을 가질 수 있어 대부분의 개인생활을 침실에서 보낸다.

3. 안방

우리나라 주거공간에서 안방은 부부의 개인적인 공간이면서 거실, 식당 및 응접실의 용도를 겸한 융통성이 가장 높은 공간이다. 아파트에서 안방은 가족 공동공간의 기능을 일부 수행하면서 부부침실로 사용되고 있다. 응접실의 용도와 식사공간의 기능은 거실과 부엌으로 이동하였다.

삼환아파트의 경우 거실과 안방의 면적이 비슷하여 안방이 다른 아파트에 비해 넓은 편이다. 공간 구성에서 안방의 위치는 거실과 함께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고, 거실과의 접근성이 좋다. 그리고 안방은 남향으로 큰 창문이 놓여 있는데 바깥으로 베란다와 연결되어 있다.

안방에는 기본적으로 침대, 옷장, 화장대가 놓여 있다. 침대는 창가 쪽에 놓여 있고 옷장은 서쪽을 향해 놓여 있다. 화장대는 창가를 마주보고 있거나 옷장을 마주보고 있다. 삼환아파트에는 드레스 룸을 따로 만들어 놓지 않아 화장은 주로 안방에 놓인 개인 화장대를 이용한다. 화장대에는 화장품, 약품, 미용도구 등이 놓여 있으며, 주로 주부가 사용한다. 그리고 화장대 옆에는 텔레비전이 놓여 있다. 안방에 놓인 텔레비전은 부부가 주로 이용하기는 하나, 가족 구성원을 밀집시켜 주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전체 평수가 넓을수록 안방은 부부가 쓰는 독립적인 공간이지만, 평수가 작을수록 가족 공동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26평에 사는 조영애는 모든 가족들이 거실보다는 안방에 모인다. 안방에는 46인치 텔레비전과 침대가 있어 이곳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거나 휴식을 취한다. 안방이 가족 공동공간으로 확대된 것이다. 28평인 이슬아의 부모님이 사용하는 안방도 가족 구성원이 모두 이용한다. 안방에 텔레비전이 있어 자녀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자녀의 옷을 보관하거나, 화장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 집은 거실을 별로 사용 안 해요. TV도 안방에 있어서 쉴 때도 안방에서 쉬어요. 침대에 기대서. 애들 옷도 나랑 같이 입는 경우가 많아요. 애들 방에 옷을 두기가 좋아요. 자주





조영애 자녀방(26평)



조영애 자녀방(26평)



조미란 자녀방(28평)



조미란 자녀방(28평)

입는 옷은 애들 방에, 계절 지난 옷은 안방에 보관해 두기도 하고. 그래서 애들이 자주 안방에 드나들어요. <이슬아 어머니, 여, 50대, 28평형 거주>

안방은 부부만의 개인공간으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가족 상호교류의 장으로 확



김혜경 안방(32평)



김혜경 안방(32평)



이규자 안방(39평)



이규자 안방(39평)

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방은 집안에서 귀중한 물건을 보관하는 곳이고 부부만의 장소여서 외부인이 쉽게 드나들진 못한다. 조사자의 경우도 안방에는 쉽게 들어가질 못하고 제보자와의 대화는 주로 거실에서 나누었다.

한편, 22평을 제외하고 26평과 28평, 32평은 방이 3개인데 안방은 부부, 나머지 2개의 방은 자녀 방으로 이용된다. 공통적으로 방이 3개인 곳은 현관 근처에 있는 방을 자녀 중 아들 방, 안방 맞은편에 있는 방을 딸 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주부들은 “남자애니깐 현관문 쪽 바깥으로, 여자애니깐 집 안쪽으로”라는 생각으로 자녀 방을 배치하였다. 이규자는 아파트 구조상 겨울이 되면 춥기 때문에, 좀 덜 추운 안방 맞은편 방을 자녀(딸) 방으로 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39평의 경우는 방이 4개인데, 자

너가 모두 이용하거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녀가 둘인 경우는 나머지 방에 피아노를 두거나 드레스 룸, 창고 등으로 활용한다.

4. 주방과 부엌

전통적인 주거양식에서 부엌은 안방과 따로 떨어진 곳에 위치하거나 거실과 분리되어 있다. 삼환아파트의 주방은 안방과 마주하고 있으며 거실과 연결되어 있다. 아파트의 주방이 폐쇄된 공간이 아니라 개방된 공간으로 변형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가족들은 주부가 요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주부는 요리하면서 안방과 거실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 아파트에서 주방과 거실 사이의 공간 구분은 모호한데 4~6인용 식탁을 두어 그 경계를 구분하였다. 또한, 과거의 식사공간은 안방이나 거실에서 이루어졌다. 반면에 오늘날 아파트에서는 주방에 식탁을 배치함으로써 주방은 식사를 준비하는 공간과 식사를 하는 공간으로 기능이 확대되었다. 주방은 식사를 하는 공간이자 손님 접대 공간인데, 주부와 친분이 있는 손님은 식탁에서 접대한다.

주방에서 사용하는 비품을 살펴보면, 조리도구와 가스레인지, 냉장고, 식탁 등이 구비되어 있다. 공간이 넉넉한 30평대의 주방에는 김치냉장고까지 두고 있다. 20평대에는 주방공간이 좁아 김치냉장고를 거실이나 베란다에 두고 사용한다.

주방은 주부만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주부가 선호하는 물품과 필요한 도구들을 배치한다. 자주 사용하는 그릇들은 싱크대 옆 작은 받침대에 올려놓고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그릇들은 싱크대나 찬장 안에 넣어 두고 특별한 날에만 꺼내어 사용한다. 김혜경(여, 53세)의 경우는 신혼 때 들고 온 25년 된 찬장을 주방에 두고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데, 찻잔, 고급술, 쟁반 등을 진열하고 있다.

그리고 삼환아파트의 경우는 썩크대의 개수대가 창문을 기대어 만들어져 있어, 창문을 바라보고 건설되고 있는 요즘 아파트의 개수대와 방향이 다르다.



조영애 주방(26평)



조미란 주방(28평)



조미란 주방(28평)

이 아파트가 오래되어서 그래요. 다른 아파트에 가 보면 개수대의 방향이 창문을 향해 보고 있는데 우리 집 부엌은 방향이 다르니. 이 아파트가 생겨날 때부터 이쪽 방향이었어요. 쓸 때 불편함은 없는데, 그래서 그대로 됐어요. 지금 이사 오거나 리모델링하는 집들은 구조를 대부분 바꿀 거예요. <김혜경, 여, 53세, 32평형 거주>

그래서 집안일을 할 경우, 어둡고 동선이 불편해서 주방 개수대의 방향을 창문 쪽으로 변경하고 있는 추세라 한다. 주부의 편의에 따라 동선이 개선되는 것이다.

한편, 주방과 부엌은 주부의 일상생활 중 가장 많은 가사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음식물 보관, 조리, 취사 및 뒤처리 등 식생활과 관련된 제반 작업이 행해진다. 주부는 최소한 하루 2~3시간에서 활동시간의 3분의 1가량을 이곳에서 보낸다.



김혜경 주방(32평)



김혜경 주방(32평)



이규자 주방(39평)



이규자 주방(39평)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남편 출근하기 전에 아침밥을 차려 주면 식탁에 앉아서 먹고 가요. 난 먹지 않고 같이 있어 주기 만해요. 그리고 남편이 출근하면, 애들을 깨워요. 애들은 학교 가기 전에 간단한 토스트 해 주는데, 식탁 앞에서 서서 먹거나 앉아서 먹거나 대충 그래요. 애들 다 보내고 나야 혼자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출근 준비를 해요. <이규자, 여, 49세, 39평형 거주>

이규자의 경우는 주방에서 아침식사 준비로 하루를 시작하고 남편과 자녀를 회



자녀들 학습계획표 및 통신문



가족사진 및 학습계획표



영수증 보관

사와 학교에 보내면서부터 일반적인 가사작업(설거지, 취사 등)을 한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김치와 장류 담그기 등이 이루어진다.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은 주부의 경우는 식탁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독서를 하거나 혼자만의 휴식을 취하기도 한다. 근래에 들어서는 점차 조리를 주부 혼자만의 일이라기보다는 가족이 함께 참여하여 그 자체를 즐기는 가족 단란의 매개로 생각하게 되었다. 남편이 설거지를 거들어 주기도 하고 자녀와 대화도 하는 등 주방에서의 가족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즉 주방은 가족 공동생활 공간으로도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

제 딸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과일 같은 먹을거리 준비해서 식탁에서 마주 앉아서 먹으면서 이야기해요. 학교 이야기도 듣고, 고민거리도 듣고, 부업에서 준비하고 거실로 나가는 것보다 식탁에서 앉아서 먹으면 편하기도 하고, 가깝잖아요. 가족들끼리도 과일 같은 것 먹을 때는 거실도 이용하지만 식탁에서 주로 먹는 편이에요. (곽성은 어머니, 여, 50대, 28평형 거주)

이처럼 주방 및 부엌은 단순히 가사작업이나 식사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가족 간 상호교류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즉, 예전에 거실에서 행해졌던 행위들이 가사작업 공간으로 옮겨지면서 가사작업공간이 더 이상 주부 공간이 아닌 가족 공동의 공간으로 그 기능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다. 또한 주방은 가족들 간의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자녀들이 학교에서 받아 온 통신문이나 주부들만의 필요한 정보, 영수증 등을 냉장고나 찬장에 붙여 두는데, 찬장이나 벽면, 냉장고에 중요한 정보를 붙여 두면 시야에 잘 들어 오고 가족 구성원 간의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욕실

욕실은 배설 및 위생과 세면 등을 위한 곳으로 활용된다. 과거의 욕실(화장실)은 비위생적인 공간이기에 집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였다. 하지만 아파트에서 욕실은 실내공간에 위치하고 있다. 20평대에는 가족 구성원이 모두 사용하는 공용욕실이 현관이나 주방에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고, 30평대에는 공용욕실과 안방 내부에 부부욕실이 추가되어 2군데가 있다. 욕실은 온 가족이 사용하기 쉽도록 공동생활구역과 개인생활구역의 중간지점, 거실과 각 침실에서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목욕문화가 정착됨에 따라 욕실은 입욕, 세면, 배설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심신의 피로를 풀고 편안히 쉬는 장소로 확대되고 있다. 이렇듯 욕실은 주거공간에서 위생적인 생활공간으로 적극 도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영애 공용욕실(26평)



조미린 공용욕실(28평)

욕실의 내부를 살펴보면 욕조, 변기, 세면기 외에 휴지걸이, 거울, 수건걸이, 치약, 칫솔, 비누접시, 휴지통, 먼도기 등이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놓이고, 이들 중 수건과 휴지 등은 수납 정리장에 여유분을 둔다. 그리고 머리 건조를 위한 건기기구도 설치되어 있다. 욕실의 배치와 구성은 자녀 연령에 따라 디자인되어 있는데, 어린 자녀가 있는 욕실은 아기자기한 스티커로 욕실 타일을 꾸몄고, 20대 이상의 자녀를 둔 곳은 모던하면서도 심플하게 디자인하였다. 욕실이 좁아서 욕조를 없애 공간 확보를 하거나 파티션을 꾸며 넓게 사용하는 곳도 있다.



김혜경 인방에 위치한 부부욕실(32평)



김혜경 공용욕실(32평)



이규자 공용욕실(39평)

39평은 화장실이 2개예요. 안방은 부부욕실로 쓰고 거실욕실은 공용으로 다 써요. 거실 욕실에는 욕조 없애고 샤워할 수 있게 부스 설치하고 안방은 욕조 있어요. <이규자, 여, 49세, 39평 거주>

안방 안에 욕실이 있는 경우는 대체로 부부가 사용하고, 거실에 있는 욕실은 가족 공용으로 사용한다. 공용욕실만 있는 가구 중 가족수가 많은 세대는 아침 출근·등교시간 때 힘들다고 한다. 조영애의 경우에는 가족들 모두가 공용욕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순번을 정해 놓고 사용한다고 한다. 39평의 공용욕실은 거실과 마주하고 있어 거실에 있는 손님과 눈이 마주치는 불편함이 있다고 한다.

6. 발코니

발코니는 건물 외부에 거실의 연장으로 달아내서 만든 서양건축의 노대(露臺)의 하나인데, 아파트 건축에서 외부와 접하는 유일한 장소이다. 발코니는 주택구조상 마당과도 비슷한 역할을 한다. 삼환아파트에는 발코니가 전면과 후면에 두 군데 있다. 전면 발코니는 아파트 남향 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거실과 연결되어 있다.

발코니의 난간은 통풍, 채광 등을 고려하여 만들지만 안전과 남의 시선을 고려하여 집 내부를 가려 준다. 난간의 높이는 안전상 1.1m 이상이며, 배수(排水)가 잘되고 오수(汚水)가 아래층으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시공한다.

이곳에는 티 테이블을 두어 차를 마시거나, 화분 키우기, 빨래 건조, 김치냉장고 보관, 물건 보관 등 생활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혹은 전면 발코니를 리모델링을 하여 거실과 전면 발코니 간의 벽을 철거하고 공간을 확장하여 실내공간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삼환아파트로 이사 오면서 리모델링을 다 했어요. 벽면이랑 거실과 베란다도 트고, 근데 미관상은 보기 좋은데 겨울만 되면 추워요. 이중 창문이 아니라서 그런가 봐요. <이슬아



조영애 전면 발코니(26평)



조영애 전면 발코니(26평)



조미란 전면 발코니(28평)



조미란 후면 발코니(28평)



이규자 전면 발코니(39평)



이규자 후면 발코니(39평)



김혜경 전면 발코니(32평)



김혜경 전면 발코니(32평)

어머니, 여, 50대, 28평형 거주)

삼환아파트는 건물 자체가 노후하여 구조상 리모델링할 경우 방한 기능이 떨어져서 리모델링을 권하지 않는다고 한다. 발코니의 공간을 확장하는 것보다 발코니의 이중 창문을 그대로 두어야 방한기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후면 발코니는 주방 옆 보조 다용도 실로 세탁행위(세탁기 세탁, 손세탁)와 물건 보관으로만 사용한다. 이곳은 세탁기만 들어가는 전용공간이기도 하

다. 세탁물을 건조할 만큼의 공간이 넉넉하지 않고 해를 등지고 있어 건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삼환아파트의 구조상 전면 발코니에는 세탁기를 둘 수 없기 때문에 세탁은 후면 발코니에서, 세탁물 건조는 전면 발코니에서 이루어진다. 옷 개는 것은 거실에서 하기 때문에 가사일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평수가 작을

수록 거실과 방 곳곳에 세탁물을 널기도 한다.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건조한 공기에 수분을 공급하는 효과를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7. 주거공간의 변용

삼환아파트에는 가정형 유치원 5군데, 보습학원 3군데가 있다. 아파트단지 내에 유치원과 보습학원이 있는 이유는 지리적으로 가까워 아파트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장점도 작용한다. 유치원과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주민의 경우는 투자비용이 적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주로 가정형 유치원과 보습학원은 아파트 1층에 위치하고 있다. 이것은 외부와의 접근성이 좋고 학생들의 잦은 출입으로 소음이 발생해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보습학원 3곳 중 한 군데인 A+과외방을 운영하고 있는 최현주도 A+과외방을 처음에는 아파트 9동에서 운영했으나 아래층과 마찰이 생겨 8동 1층으로 옮겨 왔다. 최현주는 남편, 자녀 2명과 함께 삼환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이곳은 28평형으로 안방, 작은방 2개, 욕실, 부엌, 거실이 있다. 이사 오기 전, 이곳은 리모델링이 되어 발코니가 확장되어 있었다. 그래서 좁은 거실을 넓게 사용할 수 있었다. 또한 최현주는 주거공간을 보습학원 공간으로 구조를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 안방과 작은방 1개를 주거공간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방 1개와 거실을 교육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보습학원은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수강생은 30~40명 정도 된다. 학원 운영시간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학생들이 학교수업이 끝나는 시간부터 밤 11시까지이다. 일주일에 6일 동안 수업을 하며, 필요에 따라 수



최현주가 운영하는 A+과의 보습학원



최현주 안방

업시간 외에도 학생들의 공부를 지도해 주고 있다. 공간의 변용으로 나타나는 주거 공간, 교육공간, 복합공간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1) 주거공간

최현주 가족이 사용하는 주거공간은 안방, 작은방 1개, 부엌, 후면 발코니이다. 안방은 부부가 주로 생활하며 침대와 장롱, 화장대, 텔레비전이 놓여 있다. 안방 옆에 위치한 작은방은 자녀들이 사용한다. 작은방은 책상과 장롱, 의류보관함이 있다. 최현주가 수업을 시작하면 자녀들과 남편은 거실로의 이동이 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방에서 모든 생활이 이루어진다. 안방은 침실과 텔레비전을 놓아 거실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최현주의 자녀들은 학교에 다녀오면 주로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거나 숙제를 한다.

안방은 남편이 쉬는 곳이고 작은방은 아이들이 이용해요. 거실은 아이들과 학생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슬직히 죽은 공간이에요. 왜냐하면 일반 가정집을 확장해서 이동공간으



최현주 자녀방



최현주 부엌

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냥 물만 마시는 공간이에요. 다른 집 애들처럼 부엌이나 거실을 우리 애들이 자유롭게 쓰질 못해요. 식사도 아침에는 아이들이랑 식탁에서 먹고, 저녁에는 따로 먹을 수밖에 없으니깐 간단히 먹어요. 아이들은 방에서 먹어요. 아이들만의 공간이 없긴 해요. 보통 큰애는 작은방에서 공부하거나 머물고 있고 작은애는 안방에서 TV 보고 있어요. <최현주, 여, 39세, 28평형 거주>

그리고 최현주 가족이 식사를 할 경우, 아침식사는 식탁에서 다 같이 먹지만 점심, 저녁 식사는 안방에서 간단히 먹는다. 저녁시간에는 학생들이 수업을 받기 때문에 최현주의 가족은 마음 편히 식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안방에는 식사를 할 수 있는 작은 테이블이 있다. 최현주도 아침식사는 가족과 함께 먹고 점심, 저녁은 샌드위치 등으로 간단히 챙겨 먹는다. 또한, 안방은 취침의 공간이다. 하루 일과가 끝나면 부부는 안방에서, 자녀들은 작은방에서 취침을 한다. 안방은 가족 단란의 기능과 식사 장소, 취침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방은 남편과 아이들이 쉬는 곳으로, 최현주는 최대한 거실과 교육공간에 있



공부 1방(작은방)



공부 2방(거실)

는 학생들에게 조용히 지내도록 당부한다.

한편, 부엌은 냉장고, 김치냉장고, 가스레인지, 조리 도구 등이 준비되어 있다. 최현주는 음식을 조리할 경우 집안에 냄새가 많이 남기 때문에 해 먹기보다는 시켜 먹거나 사서 먹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부엌은 거실과 연결되어 있어 학생들도 수시로 드나드는 공간이므로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있다. 후면 발코니에는 세탁기가 놓여 있고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2) 교육공간

최현주는 현관 입구 쪽에 있는 작은방 1개와 거실을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관 입구 쪽에 있는 작은방을 제1강의실, 거실을 제2강의실로 표시하고 있으며, ‘공부 1방’, ‘공부 2방’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표시는 주거공간이 아니라 교육공간임을 구분시켜 준다.

현관 입구 쪽에 있는 작은방(제1강의실)에는 칠판과 6명이 앉을 수 있는 공동 책상이 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최현주가 수업을 준비하는 책상과 책장이 있다. 이곳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거실(제2강의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중·고등학생들이다. 거실(제2강의실)은 일반 가정집에서 볼 수 있는 소파와



공부 2방(거실)



제2강의실

TV 대신에 공동 책상과 각각의 개인 책상을 두어 학생들이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곳에는 다양한 책들을 꽂아 두어 학생들이 마음대로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수업이 끝나고 이곳에 들러 숙제 및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고 집으로 돌아간다. 이처럼 교육공간의 큰 장점은 가정집 형태를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사설 학원시설과는 달리 편안함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는 공부 1방, 공부 2방이에요. 가르치는 것은 공부 1방, 초등학생들은 공부 1방에서 많이 하고 중·고등학생들은 공부 2방을 이용해요. 과외방이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들은 수업 대신에 자율학습하고 모르는 부분을 가르쳐 줘요. 아파트에서 과외방을 하기 때문에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찾아오기도 하고, 시험기간에도 여기 와서 공부해요. <최현주, 여, 39세, 28평형 거주>

보습학원을 다니는 학생들 대부분은 삼환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학부모는 보통 아파트 주민이기 때문에 부모님들과도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현주는 학부모들과는 아파트 동네 주민이면서도 학부모와 선생님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편하게 지낼 수 없다고 한다.



복합공간



복합공간



목적에 따른 아파트 공간 변용

3) 복합공간

최현주의 가족과 학생들이 함께 사용하고 있는 복합공간은 현관 입구와 부엌 그리고 욕실이다. 복합공간은 주거공간을 교육공간으로도 사용함으로써 주거공간과 교육공간의 성격이 나타나는 공간이다. 그 성격은 복합공간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학생들은 부엌을 휴게실이라 부른다. 공부하다가 잠깐 쉬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조리공간과 휴게공간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다. 욕실은 안방과 부엌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한 군데밖에 없다. 그래서 가족과 학생이 함께 사용하는 데, 욕실 내부에는 칫솔, 치약, 비누 등 기본적인 세안도구만 배치되어 있다.

부엌공간은 가족들이 쉴 수도 있는 공간인데 학생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기도 해서 불편하기도 해요. 그래도 애들과 남편이 이해해 줘요. <최현주, 여, 39세, 28평형 거주>

최현주 가족들은 수업이 없는 오전에는 집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나, 수업이 시작되면 공간이용의 제약을 받는다. 특히, 복합공간은 가족과 학생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서로가 이용하는 데 불편한 점이 많다. 하지만 최현주 가족은 불편하다는 내색을 하지 않고 있다. 가족들은 주거공간이기도 하지만 최현주가 일하는 직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소음을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다. 학생들 또한 가정집인 것을 감안해 뛰어다니거나 시끄럽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가족과 학생들은 이러한 생활에 익숙한지 복합공간을 이용할 때는 조용히 물을 마시고, 욕실을 이용한다.







3

삼환아파트 사람들

삼환아파트를 천천히 걷다 보니, 상가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주민들, 휴게시설에서 쉬는 주민들,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주민, 노인정에서 담소를 나누는 어르신들 등 아파트의 일상적인 모습들이 눈에 들어왔다.



두 번의 전학과 고등학교 중퇴
'나는 공부를 해야 해' 라는 마음이 확실했어요
공부방 선생님이로 다시 시작하다

01 | A+공부방 선생님 최현주

최현주는 8동 104호에서 A+(에이플러스)공부방을 운영한다. 두 아이의 엄마이면서 수십 명의 학생을 둔 공부방 선생님이기도 하다. 삼환아파트에는 특히 아파트 내에서 어린이집과 공부방 등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영업만 하는 경우도 있고, 주거와 영업을 함께하는 경우도 있다. 최현주의 공부방은 최현주와 남편 이상용, 그리고 두 아들이 함께 사는 '사적인 주거공간' 이면서 학생들이 공부하러 오는 '공적인 영업공간' 이기도 하다.

두 번의 전학과 고등학교 중퇴

최현주는 1974년 서울 구로동에서 1남 3녀 중 차녀로 태어났다. 구로동에서 초등학교를 입학하여 2학년까지 다녔지만 너무 어렸기 때문에 최현주는 구로동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다. 아버지는 경상남도 창원시의 대림자동차로 이직을 했고, 창원에 거처를 알아보던 중 상황이 맞지 않아 1년간 임시거처를 마련해야 했다. 이때 충청남도 홍성에서 살았다. 최현주는 홍성에서 살던 기억도 아주 어렵듯한데, 그래도 홍성읍으로 다니던 교회는 또렷하게 기억한다. 어린 최현주에게 교회의 주일학교는 신앙의 공간이라기보다 놀이공간이었다. 또래 친구들을 만나고 교회 선생님들



A+공부방 선생님 최현주

이 주는 달콤한 주전부리를 얻을 수 있는 곳이었다. 읍내의 교회까지 걸어가는 길은 어린 최현주에게는 멀다면 먼 길이었지만 흔히 먹을 수 없는 과자나 사탕을 받으러 가는 설렘에 먼 줄도 모르고 즐겁게 다녔다.

지금 제가 다니던 교회는 없어졌어요. 그때 재미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주일학교 다니고, 솔직히 거기서 성경공부를 한다거나 그런 거보다는 아이들하고 어울리면서 선생님이 과자 주시고 사탕 주시고 그런 거 먹기가 더 좋은 거죠. 가면 맛있는 거 주고, 저희 때는 먹을 게, 지금은 짜장면이라든지 이런 게 흔하지만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집에서 먹어 봤자 고구마를 먹는다든가 그런 거밖에 없었는데 과자를 주시는 곳이니깐. 지금도 나와요, 야채크래커 같은 거. 문구점에서든 과는 쫄쫄이 그런 거. 그런 거 저희는 굉장히 귀한 거였거든요. 사 먹고 싶어도 사 먹을 수 없는, 저거 먹고 싶어서 누가 먹기만 하면 줄줄 좇아다니면서 니가 한 번 빨아 먹고 나도 한 번 먹고 그러는. 그런데 지금은 너무 흔하게 먹으니깐. 교회는 흥성음에 있었어요, 걸어갔어요. 삼사십 분 걸어갔던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도 잘 다녔어요. 밤에 걸어가고 그래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녔어요. 먹을 수 있다는 일념하에.



최현주(오른쪽)의 돌사진. 당시 리어카에 배경관을 세우고 다니던 이동식 스튜디오에서 찍었는데, 최현주가 울자 인니가 함께 서 주었다.



1981년 10월, 흥성교회에서 개최된 예능발표회

홍성에서 1년간 생활하고 경상남도 창원시로 이사한 후엔 양곡초등학교로 전학을 갔다. 서울 구로동과 홍성을 거쳐 세 번째 초등학교인데다 서울에서 충청도, 경상도로 전학을 다니자 급격한 환경의 차이에 적응을 잘하지 못했다. 최현주는 어머니에게 어릴 적 자신이 학교 안 간다고 “난리도 아니었고” 등교했다가 중간에 다시 온 적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 하도 힘들어서 신경성 위염이 잦았고 거의 먹지를 못하고 토했다고 하니 학교 다니던 기억은 거의 나질 않고 병원 다닌 기억밖에 없다. 유일한 추억이라면 단 한 번 참석한 운동회이다. 몸이 허약하여 매번 운동회에 참석을 못 했는데 딱 한 번 부모님과 함께 참석하여 구경만 했다.

창원시에서는 아버지 회사에서 제공하는 사택인 ‘양곡상가아파트’에서 거주했다. 지하와 1층은 상가이고 그 위층부터 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였는데, 동네에서 아파트는 이곳뿐이었다.

저도 처음 봤을 때 아파트가 너무너무 신기했거든요. 뜨거운 물이 바로바로 나오고 차가운 물도 아무 때나 쓸 수 있고, 겨울에 너무 따뜻하고, 중학교 다닐 때 애들이 너무너무 부러워했거든요. 그냥 보면 누가 봐도 잘사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죠.

중학교를 졸업하고 최현주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었다. 어릴 때부터 책 읽는 것을 좋아했고 전교 10등 안에 들 정도로 우수한 성적이었다. 하지만 인문계 학교를 다녔던 언니와 오빠의 성적이 좋지 못한데다 여동생이 피아노를 전공하여 경제적 사정이 넉넉지 못했다. 부모님은 최현주가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길 원했고, 최현주는 부모님의 뜻에 따라 마산여자상업고등학교(현 마산용마고등학교)에 진학했다. 부모님의 뜻에 따르긴 했지만, 최현주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다. 공부를 잘해서 기대가 컸던 중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은 최현주가 실업계 고등학교에 가겠다고 결정했을 때 몇 번이나 집에 찾아와서 설득을 했다. 하지만 결국 최현주는 적성에 맞지 않는 실업계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되었다.

기계 만지고 타자 치고 막 그런 거잖아요, 공부하고 동떨어진. 주산 같은 거 배우고. 그런 자격증은 다 있어요. 일 년이라도 다녔으니까. 컴퓨터가 그때는 이진법이었어요. 요즘은 윈도우로 바로 들어가지만 그땐 도스 들어가서 부팅을 시키고. 타자 배우고 부기 배우고. 장부 정리하는 방법, 전표 빨리 세는 방법. 돈 뭉치를 만들어서 선생님들이 나눠 줘요. 그러면 그거 빨리 세는 방법. 너무 이상하잖아요. 영어는 완전 중학교 영어밖에 안 해요. 수학교 중학교에서 한 수학을 다 해요. 국어랑 문학을 하긴 하는데 기초적인 것들. 거의 기초적인 거.

최현주는 적성에 맞지 않는 교육 커리큘럼이 너무 힘들었고 즐거움을 느끼지도 못했다. 스스로 선택한 길이 아니었기에 학교 교육과정에 동기부여도 되지 않았다. 그래도 고등학교를 다닌 1년의 추억이 마냥 어두웠던 것만은 아니다. 받고 싶은 교육을 받는 것은 아니었지만, 실업계 고등학교 중에서도 명성이 자자했던 학교이니만큼 시설도 대규모에 매점과 식당도 있고 학생활동도 다양했다. 대학진학생이 적은 상업고등학교의 특성상 축제가 “거의 대학축제만큼” 성대했다. 당시 최현주는 글짓기반과 미술반에서 CA(클럽활동)활동을 했다. 사나흘간의 축제 기간 중 낮에는 시낭송을 하고, 저녁에는 축제기간을 포함해서 한 달 동안 열리는 미전(미술전시)에 참여했다. 미전을 하면 자기 작품을 친구들에게 보여 주고, 구경 온 친구들은 작품에 장미꽃을 붙여 주기도 했다. 미전이 끝날 때 장미꽃이 가장 많이 붙은 사람에게 상을 주는 행사

도 있었다. 이런 점들은 최현주에게도 즐겁고 신기한 경험이었다. 그러나 대학교를 가고 싶던 열망만큼은 아니었다. 최현주는 방향 끝에 가출을 감행했다.

공부를 해야겠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겠다는 마음에. 여기 있으면 나는 계속 일을 해야 해라는 마음이 있어서. 아버지가 취직자리를 알아봐 주셔서 한 4개월인가 일을 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진 아닌 거 같은 거예요. 계속 이렇게 있으면 나는 이렇게밖에 못사는구나.

그리고 나서 저는 가출했어요. 학교 그만두고, 집에선 계속 다니라고 했으니까. 상고 가서도 그림 그리려는 거 좋아하고 글 쓰는 거 좋아해서. 그런데 그걸로 대학을 갈 수도 없잖아요. 부모님은 “그렇게 해서도 대학을 간대, 너도 직장 일을 하면서 야간대학이라도 가면 돼.”라고 하셨지만 배우는 게 틀린데 어떻게 대학을 가요. 전혀 되는 게 아니라서. 그냥 자퇴를 했어요. 부모님이 학교 쪽은 알아서 처리하시고, 저는 그냥 집 싸 가지고 나왔어요. 못됐죠. 못된 짓 많이 했어요.



고등학교 시절 미전에 전시했던 그림

‘나는 공부를 해야 해.’ 라는 마음이 확실했어요

무작정 짐을 싸들고 나온 최현주는 서울로 올라왔다. 아무런 연고도 없었기 때문에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는 것이 우선이었다. 일단 답십리에서 쪽방이 딸린 횡집에 취직해서 먹고 자면서 돈을 벌었다. 다행히 최현주와 나이가 같은 아들이 있었던 식당 주인은 최현주의 사정을 잘 헤아려 주었다. 최현주에 따르면, 단골손님들에게 “애 외지에 나와서 공부하려는 친구니 팁 좀 챙겨 주라.”고 이야기해 줄 만큼 좋은 분이였다. 횡집에 딸린 방에서 먹고 자면서 돈도 모으고 검정고시를 위한 공부를 했다. 다행히 가출을 감행한 그해에 바로 고졸 검정고시를 패스하고 근처에 지하방도 얻을 수 있었다. 어느 정도 돈이 모이자 아침부터 밤까지 내내

훗집 일을 하면서 대입준비를 하는 것이 버겁다고 느꼈다. 최현주는 공부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군자동의 광고 카피라이터 회사에 경리로 취직했다. 역시 이번 직장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광고회사 대표와 같이 일하는 언니들이 책을 얻어다 주는 등 다각도로 공부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그때는 책 사서 독학하고, 언니들하고 사장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사장님이 서울대학교를 나오셨거든요. 처음에 수학하고 그런 것도 이과 쪽을 공부해야 한다고, 그래야 니가 나중에 뭘 하든 좋다고, 그래서 그쪽 공부했었죠. 정말 사장님 도움 많이 받았는데.

(사장님의 추천에도 불구하고) 책 읽는 거 워낙 좋아하고 글 쓰는 거 워낙에 좋아해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게 …… 그래야 책 쓰고 선생님 하면 그거 하면서 글 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어릴 때 선생님도 되고 싶었고 작가도 되고 싶었고, 어릴 때부터 동화 같은 거 써서 애들한테 보여 주고 내가 쓴 거야 그리고, 어린 마음에, 그리고 그런 쪽으로 글짓기 쪽에서 계속 상을 받았기 때문에 (국문과를 선택했죠).

드디어 최현주는 1992년 학력고사에 응시했다. 여전히 군자동에 살았기 때문에 성적을 고려하여 집도 가까운 세종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안전하게’ 지원했다. 다행히 결과가 좋아 93학번으로 입학했다. 대학교에 입학했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집에 전화를 했다. 부모님은 그 후로도 3년이 지난 후에나 최현주의 사는 곳을 둘러보고 오랜만에 딸의 얼굴을 보기 위해 서울을 방문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부모님으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기대할 수 없었다. 최현주는 드디어 대학생이 되었지만 여전히 대학생살을 즐기며 공부에만 전념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집세를 아끼기 위해 친구와 함께 살면서 학비를 벌기 위해 과외 아르바이트를 비롯하여 호프집 등 온갖 아르바이트를 했다.

처음에 일할 땐 완전 지하였죠. 완전 지하에서 반지하로, 그때도 학교를 다니니까 학비가 들잖아요. 어쩔 수 없이 친구랑 방을 같이 써서 반반 내고, 먼저 친구가 학교 여기저기가 붙어있잖아요, 그리고 전봇대 같은데, 붙인다고 많이 혼났어요. 그때는 그런 거 특히 많이 못 붙이게 해서, 불법과외라고 해서 단속 많이 했죠.



학원강사 시절의 최현주



1996년 동해에서, 연애시절 최현주와 이상용

일하고 공부하고 악착같이 그러느라 연애할 새도 없었어요. 갔다 와서 학교 수업 없을 때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고 밤에도 거의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고, 호프집에서도 일해 봤고 단란주점에서도 일해 봤구요. 안 해 본 게 없었어요. 페이가 높은 데를 찾다 보니까 새벽시장에 배달하는 거 있잖아요. 밥 배달하는 거 이고 배달하는 거 그거 많이 줘요. 그리고 동대문하고 저희가 가까워서.

처음부터 교사에 뜻을 가지고 있던 최현주는 국어국문과에 재학 중이면서 교직 과정을 이수했다. 재학 중에 임용고시에 응시하였지만 좋은 결과가 나지는 못했다. 결국 과외를 했던 경험을 살려 학원에 취직했다. 국어와 논술을 가르치고 때때로 수학을 보조했다. 최현주는 이곳에서 남편을 만났다. 학원 원장의 친구였던 이상용은 친구 핑계로 학원을 드니다며 학원강사들에게 간식거리를 사 주었다.

남편하곤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학원 다닐 때 원장선생님 친구세요. 소개시켜 주셔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원장선생님 친군데 자주 와서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말로는 흑심에서 그랬대요.

어린 나이에 타지로 나와 혼자 돈을 벌면서 치열하게 살았던 최현주는 항상 곁에

있었던 이상용에게 심적으로 많이 의지하게 되었다. 1997년에 대학교를 졸업한 최현주는 이상용과 연애를 하다가 그해 가을에 결혼했다. 주위에서는 “그렇게 힘들게 학교를 가 놓고 결혼을 왜 일찍 하느냐.”며 걱정을 많이 했다. 객지생활을 하던 최현주와 이상용은 결혼 전에도 살림을 합쳤던 터라 누가 딱히 프로포즈를 한 것도 없이 당연히 결혼을 할 거라고 생각했다.

지금은 후회해요. 지금은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늘 남편하고 지냈으니까. 어딜 가서도 늘 남편이 있었으니까. 그때는 그게 별로 못 느꼈는데. 지금은 조금. 연애도 해 보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나 혼자 여행도 다녀 보고. 그때는 왜 그랬지, 좀 후회해요. 미련했어. 왜 그랬지. 그래서 고등학생들한테도 연애 많이 하라고 그래요. 지금 생각해 보면 미련 곰탱이도 아니고 왜 내가 먼저 하자고 그래서 발목을 잡혔지, 그래요.

남편 이상용은 1967년생으로 8남매 중 차남이다. 그러나 장남이 일찍이 사고로 사망하여 최현주는 맏며느리가 되었다. 충남 예산의 시댁으로 재작년까지만 해도 철마다 내려갔다. 김장을 하고 장을 담그기 위해서였다. 8남매 몫의 김장을 하고 장을 담그기 위해 동서와 시누이들도 다 모였고 맏며느리로서 최현주 역시 빠질 수 없었다. 이렇게 맏며느리 아닌 맏며느리로 십 년을 보내자 시어머니는 항상 끼고 있던 반지를 최현주에게 선물했다. 늦은 혼수인 셈이었다. 최현주는 시어머니의 반지 증여가 “우리 사람”으로 받아들여 준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장남이 아닌데 장남이 됐어요. 사고사로 돌아가셔서 제가 이제 맏며느리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시집와서 제가 김장을 하고 장을 담그고 제가 다 했죠. 작년부터 안 해요. 다들 너무 힘들어서. 한 번 하고 나면 다들 녹초가 되거든요. 배추를 막 오백 포기 이렇게 담그니까. 시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거. 당신께서 사용하시던 것을 주셨어요. 제가 첫째가 원래 아니거든요. 맏이가 아니었어요. 근데 손윗분께서 돌아가셨어요. 맏이가 되면서 제가 모든 일을 맡아 하게 되면서 어머님께서 물려주셨어요. 결혼하고 한 십 년이 지나서 물려받았어요. 십 년쯤 되니까 애가 이쪽 사람이고, 또 어머님께서 애가 우리 사람이구나 서로가 편해지고 나서 그러고 나서 주셨어요. 그 전까지는 내 어머니라기보단, 내 딸이라기보단 서로의 관계가 좀 있다가 십 년 정도 지나니까 서로가 좀 편해지니까. 처음 결혼하면 시어

머니가 지나가면 이렇게 일어나야 되잖아요. 앉아 있다가 누워 있다가도.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사이가 되면 주시는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맡기면.

최현주가 창원에서 함께 살았던 친정 부모님은 아버지의 퇴직 후 잠시 살았던 홍성으로 돌아가 정착했다. 오빠는 대전에서, 언니와 여동생은 경상도에서 살아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 때는 가급적 만나려고 노력한다. 명절에는 우선 시택으로 가지만 예산과 홍성이 1시간 거리밖에 되지 않아 다행히 매번 친정에 들를 수 있다.

저는 우선 시택을 가죠. 부모님은 홍성에 계세요. 다행히 저희 남편 쪽이 같은 충청도, 홍성하고 예산이에요. 한 시간밖에 차이가 안 나서 다행히. 장점이지요, 멀면 못 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최현주가 스크랩해 둔 정희와 준희 형제의 텃줄, 초음파사진



최현주의 친정어머니와 정희



2005년 남양주 집에서 준희



2008년 겨울 무주펜션에서 이상용과 정희, 준희 형제

우상용은 스포츠의류를 일본에 판매하는 무역업을 했다. 지사가 11개였고 공장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대규모의 사업이었다. 그 덕분에 신접살림을 차렸던 군자의 살림을 정리하고 2003년에 남양주 평내의 큰 평수 아파트로 이사해서 최현주 소유의 논술학원도 차릴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최현주와 우상용 부부에게 정희(2000년생)와 준희(2002년생) 형제가 태어났다.

한편 최현주는 분양하는 아파트의 상가에 자리를 잡고 학원을 운영하면서, 남양주의 고등학생 기숙학원으로 출강도 했다. 책을 내 보지는 제의가 들어와 논술교안을 집필하기도 했다. 영어와 수학은 전담 선생님을 따로 두고 4년 동안 운영을 하며 경험도 쌓았다.

그러나 2007년에 남편이 “완전히 쫓딱 다 망했다.” 우상용이 일어에 능숙하지 못해 통역 및 중간매개를 담당하는 바이어와 동업을 했는데 “바이어가 일본 업자랑 짜고 물건과 돈을 쓱씩” 한 것이다. 졸지에 수십억을 사기당한 우상용과 최현주는 학원과 집을 모두 처분하고 찜질방을 전전하면서 도망 다니기에 이르렀다.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학원을 하게 됐죠. 남편도 괜찮고 하니까 우리가 직접 학원을 해보자. 오십 몇 평짜리 학원을 했거든요. 큰애는 아직도 기억을 해요. 집도 컸었고, 집도 오십 몇 평이었고 학원도 오십 몇 평이었고, 선생님도 있었고 아줌마도 있었고, 제가 강의를 다니니까, 또 제가 운전을 못해서 남편이 픽업해다 주고 그랬거든요. 그랬던 기억이 큰애는 나니까 여기 와서 많이 힘들어 했었어요. 집도 쪼그맣고 아이들도 북적대고, 그런 게 싫어서.

공부방 선생님이 다시 시작하다

남양주 살림을 정리하고 찜질방을 전전하던 최현주 가족은 친척의 도움으로 삼환아파트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처음 삼환아파트에 살게 된 것은 현 거주지가 아닌 9동 6층이었다. 그때도 공부방을 운영했는데 학생들이 드나들다 보니 아래층과의 마찰이 심했다.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최현주는 공부방을 현 거주지인 8동

102호로 옮겼다. 1층에 자리를 잡기 위해 6개월 전부터 부동산에 연락을 해 두어 어렵게 터를 잡았다. 연고가 없는 지역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려면 사전조사가 치밀해야 했다.

최현주는 아파트 상가의 학원들에 문의를 했고 지역의 교육동향을 파악했다. 아파트 내에 홍보물을 설치하기도 했다. 처음에는 삼환아파트 주민 중에서만 학생이 모여들었지만 점점 입소문이 나고 자리를 잡다 보니 지금은 80%가 삼환아파트 거주민이고 나머지는 외부 학생들이다.

대학교 때부터 교직이수를 하다가 교직은 되고, 교직 시험에서, 임용고시가 안 돼서 학원을 알아봐서 학원 쪽에서 일을 하다가 다시 빠져나와서, 국문을 전공했는데 처음 서울에서 하던 거는 국어를 가르치고 논술을 가르치고 잠깐 수학 보조를 했는데, 여기 와서 오히려 논술이라든지 그런 거는 잘 안 하시는 경향이 많아서, 할 줄 아는 거는 아이들 가르치는 거고, 제 전공 쪽은 할 수 없고, 그래서 보조 때 하던 경험을 살려서 수학 쪽을, 고등학교 때 과 전향을 했거든요. 이과에서 문과로, 중·고등학생들은 다 수학기구요, 초등학교들은 수학을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 과목들도 봐 주는 아이들도 있구요.

수원 쪽은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거주하기가, 아무래도 저렴하니까. 그래서 서울에서 남편의 사업 때문에 내려오게 됐는데, 수원 쪽에서도 이쪽이 서민이 살기에 가장 저렴하고 편하고 그래서 살게 됐죠. 서울하고는 천지 차이죠. 집을 고를 때도 공부방을 하기 좋은 곳 그런 경향 같은 걸 다 봐야 하니까요. 일일이 학원을 다 방문하거나 물어봐요. 아들 교육비나 어떤 경향. 그런 걸 파악하지 않으면 쉽게 오픈할 수가 없고 오픈했을 때 학생들이 찾아온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모험이기 때문에. 홍보는 처음에는 해 본 게 있어서 앞에 대문 붙이는 거 있죠? 그걸로 시작을 했구요. 여기가 성균관대학교가 있는데 워낙에 학생들이 과외를 많이 하죠? 엄마들은 솔직히 아이들은 장기적으로 아이들을 책임지고 봐 줄 사람을 원하지 잠깐 아르바이트로 돈벌이로 생각하는 그런 건 원하지 않잖아요.

평일에는 학교 수업 때문에 학생들이 하교한 후부터 문을 열고 오후 11시까지 수업을 진행한다. 이른 시간대에는 주로 초등학생이 많고 늦어질수록 학생들의 연령대도 높아진다. 토요일은 아침 9시부터 수업을 진행한다. 계속 수업이 이어지기 때



안방에 걸려 있는 가족사진

들면 안 되는 걸 알고 자기가 뭘 해야 하는지 아니면 뭘 하라고 안 해도 기본서가 나왔으면 자기가 알아서 문제집 풀어 오고, 모르는 문제 저한테 물어보는 식이니까, 뭘 하라고 안 해도 돼서 편해요. 올라갈수록 편해요. 저는 힘들다가도 아이들이랑 수업하면 재미있어요.

열네 살의 정희와 열한 살의 준희 형제에게 최현주는 엄마이자 선생님이다. 최현주가 형제들이 어릴 때부터 학원을 경영하거나 공부방을 운영하다 보니 공부하러 오는 누나 형들을 보고 자랐다. 형제에게 공부하는 애써 노력할 필요가 없는 생활이 되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정희와 준희의 생각이

같은 것은 아니었다. 같은 환경에서 같이 키운 아이들이지만 성향은 확연하게 다르다.

큰애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가르치는 걸 봐서 철이 들어서, '나는 학원을 안 가도 돼, 나는 공부를 여기서 해, 엄마가 모든 걸 봐 줘.' 라는 거에 대한 장점을 모두 알고, 작은애는 '엄마가 있으니까 공부만 해야 돼, 엄마 때문에 나는 공부만 해야 돼.' 라고 생각하죠. 큰애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반면에 작은애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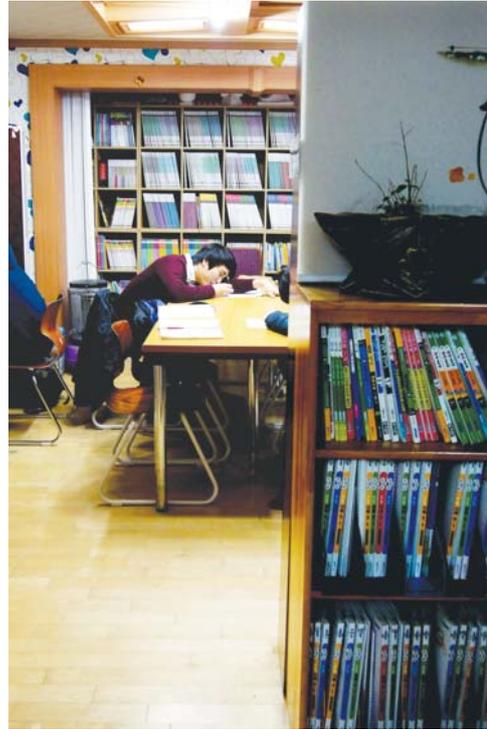
생업공간과 주거공간이 분리되지 않아 가족들이 불편할 법도 하다. 그러나 남편을 비롯한 아이들도 익숙해져서 지금은 크게 힘들지 않다. 현재 남편은 경호원 일을 하고 있어 주말에도 일을 나갈 때가 많고, 최대한 최현주의 편의를 봐 주는 편이다. 공부방 운영에는 거실과 방 한 개가 사용되는데 거실은 자율학습공간, 현관에서 가까운 방은 수업을 위한 교실이다. 부부는 안방을, 형제는 가장 깊숙한 작은 방을 사용한다. 외부에 계속 노출되는 공간의 특성상 식사는 주로 방에서 하기 때문

에 다른 가정에서 식탁을 두는 공간에는 작은 테이블 하나만 놓여 있다.

(남편은 수업시간에) 되도록이면 피하려고 하구요. 어차피 남편도 일을 하고, 토요일도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기도 하구요. 일요일에는 쉬는데 어차피 두세 타임 정도니까 다섯 시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이들하고 밖에서 잠깐 놀아 주고 밖에서 일 보다가 들어오고. 처음에는 불편했는데요, 좀 지나니까 어차피 남편도 집에 와서 잠을 자는 곳니까. 생활을 하는 건 주말밖에 없으니까. 생활공간이 기보다는 잠을 자는, 취침을 위한 공간밖에 안 되니까. 남편은 그거에 대해서는 굳이.

최현주도 삼환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이웃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삼환아파트 학생인 덕분에 이웃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삼환아파트 내의 지인이라면 모두 학부모이니 이웃 간에 흔히 칭하듯 ‘정희 엄마’, ‘준희 엄마’ 보다는 ‘선생님’으로 불린다. 이러한 사정이다 보니 상호간에 마음을 터놓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물론 최현주의 성격이 내성적이라 책 읽는 것을 좋아하여 얼마 안 되는 여가시간에는 주로 독서를 즐긴다. 어렸을 때 감명 깊게 읽은 책을 묻는 조사팀의 질문에 최현주는 『마루타』를 답했다. 재미있었다기보다는 굉장한 충격이었다.

성격이 내성적이예요. 그래서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조용한 곳에서 책 읽는 걸 좋아하거든요. (어릴 때 읽은 책은) 너무 많이 기억이 나는데, 너무 안 좋은 책이라서 기억을 하는데, 마루타. 너무 충격이었죠. 책 읽는 걸 좋아해서, 웬만한 집에 있는 책은 다 읽어서 아버지가 회사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다 주셨거든요. 근데 그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주실 때



거실을 개조한 자습실

무슨 책인지 모르시고, 당신께서 무슨 책인지 모르시고, 중학교 때 읽었어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마루타 시리즈를 다 빌려다 주셨어요. 그게 또 다 읽게 돼요. 여자 마루타도 있거든요. 처음엔 너무 충격이어서 가서 막 토했어요. 화장실에 가서. 그랬는데 다 읽게 되더라고요.

어릴 때 홍성에서 다니던 교회는 최현주에게 놀이공간에 불과했지만, 모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최현주에게 지금 종교는 위로가 되고 생활에 힘이 되는 원동력이다. 매주 일요일에는 근처 새한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린다.

항상 그런 건 있어요.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께서 예쁘게 보실까. 하나님께서 이걸 잘했어 이런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런 것들. 항상 제가 이걸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많이 지켜봐주세요. 기도하고.

아직 39살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과란만장한 젊은 시절을 보낸 최현주는 일찌감치 공부를 포기하는 학생들이 안타깝다. 특히 요즘은 고등학생들이 수능을 목전에 두고 수학을 포기하는 일이 많아 더욱 속이 상한다. “시집만 잘 가면 된다.” “공부 말고 딴 거 할 건데 그것만 잘하면 되지 굳이 공부까지 해야 하느냐.”라는 학생이나 학부모를 만나면 매우 답답하다. 최현주의 스마트폰 메신저어플리케이션 대화명에 “잊지 마! 수학은 포기하고 싶은 때가 시작할 때야.”라고 쓰여 있을 정도로 수학에 정을 떼는 학생들을 붙잡기 위해 노력한다.

저는 수업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대학을 갔는데 너는 원하는 학교에 가고 이렇게 부모님이 학원까지 보내 주는데 그게 뭐가 힘든냐고.

이런 얘기 하면 남들이 책피하지 않냐고 해요. 책피한 건 아녜요. 내가 이만큼 해서 정말 나락으로 떨어졌다면 내가 어디 가서 얘기 못 하겠지만 나는 결정한 거 자체가 옳은 결정이었고 그래서 나는 책피하지 않다. 김정고시 한 것도 책피하지 않고.

예 · 체능하는 애들은 이제 수학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애들도 있구요. 예고 가려고 그
만두는 애들이 많아요. 예고도 공부하는 학교고 그래야 대학도 갈 거 아니냐 그래도 그쪽
만 잘하면 된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몇백 명의 아이들 중에서 뭔가가 자기만의 특별
한 뭔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애가 피아노나 성악으로 특출난 것도 아니고,
특출나다고 해도 자기만의 경쟁력을 가져야 하는데, 엄마들이 먼저 바뀌어야 해요.



든든한 장녀에서 한 아이의 엄마로
"쉬지는 않고 뭔가 계속 꾸준히 했어요"
백순자 로 살다

02 | 봉사의 여왕, 28통 통장 백순자

백순자는 통장을 역임하면서도 대외적으로 봉사활동도 많이 하는 주민으로서, 조사자들을 가장 반겨 주었던 제보자 중 한 명이다. 백순자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몰라 봉사활동을 못 하는 주민이 많은 점을 안타까워했다. 조사팀의 조사에 응하게 된 것도 사생활을 공개한다는 점에서 다소 우려하였지만, 본인의 사례를 통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함께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든든한 장녀에서 한 아이의 엄마로

백순자는 1963년, 제원군(현 제천시) 금성면 대량리에서 첫째 딸로 태어났다. 두 여동생과 남동생 하나를 둔 맏딸이었다. 철도공무원이었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탓에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만으로는 4남매가 먹고살기 빠듯했다. 연년생 오빠가 있었으나 일찍 세상을 뜨게 되어 백순자는 “맏이 아닌 맏이”가 되었다. 생활 전선에 일찍 뛰어든 백순자는 든든한 집안의 기둥이었다. 당시 제천장이 번성하던 때였는데 백순자는 여기에서 공판장의 경리로 일했다.

당시 주변 사람들은 백순자를 ‘백양’ 이라고 불렀다. 스물세 살이 되던 해, 그녀



28동 통장 백순자

를 눈여겨보던 한 상인이 아들 중매를 서 달라며, 친구를 소개시켜 달라고 했다. 백순자는 주선자로서 친구와 함께 나간 자리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

제가 거기서 경리를 보고 있을 때 우리 어머니는 장사를 하시고 그러시다가, 어머니가 몇 년을 지켜보고 있다가. 저한테 직접 얘기는 못 하고, 그때 당시에는 “백양”, “백양” 했어요. 그때 당시 어머니가 “백양” 하고 부르시더니 친구가 있으면 소개를 시켜 달래. 저는 진짜로 친구를 소개시켜 줬어요. …… 그때는 시장이 잘되니까 다방도 되게 많았어요. 역전에서 다방에서 인제 우리 신랑이 내려오기로 하고 역전다방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소개시켜 준 친구랑, 모르니까, 같이 나가 가지고 앉아 있는데, 그래 가지고 친구를 소개시켜 주고, 친구하고 몇 번 편지를 주고받고 했나 봐. 근데 어머니가 물어봤더니, “에이 그 사람 말고, 소개시켜 준 사람 말고 차라리 중매쟁이를 말해 주지.” 그니까 나를 얘기하더라. 그러곤 내 친구랑 몇 번 하다가 연락이 끊겼나 봐, 일 년 뒤에 어머니가 다시, 객지에 내보냈으니까 그때가 얘기 아빠가 스물일곱인가 그럴 거야. 일 년 뒤에 또 얘기가 다시

나와서, 그 옆에 있는 아가씨가 더 낫다 그래 가지고 일 년 뒤에 저를 다시 본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렇게 인연이 된 거예요.

그렇게 만난 남편과 1986년 10월 26일에 백순자는 결혼을 했고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다녀왔다. 부부는 남편의 직장이 있던 의왕의 단독주택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부부 모두 스스로 번 돈으로 혼수도 직접 마련했다. 신혼 때는 연탄보일러로 난방을 하는 주택에서 살았다. 아무래도 주택이라 습하여 물건도 금방 망가졌고 힘들게 마련한 혼수는 이사하면서 거의 처분했다.



결혼식

반지, 목걸이, 팔찌. 요거는 금으로 몽땅 세트고, 다이아반지는 따로. 제가 원래 악세사리 하는 거 자체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시계, 나 다 받았는데, 화장품도 받고, 진짜 뽀, 또 뭐 많이 받았는데. 저희 때는 금 세트가 유행이었는데. 기본으로 금은 반지, 팔찌, 목걸이, 쌍가락지 이런 거는 당연히 해 주는 걸로. 내가 벌어서 저렴하게. 그때 당시에는 300만 원 들여서 결혼한 것 같아요. 왜냐면 냉장고도 200짜리. 세탁기도 수동세탁기. 반자동. 전자동은 없었어요. 반자동 해 가지고 이쪽에 세탁조 있고 옆에는 탈수기하고 같이 달려 있는 거. 반은 세탁기고 반은 탈수기예요. 그래서 애기 세탁 같은 거는 손으로 다 빨아 가지고 탈수기에 넣어서 탈수하고. 우리 창고에 가 보면 선풍기도 30년 넘은 게 있어요. 아직도 사용해요. 우리 신랑 총각 때부터 쓰던 거니까. (처분할 때) 아까웠죠. 그런데 아무래도 저렴한 걸로 하다 보니까.



백순자 부부의 결혼예물시계



1987년 8월 11일, 백순지는 아들을 낳았다. 아들을 낳을 즈음 친정과 시댁이 있는 제천으로 내려갔는데 이불 빨래를 하다가 양수가 터졌다. 때가 안 됐는데 양수가 터지는 바람에 제천 서울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로 출산하여 크게 통증도 없었다. 4kg의 우량아를 낳아 병원 개원 이후에 태어난 아기 중 제일 컸다. 그런데 출산 직후 아기에게 황달이 나타나는 바람에 인큐베이터에서 3주간 있었다. 4kg이나 되는 우량아가 미숙아들이 주로 들어가는 인큐베이터에 있었던 바람에 “인큐베이터가 미어지려고 했”다며 백순지는 웃으며 회상했다. 딱히 산후조리를 하지는 않았고 일주일 동안 입원했다가 한 달 내에 실밥을 제거하곤 바로 의왕으로 올라왔다.

애 낳으려는 제천으로 갔어요. 친정도 제천이고 시댁도 제천이다 보니까 제천 서울병원 이라고 거기서 낳았어요. 그때 당시 87년도에 애 낳을 때 그 병원, 서울병원 이래 제일 큰 애기를 낳았대요. 우량아였어요. 제왕절개로 낳았는데 4키로를 낳았어요. 배는 생각보다 안 컸어요. 애를 엄청 크게 낳았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병원 이래 제일 큰 애기를 낳았는데 낳자마자 애가 황달이 와 가지고 그래 가지고 애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3주간 있었어요. 애가 낳자마자 황달이 오면 위험하다고 그러더라고. 머리를 다 밀고서 링겔 꽂고 막 그래서 인큐베이터가 미어질려고 그랬어. 그런 데가 미숙아들이나 들어가는 텐데 4키로가 들어갔으니 오죽했겠어. (아들을 임신했을 때) 고기를 잘 먹었어요. 갈비 같은 고기를 많이 먹었어요. 고기 먹으면 아들이라대.

저는 병원에서 수술했으니까 일주일 있다가 퇴원을 시켜요. 막 가리지는 않았어요. 병원에서 꼭 미역국만 주지는 않아요. 그냥 막 부드러운 음식들 주고 그러는데, 8월 11일에 낳았으니까 한창 덥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냥 뭐 보면 뭐 우리 어머니가 복숭아도 사다 주시고 천도복숭아도 먹고 옥수수도 먹고 뭐, 산후조리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에어컨도 선풍기도 병원에서 다 틀어주는 거야. 통증도 없이 양수가 미리 터졌어요. 애 낳으러 가기 전에 시골서 마당에서, 단독이었어 그때는, 커다란 고무 다라이(대야)에다가 이불 집어넣고 발로 푹푹 밟아 빨래하고 있었는데 뭐가 막 흘러. 그게 양수가 터진 거래. 병원에다가 전 화했더니 배 아프면 오래는 거야. 배가 아파야 가지. 나중에는 그냥 병원에 갔어. 갔더니 양수가 다 빠져서 위험하대잖아. 그래서 마른 애가 나온대. 양수가 있을 때 애가 같이 나와야 하는데 아직 애가 나올 때가 안 됐대. 그래서 유도분만 촉진제 맞고 했는데도 애가 돌아서 안 나오니까 제왕절개한 거야. 그니까 통증도 없고 골반이 막 벌어지고 그래야 그



아들의 배냇저고리



아들의 군복

런데 그런 게 없으니까 산후풍이나 젖몸살 같은 것도 없었고. 8개월까지 먹이면서 짜면서 버리고 막 그랬어요. 젓이 흔해서.

이유식도 백순자가 직접 만들어서 먹였다. 여러 가지 잡곡들과 멸치 등을 볶고 삶은 후 '원기소' 라는 비타민 영양제까지 섞어 분유에 타서 먹였다. 백순자가 이렇게 키운 하나뿐인 아들과는 지금까지도 친하게 지낸다. 함께 장을 보러 가기도 하고 대화도 많이 하는 편이다.

이유밀 같은 거 이유식을 내가 다 만들어서 먹였어요. 콩, 보리, 멸치 뭐 다 볶아서 삶아서 다 가져가서 고깃만 갈아서 깨서 그래 가지고 분유만 사다가 섞어 가지고. 그때까지만 해도 원기소라는 게 있었어. 약국 가면은 지금도 있나 몰라, 원기소라 그래 가지고 애기를 먹는. 큰 통으로 그걸 사다가 같이 갈아 가지고 이유밀을 만든 테다 섞어 가지고. 방앗간 갈 때 한 통을 사가서 섞는 거야. 쌀, 보리, 콩, 깨 뭐 다. 멸치까지 하면 특별한 거 보충할 거 없어. 분유까지 섞으면. 그래 가지고 애가 중학교 때까지 비만이어 가지고 학교서 신체검사하면 꼭 병원 가서 소견서 끊어 오라고 했었어.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슈욱 빠졌어. 그 어렸을 때 얼굴이 없어요.

우리 아들하고 나는 되게 친해. 친하다는 게 뭐냐면, 딴 형제가 없잖아, 우리 애가. 그러니까 저녁때면 우리 마트 앞에 가깝잖아, 이마트하고 하나로. "엄마 마트 간다." 그러면 "엄

마나도 같이 가.” 그리고 같이 다녀. 키는 1미터 75인가 76인가, 그래. 어머, 우리 아들 잘 생겼어. 그래. 우리 아들 잘생겼어. 김명민 닮았다고 그랬어요.

“쉬지는 않고 뭔가 계속 꾸준히 했어요.”



백순자가 부업으로 색칠한 인형들

백순자 가족은 아들이 백일쯤 되었을 때 수원으로 이사 왔다. 1990년에는 수원 천천동의 아파트로, 2000년에는 현 거주지인 삼환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정도가 되었을 때 아파트상가에서 ‘아르바이트’로 분식집을 일 년 정도 운영했다. 그러나 남편과 아들의 반대에 부딪쳤고, “먹고 살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애라곤 아들 하난데” 직접 들봐야겠다는 마음에 곧 접었다. 하지만 백순자는 경제적 사정과 상관없이 일할 거리가 필요했다. 인형에 색칠하는 부업을 하기도 했고 같은 아파트 주민의 아기를 봐 주는 일도 4~5년 정도 했다.

애가 하나다 보니까 어디 나가기도 그렇고 일은 많이 했어요. 집에서 부업하는 것도 했었고, 지금도 보면 샘플로 갖고 있어요. 또 애 있잖아요, 우리가 애가 하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애를 잘 맡겨요. 애 낳아 가지고 한 달 만에 두 내외가 우체국 다니셨는데, 천천아파트 살 적에, 애기 낳은 지 한 달 만에 저한테 맡겨 가지고 그 애가 네 살인가 다섯 살인가 될 때까지 제가 봐 줬었어요. 집에서 애 봐 주고 이런 거. 쉬지는 않고 뭔가 계속 꾸준히 그냥 부업으로. 애가 학교 가고 그러니까 낮에 잠깐 잠깐 아르바이트하고.

2006년에는 남편의 지방 발령으로 부부가 제천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아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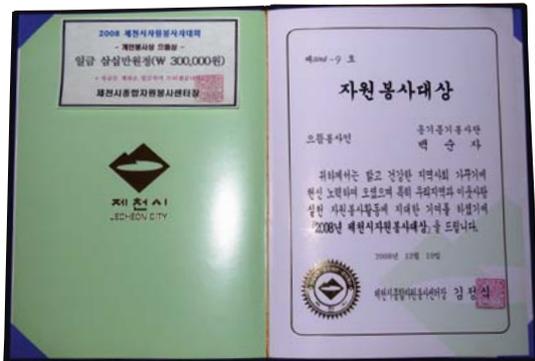
학교 때문에 지방으로 갈 수 없어 따라가지 않았다. 제천에서 백순자는 식당을 운영하던 시어머니의 일손을 도왔지만 그마저도 곧 손을 떼게 되었다. 이때 시간적 여유가 많이 생겨 운전면허를 취득했다. 괜히 소문났다가 떨어지면 부끄럽다며 아무도 모르게 학원에 등록해서 교육받았다. 필기, 기능, 주행 모두 한 번에 딱 붙어서 3주 만에 면허증을 취득했다.

우리 애 아빠가 제천에서 발령이 나서 우리 애가 고3이다 보니까 애를 대학을 보내면서 여기서 기숙사 들어가라 그리고 저는 신랑 따라서 제천 내려가서 어머니 하시는 일을 거들어 드리고 거기서 식당을 같이하다가 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시니까 못 하시겠다 하셔 가지고 그거를 큰형님네한테로 넘기면서 저도 같이 빠진 거예요. …… 어머니랑 같이 그만두면서 제가 면허 취득도 그때 하고, 시간적 여유가 되니까.

접수만 해 놓고 토요일, 일요일에 문제집 한 권 풀고 월요일에 가서 시험 봤어요. 뭐 면허 필요하겠나 싶어서 안 했는데 지방 가서 봉사활동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남더라고. 주말에는 봉사활동할 데가 없잖아. 해야지 해야지 하고서는 문제집 한 권 사서 접수 내가 가서 해 놓고 문제집 사다가 풀고 가서 봤지. 나는 한 번에 다 붙었어. 그래서 삼주 만에 땀어.

‘백순자’로 살다

백순자는 제천에서 처음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제천의 식당 일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난 직후 그동안 하고 싶어 했던 봉사활동을 알아보았다. 월드비전에서 도시락을 제작·배달하는 것이었다. 독거노인이나 결연가정, 조손가정 등에 배달되는 도시락은 하루에 200개에 달했다. 2008년 12월에는 제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최다 봉사시간을 기록한 봉사자를 시상하는 올해의 자원봉사상 대상도 수상했다. 이때부터 백순자는 봉사활동의 참맛에 눈을 뜨게 되었다. 그러나 일 년가량 봉사활동을 하다가, 2009년 4월에 다시 삼환아파트로 돌아왔다.



제천시에서 수여한 자원봉사대상

가 자원봉사상 대상을 받았어요. 일 년에 최고 많은 봉사시간을 한 분을 해 가지고, 대상 상금하고 주시더라고. 상금 30만 원 받은 거는 그대로 제가 월드비전에다가, 기부금으로 후원을 해 드리고.

2009년 5월, 백순자는 이삿짐을 정리하자마자 다시 봉사활동을 할 만한 기관을 물색했다. 이는 것이 없어 동사무소와 수원시자원봉사센터에 문의를 하니 근처 서호복지관을 추천해 주었다. 그렇게 인연을 맺게 되어 첫째, 셋째, 다섯째 주 목요일에는 서호복지관에서 노인주간보호나 무료급식소의 일손을 돕는다. 집이 가깝고 워낙 “봉사를 좋아” 하는 성격이라 일손이 부족하다는 연락을 받으면 수시로 찾아가서 돕는다. 목요일 봉사를 함께하는 단체인 대한적십자사 한마음봉사회에서도 함께하자는 제안이 들어와 정식으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새삼스럽게 일하기는 그렇고 해서 동사무소를 찾아갔던 거예요. 이 주변에 봉사활동할 만한 데가 있나 하고, 그전이야 나도 젊고 그러니까 지방에서 하다가 올라오니깐, 그랬더니 주변에는 마땅한 데가 하면서 정확히 잘 모르시더라고요.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의뢰해 보고 그래 가지고 주변에 가까운 데가 서호복지관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서호복지관에 찾아가서 주간보호라고 아침에 어르신들 저녁까지. 그러면서 거기서 아침 아홉시부터 저녁 다섯 시까지가 주간보호라고 해 가지고 버스로 아침에 어르신들 오셨다가 저녁에 모셔다 드리고, 수급자 분들이나 요양원마냥 집에서 돈 얼마 내고 왔다갔다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주간보호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몇 달 하면서, 1층이 식당이에요. 거

마흔여섯 때, (식당 일에서) 완전 손 털기는 마흔여섯부터 제가 딱 손 떼면서 봉사활동을 다닌 거예요. 도시락 조리, 그리고 배달. 독거노인들, 아니면 결연가정들, 조손가정들 이런데. 그때 당시 한 이백 개쯤. 봉사자들하고 함께. 월드비전 같은 데는 식당이 없고 그러니까 도시락으로 해서 나가는 사업이에요. 거기서 2009년도 1월까지 하다가 올라왔어요. 그전에 12월에 제천에서 제

기는 어르신들 무료 급식 그런 거 있고 천 원에, 65세 이상 아니거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거 아니신 분들은 천 원에 사 드시기도 하고. 거기서 손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래 가지고 식당 음식 조리를 봉사해 드리고.

거기서 요일별로 봉사단체가 다르게 들어와요. 우연치 않게 제가 사람이 없다 그래서 들 어간 요일이 목요일 날인데 그 팀이 마침 대한적십자사 한마음봉사회라고 들어오셨더 라고. 제가 일하는 거 이렇게 보시더니 “우리 봉사팀에 들어오세요.” 그래 가지고 한마 음봉사회에서 대한적십자 봉사를 하게 됐어요.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별개로 하고, 대한 적십자 봉사는 또 따로 하고. 어제(어버이날)는 여기 행사에 모시고 와서 수원 행궁열차, 회비하고 구관사업 수익금을 비축해 놔다가 어버이날 행사로 어르신들 모시고 식사 대 접해 드리고.

백순자는 봉사활동 반경이 매우 넓다. 2011년에는 수해복구지역에도 투입되었 다. 당시 의정부가 수해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 백순자는 이불 빨래를 비롯하여 도 움이 필요한 곳에 손을 보탰다. 2010년 겨울 강원도 지역에 폭설이 내렸을 때는 적 설작업을 돕기도 했다.

적십자사에서는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2년이 되고 기본교육을 모두 이수한 봉사 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한다. 백순자는 대한적십자사의 한마음봉사회 소속으로 2011년 11월에 자원봉사활동 250시간을 채운 봉사자에게 수여하는 표창장을 받았 고, 2012년 12월에 500시간짜리 표창장을 추가로 받기로 예정되어 있다. 좀 더 다양 한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교육을 받기도 한다. 2011년 12월에는 사단법 인 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에서 시행하는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과 외상환자 응 급처치술 교육’을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수료하여 수료증을 받았다.

적십자에서 하는 거는 이렇게 하면은 보람이 있어. 정부에서 막 하는 거고. 그리고 인제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그리고 왜 안전문화 캠페인 그런 것도 나가고 또 뭐냐면은 적십자 회비, 내라고 왜 또 연말에 그거 홍보 나가고. 그런 거 하고, 활동범위가 많아요. 거기 또 왜 반찬봉사도 하고 쌀 지원도 가고. 봉사활동을 어디서 받아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돈을 회비를 내가면서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만 원씩 얼마씩 한마음회 회원들이 돈 모아



2010년 나눔바자회



2011년 여름 수해복구 봉사활동 현장

서 어르신들 효도잔치도 해 드리고 간식거리도 사다 드리고, 남들은 우리가 뭐 어디서 돈을 주겠지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돈을 내면서 저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돈을 내면서 봉사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런 짓을 하냐고 해. 후원금이 나오기도 해. 우리가 회원이 얼마가 되면 지사에서 얼마 정도 보조금이 나오고 구관사업이라고 그래 갖고 뭐 순대도 어디서 싸게 사다가 팔기도 하고 수익금 적립하고 바자회도 열어 갖고 하고 뭐 또 돈을 모아서 그런 거를 일년에 몇 번씩 행사를 치러 주고 그래요.

이마트 봉사단체에도 소속되어 한 달에 한 번씩 봉사활동을 나간다. 권선구 구운동 이마트에서 운영하는 단체로, 2012년 2월에 발대식을 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3월에는 세류동에 위치한 수원버드네노인복지관에서 바자회를 열었다. 바자회에서 판매한 물품들은 모두 이마트에서 기증한 것이었다. 봉사단체 회원들은 바자회에 필요한 일손을 제공했고, 바자회를 통해 얻은 수익금은 모두 복지관에 기부했다. 4월의 활동은 서호복지관에 총 300주의 나무를 심는 것이었다. 5월에는 이마트에서 판매한 어린이날 용품의 재고를 결손가정자녀 혹은 소년소녀가장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부하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6월에도 서호복지관에서 바자회를 하고 수익금을 복지관에 기부할 예정이다.

백순자의 사회적 대외활동은 굉장히 활발한 편이다.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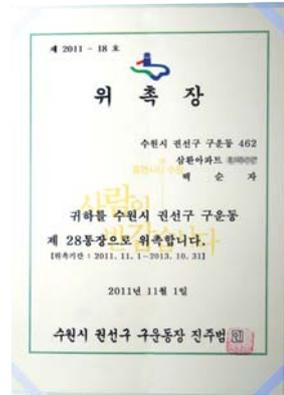
2010년 12월, 김장봉사



적십자 한마음봉사회 봉사조끼



2011년 11월 박건상 할머니 일대일 결연봉사



구운동 제28통 통장 위촉장

트 내 조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백순자는 삼환아파트의 8동, 10동, 13동을 책임지는 28동 통장을 맡고 있다. 아파트에 부녀회가 없어 큰 행사가 있으면 일손을 도우러 간다.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백순자에게 타인도 좋지만 살고 있는 동네를 위해 봉사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며 지인이 통장직을 추천해 주었다. 몇 번 고사했으나 우리 마을을 위한 일이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려 지원서를 넣었다.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2011년 11월 1일에 통장직에 위촉되었다. 이전에는 입주자대표회



2012년 4월 12일 보성 녹차밭에서 통장협의회 단합대회

의에서 간부를 하기도 했다. 수원시 응원단에도 소속되어 있어 5월에 열린 경기도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선수들의 사기를 북돋았다.

백순자는 봉사활동으로 인연을 맺은 박건상 할머니와 일대일 결연을 맺고 있기도 하다. 박건상 할머니는 삼환아파트의 노인정에서 청소를 해 주며 생계를 이어 나가고 있었다. 이를 눈여겨본 백순자가 활동하는 복지관의 일대일 결연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적으로 후원을 하게 된 것이다.

자매결연해 가지고 이렇게 딱 돼 있으니 박건상 딱 해 가지고 이분은 내가 계속 후원하니 김장도 하면 내가 노인정에 작년에도 120키로그램 가져다줬어요.

이처럼 여러 사회활동을 통해 만난 사람과의 인연은 삶의 활력소가 된다. 통장협

의회에서 회원들과 함께 2012년 4월 12일, 보성 녹차 밭으로 단합대회를 가기도 했다. 봉사활동을 가서 단체 회원들과 찍은 사진만도 한가득이다. 백순자에게 봉사활동은 단순한 여가활동이 아니다. 타인에게 베풀 뿐만 아니라 백순자 스스로의 자아를 끊임없이 발전시키는 통로인 것이다.



이발소 주인에서 삼환아파트 경비원이 되기까지
삼환아파트 지킴이
주민들과의 관계

03 | 삼환아파트 지킴이 오성근

2012년 3월, 따뜻한 봄이 되면서 삼환아파트 현장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주말 오후 삼환아파트를 천천히 걷다 보니, 상가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주민들, 휴게 시설에서 쉬는 주민들,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주민, 노인정에서 담소를 나누는 어르신들 등 아파트의 일상적인 모습들이 눈에 들어왔다. 이들 중 제일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삼환아파트를 관리하는 경비원들이었다. 아파트 주변 환경관리, 주차 관리 등 하루 24시간 근무해도 바쁘지만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으면 그 일까지 해결해 줘야 하는 게 경비원들의 몫이기도 하다. 삼환아파트에서 오래 근무한 경비원 B조 반장 오성근을 만나 경비원들의 일상생활을 들어보기로 하였다.

이발소 주인에서 삼환아파트 경비원이 되기까지

삼환아파트 경비원 오성근의 고향은 제주도이다. 오성근의 아버지는 오성근이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경찰관이 되길 바랐지만 그는 공부를 하고 싶지 않았다. 17세 때 매형이 이발소를 운영했는데 손님 머리를 다듬는 모습이 보기에 좋아 매형을 도와가며 이발 기술을 배웠다. 처음에는 물수건을 빨아 오고, 걸레질하다가 차츰 불에 고대기를 식히는 기술과 머리를 마는 기술을 배웠다. 배우면서 머리도 쥐어 박



삼환아파트 지킴이 오성근

히고 “잘 식혀 와.”라는 소리도 많이 들었다고 한다. 노력 끝에, 오성근은 1968년에 이발사자격증을 취득했으며 본격적으로 이용사의 길로 들어섰다. 그 당시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남녀 학생 모두가 이발소에서 단발머리를 했다. 그리고 1970~1980년대만 해도 명절이 되면 이발소에서 면도를 하기 위해 새벽 두 시가 넘도록 줄을 섰다. 그때는 이발소와 미용실이 지금처럼 대중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젊었을 적만 해도 명절 때 되면 이발소에 줄을 섰어요. 남자들 면도하려면 두 시 넘어서고 그랬어요. 그때가 제일 돈 많이 벌었어요. 미용실에 갈 생각을 안 했으니. 이는 사람이면 먼저 해 주고 모르는 사람은 나중에 해 줬어요. 매형 일은 오 년 정도 했고 결혼해서 처가 동네 가서 내가 직접 이발소를 차렸어요. 그때부터 내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신문배달하고 봉사활동하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오성근이 회상하기에 이발소가 가장 번성한, 1970~1980년대에 돈을 제일 많이 벌었다고 한다. 이는 사람이 오면 먼저 이발해 주고, 모르는 사람은 뒤에 해 줬을 정도였다. 그는 매형 밑에서 5년간 기술을 배웠고 결혼 후에는 부인 고향인 남제주군에 이발소를 차렸다. 그는 남제주군·서귀포시 한국미용협회 회장을 6년간 맡아서 이발봉사 활동 등 왕성한 활동을 하였다. 그는 이발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였다.

그 후 오성근은 부산에 있는 친척집으로 건너가 이발소에 취업하였고 부산에서 번 돈을 가지고 수원으로 올라왔다. 이때 그의 나이는 이미 50대를 훌쩍 넘었을 때였다. 그는 부산에서 번 돈으로 세류동에서 이발소를 운영하였다.

5년 전부터는 미용실이 한 집 건너 한 집 생겨남에 따라 남자 손님들도 자연스럽게 미용실을 찾는 바람에, 이발소는 사양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이발소는 남자들만의 공간이었는데, 젊은 남성들뿐만 아니라 30~40대 남성도 미용실을 찾게 되면서 손님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집세와 운영비를 내기 어려워 이발소를 그만두고 다른 일거리를 찾게 되었다. 이발소 수입이 적절하지 않아 지인의 소개로 판교에서 건설 중인 삼성건설 현장경비를 2년 하였다. 오성근은 60세가 훌쩍 넘은 나이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경비원 일을 선택하였다.

그는 삼성건설 경비를 서면서 주변 건물 및 현장 시설물을 관리하였다. 현장의 화재, 도난, 불법침입을 막기 위해 출입자 통제, 내방객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소음이 발생하거나 기자재를 잘못 사용할 경우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규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현장 근무자를 대신해 배달물을 접수하거나 방문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규모의 서비스를 배웠다.



2009년 삼성건설 현장경비원으로 일한 오성근



나 같은 경우는 이발소를 했어요. 이발소를 40여 년 정도 했어. 근데 5년 전에 미용실이 엄청 생겼잖아요. 미용실이 생기니깐 20대는 그렇다 쳐도 30~40대도 여자가 머리를 만져 주니깐 서로 미용실 가잖아. 60대도 미용실 가니깐. 이발소에 손님이 없어. 집세도 내야 하는데, 차라리 이런 데 와서 한 달 백이십 만 원, 꼬박 꼬박 받고 24시간 일하지만, 십 며칠 일하는 거에 비해 나이 들어서 우리가 일하기에는 적성이 맞아요.

현장경비는 새벽 6시부터 경비근무를 서는데, 다행히 평소의 생활패턴과 비슷해서 힘든 점은 없었다고 한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아침을 먹고, 샤워를 하고 점심도 시락을 챙겨서 버스를 타고 6시에 현장 근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본인이 자부심을 느끼던 이발소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려니 선택 내키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삼성건설 현장경비를 다니면서 수원화산교회를 다녔다. 타지생활의 외로움과 우울증을 종교를 통해 달랬던 것이다. 그 후 퇴사를 하고 동탄 포스코에서도 경비 일을 1년 하였다. 경비의 보직임기가 짧기 때문에 다시 교회장로의 소개로 삼환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오성근은 아침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24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집에 가면 몸이 피곤해서 쓰러져서 잔다. 경비 일을 시작하면서 불규칙적인 생활과 식습관



삼환아파트 노인정에서 무료 이발 중인 오성근



수원화산교회 자원봉사단(맨 왼쪽 두 번째 오성근)

으로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 잠을 충분히 자야 하지만 일을 하다 보면 야간근무 시간에는 잠을 제대로 못 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성근은 몸은 피곤해도 아파트 경비를 책임감 있게 맡는다고 한다.

잠이 와도 내가 피곤하거나 잠이 오거나 이렇게 해도 내가 해야 할 일은 해요. 이렇게 해야 월급을 받고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나요. 우리가 주민을 지킴으로써 돈을 받아요. 이런 긍지를 가지고 있어야 해요. 피곤하다는 자체가 근무가 태만한 거예요. 내가 이걸 해야 할 거다 하는 것이 중요해요. 주민들은 우리에게 돈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관리비를 내면서 그 돈을 정산해서 우리가 월급 타는 거잖아요. 여기 아파트에 들어오는 순간 ‘오늘은 삼환아파트 경비원이다.’라고 생각하고 대원(경비원)들에게 강조해요.

오성근은 경비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봉사활동을 다니고 있다. 봉사활동은 제주도에서 생활할 때부터 시작한 일이다. 제주도에서 한국미용협회 남제주군 회장을 맡았을 때, 매년 가파도, 마라도 섬에 들어가 노인 분들의 머리를 이발해 주었다. 그 영향으로 지금까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그는 아파트 경비근무가 없어 쉬는 날에 교회 봉사활동을 하고 한 달에 한 번 삼환아파트 노인정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발을 해 주고 있다.

삼환아파트 지킴이

삼환아파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비원은 총 28명으로 14명씩 A, B조로 나누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60세 이상의 퇴직자들이다. 거의 대부분 전직 택시기사, 인테리어 시공사 등 기능직 종사자들이었다. 근무형태는 아침 6시부터 그다음 날 아침 6시까지 24시간 일하며, 하루 쉬고 하루 일한다. 삼환아파트의 경비원들은 관리사무실 소속이 아니라, 경비업체인 대한종합관리 소속이다. 경비원 외에도 미화원, 전기·영선기사가 아파트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14명이 한 조를 이룬 경비

원들은 아파트 1동씩 나누어 경비를 선다. 이들은 ‘초소’라고 불리는 곳에서 근무하는데 각 동 앞에 하나씩 배치되어 있다. 약 2평 남짓한 공간에는 책상, 의자, 통신을 주고받는 무전기, 인터폰, 순찰시간표 등이 있다. 경비원들은 서로를 ‘대원’으로 부른다.

오성근은 B조 경비반장으로 아파트 정문 출입구를 담당하고 있다. 경비반장이 되기까지 10개월이 걸렸다. 그는 동료대원과 협력업체로부터 인정을 받아 경비반장이 되었다. 경비반장이 되면서 14개 동 환경 정비와 같은 조 대원들을 관리하고 업체회사와 대원들 간을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경비원이 하는 업무는 아파트 출입정문을 지키고 있는 각 조 반장에게 출근체크를 하고 본인의 초소에 도착하여 전날 근무자로부터 인수인계를 받는다. 아침 출근시간에는 주차단속과 아파트 주변을 청소하고, 주민들에게 온 택배를 나누어 주거나 현관까지 가져다준다.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동 주변을 순찰하고 초소를 지킨다. 야간 시간에는 3~4명씩 조를 나누어 전체 동을 돌아다니며 순찰을 한다. 자정부터 한 시간씩 소그룹으로 다니며 주차단속과 방법에 신경을 쓴다. 새벽 4시~4시 반에 야간순찰이 끝나는데, 그 사이에 나머지 경비원들은 3시간씩 돌아가며 잠을 잔다.

경비원의 업무는 아파트의 관리나 유지 등에 국한되지 않는다.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은 분리수거를 하는 날로 정해져 있는데, 분리수거와 음식물쓰레기 정리 등을 경비원들이 처리한다. 그리고 주민들의 개인적인 일을 돕거나 집안의 설비를 고치는 일도 포함되었다. 또한, 주민들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단지 안에 외판원과 행상인의 출입을 금지시키는 일도 도맡고 있다.



3동 경비실(3동 초소)



아파트 출입정문



아파트 출입정문을 지키고 있는 오성근

택배기사들이 택배를 초소(해당경비실)에 와서 몇 동 몇 호만 적고 가요. 양체 같은 기사들은 택배주인(주민)에게 연락도 안 했으면서 “연락했습니다.”라고 하고 그냥 두고 가요. 그러면 주민들이 불편해요. 부지런한 경비원들은 아파트 문까지 가져다주거나 우편함에다가 ‘택배 왔습니다.’라고 스티커를 붙여 놓는데, 저는 그렇게 해요.

요즘에는 택배배달 관련 사건사고가 많아서 경비원들도 경비태세를 높이고 있다. 경비원들은 범죄와 사고를 예방을 위해 항상 아파트 단지를 주시하고 있다.

오성근은 아파트 전체를 책임지기 때문에 관리실에서 전달한 지시사항을 오토바이를 타고 순찰을 돌면서 경비조원들에게 “오늘은 무슨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전한다. 관리사무소와 경비원들 사이에 가교역할을 한다. 그리고 반장이 필요에 따라 순찰을 돌면서 구역 경비원들에게 “이거 잘못 했으니 고쳐 주세요.”라고 부탁하거나 “눈이 많이 오면 염화칼슘 뿌려 주세요, 적게 오면 빗자루로 쓸어 주세요.”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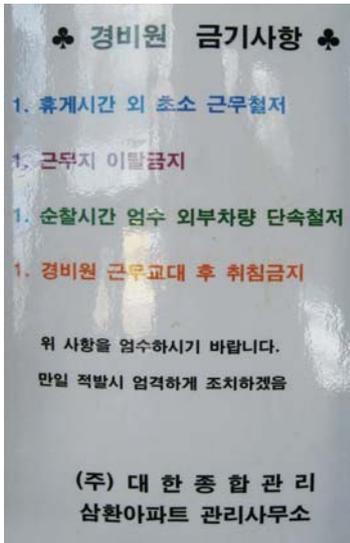
당부한다.

삼환아파트 경비원이 되면 특별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휴게시간 외 초소 근무 철저, 근무지 이탈금지, 순찰시간 엄수 외부차량단속 철저, 경비원 근무교대 후 취침” 등 규율만을 지키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근무규율을 벗어나면 근무에 제약을 받는다. 다만, 한 달에 한 번 대한종합관리 사무소 담당자와 함께 A, B조로 나눠서 지난 한 달간의 근무형태에 대해 한 시간씩 월례회의를 진행하고 근무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는다.



제설작업을 하는 경비원

경비원들의 휴게시간은 점심, 저녁 식사시간은 한 시간씩 주어지고, 그 외 세 시간은 야간에 잠시 쉴 수 있는 시간이다. 잠자는 곳은 아파트 노인정에 마련되어 있다. 그들의 식사는 집에서 도시락을 가져와 초소 내에서 먹거나, 사서 먹는다. 어떤 이는 초소에 있는 냉장고에 반찬을 두고 밥만 해서 먹기도 한다. 오성근의 경우는 경비반장이 된 이후에도 옛 초소에서 식사를 한다. 과거의 초소는 지금처럼 아파트



경비원 금기사항

동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곽지대에 있었다. 그는 1동 뒤쪽에 위치했던 옛 초소에서 식사를 하고 본인의 자리로 돌아온다.

경비원으로서 가장 힘든 점은 오랜 근무로 피곤할 때이다. 근무를 하다가 깜빡 잠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러면 다른 경비원이 순찰하면서 깨워 줄 때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더운 여름에는 덥고 육체적으로도 피곤한데, 순찰을 돌고 오면 초소 안이 40도를 웃돈다고 한다. 하지만 경비원들은 재킷을 벗는다든지, 신발을 벗는다든지 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힘이 더 든다고 한다.

계절적으로 일 년 중에 가장 바쁠 때는 가을과 겨울이다.

바쁠 때는 가을 지나 겨울이에요. 낙엽 떨어질 때. 낙엽이 엄청 떨어져요. 미화반이 있지만 미화아주머니는 실내 청소만 하고, 낙엽 떨어지는 것은 우리가 청소해요. 특히, 겨울에도 순찰 돌아다녀야 하잖아요. 얼굴에 찬바람 맞는 거 외에는 따뜻하게 입고 나가야 하잖아요.

경비직은 오랫동안 종사하기 어려운 직업이다. 또한 경비원들은 일 년마다 재계약되는데 퇴직금 지불문제로 일 년 안에 그만두고 다른 경비업체를 알아보는 것이 관례이다.

길 가다 보면 건물에 인력사무소가 있잖아요. 한 달에 130만 원 받으면 13만 원만 주면 다른 일자리를 구해 줘요. 그런 일을 하는 곳이 인력사무소인데, 그것도 좋아요. 우리가 일 자리를 알아보면 힘이 드는데, 그들은 다른 회사와 연결이 다 되어 있으니깐 잘 가르쳐 줘요.

경비원들은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인력사무소를 통해서 다른 일자리를 구하거나, 주변 지인들 혹은 구직신문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 이처럼 경비인력이 자주 교체되는 이유는 그만큼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대우가 좋지 못하기 때문이다. 경비직을 원하는 수요가 많아 자주 그만두고 바뀌게 되는데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근무환경이 열악한 편이다. 이러한 세태는 『경향신문』이나 뉴스에서도 간간히 전해지고 있다.



써퐁같이 더운 여름날에도 선풍기 한 대만을 의지해야 하는 경비실

하지만 오성근은 비록 근무환경이 나쁘지만 경비 일은 본인의 나이에 할 수 있고 앞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만족하며 근무하고 있다.

여기 일하는 사람들은 환갑이 다 넘어서 근무하다 보면 다 좋아요. 오토바이 타고 순찰 가면 힘들어 해요. 그래도 우리가 건강하니깐 이런 일을 하지. 환갑 넘어서 어떻게 일해. 병원 가면 다 아픈 사람이야. 그런 사람보다는 우리가 낫거든. 그래도 우리가 건강하니깐 일해서 돈 벌어서 손자들 용돈도 주고, 나이는 들었지만 삼환아파트에 근무하러 올 때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지.

그는 아침업무를 끝내고 같은 조 대원들과 아침을 먹고 퇴근을 한다. 회식할 때마다 대원들끼리 의기투합을 한다. 반주를 마시며 구호 ‘브라보’를 외친다. 24시간 근무는 힘들지라도 동료들끼리 술 한 잔 할 때가 제일 힘이 난다고 한다. 이렇게 오성근은 대원들 서로를 위로하며 새벽에 퇴근을 한다.

텔레비전 막아놔 CCTV만 응시

주민들 눈치 보느라 의자서 '쪽잠'

밤 10시가 되자 아파트 경비노동자 ㄱ씨(62)의 눈이 껌벅거리기 시작했다. TV를 설치하지 못하게 막은 탓에 그가 볼 수 있는 것은 경비초소 안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뿐이다. 그는 CCTV 화면 방향으로 몸을 돌리고 앉더니 졸다 깨다를 반복했다. 아파트 주민이 초소 앞을 지나가는 기척이 느껴지자 갑자기 몸을 똑바로 일으켜 자세를 바로잡았다. 메모장에 의미 없는 'ㄱ(바를 정)' 자를 계속 써 나갔다.

지난 3월 밤 서용 강남구의 한 아파트, 쏟아지는 졸음을 쫓기 위해 안간힘을 쓰던 ㄱ씨는 천천히 초소 밖으로 나갔다. 분리수거함에 담긴 재활용품을 '병류, 플라스틱, 고철·강통, 스티로폼'이라고 적힌 자루에 분리해 담고 자루 입구를 묶었다.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는 날인 화요일과 수요일, 목요일에는 10시부터 한 시간가량 정리 작업을 한다."고 말했다.

오후 11시 15분이 넘었다. 그는 "이제 순찰을 돌아야겠다."고 했다. 이 시간쯤이면 주차장에 미등이나 실내등이 켜진 차는 없는지, 학원에서 마치고 돌아오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등을 점검해야 한다. 60세 이상이 대부분인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저임금과 고용 불안정 등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또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 14층까지 올라갔다 계단으로 내려가 지하 1층까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술에 취해 아파트 단지를 잘못 찾아온 주민들을 제집으로 돌려보내는 것도 경비노동자의 몫이다.

자정이 지나 12시 20분쯤 되자 학원을 마치고 돌아온 아이들의 행렬이 이어진다. 덩달아 다시 한 번 순찰을 돈다. 경비초소 뒤편 아파트 베란다에 도둑이 들지는 않나 살펴보고 계단으로 1~3층을 오르내린다.

그는 "순찰이야 매일 돌지만 이 시간쯤에 한 번 더 둘러보아야 마음이 편하다"고 했다. 아이들과 취한 주민들이 대부분 집으로 들어가고 나면 이제 조금 쉴 수 있다.

대부분의 경비노동자들은 새벽 1시부터 4시 사이에 잠을 청한다. 몸을 피고 누울 데가 없기 때문에 의자에 앉아서 잔다. 그런데 눈앞에 환하게 비치는 가로등이 문제다. 눈을 감아도 아파트 현관 입구와 가로등의 불빛 때문에 쉽게 잠들 수가 없다. CCTV 화면에서 나오는 불빛도 방해꾼이다. 몸이 불편하고 눈도 시리다. 임시방편으로 초소 앞 유리에 신문지를 붙여 형광등 불빛을 막는다. ㄱ씨는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쉬는 방식으로 일한다. 이렇게 일해 받는 월급은 100만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최저임금 적용시기가 또다시 3년 미뤄졌지만 그는 "지금 이대로가 낫다"고 했다. "주민들은 우리가 지금 받는 돈도 비싸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우리 월급을 올리려고 관리비 1,000~2,000원을 인상한다고 하면 좋아할 리가 없지요."

그의 관심은 2015년에 최저임금을 100% 다 받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때까지 해고되지 않고 다닐 수 있느냐다. 4년 뒤면 그는 66세가 된다.

그는 "간혹 아파트 주민 중에 '야간 경비원이 잠만 잔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며 "우리가 2일 3교대가 아니라 2일 2교대이기 때문에 새벽에 약간이라도 잠을 자야 한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냥 참는다."고 했다. 교대 시간은 오전 6시. 새벽녘 선잠에 든 ㄱ씨의 고개가 비스듬히 기울었다.

〈경향신문, 2011년 11월 7일〉

주민들과의 관계

경비원들은 아파트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기 때문에 주민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오성근을 포함한 경비원들은 동 주변 일대를 관리하면서 같은 동 주민들과 항상 인사를 해 친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삼환아파트는 오래된 아파트라 시설 면에서 노후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일러가 고장 나거나, 세탁기가 고장 나면 경비원을 부르게 된다. 그만큼 아파트단지 내에서 경비원과 주민들의 관계는 밀접하기도 하다.

오성근이 2년 동안 삼환아파트에 근무하면서 주민들과 많은 교류를 하게 되었고 덕분에 음료수를 가져다준다든지 인정을 베푸는 주민들이 있다고 한다.

까다롭거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친절하게 대해야 해요. 택배도 집까지 가져다주고 가만히 있다가 주민들이 와서 택배를 주면 안 돼요. 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을 최고로, 친절하게,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고 하루 두 번 봤는데도 “안녕하십니까?” 라고 대원들에게 친절을 강조해요. 항상 친절봉사예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나이 먹어서 어디 갈 거예요? 최말단인데. 나이를 먹으면 뭐 해요. 일해야지요. 주민들에게 친절해야 오래 있을 거 아니예요. 저 아저씨 친절하더라. 친절 안 한 사람들은 저 아저씨 일 못 하니깐 보내라고 해요. 중요한 것은 주민들과 교감이다. 일 잘하면 과일이라도 하나 더 가져다준다.

가끔 경비보초를 서고 있으면 주민들이 다가와 말동무가 되었다 가기도 하고, 과일을 가져다주기도 한다. 실제로 인터뷰하고 있을 때도 지나가는 주민 한 분이 과일을 꺾아 오셨다. 이처럼 주민이 관심을 가져줄 때가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많이 느낄 때라고 한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주민들도 있다고 한다. 밤 근무를 하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피곤하지만, 그보다 더 힘든 점은 주민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이다.

우리는 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을 하는데, 주민은 짜증을 내거나 텃새를 부리기도 해

요. 그분도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을 텐데. 얼마 전 방송을 봤는데, 눈 치우고 하니깐 경비원아저씨들한테 ‘짜증내지 말고 친절하게 합시다.’라는 문구를 아파트 입구에 내걸더라고. 나 그거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 ‘저런 분들도 있구나.’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일에 주민들이 경비들에게 짜증내고 “야, 임마.” 하는 거 보면 참 그때는 마음 아파요. 힘든 일보다 마음이 아파요. 그게 가끔 있지만 뭐 두 번이나 그런 일을 당해서. 어떤 일 있었냐면 관리실에서 사인을 받아 와라 몇 동, 몇 호 해서 문이 안으로 닫아져 있어서, 안에서 뭐하는지 모르잖아요. 마침 그 아주머니가 얘기 줬을 몰릴 땐가 봐요. 문을 똑똑 두드리고 “경비실에서 싸인 받으러 왔어요.” 했는데 애는 옆에다 놔 두고 있는지 씨자 붙으면서 손가락질하며 “경비, 똑바로 서.”라고 하는데, 내가 그냥 눈물이 날 뻔했어.

오성근은 이발사로 근무한 지 40년이 되었고 경비원으로 일한 지 5년째 접어들고 있다. 이발사로서의 애정을 버리지 못하고 경비 일을 하면서 이발봉사를 나가는 것을 보면 이발사로서의 자긍심을 엿볼 수 있었다. 그는 아파트 주민이 버려 놓은 간혹 낡은 의자를 초소에 가져다 쓰고 있었다. 그리고 몸이 불편한 듯 몸을 좌우로 뒤척이며 편한 자세를 찾으려고 애썼다. 경비 일을 하다 보니 허리 병이 생겼기 때문이다.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있고 잠도 의자에 앉아서 자다 보니 허리디스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는 처음보다 힘든 점도 덜하고 생활의 여유를 다시 갖고 있다. 그는 낮에 경비 초소를 지키면서 지나다니는 주민들을 바라본다고 한다. 그럴 때마다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회상하게 되고 가끔은 가족들에게 미안함을 느낀다고 한다. 오성근은 앞으로 바람이 있다면 좋은 짝을 만나 시골로 이사를 가서 작은 이발관을 차리는 것이란다. 꼭 이러한 소망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일급 5,000환의 이발소 '시다'
무역박람회 복권 당첨금으로 이룬 혼사
교도소 재소자들에게 이발 기술 전수
청와대에서 전두환 대통령 내외와 함께한 저녁 만찬
34살에 이룬 이발소 개업의 꿈
이발소의 운수 좋은 날과 운수 나쁜 날
10년 전 삼환아파트 상가에 '삼환이발소' 를 개업하다.

04 | 56년 경력의 베테랑 이발사 서양석

삼환아파트 상가 301호의 문을 열고 들어서면 하얀 가운을 입은 노년의 이발사를 만날 수 있다. 먹고살려면 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생각에 17살부터 이발을 배우기 시작한 그는 이제 경력이 56년이나 된 베테랑 이발사이다. 또한 수원시의 이발소 역사를 지켜본 산증인이기도 하다. 이발업이 호황을 누렸던 시절에는 이발소를 3개나 운영해 잘나가던 이발소 사장님이었지만 지금은 이곳에서 세월을 보내기 위해 가위와 바리칸을 든다. 손님도 단골도 거의 삼환아파트 주민들이다. 손님 중의 대부분은 나이가 지긋한 노인들이라 이발 중에 지나간 세월과 추억을 애깃거리 삼아 담소를 나누기도 한다. 남의 머리를 자르는 일을 천직으로 알고 56년 동안 이발사로 외길 인생을 살아온 그의 삶과 일에 장인(匠人)정신이 배어 있다.

일급 5,000환의 이발소 ‘시다’

서양석은 수원에서 4남매 중에서 둘째로 태어났다. 위로는 형이 한 명 있고 아래로는 여동생이 두 명 있다. 서양석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17살 때인 1957년에 지인의 소개로 서울에 올라와 용산구 원효로2가 용문시장에 있는 이발소에서 이발 기술을 배웠다.



이발사의 손놀림

그때는 먹고사는 데 지장이 많았지. 이발소는 밥은 먹여 주잖아. 그래서 배운 거야. 그때 당시에 사진관, 양복점, 이발관이 식생활을 해결하는 데 제일 빨랐어. 그때가 57년도야. 나는 학원은 안 가고 이발소에서 머리 감겨 주면서 배웠지. 이발소에서 자고 먹고 그 당시에는 자고 먹는 게 제일 우선 아니야. 지금들은 모르지? 배고픈 걸. 옛날엔 배고픈 게 제일 힘들었어.

이발 기술을 배우려면 1년 이상 학원을 다녀서 면허를 취득하고 다시 이발소에서 몇 년을 더 일해야 했지만, 서양식은 학원에 갈 형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발소에서 먹고 자고 허드렛일을 하는 ‘시다’ 생활을 하며 이발 기술을 배웠다. 급여는 월급이 아닌 일급으로 하루에 5,000원을 받았는데, 이 돈으로 하루 세끼 식사를 해결했다.

처음엔 빗자루질 하고, 청소하고, 물지게 지고, 승급하면 머리 감기고, 그다음엔 머리 고데 줌 하고, 그렇게 시작하면서 기술이 진보가 되는 거지, 커트는 2년 만에 배웠지. 금방 못 배워. 연장도 안 줘. 기술자들 양말, 팬티 다 빨아 줘야 돼. 지금은 세탁기나 있지. 옛날엔 다 손빨래야. 그거 다 밖에서 손으로 빨았지. 잠은 이발소에서 잤지. 의자 옆으로 해 놓고. 월급은 안 나오고 하루하루 일급이었지, 그때 돈으로 5,000환. 밥 한 끼에 1,000환이야 그니까 세끼 먹으면 암것도 없잖아. 5,000환 받으면 밥 세끼 먹고 나면 2,000환 남으니깐 그걸로 주전부리하는 거지.

처음 이발 기술을 배운 곳에서 1년 정도 일하다가 명동에 있는 이발소로 옮겼다. 1년 정도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진급해서 옮겼는데, 손님들의 머리를 자르는 일은 이발소에 들어온 지 3년 정도 됐을 때 할 수 있었다. 기술자들이 가르쳐 주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라 시간 있을 때마다 혼자 연습해서 기술을 습득했다.

용문시장 이발소에서 1년 있다가 명동으로 와서 배웠지. 명동에서 배워서 1년 반 정도, 기술을 좀 배워서 진급해서 갔지. 시간 있을 때 혼자 연습했지. 가위로 신문지 자르지. 혼자서 가위로 신문지 일정하게 자르는 연습을 했지. 고데는 집계로 연탄불에 달궈서 했지. 그 시절에 유행했던 스타일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장발이 유행했지. 비틀즈마냥. 그 다음에는 포마드 발라서 올백으로 넘기는 스타일이 유행했고, 장발이 났다가 짧게 자르는 게 유행된 거는 15년에서 20년 정도 되었지. 남자는 유행이 별로 안 변해.

서양식은 17살 때 이발 기술을 배워 지금까지 50년이 넘게 이 일을 해 오고 있지만,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은 생각을 지금까지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다.

한일극장 서울 안 간 데 있다 다 갔지, 종로, 을지로, 화신백화점 뭐 안 간 데 없지. 관철동에 제일 오래 있었어. 이때 나이가 스물하나, 들어서 날라 다녔지. 관철동에 삼사 년 있었어.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젊었을 때도 힘들거나 고생스럽다거나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

서울 종로, 을지로, 명동 등에서 일할 때에는 퇴근 후 서울의 곳곳을 돌아다니며 유명한 음식점에 가서 그곳의 음식을 먹어 보는 것이 큰 재미였고, 즐거움이었다.

일하느라 놀 시간 없었어도 막 돌아다니는 거 좋아해서 일 끝나고 막 돌아다녔어. 명동에는 옛날부터 먹는 게 유명했잖아. 지금에야 안 알아주지만 옛날에는 명동에서 뭐 사 먹었다고 하면 으스대고 그랬지. 샤보이호텔에서도 먹고 그랬어.

이발소가 성업했을 때에는 유명인들도 이발소에 와서 머리를 했다. 남대문 근처의 이발소에서 일할 때에는 인근 부대 참모총장의 머리를 자주 해 주었고, 임화수의 머리는 그가 직접 집으로 방문해서 손질해 주곤 했다. 과거에는 미용실에서 파마를 주로 하고 머리를 자를 때에는 이발소를 이용했기 때문에 이발소는 머리를 자르려는 손님으로 꽉 찼다.

지금 남대문 근처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있지? 거기가 옛날에 동양백화점 자리야. 해군본부가 그 위에 있었고, 그 근처 이발소에서 일할 땐 참모총장 이발도 하고 그랬지. 그런 사람들이 참 점잖아. 별 달린 군복 입지 않고 사복 입고 와. 그럼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비서 보고 높은 사람인 줄 알았지. 옛날에는 이발소에 유명인들도 많이 오고 그랬어. 기억나는 사람은 서울에 있을 당시에는 임화수 씨 집에 가서 머리 붙여 주고, 자가용 가져오면 타고 가서 머리 붙여 주고 그랬지. 옛날에는 미용실에선 파마를 많이 했거든 커트하려면 이발소에 와야 돼. 그래서 항상 사람들로 북적북적했지.

무역박람회 복권 당첨금으로 이룬 혼사

부인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29살인 1969년도 5월 31일에 결혼했다. 부인에게서 결혼 예물로 스위스에서 만든 시계를 받았고, 자신은 부인에게 반지를 해 주었다. 예물 시계는 고장이 나 더 이상 고칠 수 없을 때까지 착용하였다.

그냥 좋았어. 미인은 아닌데. 한국적인 여성이야. 내가 돈이 있어 자격이 있어 뭐가 있어. 돈 좀 벌여 가지고 몇 년 뒤에 했지. 옛날에는 결혼할 때 예물로 시계가 컸지. 옛날에 우리 같은 사람은 로렉스나 오메가는 쳐다도 못 봤지. 나도 썩어도 준치라고. 스위스제 시계 받았지. 그걸 20년을 찻더니 이제 고치질 못해. 그래서 버렸지. 나는 반지 해 줬어. 옛날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은 못해 줘도 반지는 해 줘야지.

연애시절 부인과 무역박람회에 갔는데, 거기서 구입한 복권이 2등에 당첨돼 상금으로 그때 돈 10만 원을 받았다. 이 상금 덕택에 결혼자금 마련되어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다. 신혼여행은 예식이 끝나고 온양온천에 가서 하룻밤을 자고 경남 거창에 있는 처갓집에 다녀오는 걸로 보냈다. 수원에서 계속 이발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신혼생활은 수원 화홍문 옆에 세를 얻은 집에서 시작했고, 결혼 15년 만에 내 집을 장만했다.

복권 타서 결혼했어. 연애시절에 박람회에 갔지. 무역박람회에서 복권을 발행했는데 그때 박람회 가서 산 개 2등에 당첨돼서 10만 원 받았지. 68년도에 10만 원 탔으니까 큰돈이었지. 그 돈으로 결혼했지. 내 집 장만은 결혼하고 15년 만에 했지. 신혼여행은 5월 31일 날 결혼식 끝나고 온양온천에 가서 하룻밤 자고 그다음 날 시골에 있는 처갓집 갔다 오는 거로 했지. 내가 그때 수원에서 이발소 다니고 있을 때여서 화홍문에 신혼집 차리고 살았지.

서울에서 이발소를 다니고 있을 때 아내를 소개받은 후 곧 수원으로 이발소를 옮겼기 때문에 몇 년간 장거리 연애를 하였다. 연애시절 부인과의 데이트는 주로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것이었다.

처음에 소개로 서울서 만났는데 내가 수원으로 내려와서 몇 년을 왔다 갔다 만났어. 연에 할 때는 주로 영화 봤지. 그때 뭐 할 게 있나. 벤허, 징기스칸 뭐 그런 거 봤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소련을 배경으로 했던 영화는 3시간을 상영해서 중간에 쉬었다 보고 그랬어.

결혼 후에 곧 큰아들이 태어나고 네 살 터울로 딸이 태어났다. 올해로 큰아들은 44살, 딸은 40살이 되었다. 이발소를 운영하면서 아들딸을 4년제 대학까지 가르쳤다. 공부를 잘했던 딸은 대학생활 4년 동안 장학금을 받고 다닌 후 졸업하여, 평소 친한 친구로 지내던 남자와 결혼을 하여 슬하에 4명의 자녀를 두었다.

아들이랑 딸 다 수원에 살아. 딸은 공주대 나왔고 아들은 천안에 있는 단국대 나왔어. 딸은 공주까지 안 가도 되는 걸 담임선생님이 거기 가서 장학금을 받고 다니는 게 더 낫다. 그래서 거기로 갔지. 아들은 수원서 통학하고, 돈이지 뭐 다. 지금 같으면 못 가르쳐 그때는 한참 벌 때였으니까. 사위는 딸이랑 친한 친구 사이였어. 그때는 결혼하게 될 줄 모르고 심부름도 시키고 그랬는데 난중에 보니까 사위가 되더라니까.

교도소 재소자들에게 이발 기술 전수

운영하던 이발소 단골 중에 교도관이 있었는데, 그분의 부탁으로 수원교도소에서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10년 이상을 했는데, 이발소가 쉬는 날,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4번을 가서 아침부터 점심 때까지 재소자들에게 이발 기술을 가르쳐 주었다. 교통비 명목으로 한 번 갈 때마다 만 원씩을 받았는데, 돈보다는 휴일을 반납하고 가서 이발 기술을 전수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준다는 생각에 피곤한 줄도 모르고 봉사했다.

교도관이 내 이발관에 다녔는데 그분이 부탁해서 수원교도소로 다니기 시작했다. 쉬는 날마다 다녀서, 한 달에 총 4번 다녔어. 아침에 가서 점심 먹을 때까지 가르쳤지. 미용사 면허시험 청주, 대전, 서울 등으로 시험관으로도 다녔다. 재소자들이 기술을 배워서 자격

증을 따면 출소일이 빨라져서 다들 자격증 따려고 인간힘을 쓰지. 10년 이상 다녔어. 돈은 한 번 갈 때 만 원 정도 주는데. 뭐 그거 얼마나 된다고 가르치는 보람이 더 크지.

봉사활동을 하면서 가르쳤던 사람들 중에는 출소하여 이발관을 차린 사람도 있다. 개인적으로 찾아와 고마움을 표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마저도 지금은 연락이 끊겨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지내는지 모른다. 사제시간으로 맺은 인연이 세월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고 사라지는 것에 서운한 감정이 생기기도 한다.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는 사람도 있었는데 세월이 가면서 뚝 끊어졌어. 보람은 있는데 지금와 보니까 허망하단 생각도 들어. 아무도 안 오니까. 학교 선생이었으면 스승의 날이다 해서 올 수도 있잖아. 근데 이견 사회생활에서 만난 거니까. 나이 먹으면 다 소용이 없어지는 거야.

청와대에서 전두환 대통령 내외와 함께한 저녁 만찬

수원시이발소협회 지부장을 할머니의 교통사고를 계기로 후배에게 물려주기까지 10년 정도 했다. 당시 협회의 지부장 자격으로 청와대에 초대받아 전두환 대통령과 이순자 여사를 만났다.

지부장을 10년 정도 했고, 자문위원도 했어. 할머니가 교통사고 나시는 바람에 할머니를 돌봐야 하니까. 그때 후배에게 물려줬지. 전두환 시절에 청와대에 초청을 받아서 다녀왔어. 직능 단체장 모임이었는데 수원시 이발소 단체장 자격으로 82년든가 83년도에 갔다 왔지. 청와대에서 만찬했는데 양식 먹었어. 전두환 대통령하고 이순자 여사가 저쪽에 앉아 있는데 시골 사람들이 와서 덜끄덕거리고 술 마시고 그랬지. 대우 좋았지.

직능 단체장들과 대통령 내외와의 만남이었는데, 만찬 당일의 옷차림은 미리 알려 주었고, 대통령과 영부인과의 인사할 때의 에티켓은 전날 밤에 호텔에 투숙하면서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배웠다.

봄이었어. 양복에 넥타이 매고 오라고 해서 그렇게 입고 갔지. 악수 할 때도 대통령하고 이순자 여사하고 손등만 닿을 수 있는 거리여야 해. 청와대 들어가기 전날 밤에 호텔에서 잠을 잤는데 거기서 다 교육받았어. 영부인하고 악수할 때는 끝에만 닿아야 해. 그 많은 사람하고 악수했다가 손이 남아 나나.

34살에 이룬 이발소 개업의 꿈

1976년도에 처음으로 수원 영동시장에 있는 보승이발관을 인수받아 개업했다. 인수 받은 보승이발관의 이름은 이 이발관의 전 주인으로부터 개업 당시에 부탁받아 지어 준 것이다. 보승이라고 이름 지은 이유는 개업하는 이발관 바로 옆에 보신이라는 이발관이 있었는데, 이 이발관에서 일하던 직원들 몇몇이 함께 차리는 것이라 보신보다 잘되라는 의미로 보승이라고 지어 주었다. 그런데 동업을 했던 직원들 간의 의견 차이로 가게를 정리하게 되었고, 결국 이름을 지어 주었던 당사자가 인수하게 되었다.

1976년도에 영동시장에 처음으로 내 이발관을 개업했지. 내가 이름을 지어 주고 결국엔 내가 사게 됐다니까. 가게 차린 사람이 나보고 가게 이름을 지어 달라고 해서 내가 지어 줬어. 3명이 동업을 했는데 마음이 안 맞잖아. 동업을 하면 안 되는 거여. 사업을 하려면 혼자 해야지. 그 옆에 보신이라는 이발관이 있었는데 거기서 일하다가 나온 사람들이 그 가게를 차려 가지고 나왔는데 이름을 지어 달라고 해. 그래서 내가 보신이발관을 이기려면 보승이라고 해라. 그래서 보승이발관이 된 거지. 근데 그걸 내가 사게 되더라니까.

보승이발관을 시작으로 이발업계가 호황일 때에는 이발소를 3개까지 운영했다. 세 군데의 직원을 다 합치면 30~40명이 되었을 정도로 규모가 컸다. 그 이후 중동사 거리와 분당 등 여러 지역에서 이발관을 운영했다. 이발관 운영과 함께 1991년도부터 5년 정도 이발소 물품 대 주는 사업을 했는데 꽤 잘되었다. 술도 이발관을 운영하면서 처음으로 직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마시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실 수록 주량도 늘고, 실수도 잦아지는 것 같아서 안 마시게 된 지는 10년 정도 되었다.

이발소 3개를 운영할 때에는 돈을 긁었어. 남문시장 돈 다 긁었어. 세 군데 다 합쳐서 직원이 30~40명은 됐지. 80년대에서 90년대 이발업계가 호황이어서 잘 됐어. 그리고 나서 중동사거리 시장에서 하다가 정리하고, 분당에서도 하다가 그랬지. 그때 91년도부터 이발관 하면서 다른 이발관에 물품 대 주는 사업을 5년 정도 같이 했지. 이발소만 상대하는 거니까. 편하고, 잘됐어. 술도 37살 때 배우기 시작했어. 이발관 하면서 지금은 술 안 마신지 10년이 넘었어. 실수 안 할라고 끊었어. 술은 이발소 하다가 배웠지. 직원들하고 마시기 시작했어.



이발 가위(<http://blog.naver.com/suwongokr>)

이발소의 운수 좋은 날과 운수 나쁜 날

50년 이상 이발소를 운영하다 보니 운수 좋은 날과 운수 나쁜 날의 징조가 생기게 되었다. 운수가 좋은 날은 한 손님이 이발을 하고 갔는데 그 뒤로 계속 손님이 들어오는 경우이고, 운수가 나쁜 날은 아침에 이발을 하고 외상을 하는 경우와 아침부터 수표로 계산하는 손님이 있을 때이다. 과거에는 위조수표나 도난수표로 계산하는 사람도 많았다. 이발을 하고 도난수표로 계산을 해서 손해를 본 경우도 있었고, 이발을 하고 돈이 없을 경우 착용하고 있던 명품시계를 맡겨 놓고 가는 사람도 있었는데, 나중에 시계방에 가면 모조품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어떤 손님이 왔다 갔는데 그 뒤로 계속 손님이 들어오는 경우는 그날은 운수가 좋은 날이고, 아침에 이발을 외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럼 그날은 이상하게도 손님의 반이 외상을 해. 김새는 날이지. 또 아침부터 수표 내는 사람. 저녁 5시 넘어서 50만 원짜리나 30만 원짜리 수표 내는 사람. 하루 종일 벌어도 그거 못 버는데 잔돈을 어떻게 쥐. 그냥 가는



거지 뭐. 옛날에는 위조수표, 도난수표 내는 사람도 많았어. 옛날에 평택공고 월급 주려고 챙겨 놓은 수표를 누가 훔쳐 간 거야. 그 훔친 사람이 우리 이발소에서 이발을 하고 그 수표를 내고 갔어. 은행에 가니까 도난수표래. 그럴 경우에는 반은 줘. 옛날에는 로렉스, 오메가 같은 시계. 시계가 귀할 때는 로렉스, 오메가 같은 시계로 케이스 갈이를 해서, 이발하고 이거 맡겨 놓고 그냥 가지. 이게 진짜 로렉스 같으면 여기서 이걸 풀어 놓고 갈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시계방에 가 보면 다 가짜지 뭐.

10년 전 삼환아파트 상가에 '삼환이발소' 를 개업하다

2002년도에 수원 중동사거리에서 이곳 삼환아파트 상가로 이전해 와 301호에 삼환이발소를 개업했다. 직원은 처제와 남자 직원 1명이다. 처제는 이발소 3개를 운영하던 시절 이발소 직원들의 밥을 해 주다가 이발 기술을 배워서 지금은 거의 모든 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 이발관은 예나 지금이나 일주일에 한 번,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휴업한다.

10년 전에 수원 중동사거리에서 여기로 이사 왔어. 여기 상가로는 원래 이 자리에서 이발소 하던 사람한테 사서 들어왔지. 예전에 하던 데에서는 건물주가 나가라고 해서 여기로 왔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일주일에 한 번씩 월·화 중에 하루는 쉬어. 같이 일하는 여직원은 처제야. 이발소 밥을 해 주다가 기술을 배워서 지금은 같이 도와서 하고 있어. 같이 일하는 남자 직원은 요즘에 일 좀 봐 주러 나온 사람이고, 요즘에는 직접 이발 안 해. 처제한테 다 맡겼어.

삼환아파트 상가에서 삼환이발소를 운영한 지 10년 남짓 되었다. 특별한 단골은 없고 고객들 대부분은 삼환아파트 주민들이다. 영업시간은 아침 일곱 시 반에서 저녁 일곱 시까지이다. 요즘은 처음 수원에서 200원에서 300원을 받았는데, 지금은 경로우대를 받는 노인들은 1만 2,000원을 받고, 머리만 자르면 1만 원, 면도와 머리를 같이 하면 1만 4,000원을 받는다. 삼환아파트 상가에서 10년 동안 이발관을 운영하면서 기억에 남는 손님이 1명 있다. 이곳에 개업할 때부터 이용하는 단골인

데 머리를 해 주면 불평이나 칭찬 한 마디 없이 묵묵히 머리만 자르고 돌아가는 손님이 있는데 이발사에게 믿고 맡기는 것 같아서 참 편한 손님이다.

여기서 이발소 운영한 지는 10년 정도 됐지. 특별한 단골은 없고, 대부분 여기 주민들이지. 아침 일곱 시 반에 열어서 저녁 일곱 시 넘으면 닫지. 처음 수원에서 이발일 했을 때에는 200원에서 300원 받았는데 지금은 경로로 하는 분은 1만 2천원, 머리만 자르면 1만 원, 면도도 하고 머리도 자르면 1만 4천 원 받아. 특별히 기억에 남는 손님은 여기서 10년 됐는데 10년 동안에 깎고만 가. 그 손님은 와서 깎고 그냥 가서 한 번도 이랬다 저랬다라는 말이 없어. 나한테 완전히 믿고 맡기는 거니까 기분 좋지.

서양석은 삼환이발소를 운영하면서 돈을 벌겠다는 욕심보다는 노년에 소일거리 정도로 생각하고 일하고 있다. 손님이 특별히 물리는 시간대는 없다. 한꺼번에 몰릴 때도 있고, 몇 시간이고 그냥 앉아만 있을 때도 있다. 요즘엔 많은 사람들이 이발관보다는 미용실에 가기 때문에 장사가 예전만 못하다. 이발 기술도 대부분 학원으로 배우러 다니기 때문에 이발관으로 배우러 오는 사람이 없다. 기술을 빨리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님의 두상에 맞게 머리를 자르는 방법이나 손님과 대화하는 방법은 이발관에서 직접 배우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그냥 소일거리 삼아서 하는 거지. 장사가 잘 안 돼. 이발관에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미용실 가고. 요즘에는 이발관에 배우러 오는 사람들도 없어. 다 학원으로 배우러 다니지. 금방 배우는 거 같으면 아무나 다하지. 이발소에서 허드렛일 하면서 기초부터 배우는 것도 중요해. 손님이랑 대화도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 대화도 강약을 조절해서 해야 돼. 이발일은 다 작품이야. 사람마다 다 두상이 다르잖아. 여자들보다 남자들 머리 깎기가 더 어려워. 머리 맘에 안 든다고 화내는 사람도 있지. 극히 드물긴 하지만.





4

시간으로 본 주민들의 삶과 문화

일생의례는 한 사람의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의례를 말한다. 태어나면서부터, 혼인하고, 죽고, 돌아가신 조상을 위해 후손들이 제사를 올리는 일련의 과정들은 누구나 피해 갈 수 없는 인생의 단계이다.



1. 출생의례 _ 생명의 탄생과 함께 시작되는 의례
2. 혼례 _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다
3. 상례 _ 죽은 이를 보내는 절차
4. 제례 _ 조상을 추모하다
5. 학교 들어가기
6. 오래 사시기를 기원하는 잔치

01 | 일생의 중요한 순간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 살다가 죽는다. 사람의 일생에서 일반적으로 겪는 일련의 과정들을 예로부터 관, 혼, 상, 제라 하였다.¹ 일생의례는 이러한 관혼상제는 물론 여기에 출생의례를 포함한 좀 더 넓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으며, 생명이 시작되면 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거치게 되는 인생의 단계로, 오랜 세월 동안 전통예절로서 이어져 내려왔다. 일생의례는 한 사람의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의례를 말한다. 태어나서, 혼인하고, 죽고, 그리고 죽은 후 후손들이 제사를 올리는 일련의 과정들은 누구나 피해 갈 수 없는 인생의 단계이다.

물론 시대가 지나면서 일생의례도 형식이나 절차에 변화가 생기고 상당 부분 간소화되기도 하였다. 즉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변화의 과정에서 관례와 같은 의례는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일생의례는 다른 전통과 마찬가지로 산업화와 도시화 이후 상당 부분 약화된 모습을 보인다. 삼환아파트 주민들을 통해서도 “옛 날이나 시골에서 그렇게 했지, 지금은 그런 거 없어.”라는 말을 자주 들을 수 있었다. 시대가 바뀌고 생활환경이 변화하며 삼환아파트 주민들의 일생의례도 형식과 내용 모두 간소화되었으며, 예전처럼 직접 마련하기보다는 위탁하는 경우가 더 흔하다. 돌잔치, 환갑잔치나 칠순잔치 등은 식당에서 하며, 결혼식도 전문 예식장에서 치른다. 그렇지만 특별히 제사나 차례만큼은 집안 식구들끼리 모여 준비한다. 이는 돌아가신 조상이나 부모를 기리는 데에는 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겼



기 때문일 것이다. 제례는 혼례와 같이 여전히 한국인의 일생을 통해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현대사회에 들어서 고등교육이 의무화되고 대학교육이 보편화됨에 따라 좋은 학교에 입학하고 졸업하는 의식이 생긴 것 또한 특징이다.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아우르는 입시 과정은 현대에서는 성인으로 접어드는 일종의 관례 의식처럼 자리 잡게 되었다. 절이나 교회 등지에서 이뤄지는 수능백일기도, 치열한 학군경쟁, 고등학교 졸업식 등은 현대사회에서 교육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사회인이 되는 첫걸음이 됨을 인식하게 하기도 한다.

출생에서 죽음까지 누구나 거쳐야 하는 일생의례는 비록 형식과 절차는 변화했지만 여전히 한국인의 일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수원시 구운동 삼환아파트 주민들의 출생의례, 혼례, 상례, 제례 등의 일생의례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에 덧붙여 현대사회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고등교육의 의무화와 보편화에 따라 중요시되는 입학과 졸업 의식, 그리고 환갑·칠순 등의 잔치행사 등도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구운동 삼환아파트 주민들의 일생의례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는 삼환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2012년 1~9월에 실시하였으며, 면접을 위주로 한 인터뷰 조사를 바탕으로 기술하였다.

1. 출생의례 _ 생명의 탄생과 함께 시작되는 의례

출생의례는 한 생명의 탄생과 함께 시작되는 의례라고 볼 수 있으나, 임신을 하기 전부터의 몸가짐과 임신 중의 금기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본다면 생명이 잉태되면 서부터가 진정한 출생의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다.² 우리나라와 같이 가족 중심의 사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자녀의 출산이 중요시되어 왔다. 특히 출생의례를 통해서 는 신생아와 산모를 보호하기 위한 지혜를 엿볼 수 있다. 1960년대 이후에는 출생의례에서 전통적으로 전해지는 금줄치기와 같은 형식과 절차는 상당 부분 약화되었다.

이것은 개발과 사회변동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백일잔치와 돌잔치는 여전히 출생의례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1) 임신 중 하지 말아야 할 것

임신부에게는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이나 피해야 하는 행동 등 여러 가지 금기사항이 있다. 이는 기형아를 낳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부터 시작하며 열 달 동안 몸가짐을 바로 해야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제보자들이 기억하는 임신 중 금기로는 음식에 대한 금기가 가장 많았다. 많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오리 고기를 먹으면 아기의 손가락 사이가 오리처럼 붙어 나온다고 하여 먹지 않았고, 닭뼈 등을 먹으면 아기의 뼈가 튀어나오는 기형이 나타난다고 생각해 가렸다. 음식 금기 외에도 산모는 좋은 것만 보고 듣고 말하는 등 평소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 또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수칙이었다.

오리 고기 먹으면 손가락이 붙어서 나온다. 임신 했을 때는 아무거나 먹지 말고 가려 먹어야 돼. 그래야 애기가 잘 나와. <이순희(가명), 여, 70대>

닭뼈 같은 거 먹지 말라 그러대 어머니가. 손가락뼈가 툭 튀어나온다고. <김설희(가명), 여, 60대>

삼환아파트 주민 심소영은 결혼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은 주부이지만, 임신 당시 시어머니를 통해 피해야 하는 음식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뼈가 없는 해산물, 즉 오징어와 문어 등이 그것인데, 얘기만 들었을 뿐 신경을 쓰진 않았다고 말한다. 미신이라 믿지도 않았을뿐더러 임신 중 먹고 싶은 걸 참는 것이 본인의 몸과 아기에게 더 해로울



삼환아파트 주민 조미란이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발육상태를 손수 기록하여 간직한 산모수첩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뭐 애 갖고 다 조심해야죠. 먹지 말라는 건, 왜 그 뼈 없는 동물 있죠? 문어, 오징어 같은 거. 그런 거 먹지 말라고, 뼈가 흐물흐물 기형아처럼 나온다고. 생긴 것도 별로 이쁘진 않잖아요? 시어머니가 그러시던데. 그래도 먹긴 먹었죠. 별로 그런 생각은 안 들어서 먹고 싶을 때 먹어야지 안 먹는 게 더 해로워요. 뭐 별로 믿지도 않고 임신할 때는 다 그렇지 뭐. 좋은 거 보고 듣고, 먹는 것도 이쁜 것만.〈심소영(가명), 여, 30대〉

한편, 삼환아파트 주민들 중에는 자식들의 배냇저고리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여럿 있었다. 배냇저고리란 아이가 태어난 뒤에 처음으로 입는 옷이다. 이는 보온과 위생에 중점을 두고, 혈액순환도 잘되며, 활동도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입히고 벗기기 쉽도록 넉넉하고 간편하게 만든다. 요즈음은 거즈나 양질의 메리야스 등을 사용한 배냇저고리를 흔히 입힌다.



백순자 아들의 배냇저고리

우리 아들 배냇저고리 사 입힌 거예요. 선물도 들어오고, 만들어 입히진 않았어요. 가지고 있으면 좋죠. 우리 아들 어릴 때 생각도 하고, 볼 때마다. 자주 꺼내진 않지만. 기념으로.〈심소영(가명), 여, 30대〉



곽성은의 배냇저고리

이거 우리 애들 배냇저고리. 첫째 애 것, 둘째 애 것. 아유 이렇게 또 꺼내니깐 귀엽다. 귀엽죠? 애기였을 때가 이뻐요. 지금은 말도 안 듣고, 아유 지금이나 그때나 다 예뻐요. 이걸 애들 둘 다 시집갈 때까지 안 버리고 가지고 있을 거예요. 시집갈 때 줄까? 그냥 그러고 싶어. 아니, 안 줄래요. 나 죽을 때까지 안 버릴 것 같아. 가지고 있어야지.〈오미환, 여, 50세〉

2) 백일잔치_아기의 무탈을 기원하다

100일 동안 무사히 자란 아기의 무탈을 축하하는 잔치이다. 한국전쟁 전에는 워낙 영아 사망률이 높아서 일단 백일을 넘기면 위태로운 고비를 넘긴 것이라고 생각했다. 현대에 이러한 풍습이 전해져 내려와 굳이 영아의 생존을 축하하는 의미보다는 태어나 처음 맞는 잔칫상이라는 데 의의를 두고 치러지고 있다. 백일 잔칫상에는 백설기를 주로 올리는데, 이를 나누어 먹어야 아기의 명이 길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백일잔치는, 옛날에는 왜 다 일찍 죽어 버렸어. 그래서 100일 넘기면 그거 축하해 준다고 한 거지. 그날 백설기 돌리잖아. 하얀 떡. 그거 다 주고 나눠 먹고 그렇게 잔치하면 오래 산대나. 지금도 백설기는 하잖아. <김설희(가명), 여, 60대>

과거에는 백일잔치가 온 가족의 경사스러운 날로 인식되어 비교적 성대하고 귀



수원 사람들의 백일기념사진(안익승 제공)



하게 치러진 데 비해, 현대에는 가족들끼리 모여 조촐하게 백일 기념사진을 찍고 상을 차려 주는 등의 절차로 행해진다.

친구들 중에는 백일잔치 뭐 호텔이나 뷔페 이런 데 가서 하는 애들 있었는데, 그거 그냥 개인적으로는 좀 별로예요. 비싸고. 오는 사람도 부담이고, 뭐 또 사 가야 되고 그러니깐. 우리 애는 집에서 했어요. 저번에 제 동생 보니깐, 개는 요즘 뭐 백일잔치 집 꾸며 주고 풍선도 달아 주고 사진도 찍어 주고 한복도 빌려 주고 그런 거 회사가 있나 봐요? 그런 데 맡겨서 하더라고요. 훨씬 합리적이던데. <심소영(가명), 여, 30대>

3) 돌잔치_ 태어나 한 해를 무사히 보냄을 다함께 축하하다

돌잔치는 아기가 태어난 지 한 해가 되면 해 주는데, 친척들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가까운 이웃들을 불러 잔치를 한다. 돌상에는 백설기, 무지개떡, 팥단지, 과일 등을 차린다. 돌잔치에서는 돌잡이를 하는데, 아기가 잡는 물건을 가지고 장래를 점치는 행사이다. 여기에는 실, 돈, 연필, 쌀 등을 준비한다. 어른들은 아기가 무엇을 잡느냐에 따라 아이의 운수와 미래를 점친다. 보통 실은 장수, 돈은 부귀, 연필은 학문, 쌀은 복 등을 의미한다. 현재는 집에서 돌잔치를 하는 경우보다 뷔페 등에서 하는 사람들이 많다.

(돌잔치) 집에서 했지. 나는. 근데 요즘엔 딸내미 보니깐 저기 뷔페 가서도 많이 하던데. 거기서 음식 먹고 사진 찍고. <박순자(가명), 여, 60대>

뭐 똑같지 지금이나. 그때 우리 딸은 저기, 실 잡았고, 아들은 책이었나. 공부 잘할 거라고 했는데 뭐 잘했던 것 같아. 실이 저기, 오래 시는 거야. 그리고 붓이나 책이 공부 잘한다고 그거고, 돈은 부자 되는 거. 돈이 좋지 요즘엔. <박순자(가명), 여, 60대>

돌잔치에 오는 손님들은 빈손으로 오지 않고 선물을 준비해 오는데, 요즘에는 금값이 많이 올라서 금반지보다는 현금을 준비한다.



돌잔치(박우임 제공)



아이의 장래를 점치는 돌잡이(<http://javaqueen.tistory.com/14>)

에이 요즘 금 너무 비싸. 그래서 그냥 10만 원 그렇게 하죠. 보통 돌잔치도 요즘 너무 연년 생 터울로 낳아서 지주 해 버리면 부담되더라구요. 워낙 뭐 물가가 비싸니깐.<심소영(가명), 여, 30대>

2. 혼례 _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룬다

혼례는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 부부로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의례이다. 혼인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고, 사회와 법이 인정하는 경제적·성적 결합을 통해 가정을 이루고 종족 번식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의미를 갖는데, 이러한 혼인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의례가 바로 혼례인 것이다.³ 혼인을 하고 가족을 이루는 일은 예로부터 가장 중요하고 큰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일생의 레 중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시대가 지나면서 혼례의 방법과 형식도 변화하였지만 혼례를 인륜지대사로 여기는 인식은 변함이 없다. 특히 과거에는 혼인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행사로 여겨 혼인의 모든 과정을 양가 어른들의 의사에 의해 결정했는데, 혼인은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집안의 결합으로 인식하고 더 신중하게 결정하기 위함이었다.

1) 약혼과 결혼식



배한석의 딸 혼서지
(2012년 초 결혼)

과거에는 보통 집안 사이에 중매쟁이가 나서 결혼식을 올리게 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불과 20~30년 전부터 연애결혼이 눈에 띄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서구화된 자유연애가 보편적으로 퍼지게 된 것이다. 중매결혼일 경우에는 얼굴 한 번 보거나, 그마저도 못 보고 결혼하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즉, 집안 어른들의 뜻에 따라 결혼을 하게 되는 양상을 보인다.

큰아들이 52세예요. 25살에 했어요. (누가 소개시켜 주셨어요?) 친지죠. 한 번인가 만났나. 뭐 다 그래요 옛날엔. <연태희, 남, 77세>

삼환아파트 주민 배한석의 딸은 올해 결혼을 하였다. 연애결혼이긴 하지만 결혼 전에 사주팔자와 궁합을 보고 예단을 보낼 때 혼서지를 함께 보냈다고 한다. 배한석은 사주팔자나 궁합 따위를 믿지는 않지만 으레 절차라고 생각하여 아내가 받아 온 대로 보냈다. 신부 측에서 해야 하는 전통적인 절차를 중요시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다.

우리 딸이 얼마 전에 결혼했어요. 혼서지에 사주팔자, 궁합 이런 거 집사람이 받아 와서. 이런 거 장식은 한복 맞추는 데서 다 해 주더라고요. 편하지. 나는 뭐 그런 거 많이 안 믿는데, 집사람이 보고 와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좋다고 하니깐 나쁠 건 없지. <배한석, 남, 69세>

연애결혼의 경우 직장 내에서 만나 교제를 시작하여 결혼하게 된 케이스나, 지인의 소개로 만나 일정 기간 교제를 한 후 결혼하게 된 케이스가 가장 주를 이룬다. 박윤택과 오미환 부부의 경우 2년의 연애 기간을 보내고 부모님들께 인사를 드린 후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 날짜는 10월 14일인데, 신부 측 부모님이 정해 주셨다. 박윤택은 사주팔자나 궁합 등에 관심이 없어 신부 측에 전부 맡겼다. 이는 박윤택의 성장과정과 연관이 있기도 한데, 그는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어서 자연스럽게 신부

측 의사를 따르게 되었다고 한다.

(결혼하실 때는 연애결혼이세요?) 네, 2년 만나고 결혼했죠. 결혼한 지는 22년. 만 21년. 맞지? 결혼 날짜가 우린 10월 14일. 그 날짜는 처갓집에서 아마 정했죠. 우리 쪽에서는 그런 걸 할 그게 없었고. 기본적으로 사주니 이런 걸 제가 싫어해서 믿지도 않고. 처갓집에서 정했죠. <곽윤택, 남, 51세>

백순자의 경우, 시어머니가 직장 내 인연이 되어 본인의 아들을 백순자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처음에는 백순자의 친구를 소개시켜 주었다가, 남편이 백순자를 더 마음에 들어 하는 바람에 만나게 되었다. 당시 선을 볼 때는 다방에서 첫 만남을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현대로 올수록 배우자 선택 시 집안 대 집안의 만남이나 부모님들의 연줄을 통한 만남보다는, 본인의 의지가 더 중요시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그때가 24살. 우리 신랑이 28살. 우린 시어머니가 중매. 직장 다닐 때. 우리 어머니가 만나 보라고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직접 그러는 거야. 친구 좀 소개시켜 달라고 우리 아들. 그래서 난 진짜로 내 친구를 소개시켜 줬어요. 역전다방에서 우리 신랑이 수원에서 내려와서 보고 내 친구를 소개시켜 줬어요. 자꾸 만나라고 했는데 우리 신랑이 생각이 없었는지 우리 어머니한테 그 옆에 아가씨를 소개시켜 달라고 해서. 그 내 친구 어떻게 몇 번 연락 하더니 끝내고 그러고 나한테 한 거야. 그게 좀 그렇잖아요. 친구 간에. 그랬다가 저도 안 보고 그러니까 결혼이야기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중매쟁이를 만나고 싶다고 차라리…… 밤 9시에 역전다방 앞에서 또 보게 된 거지. 만나게 돼 갖고. 그리고 두세 번 보고 우리 어머니가 밀어붙이고 서로 양가 부모님이 얘기돼서. 그 우리 큰아버지랑 우리 아버님이랑 친구관계고 그런 거야. 시골이라 좁으니깐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니깐. <백순자, 여, 50세>

결혼 날짜 또한 사주나 궁합에 의존하지 않았다. 서로 집안 대소사가 겹치지 않고 편히 참석할 수 있는 일요일로 맞추는 등 비교적 합리적인 결혼 날짜를 택할만한 것을 알 수 있다.





김혜경 약혼식



김혜경 약혼식 예물교환

5월 30일 날 만나고 7월 20일 날 약혼하고 10월 26일 날 결혼하고 그랬어요. 우리 결혼 날 짜, 저희는 그냥. 저는 제천시 직장 다니고 애 아빠는 이쪽에서 다니니깐 그냥 일요일로. 날 받고 이런 거 안 하고 서로 양쪽에 집안들 끼리 집안의 행사들끼리 안 겹치는 날로. 결혼식 날도 그렇게 했어요. 서로 양쪽 집에 아무 일 없는 날로. 왜 양쪽 집 다 잘못 잡으면 중복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피하게.〈백순자, 여, 50세〉



백순자의 약혼사진

결혼식 전에 약혼식을 따로 올리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약혼식은 예복을 맞추고 가족, 친지, 친구들을 불러 모아 큰 홀이나 별실이 마련된 식당에서 올리는 것이 보통이었다. 약혼식의 절차로는 반지 등의 예물교환, 양가 인사, 뒤풀이 식사 등이 있다.

약혼식에서는 다 같이 기도하고, 가족들끼리. 중화요리 음식점 원탁 자동으로 돌아가는데 있잖아요. 거기서.〈김혜경, 여, 53세〉

약혼식은 친정 작은아버지가, 작은집이 이렇게 피로연, 회갑, 돌잔치 하는 큰 식당을 했어요. 거기서 했어요. 제천, 거기서 다 했어요. 이게 26년 전이죠. 그때 예물교환해요. 목걸이, 팔찌, 쌍가락지, 다이아반지 그렇게 사 주더라고 우리 신랑이 시계 자기가 다 벌어서 해 줬어요. 그때 예물교환하고. 결혼식 때는 이렇게 해 주는 게 없고 이렇게 미리 받고 그러면 잊어버리고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끼고 다니다가 결혼식 때 또 끼고. 약혼식 할 때는 친구들하고 친척들하고 모이고. 친정식구들 시댁식구들. 식당이 커서. (약혼식 한복은) 어머니가 따로 해 주시더라고. 결혼식 때 사주단지라고 해 갖고. 그리고 왜 결혼식 때 저는 미리 결혼예복으로 한복하고 해 주시더라구요. 그리고 함에다가 다시 이렇게 넣어서 보내잖아요. 그니깐 미리 그걸 주고 막상 함 들어올 땐 애기용품, 기저귀 값 이런 게 들어있더라구요. 한복을 그날 보내면 미리 못하잖아. 그래서 미리 보내 갖고, 가방에 다 미리 넣어 주시더라구요.〈백순자, 여, 50세〉





김혜경의 결혼식



김혜경의 결혼식 후 치러진 폐백

삼환아파트 주민들의 결혼식 형태는 대부분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진행되는 서구식 결혼이 주를 이루었다. 물론 한국전쟁을 전후로 전통혼례 형식의 결혼도 있었지만, 집안 자체가 부유하거나 당시 널리 유행되며 퍼지기 시작한 서구식 문화 열풍에 힘입어 예식장 결혼식이 많이 행해졌다. 결혼식은 당사자들이 살고 있는 지역 혹은 부모님이 계신 고향이나 직장이 위치해 있는 지역의 예식장에서 주로 치러졌다. 이러한 양상은 예나 지금이나 차이가 많지 않음을 엿볼 수 있다.

전 세류동, 집사람은 영화동이 고향. 브라운관광호텔 아세요? 옛날 수원호텔 자리 리젠시 뷔페. 수원역에서 남문 쪽으로 가다 보면 끝에 가서 팔달동 가는 사거리 있죠. 뉴코아 쪽으로 직진하며 오는 호텔. 수원 그 당시에 호텔이 거기뿐이 없었어요. 동수원 쪽 있었나? <곽윤택, 남, 51세>

서울, 서울 토박이예요. 결혼은 용산, 산 데는 영등포. 식은 신식으로 드레스 입고 양복 입고 했죠. <연태희, 남, 77세>

결혼식, 서울 신일고등학교 쪽에 있는 데서 이 웨딩드레스는 직접 골랐어요. <김혜경, 여, 53세>

2) 피로연과 신혼여행

결혼식이 끝난 후 신랑과 신부의 친구들을 불러 모아 유원지 근처의 식당 등에서 간단하게 맥주를 마시며 서로 인사를 나누고 친목을 다지는 피로연이 있다.

결혼 뒷풀이를 원천저수지. 용궁이니 수궁이니 하는 데서 식사하고 음료하고, 신랑 친구들과 신부 친구들 뒷풀이하고. <곽윤택, 남, 51세/오미환, 여, 50세 부부>

피로연까지 마치면 신혼부부는 신혼여행을 떠난다. 현재는 해외로 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지만, 당시만 해도 국내 여행, 그중에서도 제주도가 최고 인기의 신혼여행지였다.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로 제주도에 가서 조랑말과 유람선 등을 타고 휴식을 취하고 돌아오는 것이 보통이었다.





결혼 후 원천에서 친구들과 함께한 뒤풀이(최종천 제공)



백순자 부부의 제주도 신혼여행 비행기 티켓

(신혼여행은) 제주도 배 타고 갔다가 비행기 타고 돌아왔지. 비싸지. 프로펠러 돌아가고. <연태희, 남, 77세>

백순자의 경우도 신혼여행은 제주도도 다녀왔다. 신혼여행 갈 때 현재는 캐주얼 차림을 하고 신랑 신부가 커플룩으로 맞춰 입고 떠나지만, 당시에는 정장 스타일의 맞춤예복을 입고 신혼여행 가서 사진을 찍었다. 남성의 경우

양복을, 여성의 경우 드레스와 한복 등의 예복을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혼여행 떠나기 전 김포공항 앞에서 포즈를 취한 백순자



양장과 양복 차림의 신혼여행 복장

(신혼여행은) 결혼식 끝나고 그때는 우리 신랑도 차가 없고 그러다 보니깐. 식 끝나고 기차로 김포공항 근처, 서울 와서 자고. 그다음 날 새벽에 움직였지. 그때는 기차 타고 세네 시간 걸리고 그러니깐. 서울 와서 하룻밤 자고 그러고 갔어. 그때는 왜 이렇게 한복을 입고 다녔나 몰라요? 아휴. 티를 내잖아. 요즘은 커플바지 커플티 이런 건데 옛날에는 그랬네. 그때는 옷 사 입는 것도 아니고 양장점 가서 다 맞춰 줬어요. 이건 신혼여행 갈 때 입으려고 예복으로 우리 어머니가 맞춰 주신 거예요. 이 원피스도 같이 어머니. 이건 벨트를 풀렀다 했다. 이걸 풀러서 임신복으로도 입으라고. 그때 당시 안에다가 지갑, 카메라 이런 거 넣어 갖고 다니고. 요즘은 배낭 잘 매잖아요. 그때는 옷 자체가 이러니깐 배낭을 못 매잖아요. 근데 요즘은 캐주얼하게 입으니깐. <백순자, 여, 50세>



3. 상례 _ 죽은 이를 보내는 절차

상례는 사람이 죽어서 장사 지내는 의식을 말한다. 즉 주검을 처리하는 의례이므로 사람이 태어나 마지막으로 죽음을 맞이하면서 겪게 되는 절차이다.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듯이 상례 역시 누구나 지나가야 할 일생의례의 하나인 것이다. 상례는 보통 3일장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5일장을 하기도 한다.

집에서 상장례를 치렀던 과거와는 달리 현대에는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였어도 병원 장례식장에서 상장례를 치르는 경우가 보통이다. 집에서 치를 경우 절차의 번거로움도 있겠지만, 도시화가 되며 마을이 해체됨으로써 이러한 큰일을 치를 수 있는 계 조직의 단체나 모임이 적어졌기 때문이다.



백순자 시아버지 장례식

제일장례식장이라고. 우리 아버님은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지병이 있으셔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편안하게. 총 5형제 중에 손주, 손녀가 8명이예요. 남자가 4명, 여자가 4명. 장례식장에도 따로 영안실에도. 끝나고 납골당에 모셨어요. <백순자, 여, 50세>

집에서 어떻게 해. 예전에 우리 시아버지는 집에서 했는데. 이젠 못 하지. 병원이 잘돼 있으니깐. 그냥 병원 장례식장 맡기면 되지. <임정숙, 여, 60대>



백순자 시아버지 장례식



백순자 시아버지 장례식 중 운구



백순자 시아버지 장례식



백순자 시아버지 장례식 후 납골당 안치



4. 제례 _ 조상을 추모하다

제례는 돌아가신 조상을 추모하고 후손들을 돌보아 주는 조상신을 응접하는 행사이다.⁴ 이것은 살아생전 다하지 못한 효도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같은 조상을 가진 친족들이 자신의 뿌리를 돌아보는 의미 있는 의례라 하겠다. 제사는 그 형식에서 집안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지만 조상을 공경하고 집안의 화평을 기원하는 근본정신은 다르지 않다.

1) 기제사

기제사는 조상이 돌아가신 날에 올리는 제사이지만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마지막 살아 계신 날 지낸다. 보통 집안의 여자들이 제수 음식을 마련한다. 남자들은 주로 밤을 치고 제수음식을 진설하는 일을 돕는다. 예전에는 일 년에도 몇 번씩 제사가 있었지만 현재는 주로 일 년에 서너 번 설, 추석, 기제사만 지내는 집이 대부분이다.

제사상이 차려지고 의식이 시작되면 절은 두 번씩 하며 남녀 모두 같이 한다. 예전에는 남자만 절을 올렸지만 요즘에는 여자도 같이 참여한다. 술은 세 번 올린다. 제사의 절차가 모두 끝나고 지방까지 태우고 나면 제사음식으로 다 같이 음복을 한다.

먼저 진설하고, 상 위에 음식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절하고 제문 읽고. 남자가 읽지 그건. 큰아들. 그리고 또 절하고 술 올리고 그리고 이제 조상님들이 드실 때 엎드려서 다 잘 드실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이제 절 올리고 지방 태워 보내고. 다음 뭐 이제 음복하지. 술도 나눠 마시고, 전도 먹고. <한석주(가명), 남, 60대>

저희 제사 명절 때랑 내려가면 동서들하고 모여서, 내려가서 동서들이랑 다 장보고 음식하고, 다 같이 모여서. 머느리가 다섯이니까 금방 해요. 명절도 그렇고. <백순자, 여, 50세>

한편, 직장에 다니며 각자 분가하여 살고 있는 현대의 가족관계는 제사를 올리는



백순자 소장 놋그릇



배한석 소장 제기 보관함

전승 의지에 변화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아빠도 제사를 하루에 몰아서 하자고 그런 말을 한 번 한 것 같아요. 아빠도 그런 말을 한 번 했어요. 평일에 제사가 있고 그러면 가족들이 시간도 안 맞고 그러니까 그 주말로 하자 해서 한 적 있는 것 같아요. <곽성은, 여, 21세>

제사를 모시는 큰집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평일에 직장에 나가야 하는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제사를 지내는 요일을 편의상 변경하거나, 이른 시간에 지내는 가정도 눈에 띈다.

2) 차례

차례는 설, 추석 등 명절날 아침에 조상의 지방을 모시고 지낸다. 차례도 장손의 집에서 지내는 것이 원칙이다. 차례를 지낼 때의 진설은 기제사와 비슷하지만 차례 상에는 밥과 국 대신 설에는 떡국을 올리고, 추석에는 송편을 하나 더 올린다. 술을 올리고 다시 절을 두 번 하는데, 이때 술은 한 번만 올린다. 차례가 모두 끝나면 음



식을 나누어 먹으며 조상을 기린다. 삼환아파트 주민들이 지내는 차례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는 세시풍속 중 추석에 관한 현지조사로 같음하여 이어 나간다.

3) 진설

진설은 제사와 제물, 그리고 그 밖에 필요한 제구를 차리는 것을 말한다.⁵ 상차림은 집집마다 혹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병풍 앞에 제반을 모시고 술잔을 놓는다. 수저를 놓고 밥과 국을 놓는다. 그 앞에는 보통 산적, 생선, 전류를 놓고, 탕류와 나물은 그 앞줄에 놓는 것이 일반적이다. 맨 앞줄에는 보통 사과, 배, 감, 대추, 환과 등이 올라가는데 그 순서는 집집마다 다르다.

남의 집 제사는 홍보는 거 아니랬어. 그거 지방마다 다르고, 집안마다 다르고, 생전에 좋아하던 음식 올리고 그러는 거지. 저기 경상도 어디는 문어 올리고 그런대매. <나주회(가명), 여, 60대>

5. 학교 들어가기

현대사회는 교육열이 높아지고 고등교육이 의무화되며 대학 진학이 보편화됨에 따라 입학과 관련한 의식들 또한 일상에서 중요한 과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는 일생의 중대한 관문 통과를 위해 자녀를 둔 부모들은 절이나 교회 등에 가서 무사히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기도를 올린다. 이에 절이나 교회 등은 수능백일기도, 수능무사기원기도 등의 제목을 내걸고 신도를 모으기도 한다.

수능은 안 보고 수시로 갔어요. 백일기도, 나는 시간을 정해 놓진 않고,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무난하게 고등학교 생활 마치고 가고 싶은 대학 가게 해 달라고 교회 가서 맨날 했죠. 좋은 성과 받게. <김혜경, 여, 53세>

수능날 부모님이랑 친척들이 엿이랑 초콜렛 사다 주셨어요. 참쌀떡도. 다 대학에 척 붙으라는 의미인 것 같던데. <곽성은, 여, 21세>

이렇게 대입을 위한 과정이 끝나면 보통 자녀들은 스무 살을 맞이하게 되는데, 현대에 들어 사라졌던 진정한 성인식에 대한 의미, 즉 관례에 대한 의미가 대학입학을 기점으로 이루어지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부모님의 울타리 안에서 교육을 받아 온 시절을 지나 이제는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며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진정한 의미의 어른이 되는 시점이 바로 대학 입학인 것이다.

어후, 그거 입시전쟁이야. 별로 다시 하고 싶지 않아. 이젠 뭐 어른 되고 대학도 갔으니깐 자기 알아서 살아야지 뭐. 난 이제 용돈도 안 줘요. 자기 알아서 해야지. <서미숙(가명), 여, 50대>

6. 오래 사시기를 기원하는 잔치

60번째 생일인 환갑, 70번째 생일인 칠순, 그리고 팔순 등의 기념 잔치는 과거에는 집에서 음식을 장만하고 식구들과 이웃까지 모두 모여 말 그대로 ‘잔치’를 했지



백순자 시어머니 환갑잔치





백순자 시어머니 환갑잔치

만, 요즘에는 식당이나 홀을 빌려 치르는 것이 대부분이다. 드물게 백순자의 시어머니 환갑은 집에서 직접 열었다고 한다. 정성의 문제 때문에 집에서 해 드렸다는 것이 그 이유다.

우리 시대, 우리 집에서 치렀어요. 환갑도, 식당 같은 데서 하면 너무 그렇다고. 3~4일, 일주일 막 준비해 갖고 동네잔치를 3~4일을 했어요. 집에서. 그때 우리 애가. 임신해 갖고 낳아서 두 돌 정도 되었으니깐 한 세 살 정도?요 상태니깐 안고 있네요. <백순자, 여, 50세>

현대에는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칠순과 팔순 잔치는 성대하게 여는 반면, 환갑잔치는 잔치 형식보다는 가족여행을 간다든지, 식구들끼리 좋은 음식을 먹는다든지 등의 조출하지만 특별한 생일을 보내는 추세이다.



백순자 시어머니 환갑잔치 음식준비



백순자 시어머니 환갑잔치

우리 여행 갔어. 저기 설악산. 원래 해외 가자는 걸 내가 그냥 귀찮기도 하고, 또 무섭기도 하고 해서 그냥 말았어. 설악산 좋아. 단풍 보고 그러고 구경하고, 무슨 잔치야. 내 친구들도 환갑은 안 세. 잘. 그냥 요즘엔 하도 다들 오래 사니깐. 여행이 더 좋더라고 그리고. <구은희(가명), 여, 60대>



1. 설
2. 발렌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
3. 한식
4.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5. 초파일
6. 삼복
7. 추석
8. 김장
9. 빼빼로데이
10. 동지
11. 성탄절

02 |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일 년 열두 달

태양력과 태음력을 바탕으로 해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명절과 24절기, 그리고 그에 얽힌 의례와 관습을 세시풍속이라 한다. 이러한 주기는 예로부터 세시, 세사, 월령, 시령이라고 하여, 특히 그 시계성(時季性)을 강조하였다.¹ 세시풍속은 하루 이들의 짧은 시일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오랫동안 생활 경험에서 필요했기에 채택된 것이다.² 따라서 세시풍속은 한 지역 또는 한 집단의 생활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현대 세시풍속 중 과거부터 꾸준히 행해지는 세시풍속은 설과 추석처럼 큰 명절만이 비교적 변화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 세시풍속은 주로 생업인 농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세시풍속의 변화는 사회와 생업의 변화로 생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여길 수 있다. 삼환아파트의 세시풍속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한식, 복날, 동지 정도가 가정마다 혹은 노인정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한편, 현대에 들어 새롭게 세시풍속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각종 ○○데이 등은 그 전승의 의미를 새롭게 주목할 만하다. 근대에 접어들어 제정된 어린이날은 이제 온 국민이 쉬는 공휴일로서, 가족 구성원들이 시내 놀이동산과 나들이 장소 등을 찾는 날로 자리 잡았다. 어버이날은 설, 추석과 더불어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어야 하는 날로서 인식된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모두 5월

가정의 달에 속하는 날로서 백화점이나 마트 등지에서는 이를 기념하는 선물용 상품이 대거 쏟아져 나온다.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또한 서양에서 유래된 풍습이지만, 우리나라에도 정착되어 활발히 전승되고 있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여성이 남성에게 초콜릿을 주는 발렌타인데이에 이어 3월 14일 화이트데이에는 반대로 남성이 여성에게 사탕을 주는 날로서 한국에서 새롭게 만들어져 전해지고 있다. 11월 11일 빼빼로데이에는 특정 과자회사의 상술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재미삼아 부담 없이 과자를 선물하는 등의 모습이 보인다.

이 글은 구운동의 삼환아파트 주민들의 세시풍속을 파악하기 위한 글이다. 이 중에는 완전히 단절되어 기억 속에서만 남아 있는 것도 있으며, 현재도 과거와 비슷하게 지속되고 있는 것도 있다. 또한 새로 생겨난 풍속도 있으며, 생활문화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들도 있다. 2012년 2~9월에 수원 구운동 삼환아파트 거주자를 중심으로 세시풍속, 주민들의 한해살이를 조사하였다. 조사된 세시풍속을 종합하여 월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설

곽윤택의 가정은 설날 아침에 일어나면 지난밤 미리 준비해 둔 차례음식으로 차례상을 차린다. 차례상에는 떡국과 메, 배, 사과, 대추, 밤, 감, 약과, 한과, 숙주나물, 두부전, 동태전, 시금치나물, 고사리나물, 포, 닭, 청주, 산적 등이 올라간다. 차례를 마치고 아침식사로 떡국과 차례음식을 가족들과 함께 먹는다. 곽윤택의 집이 큰집이라 대부분 명절 제사상은 그의 집에서 주도하여 준비하였지만, 최근 남동생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면서 곽윤택의 부인인 오미환이 모든 준비를 혼자 한다. 차례 준비를 위한 시장 보기는 직장에서 가까운 마트에서 한다. 오미환이 병원에서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준비를 할 수는 없고, 며칠에 걸쳐 조금씩 나눠 차례상에 올릴 음식을 준비한다.



설날 세배(http://blog.naver.com/ymlhsc)

(제사 준비는) 작년까지도 동생네가 있었는데 금년에 형하고 남동생네가 다 미국 이민 갔어요. 그래서 여동생네랑 우리만 있어서. 장 볼 땐 직장 가까운 데로 마트 가는데, 나 같은 경우엔 (일하니깐) 조금씩 사다 놓고 다듬어 놓고 뭐 나눠서 …… .〈오미환, 여, 50세〉

김혜경의 집은 기독교 신자 집안이다. 김혜경은 모태신앙으로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며, 현재 삼환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세한교회의 권사직을 맡고 있다. 가족 모두가 기독교 신자이므로 차례 대신 가족이 좋아하는 음식을 장만하여 추도예배를 드린다. 김혜경은 추도예배가 음식을 하지 않아도 되어 편할 것이라는 주위의 시선에 대해 부정하였다. 가족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여러 개 차려야 하므로 손은 똑같이 간다는 것이 그녀의 말이다. 주로 하는 음식은 갈비찜, 잡채, 나물, 곶절이, 호박전, 동그랑땡, 동태전 등이다.

제사는 우리는 안 지내고 추도식. 추도식 한다고 해서 음식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절하고 기도하는 것만 바뀌는 것일 뿐이지. 제사 지낼 때는 뭐 올리면 안 되는 음식, 되는 음식이 있잖아요. 추도식 음식은 우리가 잘 먹는 음식, 그런 걸로 해요. 좋아하는 것. 추도식 한다고 하면 간단히 생각하는데 그건 또 아니에요. 갈비, 잡채, 나물, 곶절이, 호박전 부치고, 고기하고 야채하고 해서 동그랑땡 부치고 생선 포 떠서 동태전 하고.〈김혜경, 여, 53세〉

한편, 일부 가정에서는 설 연휴를 구정(음력 1월 1일)으로 쇠지 않고 양력 1월 1일인 신정 연휴로 쇠는 모습도 보였다. 비교적 연휴기간이 긴 구정 연휴에는 가족 들끼리 여행을 간다든지 집에서 쉬고 신정 연휴에 세배와 성묘 등을 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삼환아파트 주민들은 이와 같은 설 쇠기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무리 국민 대이동이라 복잡하고 피곤하지만 전통적인 설은 음력 1월 1일인 구정 연휴인데 그날을 서양식으로 양력 1월 1일로 바꿔 보낸다면 의미가 너무 퇴색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들이었다.

굳이 뭐 연휴가 하루인 것도 아니고, 구정 연휴가 3일씩 주어지는데, 그날 쇠라고 한 거죠. 그거 때문에 새해를 서양처럼 양력으로 하게 되면 좀 그래요. 별로 그럴 마음도 없구요.〈한정희(가명), 여, 40대〉

차례 후 아이들은 새로 장만한 설빔을 차려 입고 집안 어른들에게 세배를 드린다. 어른들은 주로 “공부 잘해라.” “건강해라.” “돈 많이 벌어라.” “시집, 장가 가거라.” 등 그 사람이 그해 원하는 바를 덕담으로 해 준다. 덕담을 건네며 세뱃돈을 준다.

설날에 세뱃돈 수입이 짹짹하겠죠 애들은. 어른들은 조카나 자식들 좀 숫자 많으면 그날 왕창 깨지는 거고 뭐. 근데 아깝진 않아요. 일 년에 한 번 그렇게 기분 내서 주는 건데. 덕담도 하고 절도 받고 돈도 받고.〈김선미(가명), 여, 50대〉

2. 발렌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

양력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는 서양에서 기원이 된 풍속이다. 그리스도교의 성인 발렌티노의 축일에서 유래하였다. 오늘날에는 영미를 중심으로 연인들이 카드나 선물을 주고받는 날로서 알려졌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여성 쪽에서 좋아하는 남성에게 초콜릿을 선물하는 것이 성행하고 있다. 발렌타인데이가 되면 마트나 팬시점에는 각종 초콜릿과 과자, 카드, 선물 등이 즐비하다. 요즘에는 좋아하는 남성이라는 범위에서 벗어나 직장 내 이성 동료나 가족 간에도 초콜릿을 주고받는 날로 인식되는 경향이 크다.

우리나라에서는 발렌타인데이와 반대로 남성이 좋아하는 여성에게 초콜릿 대신 사탕을 건네주는 화이트데이가 전해지는 중이다. 초콜릿과는 다른 달콤한 간식인 사탕을 내세워 공평하게 남성도 여성에게 줘야 한다는 의미로 전해지지만, 현재는 사탕을 꼭 줘야 한다기보다는 여성이 초콜릿을 좋아하면 초콜릿으로 대체되기도 하고, 갖고 싶은 선물이 있으면 선물로 대체하기도 하며, 주고받는 데에 의미를 두고 행하는 등의 변화 양상이 보인다.

딸이 발렌타인데이에 아빠 준다고 브라우니를 만들어 주고, 초콜릿 사 줄 때도 있고, 만들어 주기도 했었는데 올해는 브라우니 재료 사다가 뭘 열심히 만들더라구요. <곽윤택, 남, 51세>



곽윤택의 딸이 2012년 발렌타인데이 때 선물한 브라우니 케이크

3. 한식

술과 포, 과일을 간단히 준비해서 성묘를 가는데 겨우내 벗겨진 무덤의 때를 서로 입히고 묘 주변에 나무를 심기도 한다.

지난 한식 때도 가 가지고 잡초 제거하고, 잔디 사다가 부분 이식도 하고, 거름 퇴비 하고.〈곽윤택, 남, 51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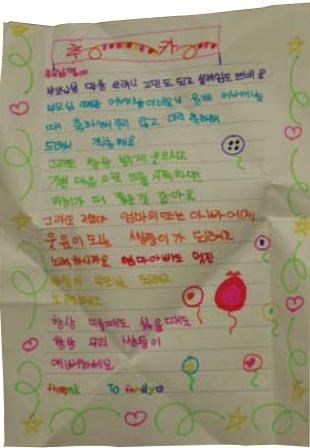
그러나 한식 전승 양상에서 현대인들은 한식이라는 절기 자체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다. 직접 산소를 돌보는 가정의 남성들이 아닌 이상 한식 때 꼬박꼬박 성묘를 가야 한다는 인식 자체가 뿌리 깊게 자리 잡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한식 때 저희 집은 장남이라 아버지랑 같이 가요. 선산이 남원 쪽에 있어요. 먼데. 그래도 일 년에 기껏해야 한두 번 가니깐, 가야죠. 직접 별초 하세요 아버지는. 일꾼들 안 쓰고, 그래야 예의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친구들은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좀 멀고 힘들어서 마음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추석 때 전에 한 번 가면 될 것 같은데 굳이 한식 날에도 가니깐.〈성민수(가명), 남, 20대〉

한식 때 성묘 이제 잘 안 가요. 저는 잘 안 가고 부모님만 가실 때도 있고, 아빠랑 작은아빠들이랑. 우리는 안 간 지 엄청 오래된 것 같은데. 추석 전에도 가는데 한식 때까지는 못 가요. 저도 학교 때문에 바빠기도 하고.〈정현석, 남, 24세〉

4.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어린이날은 양력 5월 5일로 이날 아이들은 부모님이나 어른들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가족 나들이를 가기도 하며, 외식을 하기도 한다.



조미란의 자녀들이 어버이날에 쓴 편지



조미란의 자녀들이 어버이날에 선물한 카네이션

어린이날은 보통 초딩(초등학생) 때까지만 받는 것 같아요. 저도 친구들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냥 뭐 책가방, 인형 그런 거 많이 사 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놀이동산도 가고. <민진희, 여, 22세>

양력 5월 8일 어버이날에는 카네이션과 선물 등으로 부모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부모님이 살고 계신 고향에서 떨어져 지내는 자식들은 이날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는다. 명절에 귀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삼환아파트의 주민들은 이날 역시 부모님을 찾아뵈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보통 꽃 선물로서는 카네이션을 드리며 용돈이나 부모님이 좋아하는 아이템 혹은 보약이나 건강식품 등의 선물을 챙겨 드린다.

우리 아들이 씬빔 좋아한다고, 씬촌에 가서 월남쌈 먹으러 거기 갔어요. 공부하는 학생이라. 그래도 우리 아들이 "엄마 내가 딴 거는 못해 주고 엄마 좋아하는 월남쌈 먹자."고. 꽃은 사 온다는 거 내가 사 오지 말랬어. 난 화분을 좋아해 갖고, 해마다 화분을 사다 줬는데, 내가 이제 집에 너무 많으니깐 화분이. 사 오지 말라고 했어. 조그만 거. 예쁜 거 많잖아요. 요즘 근데 관리를 안 해 주니깐 자꾸 죽는 거야. 그래서 갖고 오지 말라구. 집에 거의 내가 오늘도 7시에 나가면 잠깐 들어와서 청소하고 밥 준비하고 또 나가면 10시 전에



삼환아파트 어버이날 행사



삼환아파트 어버이날 행사 상차림

는 집에 못 들어와요. 이런 식으로, 애네한테 신경을 못 써 주면 애네도 죽어요. 화분들도.〈백순자, 여, 50세〉

매년 어버이날에는 삼환아파트 노인회가 중심이 되어 아파트 입구에서 큰 장과 바자회 등을 여는데, 이 행사에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노인회 회원을 비롯하여 많은 인원이 참여한다. 이날 음식을 하

고 서로 마주볼 일이 많지 않았던 아파트 주민들이 모처럼 만나 교류하며 친목을 다진다.



삼환아파트 어버이날 행사

노인회에서 이제, 매년 어버이날 그리고 그 전날, 아파트 정문에서 크게 장을 열어요. 여기 노인회 회원들 말고도 삼환아파트 노인들 다 모이는 날. 한쪽에 먹을 거 길게 퍼 놓고, 그거 먹고, 그냥 그날 아파트 주민들 얼굴 보고 그러는 거지 뭐. 요즘엔 아파트에서 이렇게 누가 사는지, 그런 거 모르잖아요. 옆집 누군지 알아요? 어버이날이기도 하고 그런 모임도 가지고 겸사겸사 그렇게 만나는 거. 그런 거 노인회에서 해요. <연태희, 남, 77세>

5. 초파일

초파일에는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린 뒤 비빔밥, 나물 등의 절밥을 먹는다. 불교신자인 연태희는 서울 잠실에 있는 절에 다닌다. 그렇지만 본인이 직접 참석하기보다는 대부분 부인만 혼자 불공을 드리러 간다.

잠실로 가요. 서울에 있을 때부터. 초파일 나는 잘 안 가는데, 집사람이 자주 가고. 가면 뒤 절밥 먹죠. 뭐 초파일에. 그때그때 틀려. 비빔밥도 있고 나물. <연태희, 남, 77세>



6. 삼복

삼복에는 닭을 삶아 삼계탕을 해 먹거나 사 먹는다. 혹은 보신탕을 사 먹기도 한다. 더위를 이기기 위해 몸에 좋은 음식이라면 원기 보충을 위해 초복·중복·말복 때 즙음해서 챙겨 먹기도 하고 보약을 지어 먹기도 한다. 김혜경은 삼계탕이나 옷닭을 집에서 직접 요리하여 가족들에게 먹인다. 그런데 10여 년 전 큰아들이 중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 근처 보신탕을 잘하는 집에서 보신탕을 사와 집에서 다시 끓여 아들들에게 여름 육개장이라고 말하며 먹고 있는 중이다. 보신탕이 여름 보양식으로 좋지만 집에서 직접 개를 잡아 요리하기 어려워 사서 먹이는 것이며, 더위를 잘 타는 아들들의 체질 때문에 자주 먹고 있다.

삼계탕 하고 옷닭도 하고, 집에서. 또 가끔 보신탕은 집에선 하는 거 싫으니깐. 아들들은 자기네들은 여태 안 먹은 줄 알았는데, 잘하는 데에서 사서 집에 와서 주죠. 남자애들은 팍도 많고, 고기도 좋아하고, 그래서 큰아이 중학교 때부터 먹었어요. <김혜경, 여, 53세>

외식하죠 보통. 집에서 하기 번거로우니깐. 그리고 그 우리 집 바깥양반은 개고기 먹으러 동창회 같은 거 모임 해요. 복날에. 등산모임인데 복날마다 유명한 식당 가서 친구들과하고 먹고 오더라고. 확실히 먹으면 좀 컨디션이 좋아지나 봐. <김선미(가명), 여, 50대>

7. 추석

추석 차례상은 떡국 대신 햇곡식으로 만든 송편을 올리는 것을 제외하고는 설 차례상과 비슷하다. 송편은 콩이나 팥, 깨, 설탕 등을 넣고 직접 빚거나 떡집에서 사다 올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차례를 마친 뒤 아침을 먹고 간단하게 술과 음식을 챙겨 성묘를 간다. 요즘에는 길이 많이 막혀 추석 전에 별초를 할 겸 미리 성묘를 다녀오기도 한다.



1998년 백순자의 추석 차례 두 아들이 사이좋게 계주를 올리고 있다.



1998년 백순자의 추석 차례상

우리 저번 주에 미리 별초 겸 다녀왔어요, 시골. 그 당일은 차례도 지내야 하고 차도 많이 막히잖아요. <백순자, 여, 50세>

기독교 신자의 경우 추석날 차례보다는 추수감사절을 맞아 감사예배를 드린다.

예배드리고 농사를 봄부터 해서 가을에 수확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김혜경, 여, 53세>

삼환아파트 생활문화 조사기간 중 추석이 포함되어 있어, 현지참여로 본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었다. 세 가정의 추석 상차림은 가가의례라고 하듯이 집집마다 조금씩 다른 상차림을 보였다. 대부분의 가정이 올리는 음식과는 달리 고인이 평소 좋아 하던 음식을 올리거나, 밤·대추·배·사과 등의 과일, 전, 나물류의 놓는 위치 등이 모두 조금씩 다르다. 보관하기 다소 어려움이 있는 목기나 닛 재질의 제기 대신



배한석의 2012년 추석 상차림

편의를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접시를 사용하여 제수를 올리기도 한다.

차례상 중앙에 놓이는 지방은 직접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글씨의 모양이 보기 좋음을 고려하여 컴퓨터 한글 문서로 입력하여 출력하고, 이를 사용하는 가정도 있다.

보기 좋기도 하고, 또 글씨가 삐뚤빼뚤하면 또 보기 안 좋고, 시간도 걸리니깐. 그냥 요즘 컴퓨터 좋잖아요. 굳이 잉크나 붓으로 안 써도 잘 나오니깐.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컴퓨터로 인쇄해서 지방 붙여요. 그렇게 해도 정성에는 또 무방하니깐. 오히려 글씨 못 써서 올리는 것보단 더 좋다고 생각해요. <곽윤택, 남, 51세>

또한 송편을 직접 빚기에 어려움이 있어 사다 먹는 가정이 많았다. 요즘엔 방앗



배한석의 2012년 추석 차례

간도 찾기 힘들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모여 송편을 빚어야 하는데, 핵가족화되고 명절이라도 식구들이 모두 모이기 힘든 집일 경우에는 필요한 만큼 사다 차례상에 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송편 옛날에 시어머니 계실 땐 빚었지. 술있도 따고. 방앗간에 가서. 근데 그거 어휴, 영 북잡스러운 일이야. 그리고 그거 빚고 찌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사다 먹어. 맛있어 요즘 떡집들. 떡집들도 장사 잘되잖아 명절에. <하현자(가명), 여, 60대>

추석날 밤, 예전에는 보름달이 떠오르면 집 밖으로 나와 마당이나 높은 곳에 올라가 달을 보며 저마다 마음속으로 소원을 빌었는데, 아파트라는 거주 공간의 특성상 집안 베란다나 복도에서 달을 보는 경우가 많다.





2012년 추석 전날 삼환아파트 근처 떡집 풍경



2012년 추석 전날 삼환아파트 근처 떡집에서 판매하는 송편

달맞이 하러 따로 나가진 않아요. 그냥 베란다에서 보고 보이면 보고, 아니면 뭐 말고.
(곽성은, 여, 22세)

8. 김장

김장은 보통 입동이 지나서 많이 하는데 음력 10월 중순경에 해당된다. 과거에는 김장 때가 되면 온 마을 아낙네들이 모여 배추와 무를 씻어 함께 김장을 하였다. 요즘에도 아파트 내 부녀회나 조직 등을 중심으로 품앗이처럼 김장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젊은 부녀자의 경우 친정집에서 담은 김장김치를 받아 오거나, 번거로워 마트에서 사다 먹는 경우도 있다.

삼환아파트 주민 광성은 한 사람이 담그기 힘들기 때문에 김장을 하는 날에는 온 가족이 일찍 귀가하여 김장에 동참한다고 한다.

집에서 김장 하는 날은 온 가족 일찍 집에 와서 담아요. 전 옆에서 엄마 도와 드리죠. 배추 속 넣고, 고춧가루 해서요. 혼자 하기는 버거우니깐요. <광성은, 여, 22세>

9. 빼빼로데이

빼빼로데이의 기원이 특정 업체의 상술로 시작되었음을 알면서도 양력 11월 11일이라는 외우기 쉬운 이미지 때문인지, 이미 기념일화되어 있어 마지못해 혹은 재미삼아 빼빼로를 사서 주위 지인들에게 돌린다고 한다.

이게 괜한 상술에 놀아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금년엔 안 하고. 그런 것도 안 챙기고. 이벤트성으로 매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매년 그러는 건 이제 안 할려구요. <박윤택, 남, 51세>

10. 동지

동지에는 찹쌀로 만든 새알심을 넣고 팔죽을 쑤는데 이것을 집 주변에 조금씩 뿌리고 온 가족, 이웃과 함께 조금씩 나누어 먹었다. 그러나 집안에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돌아가신 조상이 있을 경우에는 팔죽을 쑤지 않기도 했다. 요즘에는 번거롭게 집에서 직접 팔죽을 쑤어 먹기보다는 팔죽을 파는 가게에서 사다 먹거나, 경로당에 모여 다 같이 먹기도 하고, 절에 가서 한 그릇 먹고 오는 것으로 대신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인다.

팔죽 그런 건 안 해요. 집에 있는 사람이면 하는데. 서로 일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도

서울서 늦게 퇴근해서 집에 와서 밥 먹는 일이 평일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건, 동지 때나 이런 건 안 해요. <곽윤택, 남, 51세>

11. 성탄절

양력 12월 25일은 기독교 신자들이 일 년 중 가장 크게 기념하는 예수의 탄생일로서, 지금은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어도 모두가 즐기는 공휴일로 자리매김하였다. 성탄절을 맞아 교회, 성당에서는 축하예배나 미사, 불우이웃돕기 행사, 전도 집회, 성탄절 축하공연 등의 큼지막한 행사들이 열린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가족과 연휴를 맞아 여행을 가기도 하고 지인들과 선물을 주고받으며



화성행궁 광장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

조출한 송년 파티를 열어 즐기기도 한다. 특히 산타클로스가 루돌프라 불리는 순록을 타고 날아와 선물을 나누어 준다는 이야기는 아이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기도 하다.

지금은 잘 기억 안 나는데 어린이날 말고 크리스마스 때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들어가기 전에 크리스마스 이브날 밤에 나가서 아침에 일어나 보면 머리맡에 시계 있고 그랬어요. 그게 제일 기억나요. 어느 순간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아 산타는 없구나. …… 크고 나서 크리스마스는 그냥 별로 의미를 모르겠어요. 나에겐 특별한 날이 아니구나 싶어서. 별로 하는 건 없어요. 친구 만나거나 가족들이랑 있거나. <곽성은, 여, 22세>





응답하라 1997



1. 드라마_삶을 비추는 기호
2. 대중가요_삶을 푸는 활력소

03 | 주민들의 삶과 함께한 드라마와 가요

대중매체를 통해 주로 전파되는 대중문화는 그 시대 상황에 따라 순간순간 대중의 공감을 자아내며 유행하게 된다. 시대의 공감을 얻어 내기 위해서는 다수의 공통된 감정과 기억을 기반으로 해야만 한다. 이러한 넓은 공감대를 기반으로 다수가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대중문화인 것이다. 근대 이후 대중문화의 성장과 함께, 민속 조사 연구에서도 대중문화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조사 대상이 되어 가고 있다. 본 조사에서는 구운동 삼환아파트 주민들이 기억하는 드라마와 대중가요를 중심으로 그들의 근현대 삶과 문화를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1970년대 이후 각 가정의 텔레비전 보급률은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텔레비전을 통해 각 방송국에서는 지금과 같이 여러 장르의 프로그램을 방영하였지만, 그중에서도 인기가 있던 드라마는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반응을 보이며 그 분위기를 적절하게 반영하였다. 드라마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누구라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장르로서 영화보다 좀 더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한편 대중가요는 텔레비전과 라디오에서 쉽게 들을 수 있고, 대중가요사적으로 살펴보면 유행가의 가사나 창작의도를 배경으로 당시 시대적 배경을 추론할 수 있다. 이 두 아이템의 공통분모는 많은 사람들이 향유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감대를 기반으로 한 문화라는 점이다. 당시 시대 별로 유행했던 텔레비전 드라마와 대중가요에 대한 삼환아파트 주민들의 기억을 통해, 각각의 문화가 지니는 사회적 의미와 이에 따른 근현대 생활상에 대해 한 걸



을 더 접근할 수 있음이 본 대중문화 조사의 목적과 의의이다.

1. 드라마 _ 삶을 비추는 기호

1) 1970년대 _ '인내' 하는 현모양처, 「아씨」와 「여로」

1970년대에 동양방송(TBC)의 드라마인 「아씨」가 대히트를 치게 된다. 남녀노소 각층, 특히 여성 시청자에 깊숙이 파고들었던 이 드라마는 당시 통상의 텔레비전 드라마가 가지는 속성을 어느 정도 벗어나 한말에서 현대에 이르는 사회 변천상을 한 여인을 통해 리얼하게 묘사하는 데 성공을 거둔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중 문화는 그 특성상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어야만 하며, 공감을 위해서는 일상의 모습이 그대로 녹아 있어야 한다. 삼환아파트 주민들 중 당시 「아씨」를 시청한 기억이 있는 제보자들은 모두 한결같이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바람'을 쏟아 내었다고 회상한다.

엄마가 막 TV 보면서 울었던 기억이 나, 다들 욱도 하고, 그게 「아씨」야. <김선미(가명), 여, 50대>

「아씨」는 기억하지. 재밌었어. 그거 그 뒤에도 몇 번 다시 만들었을까? 그치? 그만큼 재밌었어. TV 안 좋아하는 나도 기억하는데 뭐. <노미자(가명), 여, 60대>

회고물 히트하는 TV드라마

TV연속극에선 회고조 붐이 당분간일 것 같다. KBS의 「아버지와 아들」, TBC의 「아씨」의 룰런은 TV일일연속극의 방향을 애정극이나 활극에서 복고조로 돌리고 있다. ……3대의 며느리가 1910년대서부터 오늘날까지 겪는 고된 시집살이를 그린 TBC TV의 일일연속극 「아씨」(임희재 작, 하강일 연출)가 바로 그것 …… 봉건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넘어오는 한 가정의 세대 간의 갈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되고 있다 …… 「아씨」는 부인들은 누구나 겪는 인종의 시집살이가 남의 일이 아닌 내 것으로 받아들여 인기를 얻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분석되고 있다. 결국 이 두 드라마는 40대 이상의 청취자에게 그 이야



드라마 「여로」

기가 흘러간 경험으로서 어필했다는 것. 또 그 이후 세대에겐 꼭 듣고 싶던 전 세대의 이야기였다는 데서 히트한 것이다…… 〈『경향신문』, 1970년 8월 22일〉

「아씨」는 이처럼 소재 자체가 고난과 인종(忍從)으로 점철된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여성상을 그렸기 때문에 역경에 처한 여인에 대한 시청자의 동감을 받았다.

또 다른 인기 드라마 「여로」¹ 또한 삼환아파트 주민들의 기억 속 화제의 드라마였다. 「아씨」 하면 「여로」가 자동적으로 함께 언급될 만큼 이 두 드라마는 당시 텔레비전 드라마의 손꼽는 쌍두마차였다. 특히 「여로」는 바보 영구 신랑에게 시집온 분이의 이야기로서, 영구 흉내를 동네 아이들이 따라하며 바보를 희화화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크게 문제가 되기도 하였을 정도로 파급력이 큰 드라마였다.

아, 왜 그 바보신랑! 그거 생각하면 웃기지. 또 엄청 웃었는지 몰라. 그거 따라하다가 모조리 엄마한테 막 혼나고 그랬었어. 기억나네. 〈강성자(가명), 여, 50대〉

「여로」, 「아씨」 둘 다 비슷했지 뭐. 여자들만 불쌍한 거야. 예나 지금이나. 〈하현자(가명), 여, 60대〉

「여로」 29일 막 내려

TBC TV가 방영했던 「아씨」 이후 가장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KBS TV의 「여로」가 29일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탤런트 장옥제의 바보 역으로 비난과 인기가 뒤범벅이 됐던 「여로」는 어쨌든 금년 한해 TV드라마의 성격들을 가름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된다 하겠다. 주인공 영구(장옥제)가 가진 백치의 순수성과 불행을 딛고 체념에 앞서 거기에 저항하는 분이(태현실)의 모습은 대중에게 호소력을 갖게 마련 …… <『동아일보』, 1972년 12월 28일>

1970년대에 손꼽는 인기 드라마였던 「아씨」와 「여로」는 모두 고난 속에서도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참는 전통적인 여인의 모습을 중점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 1960년대 이후 시작된 경제개발과 산업화로 전통적 가치관이 크게 흔들리며 본격적으로 도시화가 진행되었던 1970년대에 텔레비전이라는 대중매체를 통해 전파를 탄 이 두 드라마의 인기행보는 특히 여성들에게 지나간 시절에 대한 공감과 아쉬움을 달래 주는 역할을 하며 여러 번 리메이크가 되었고, 지금까지 삼환아파트 주민들의 기억 속에 살고 있다.

2) 1970년대 _ 경제성장기 정부 시책 홍보드라마의 양산

1974년 KBS 일일극 「꽃피는 팔도강산」²⁾은 경제성장기의 정부 시책 홍보드라마였는데도 398회로 장수했다. 전국 각지의 발전상을 어색하지 않게 영상에 녹인 데다 김희갑, 황정순, 최은희, 황해, 박노식, 한혜숙 등 톱 탤런트들까지 총출동하여 인기가 대단했다. 삼환아파트 주민 노미자는 볼거리가 많았던 드라마로 기억하고 있었다.

막 외국에서도 찍고, 그랬던 것 같아. 뭐 지 자식들 찾아다니면서 구경하는, 우리나라 많이 구경하고 놀러 다니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내가 기억하지. <노미자(가명), 여, 60대>

그러나 「꽃피는 팔도강산」의 경우 드라마 사상 처음으로 유럽에서 해외촬영을 하게 되며, 일각에서는 정부PR만 일삼더니 호화관 유람까지 시킨다는 비판의 목소



드라마 「꽃피는 팔도강산」



「꽃피는 팔도강산」 녹화장면을 촬영하는 모습(순하추동방송 제공)

리도 있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5개년 경제개발을 진행하며,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이루어 가는 중이었다. 더불어 박정희 정권에서는 언론이 정부의 간섭을 받게 되었고, 효율적이고 신속한 개발을 위해 국민들에게 대중매체를 통해 정부 방침을 인식

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시청자들 중 일부는 이러한 흐름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기도 했지만, 대부분 드라마의 볼거리를 위주로 시청하였음을 삼환아파트 주민 권형수의 인터뷰에서도 알 수 있다.

그게 기억나는 게 그때 박정희 정권. 그치? 그거 그때. 그래서 막 더 심했던 것 같아. 난 몸소 느끼진 않았는데 주위 몇몇 사람들이 그런 말은 하더라고. 저기, 알릴려고 그런다고. 근데 뭐 사실 드라마가 뭐 재밌으면 보는 거지, 안 그래? 난 그랬어. <권형수(가명), 남, 70대>

3) 1980년대 _ 멜로드라마의 인기 행진

최고 인기극엔 「사랑과 야망」 꺾임TV시청자 조사

TV 시청자들이 「가장 재미있게 보는 프로그램」은 MBC드라마 「사랑과 야망」 …… 한국 꺾임조사연구소가 지난 10월 전국의 20세 이상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TV 시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40.1%가 재미있는 프로로 「사랑과 야망」을 꼽았다 …… <『경향신문』, 1987년 11월 20일>

위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문화방송(MBC)의 「사랑과 야망」³은 1980년대 들어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중 하나이다. 가난한 형제를 중심으로 남자들의 야망과 사랑에 대해 밀도 있게 묘사한 드라마로 당시 스타 배우들이 총출연하였다. 총 98회가 방영되었는데, 방영 시간에는 주부들이 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일화를 남길 만큼 큰 화제를 모았다. 이 드라마는 가파른 성장곡선을 그렸던 1970년대가 배경이다. 1970년대 성장기 사회 문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사랑과 야망」이 76%라는 기록적인 시청률을 올리자 작가인 김수현의 드라마에 대해 “죽은 시체도 벌떡 일어나 TV 앞에 앉는다.”라는 찬사가 쏟아졌다.

얽히고 설킨 애정관계 TV드라마 현기증

현재 방영되고 있는 KBS와 MBC 양 TV의 주요드라마들이 종래 멜로드라마의 전형을 이뤘던 단순한 삼각관계에서 한걸음 나아가 남녀관계가 복잡하게 뒤얽히는 4각 또는 5각의 다각관계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 「사랑과 야망」은 태준과 여배우 미자의 관계를

기본틀로 하고 있지만 역시 복잡한 애정관계가 설정되어 있다…… 이같이 복잡한 애정 다각관계 플롯의 설정에 대해 제작진은 “복잡한 현대인들의 심리상태와 애정세태를 묘사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동아일보』, 1987년 5월 21일>

TV연속극 진부한 소재 억지묘사, 감정놀이, 태반이 여성취향 멜로물

…… 방송평론가 신상일 씨는 지난해 6월부터 금년 5월까지 1년 동안 방송된 일일극 및 주간연속극 중 현대물 14편을 분석한 「TV드라마의 주제 및 소재에 관한 고찰」(『방송연구』 여름호)에서…… 현재 방영 중인 MBC TV의 「사랑과 야망」, 「도시의 얼굴」, KBS 2TV의 「애정의 조건」 등 연속극 거의 대부분이 삼각관계 이상의 다각관계에 얽힌 애정이나 갈등을 그리고 있는데, 분석대상드라마 14편이 모두 멜로물의 범주에 속한다는 것.

이들 드라마는 대부분 카페, 가정, 회사 등 도시를 배경으로 삼고 있는데 젊은 여성이 의외로 카페 등에 자주 들르고 카페에 오면 으레 양주를 마시는 등 등장인물의 생활양상이 보편타당성을 결여한 특정소수계층의 것이어서 일반시청자들의 실생활과 유리되어 있다는 것이다.<『동아일보』, 1987년 7월 7일>



드라마 「사랑과 야망」의 한 장면

위와 같이 1980년대 대한민국이 산업화 이후 안정기로 접어들며, 텔레비전에서는 멜로드라마 유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1980년대 말 서울 강남의 아파트 개발이 이루어지며 강남의 호화스러운 향락 유흥문화가 확산되고, 빈부의 격차가 심해진다. 당시의 멜로드라마 속에서는 부를 이룬 특정 계층이 누리는 카페, 양주 문화 등이 자주 등장하여 반영되기도 하였다. 삼환아파트 주민 나주희는 이 드라마에 대해 이렇게 증언하였다.

(크게 웃음) 맞아, 기억나! 그거 나 잘 봤지. 그거 이덕화, 차화연이 나온 거! 맞지? 또 누구더라. 그거 보려구, 맞아 맞아. 그냥 주인공도 불쌍하고. 요즘에도 왜 드라마 나쁜 여자들

많잖아. 남자들도 그렇고. 보면서 뭐 화도 내고. 그런 거지. 그게 요즘 말해 그 신분상승 뭐 이런 거? 그런 내용 드라마. 일상에서 그런 일 일어나면 그거 안 되지. 안 될 일이야. 다 끼리끼리 만나고 그래야지. 사람이 너무 욕심 많으면 못 써. <나주희(가명), 여, 60대>

드라마의 내용을 살펴보면, 요즘도 자주 나타나는 전형적인 남녀 간의 사랑과 배신, 음모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전에는 가족들의 이야기나 고부간의 갈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던 반면, 흔히 말해 “먹고살 만한” 때였던 1980년대 말에는 전형적인 멜로드라마의 유행이 정착된 것을 알 수 있다. 복잡한 시나리오와 등장인물들 간의 관계 또한 현대인들의 복잡한 심리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초호화 캐스팅과 드라마 인기작가 자리의 굳힘 등 1990년대의 트렌디드라마 제작의 초석이 되는 단계임을 확인할 수 있다.

4) 1990년대 _ 트렌디드라마와 금기(禁忌)에 대한 열광

드라마 「질투」 신선한 극 전개로 선풍

MBC TV 미니시리즈 「질투」가 폭발적인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6월 1일부터 방영된 이 드라마는 속도감 있게 표현되는 젊은이들의 사랑과 우정, 최진실·최수종 등 화려한 배역, 그리고 경쾌한 주제가 등이 감각적으로 포장되어 젊은이 사이에 「질투」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

「질투」가 이처럼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은 ‘오렌지족’ 이라고 불리는 요즘 젊은이들의 풍속도를 건강하고 밝은 이미지로 그려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 양품점에는 최진실이 극중 입고 나오는 의상이나 은빛 헤어밴드, 모자 등을 찾는 여성들이 줄을 잇고 있으며 「질투」 주제를 담은 해적판 카세트테이프가 노점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것.<『경향신문』, 1992년 7월 4일>

이승렬 PD는 『경향신문』 1992년 7월 4일 기사에 “이 작품은 사랑이 주제인 멜로 드라마이면서도 구질구질한 느낌이 안 들도록 싱싱하고 산뜻한 분위기로 이끈 것이 성공요인인 것 같다.”면서 “시청자 누구나 ‘나도 저런 사랑을 해 보고 싶다.’는 느낌을 갖도록 이 시대의 건강한 사랑을 그려 보겠다.”고 밝혔다.

트렌드드라마는 유행(Trend)과 드라마(Drama), 이 두 단어를 합성한 말로 1990년대 이후 방송가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이다. 이는 대개 10대와 20대 등 젊은 취향의 유행과 감각을 담아 CF와 같은 연출방식으로 제작된 드라마를 가리킨다. 또한 젊은 남녀의 사랑이 기본 메뉴이고 당시에 유행하는 음악과 의상이 등장하며 별 줄거리 없이 내용전개가 빠른 것이 특색이다. 일본에 몰아친 트렌드드라마 열풍은 한국으로 건너와 1992년 히트한 MBC TV 「질투」⁴ 를 시작으로 확산되었다.

「질투」에서는 한 잔의 커피와 신문, 그리고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직접 차를 운전하며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루고 외국어 공부 등 자기계발에 열심인 젊은이들의 모습을 세련된 영상과 빠른 전개로 묘사하여 신선함을 더하였다. 또 등장인물들의 직업이 여행사, 광고대행사, 국제변호사, 방송국 PD 등 젊은이들이 선망하는 것이어서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다.

이런 새로움은 활달하고 화려하고 빠르고 경쾌하며 가벼운 질감을 지니고 있었다. 이즈음부터 ‘압구정동 오렌지족’ 같은 이야기가 공적인 지면에 등장하였다. 이러한 신세대 문화는 새로운 세대의 등장에 따라 생활방식과 사고패턴에 변화하는 전 문화적 현상이면서 패션이나 대중예술 등 소비적이고 외형적인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었다.⁵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당시 기혼자였던 삼환아파트 주민 오미환은 이 드라마를 시청하며 풋풋한 연애시절과 젊은이들의 파릇파릇함을 새삼 다시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게 최진실하고 최수종하고 둘이 풋풋한 사랑이지. 이거 성은아빠(남편)가 좋아하는 최진실. 그리고 음, 노래도 있잖아. (오미환, 여, 50세)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던 스타 최진실과 최수종의 캐스팅으로도 화제를 모은 「질투」는 드라마의 세련됨과 더불어 주제가 또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정도로 인기를 누렸다.

「질투」 드라마 기억나요. 그 노래가 「질투」 노래 아닌가요? “넌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야,



드라마 「질투」의 주인공

내가 지금 여기…….” 맞죠? 연애하는 내용이에요.〈조미란, 여, 35세〉

오미환과 조미란의 인터뷰에서도 나타나듯이 실제로 「질투」 방영 당시 신문기사들은 한결같이 드라마 주제곡의 히트에 대해 연일 기사를 냈다.

드라마 주제가 인기 급상승

TV드라마에 사용되는 주제곡, 배경음악, 삽입곡들이 히트앨범을 만들어 내고 있다. …… 드라마 음악은 지난 여름 MBC 「질투」의 주제곡이 공전의 히트가요로 부각됐고……〈『경향신문』, 1992년 11월 28일〉

한편, 1990년대 드라마는 그동안 잘 다루지 못했던 금기를 주제로 한 내용이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며 각종 신드롬을 불러일으켰다. 그 대표적인 예로 1995년 SBS의 「모래시계」⁶와 MBC의 「애인」⁷이 그것이다.

SBS의 「모래시계」는 그동안 쉬쉬해 오던 5·18광주항쟁에 대한 내용이 다큐멘터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치밀한 고증을 통해 당시의 심각한 상황을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극적으로 재현해 보였다.

귀가시간 재촉하는 모래시계

평일 4회 연속 방영이라는 '공격적 편성'을 통해 방송사 간의 대대적 드라마 전쟁을 주도했던 「모래시계」는 9일과 10일 미디어서비스코리아조사로 각각 37.4%와 41.9%의 높은 시청률을 보이면서 '모래시계=귀가시계'라는 신조어를 낳고 있다. …… 〈『동아일보』, 1995년 1월 14일〉



드라마 「모래시계」

특히 '귀가시계'라는 신조어까지 탄생시킨 「모래시계」는 방송일에 서울거리가 한산할 정도로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으며, 계엄군의 진압이 묘사되었던 방송분은 43.1%라는 경이적인 시청률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다소 폭력적인 묘사가 지나치게 자세하다는 지적과 당시 SBS가 서울, 중부지방 일부에만 방송되는 지역방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온 국민의 명작 드라마로서 주제가까지 인기를 얻으며 현재까지 그 위상을 자리매김하고 있다.

‘80년 광주’ 재현, “경이적 시청률”

80년 광주민주화운동이 드라마로 재현되면서 처절했던 역사의 상처를 새삼 일깨워 주고 있다. 15년 전의 ‘감춰진 역사’를 안방에 생생히 전달한 드라마는 SBS의 「모래시계」 …… 이 드라마를 본 시청자들은 한결같이 ‘충격이었다.’는 반응. 조선대 1년 재학 중 80년 광주민주화운동을 겪었던 강현준(34, 회사원) 씨는 “드라마가 아니었다. 15년 만에 다시 현장 속에 들어 있는 느낌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오수환(28, 회사원) 씨는 “마치 영화 「쉘들러 리스트」를 보는 듯한 비극적 느낌이었다.”며 특히 “임산부에 대해 총을 쏘는 장면에서는 숫구치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SBS가 PC통신 천리안에 개설한 대화방에도 “눈물이 솟구쳤다.”, “80년 광주를 처음으로 알게 됐다.”, “굳이 이제 와서 아픈 과거를 들춰 낼 필요가 있느냐.”는 등 다채로운 반응이 쏟아져 드라마에 대한 열기를 반영했다. …… <『경향신문』, 1995년 1월 20일>

「모래시계」 어릴 땐데 기억나요. 엄마랑 아빠가 그 시간 되면 자라고 하고 그랬어요. 보면 안 된다고. 그때 초딩(초등학생)이었는데, 학교 가면 그 노래 있잖아요. 우우우우~ 그 모래시계 노래랑 이정재 멋있다고. 모여서 하고 그랬어요. 이정재 죽을 때 멋있다고, 불쌍하다고. 엄마 아빠가 그때 못 보게 해도, 워낙 유명하니깐 대사도 기억나고. “나 떨고 있네.” 이런 거(웃음) <서혜민, 여, 27세>

SBS 「모래시계」와 더불어 MBC 「애인」의 신드롬도 대단했다. 유부남과 유부녀의 불륜을 주제로 해 애뜻하게 그려낸 이 드라마는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애인」 연출 이창순 MBC PD “드라마는 드라마로 봐주세요.”

한 편의 드라마가 이토록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킨 적도 일찍이 없었다. 불륜 시비로 국감장의 도마에 오르기도 했고, 방송위원회에서는 애인을 주제로 ‘드라마 소재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토론회도 벌였다. 사회적으로는 ‘애인 신드롬’이 거세게 몰아쳤다. 극중의 황신혜 머리핀이 불티나게 팔리는가 하면, 주제가로 사용된 음악을 담은 앨범이 최고 판매량을 기록했고 주부들 사이에서는 ‘놀이공원에 애인 만나러 간다’는 조크도 유행하고 있다 …… <『경향신문』, 1996년 10월 21일>

삼환아파트 주민 민경주(가명, 여, 40대)는 당시 「애인」에 대해 “남편하고 같이 보면서 불안불안 조마조마하기도 하지만, 뭔가 속 시원하기도 한 내용이라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다.”고 증언했다. 여자들의 반응이 대부분 이와 일맥상통한다면 남자들의 반응은 조금 다른 점이 인터뷰 조사에서 드러났다. 역시 삼환아파트 주민 한민철(가명, 남, 50대)은 「애인」에 대한 기억을 묻는 질문에 대해 “황신혜가 예뻐다. 그때 드라마가 발상의 전환이었던 것 같다. 여태까지 그런 소재의 내용이 당시에는 흔하지 않았다. 내 상황에 비추어 보면 살짝 불안하기도 한 그런 느낌”이라고

솔직히 말한다.

방송가나 학술계에서도 찬반 논쟁이 거세질 만큼 파문이 컸던 「애인」은 드라마 내용과 더불어 황신혜의 머리띠와 명품가방 등이 불티나게 팔리기도 하며 드라마의 인기를 입증했다.

‘아름다운 불륜’ 파문

“내가 기다렸던 산뜻한 드라마”, “당장 중단해야 할 마약 같은 드라마”. 30대 기혼남녀의 연애심리를 그리고 있는 문화방송 미니시리즈 「애인」이 이처럼 극단적인 시청 반응 속에 이른바 ‘불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겨레』, 1996년 9월 13일〉

이처럼 금기에 대해 도전장을 내밀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도 드라마 시청자들의 기억에 강하게 남아 있는 1990년대 드라마들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자극적인 소재의 드라마들의 첫 시발점이었다. 때로는 왜곡과 분분한 논쟁을 몰고 오기도 하지만, 그만큼 ‘먹고사는’ 문제에서 떠나 소설 같고 영화 같은, 즉 평소 일어나기 힘든 ‘드라마틱’한 일상에 대해 방송가의 표현양식이 이 시대에 특히 자유로워졌음을 시사하는 점이기도 하다.

5) 2000년대 _ 초호화 드라마와 유행어

2000년대 방송 드라마계는 그야말로 신들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기 있는 드라마들이 셀 수 없이 많이 등장하였다. 삼환아파트 주민들에게 최근 10년간 기억에 남는 드라마를 질문했을 시에도 주제나 장르, 분위기와는 상관없이 우후죽순으로 드라마 명을 지목하였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톱스타들에 의존하는 드라마들이 기억에 많이 남는 경향을 보였다. 가령 드라마 제목을 기억한다기보다는 주연배우의 이름과 스타작가들의 계보대로 인터뷰를 하는 모습 등이 그것이다.

「파리의 연인」⁸ 재밌게 봤어요. 그거 결말도 그렇고, 그 작가가 「시크릿 가든」⁹ 작가잖아요. 분위기도 비슷하고 어투도 비슷하고. 뭔가 환타지스러운? 그런 분위기 있죠? 낭만적

이면서도 좋았어요.〈윤성희, 여, 37세〉

기억나는 게 지금은 그거 생각나네요. 「인생은 아름다워」¹⁰인가? 동성에 그 내용. 좀 솔직히 거부감도 들긴 하는데. 우리 엄마는 김수현 드라마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다들 연기 잘하고 그러니깐. 말이 많다고 싫대요. 김수현 드라마는.〈한민지, 여, 24세〉

한 회당 1,000만 원대의 대본원고료, 출연료 등을 받는 스타작가와 스타배우의 만남으로 인해 탄생한 것은 아시아 한류열풍이었다. 「가을동화」(2000), 「올인」(2003), 「겨울연가」(2002) 등으로 해외 수출 드라마가 늘기 시작하였고 이를 겨냥하고 제작한 드라마도 수없이 많다. 배용준, 최지우, 장근석, 이병헌 등은 이러한 한류 스타의 예이다.

2000년대 드라마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드라마의 영향으로 생겨난 신조어와 유행어이다. 신조어라기보다는 예전부터 일부에서 써 오던 단어들이나 말들이 인기드라마를 통해 더욱 확산되고 유행하게 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인터넷의 보편화로 줄임말 등이 대중에게 익숙해져 있었고, 이러한 상황이 더욱 자연스럽게 평범하게 보이기 위한 드라마 연출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닝쿨당(닝쿨째 굴러 온 당신)! 공감이 돼요. 저는 그 첫째 일숙이가 불쌍해요. 그때 막 짠 해서 …… 이혼하고. 보면서 울었어요. 거기 유준상이 국민남편이라고 하잖아요. 시월드 이런 말도 유행하고. 공감되는 건 …… 우리 집이랑 비교하면서 봐요. 우리 집하고 환경이랑 그 사람 대입해 보고, 매치해 보고 봤던 것 같아요.〈곽성은, 여, 22세〉

「시크릿 가든」 현빈 멋있어요. “깨알같이”,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이런 대사 아직도 잘 써요. 친구들 사이에서요. 표현이 재미있잖아요. 귀에도 쪽쪽 들어오고. 아, 드라마 안에서 주인공이 쓰는 말투 같은 건 금방 퍼져요. 인기 있는 드라마일수록.〈임세영, 여, 17세〉

삼환아파트 주민들의 인터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시댁’을 표현하는 ‘시월드’, ‘자세하게’라는 뜻의 ‘깨알같이’, ‘엄청나다’라는 뜻의 ‘대박이다’ 등의 당시 국

어사전엔 표기되지 않았던, 만화 속 표현들 같은 어휘가 드라마를 통해 대중들에게 친근하게 퍼지게 되었다. 이는 드라마가 일상을 더욱 일상같이 나타내려고 하는 부분에서 드러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인터넷상에서 줄임말이 유행하게 되면서 드라마 제목이 좀 긴 경우에는 신문기사 등에서도 노골적으로 앞의 글자와 뒤의 글자를 붙여 줄이는 형식의 줄임 제목을 공공연히 내보이고는 한다. 방송에서도 공개적으로 줄임말을 사용함으로써, 사이버상이 아닌 일상생활에서도 대중들은 그에 맞게 자연스러운 줄임말들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닝쿨당 : 닝쿨째 굴러온 당신
 시가 : 시크릿 가든
 육불 : 육망의 불꽃
 신불사 : 신이라 불리운 사나이
 해품달 : 해를 품은 달
 꽃남 : 꽃보다 남자
 신품 : 신사의 품격

최근 드라마의 인기 경향은 복고와 판타지이다. 현재 주 사회생활 계층인 20~40대는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적 감성을 그리워하며 복고적 분위기의 드라마를 보며 향수에 젖기도 한다. 또한 최근 컴퓨터 그래픽(CG)의 발달로 합성이 보다 자연스러워졌으며, 워낙 많은 드라마들이 쏟아져 나와 새로운 소재보다는 만화 등의 비현실적 소재를 담고 있는 원작들을 다시 리메이크하게 되며 환타지 성격을 지닌 드라마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응답하라 1997」¹¹ 재밌어요. 저때랑 너무 공감되니깐. <신민희(가명), 여, 29세>

「신사의 품격」¹²에 맨 처음 항상 해 주는 프롤로그가 재밌어요.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과거를 회상하는 거잖아요. 공감도 되고. <정용수(가명), 남, 30대>



복고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던 「응답하라 1997」(씨제이이엔엠 제공)

「꽃남(꽃보다 남자)」¹³ 처음엔 엄청 유치하고 그랬는데요. 거기 주인공들도 만화책 만큼 멋있고, 원작을 아니깐 더 궁금하기도 하고 뭐가 다른가. 그러면서 잘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박세리(가명), 여, 20세>

「시크릿 가든」이 몸이 바뀌잖아요.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보면 볼수록 복잡해도 이해가 되고…… <신세미(가명), 여, 29세>

2000년대 이후 드라마의 판도는 하나로 정의할 수 없는 특징을 지니고 있음이 확실하다. 미디어의 영향력이 그 무엇보다도 커지고 인터넷과 함께 시너지효과를 내며 퍼져가는 양상을 보이기엔,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변화하는 보폭도 크다. 그러나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지금의 양상을 살펴본다면 대중문화의 진실된 의미, 즉 공감대 형성이라는 점에서 예전보다 현재의 모습이 훨씬 더 대중과 대중매체가 서로 가까워졌음을 알 수 있다. 드라마는 당시의 사회적 이슈를 바로 적용하고 시청자들에게 피드백을 받는다. 주입식이었던 과거 대중매체의 일방적 영향보다는 상호적 영향관계 성립이 더 중요해졌으며, 이러한 작품만이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얻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2. 대중가요 _ 삶을 푸는 활력소

1) 1970년대 _ 도시에 대한 동경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삼환아파트 주민들이 꼽는 1970년대 대중가요를 살펴보면, 나훈아와 남진 노래가 당시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님과 함께」, 「머나먼 고향」, 「고향역」 등이 그 노래이다.

그땐 무조건 나훈아랑 남진. 인기 좋았죠. 지금도 노래방 가면 많이들 부르잖아요. 우리 시아버지도 잔치날마다 「님과 함께」 부르셨는데. 노래가 좋잖아. <임동주, 여, 50대>

나훈아와 남진의 대표적인 곡들을 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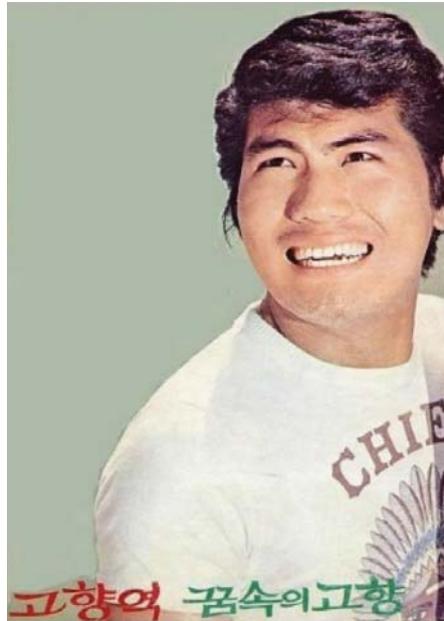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 백년 살고 싶어/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네/ 가을이면 풍년 되어 겨울이면 행복하네/ 멋쟁이 높은 빌
딩 으스스대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 맛이지만/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
아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
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 백년 살고 싶어
<「님과 함께」, 1972, 작사 고향, 작곡 남국인, 노래 남진>

머나먼 남쪽 하늘 아래 그리운 고향/ 사랑하는 부모형제 이 몸을 기다려/ 천리타향 낯선
거리 헤매는 발길/ 한 잔 술에 설움을 타서 마셔도/ 마음은 고향하늘을 달려갑니다
<「머나먼 고향」, 1971, 작사·작곡 박정웅, 노래 나훈아>

코스모스 피어 있는 정든 고향역/ 이뿐이 곶분이 모두 나와 반겨 주겠지/ 달려라 고향열
차 설레는 가슴 안고/ 눈 감아도 떠오르는 그리운 나의 고향역/ 코스모스 반겨 주는 정든
고향역/ 다정히 손잡고 고갯마루 넘어서 갈 때/ 흰머리 날리면서 달려온 어머니를/ 얼싸
안고 바라보았네 멀어진 나의 고향역
<「고향역」, 1972, 작사·작곡 임종수, 노래 나훈아>



남진



나훈아

이 노래들은 이농하여 도시의 하층민이 된 사람들의 망향의 정서를 트로트로 드러내고 있다. 1960년대의 트로트가 비교적 시골스러움을 풍기면서 근대화에 뒤진 사람의 절망과 비애를 그리고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때 이농한 이들이 1970년대에 도시의 하층민으로 살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이런 노래들에서 그나마 절실함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얼마 전에 「나는 가수다」 그 프로에서 조관우가 「고향역」, 나훈아 노래 불렀잖아요. 참 그 노래 들으니까 그냥, 새삼스레 눈물이 핑 돌던데. 그게 그때 당시에도 참 노래가 구슬퍼, 위로해 주는 것 같고 그냥 고향 보고 싶고, 그렇지요. 노래 알아요? 가사랑 그 음이랑 너무 고향하고 잘 맞아요. 느껴지는 그대로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즘 젊은이들은 고향 그런 걸 잘 모르지? 어때요? 하도 도시에서만 생활하니깐. <한석주(가명), 남, 60대>

삼환아파트 주민 한석주는 나훈아의 「고향역」에 대해 위와 같이 증언하였다. 가사 그대로가 고향의 모습이라는 말을 몇 번이고 덧붙여 강조하였다. 노래가 한창 유행할 당시에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났다고 말하였다.

남진과 나훈아의 인기는 산업화의 흐름에 따라 고향을 떠나 와서 도시에 살면서도, 도시의 화려함 속에 살지 못하는 소외당한 사람들의 고달픔과 아직도 시골에 사는 사람들의 절망을 근거로 하는 것이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트로트가요는 수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1970년대까지 그 나름의 호소력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¹⁴

1960년대 이후 도시, 특히 서울에 사람이 폭발적으로 모인 이유는 여러 가지였다. 처음에는 한국전쟁이 일어난 후 이북에서 남쪽으로 피난을 내려와 부산·대구·포항 등지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주로 서울로 몰려들었다. 곧이어 전쟁에 참여한 젊은 층이 서울로 모이게 되었으며, 광복 이후 그 수가 급증하였던 중·고등학교 졸업생들도 전후복구가 상대적으로 느리고 신속하지 않아 낙후되어 가던 농촌이나 지방도시의 암울함을 견디지 못하고 서울로 모여들었다.

1960년대 들어 국가적인 정책 아래 경제의 고도성장이 시작되자 경제적 문제로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또 보다 나은 교육환경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등의 이유로 농촌 주민들은 서울로 모여들었다. 가족 중에 한 명이 서울에 오면 그에 딸린 식구들도 함께 올라오는 식으로 너도나도 ‘무작정’ 상경을 하였다. 잘살 수 있고 좀 더 윤택하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가지고 몰리기 시작하여 서울은 점차 확대되었다.¹⁵

지방에서 가출해 무작정 상경하는 청소년들의 연령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76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데 작년의 경우 무작정 상경 청소년 중 13세가 17.4%로 가장 높은 연령층을 이뤘고, 10~15세까지가 전체(만 19세 이하)의 71.5%를 차지하는 주목해야 할 만한 결과를 낳았다. 또 농어촌 출신보다는 중소도시, 빈곤한 가정보다는 중산층 이상 가정 출신 소년의 가출이 더 많아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이들 가출소년들은 가정의 빈곤보다는 도시생활의 동경 등 막연한 생각만으로 대책 없이 상경하고 있다는 현상도 주목되고 있다. <손정목, 『서울 격동의 50년과 나의 증언-서울 도시

계획 이야기』, 한울, 2003, 12쪽)

서울에 가면 풍요롭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일종의 환상과 동경을 가지고 점차 많은 인구가 상경하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마음을 안고 상경한 후, 도시생활에 익숙해짐과 동시에 소외감을 느끼고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이농민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노래들이 당시 크게 히트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1980년대 _스타 '조용필'의 탄생, 그리고 밝은 병작의 유행

1980년대에 모든 세대와 계층을 장악한 스타가 탄생하였다. 바로 조용필이다. 수원 삼환아파트 주민들도 가장 좋아하는 가수에 대해 질문을 받으면 대다수가 '조용필'을 언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의 대중음악계에서 조용필은 가장 오랫동안 톱가수의 위치를 지키며 가장 넓은 층의 사랑을 받은 가수라고 말할 수 있다.

조용필의 독무대에 다른 디스크 안 팔려

조용필의 독주로 다른 가수의 디스크나 테이프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음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계속 디스크나 테이프 판매가 불황의 여파로 부진했지만 지난해 가을부터 지금까지 조용필의 음반은 잘 팔려 이미 1백만 장을 돌파했다.…… 시중 레코드 소매점에서는 조의 디스크나 테이프 판매량이 다른 대중가수들의 것에 비해 거의 반은 될 것 같다고……. (『동아일보』, 1981년 2월 13일)

조용필이 노래 좋아하지. 지금 뭐 TV에 인기 있는 젊은 애들보다 훨씬 더 인기가 많았어. 노래가 나왔다면 히트야. 지금 들어도 좋잖아? 노래도 잘하고 (성민자(가명), 여, 59세)

그는 1975년 「돌아와요 부산항에」¹⁶로 화려하게 데뷔하였고, 대마초사건에 연루되어 활동을 정지당하였다. 그러나 「창밖의 여자」¹⁷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1980년대 대중가요계를 장악하였다. 이처럼 조용필이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타일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삼환아파트 주민 공미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용필 노래가 쉬워요. 그니깐 내 말은 부르
기 쉬운 노래라는 말보단, 공감이 잘 돼요.
그런 면에서 쉽다고. 신나는 춤추는 그런 노
래는 어린애들이 좋아하고, 또 예를 들어
「친구여」 같은 노래는 우리 같은 중년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그니깐 노래가 다양했어
요, 여러 종류로. 그러니깐 팬이 많았죠.〈공
미혜(가명), 여, 58세〉



조용필 「단발머리」 앨범

조용필은 이렇게 다양한 경향의 노래를 각
무대에서 적절하게 소화하였다. 10대 대상의
쇼프로그램에서는 하얀 스카프를 걸치고 온몸을 흔들면서 「단발머리」(1980)¹⁸를
불러 오빠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 중장년 대상의 무대에서는 단정한 나비넥타이에
검은 정장을 입고 「일편단심 민들레야」(1981)¹⁹를 불러 성숙한 장년의 이미지를 만
들어 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중심은 10대에 맞추어져 있었다. 그 이유
는 이제 10대는 대학생과 20대를 대신하여 대중가요의 가장 중요한 구매층으로 성
장해 있었기 때문이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전축이 대중적으로 보급되지 않았지
만 1980년대가 되면서 소형 카세트 플레이어가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이는 다음에
나타난 당시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카세트 테이프 전성기

본격적인 카세트 테이프 시대가 왔다. 카세트 레코더의 보급이 활발해짐에 따라 디스크
로 음악을 듣는 인구보다 카세트 테이프로 음악을 듣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대중음악
에서 시작된 이 같은 경향은 …… 카세트 테이프가 이처럼 대중 속으로 파고든 원인은
디스크보다 값이 싸다는 점과 어디서든 손쉽게 음악을 들을 수 있기 때문 …….(『동아일
보』, 1983년 12월 20일)

또한 국민의 전반적 소비 수준이 향상되면서 10대들이 자신의 용돈으로 부모의
동의 없이 카세트 테이프를 구매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들은 음반의 적극적인 구

매충일 뿐만 아니라, 방송사의 대중가요 인기차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오빠부대’와 ‘팬클럽’을 통해서 여론을 주도해 갔다.²⁰

오빠부대, 조용필 나오면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우리 언니가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요즘 애들 하는 거나 별반 다르지가 않아. 라디오도 들었지만, 테이프도 사서 듣고 그랬어요. 부모님한테 사 달라고 하기도 하고, 뭐 돈 모아서 사기도 하고 그랬죠. 기억이 그렇게 나네요. <선숙자(가명), 여, 40대>

작은 거인

그가 무대에 모습만 드러내도 열성 10대 팬들은 광란에 가까운 몸부림을 치고 기성을 질러댄다. 지난 10년간 기라성처럼 명멸한 신인가수들에 의해 그의 자리는 거센 도전을 받았지만 아직도 끄떡없이 정상상을 지키고 있다. …… <『경향신문』, 1988년 8월 5일>

삼환아파트 주민들이 기억하는 당시 최고의 가수는 단연 조용필이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사랑받는 가수임에 틀림이 없다. 한편, 조용필과 더불어 1980년대 후반에 손꼽히는 대중가요 중에서는 주현미의 트로트 장르 가요 또한 빼놓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전의 트로트 노래들이 대부분 구슬프고 처연한 분위기였다면, 1980년대 들어 유행했던 트로트들은 밝고 경쾌한 리듬과 멜로디가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에 힘입어, 사랑의 아픔을 노래한 내용이어도 비교적 희망감을 느낄 수 있고 더 나아가 요즘말로 ‘쿨’ 함이 느껴지기도 한다.

주현미 노래 기억나네. 그 어디지, 「신사동 그 사람」. 그때 서울 강남 개발하고 신사동 노래 뜬 거야. 영동교 노래(「비 내리는 영동교」)랑. 얼굴도 이쁘잖아. 노래도 잘하고. 우리 집 돌아간 양반도 좋아했는데. <최미숙, 여, 67세>

그동안의 구슬프고 애달픈 분위기의 트로트와는 달리, 밝고 경쾌한 느낌의 트로트를 부른 주현미는 약사 출신 가수라는 소위 엘리트 이미지와도 맞물려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 주현미의 대표곡인 「비 내리는 영동교」(1988)와 「신사동 그 사

람」(1988)은 중년의 향락문화의 질감이 배어 있다. 가사에서도 나타나듯이 신흥 유흥가인 영동(강남) 거리를 배경으로 어두운 거리, 화려한 불빛, 가득 찬 술잔 등과 그곳에서 설렘을 느끼고 사랑을 기다리는 여성의 모습이 자주 등장한다.

강북의 도심지 이외에 새롭게 개발된 서울의 강남은 보통 1980년대 이후 대중가요에 자주 등장한다. 급격한 서울의 팽창으로 더 이상 몰려드는 인구와 일자리를 수용할 수 없게 되자, 정부는 서울의 영역을 확장기로 발표하고 조용한 농촌지역이었던 강남을 또 하나의 도심지로 탄생시킨다. 강북에 밀집되어 있었던 주요 시설들을 강남으로 이전하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여 늘어만 가는 서울의 인구를 분산시켰다. 1980년대 이후 인기 있던 노래 중에는 강남 밤거리의 유흥가를 배경으로 한 것이 많다. 당시 강남이 개발되고 시가지화되면서 이곳의 땅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그 와중에 사치스러운 향락업소들이 줄을 잇게 되었다. 명동과 종로에 밀집되어 있던 유흥업소들이 하나 둘씩 강남으로 옮겨가면서 이곳이 신흥환락가로 떠오르게 되었다.

밤비 내리는 영동교를 홀로 걷는 이 마음/ 그 사람은 모를거야 모르실거야/ 비에 젖어 슬픔에 젖어 눈물에 젖어/ 하염없이 걷고 있네 밤비 내리는 영동교/ 잊어야지 하면서도 못 잊는 것은/ 미련 미련 미련 때문인가 봐

〈'비 내리는 영동교', 1988, 작사 정은이, 작곡 남국인, 노래 주현미〉

희미한 불빛 사이로 마주치는 그 눈길 피할 수 없어/ 나도 몰래 사랑을 느끼며 만났던 그 사람/ 행여 오늘도 다시 만날까 그날 밤 그 자리에 기다리는데/ 그 사람 오지 않고 나를 울리네 시간은 자정 넘어 새벽으로 가는데/ 아 그날 밤 만났던 사람 나를 잊으셨나 봐

〈'신사동 그 사람', 1988, 작사 정은이, 작곡 남국인, 노래 주현미〉

1980년대 들어 서울의 강남에 아파트가 속속 들어섰고, 수원시 구운동 삼환아파트가 1992년에 건축되어 입주했던 시기와 연관을 지어 본다면, 한국의 아파트 거주 문화는 전반적으로 1980년대 말부터 주목받아 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비교적 부유층인 서울의 강남지역 아파트 거주민들은 주생활 공간이 단독주택에서 아파트

로 변화함에 따라, 주부가 할 일이 적어지고 그에 따른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압구정동 H아파트에 사는 K여사(36)는 서초동 C카페의 단골손님이다. K여사는 하릴없이 떠분하거나 울적할 때면 C카페를 찾는다. 혼자 가기도 하지만 대개는 같은 처지에 있는 친구를 전화로 불러내 함께 가기도 한다. K여사가 C카페를 즐겨 찾는 이유는 분위기가 아늑하고 차분할 뿐 아니라 종업원들이 교양이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 최근 강남 일대에 술집을 찾는 주부들이 늘고 있는 것은 고급아파트단지가 밀집해 있는 지역적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 서초동에 있는 K레스토랑식 주점의 지배인 김영석(40) 씨는 “서구적인 주거양식인 아파트 생활이 강남에 보편화되면서 주부들의 사고와 행동양식마저 무조건 서구 것을 모방하려 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신반도 D아파트에 사는 주부 L씨(45)는 “아파트는 주거생활이 편리해 할 일이 거의 없고 대부분 핵가족인 경우가 많아 어른 눈치를 안 보게 되죠. 때문에 밤낮없이 일에만 매달리는 남편을 기다리기관 더없이 지루하고 외롭기까지 해요.”라고 나름대로 이유를 설명했다. …… (『경향신문』, 1982년 10월 26일)

이러한 점에서 서구의 영향을 받아 부녀자가 낮에 술을 마신다든가, 고급 정양식 레스토랑에 들러 밥을 먹는 등의 행위는 도시 개발이 사람들의 가치관과 정신적인 부분까지도 변화시킨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결혼한 여자들도 당당하게 술을 마시고 여가를 즐기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강남 지역의 유흥가는 더욱 성행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인기 있는 대중가요뿐만 아니라, 앞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텔레비전 드라마에도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당시 인기곡들 중에서 강남을 주제로 한 대중가요에 유독 유흥가가 배경으로 자주 나타나는 이유는, 향락산업의 호황도 한몫한다.

3) 1990년대 _ 서태지와 아이들 그리고 팬덤문화

1990년대 들어서자 새로운 스타가 탄생하였다. 이른바 ‘신세대’ 라는 새로운 화두가 대중문화계를 중심으로 던져지게 되었다. 그리고 서태지라는 새로운 스타는 신세대문화의 중심부였다. 이 시기에는 참신함과 도발성으로 가득 찼고, 사회적으

로도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춤 잘 추고 개성 있고 발랄하고 …… ‘서태지와 아이들’ 인기 폭발

랩그룹 ‘서태지와 아이들’이 청소년들의 새로운 우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5월 5일 낸 첫 음반 「난 알아요」가 8주 만에 40만 장 팔려 나갔고, 문화·서울 방송 텔레비전의 인기가요 순위 1위에 뽑혀 데뷔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인기 정상에 오르는 기록을 낸 이들은 뉴키즈온더블록을 대체할 청소년스타라는 이름을 얻고 있다. …… “춤을 잘 추고 귀엽게 생겼잖아요, 옷차림도 개성이 있고요, 다른 가수들은 우리들한테는 안 어울릴 옷을 입고 나오지만, 서태지와 아이들은 우리 또래처럼 입고 있어요.” ㅎ여고 2학년 김유미 양의 평이다. …… <『한겨레』, 1992년 6월 27일



서태지와 아이들 1집 앨범

위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 서태지와 아이들의 데뷔는 충격 그 자체였다. 반바지와 헐렁한 티셔츠를 입고 나와서 격렬한 춤을 추며 무대를 장악하는 이들의 노래 가사 또한 자유 그 자체였다. 이들의 열풍은 1990년대라는 다른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보여 주었고, 사회 전체에 신세대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삼환아파트 주민 서진환은 서태지에 대해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다.

아직도 노래 나오면 힙쓸잖아요. 모자도 그렇고 뭐든지 다 유행이었어요. 학교 장기자랑 하면 무조건 서태지 춤추고, 그런 거 잘하면 애들도 좋아하고 그랬었죠. (서진환, 남, 32세)

특히 서태지의 4집 앨범 「김백흠」(1995)²¹을 듣고 가출했던 청소년들이 집으로 돌아왔다는 실화마저 덧붙여지며 서태지와 아이들은 10대들의 절대적인 우상이었다. 해체하고 은퇴하는 날 가요계뿐만 아니라 팬들 또한 소동을 일으키기도 했다.

특히 1990년대 초 컴퓨터통신이라는 가상공간은 젊은이들의 새로운 문화공간으

로 부상하였다. 1980년대 말에 등장한 워드프로세서 ‘아래한글’은 완벽한 한글문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든 사무실에 컴퓨터를 보급시키는 일등공신이 되었다. 이후 1990년대 초 컴퓨터의 대중화, 모뎀의 보급, 컴퓨터통신망인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가 급성장함으로써 컴퓨터와 온라인문화가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본격적으로 보급된 컴퓨터통신 가상공간은 1980년대 초 조용필 팬클럽으로부터 시작한 전통적인 여학생 중심의 오프라인 팬클럽과는 다른 형태와 성격의 온라인 팬클럽을 탄생시켰다. 당시 하이텔은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컴퓨터통신망이었다. 이들은 다른 팬들처럼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극성팬이 아니었다. 즉 서포터즈 형태의 새로운 팬클럽 문화인 것이다.

(친)언니가 서태지 열성팬이었어요. 포스터도 사고 공연도 가고, 편지도 쓰고, 아, 그때 통신 했잖아요. 인터넷 처음 생겼을 때, 그때 거기서 활동한다고 막 보여 주고 했었는데. 채팅 같은 것도 하고 그랬어요. <임성미, 여, 31세>

공개적이면서도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사이버 공간은 과거 오빠부대 식 팬클럽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었다. 이후 신세대에게 팬클럽 문화는 오빠부대를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자신의 우상에게 관심을 갖고 그 느낌을 표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신세대는 과거처럼 스타를 수동적으로 좋아하는 것에서 벗어나 클럽활동을 통해 스타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관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익숙해 있다. 과거 스타에게 팬은 극성스럽게 따라다니는 존재였다면, 1990년대 이후 스타와 팬은 서로를 위해 필요한 일종의 동료로 변화하게 되었으며, 이를 감지한 기획사들은 팬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이는 새로운 팬덤의 등장이라는 의미 또한 지니고 있다.²²

기성세대가 1970~1980년대 대한민국의 근대화와 산업화를 이루기 위해 희생한 세대라면, 신세대는 1970년대 이후 태어난 이들로 기성세대가 축적한 부의 혜택을 받은 첫 세대라 할 수 있다. 기성세대가 피땀으로 축적해 놓은 부의 기반 위에서 탄

생한 신세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성세대와의 단절을 원했다. 기성의 가치는 고리타분하고 조직 순응적이며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항상 부모세대로부터 자유를 제한당해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새로운 것, 자유로운 것, 조직이나 집단보다는 개인적인 즐거움을 추구하였다.

서태지와 아이들 이외에 김건모, 김원준, 룰라, H.O.T, 젝스키스 등의 가수들이 1990년대 신세대와 팬클럽 문화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가수들이라고 삼환아파트 주민들은 말하였다.



1990년대 신세대와 팬클럽 문화를 대변하는 대표적 가수였던 김원준

김원준 좋아했어요. 시골(전라남도 해남)에 살아서 뭐 공연 이런 건 못 보고, 대신 사진도 사고 테이프도 사고, 친구들하고 서로 맘에 드는 건 바꿔 가면서 가지고 그랬어요. 잘생기고 노래도 잘하고. 김원준은 아직도 잘생겼던데요. 그때 긴 치마 같은 옷 입고 나와서 그것도 굉장히 새로웠던 것 같아요. <조미란, 여, 35세>

저희 때는 H.O.T.죠. 젝키(젝스키스)랑 그 둘이 팬이 많았는데. (노래할 때 끼고 나온) 장갑하고 다 유행하고. <나준희, 여, 29세>

지금 들어도 90년대 노래들은 다 좋아요. 요즘 드라마도 「응답하라 1997」 그거도, 보면서 재밌더라구요. 그 당시 노래들 많이 나오고. 그때 노래는 지금 들어도 너무 좋아요. 그때가 지금보다 훨씬 더 가수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좋은 노래랑. <심성숙, 여, 34세>

1990년대는 그야말로 젊은 신세대들의 천국이었다. 이는 대중가요계뿐 아니라, 영화, 드라마, 광고(CF) 등 모든 대중매체 관련 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삼환아파트 주민들은 지금과는 다른 참신하고 산뜻하며 순수한 당시 젊은 세대들의 외침을



기억하고 있었다.

4) 2000년대 _ 대형 기획사와 아이돌 문화

2000년대 가요계는 체계적인 시스템 속에서 철저하게 제작된 아이돌들의 인기 행보가 눈에 띄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대형 기획사들은 트렌드에 맞추어 계산된 이미지의 아이돌 그룹을 키우고, 데뷔 전부터 홍보를 통해 팬클럽이 형성되어 있다. 이는 과거 솔로 가수들과 혼성그룹이 인기를 얻었던 것과는 달리 성별이 나누어진 걸그룹, 보이그룹 등이 확실한 팬심을 얻기 위해 외모와 실력을 적절히 그룹 멤버마다 혼합하여 스타를 제조하는 시스템인 것이다. 또한 국내에서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기 위해 처음 기획할 때부터 외국어 등의 해외진출 준비를 철저하게 교육시킨다. 이렇게 잘 키워진 아이돌 그룹 중 눈에 띄고 인기가 많은 멤버는 노래뿐만 아니라, 드라마 주·조연까지 거머쥐고 확실한 엔터테인먼트로 자리 잡기 위해 노력한다.

초등학교 고학년 그때부터 가요 들었어요. 4-5학년 때는 테이프 사서 듣고, 6학년 중학교 들어가니깐 동방신기 듣고, 동방신기 제일 좋아해서요. 어릴 땐 다른 좋아하던 가수들 TV로 보고 중학교 들어가서 동방신기가 나왔어요. 쫓아다니고, 콘서트도 가고, 그 드림 콘서트 여러 가지 가수들 모아서 하는 거 그런 거. 팬클럽은 안 들구요. 처음에 애네 노래 듣게 된 게 핸드폰, 중학교 올라갈 때 아빠가 핸드폰 사 주셔서 그걸로 핸드폰에 애플피리 노래를 다운받았어요. 애네 노래. 근데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찾아보니깐 얼굴도 잘생기고 해서 그다음부터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 CD들은 소장하고 싶어서요 일부러 샀었어요. 같은 반에 'SS501' 좋아하는 애들 있었는데 걔네만 동방신기를 라이벌로 생각했나 봐요. 막 서로 기싸움하고 그러고. 공연 가고 그럴 때 현수막, 플랜카드 이런 거도 친구들하고 같이 만들어서 가고, 이는 언니들하고도. 숙소도 찾아간 적은 있어요. 청담동에 있는, 숙소 갔다가 기획사도 한 번 갔다가 못 보고 왔어요. 한 번 보고 싶고 그래서요. TV 아니고 개인적으로, TV 말고 보는 거요. 그렇게 한 번 보고 싶어서 찾아갔어요. <곽성은, 여, 22세>

삼환아파트 주민 광성은 그 그룹 '동방신기'의 팬이다. 광성은 이들을 좋아하게 되었던 이유는 “노래가 좋고, 얼굴도 잘생겨서”라는 비교적 단순한 대답이었다. 대부분의 인터뷰에서 아이돌 가수의 팬들은 이와 비슷한 답변을 하였다. 비주얼뿐만 아니라 실력까지 뒷받침되는 가수들을 통해 10대들은 같은 또래의 아이돌인데도 일반적인 학생인 자신과는 다른 그들에게 신기함을 느끼게 되고 여기에서 일종의 동경을 넘어 존경하고 따르게 되는 것이다.



광성은 소장 그룹 '동방신기'의 앨범과 다이어리 등의 기념품

요즘 '소녀시대' 모르면 간첩이죠. 하도 여기저기 많이 나오기도 하고, 예쁘더라우요. 윤아(소녀시대 멤버 이름)는 알아요. 드라마에도 나왔었죠.(안명희(가명), 여, 40대)

삼환아파트 주민인 가정주부 안명희는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 이름도 일부 안다며 자랑스러워했다. 전 세대와 한국을 넘어 해외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소녀시대', '카라' 등의 걸그룹은 나이 지긋한 중년 이상의 어른들도 알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티아라' 왕따 기사로만 봐서 알아요. 뭐 한 명 왕따시킨 거잖아요? 엄청 말들이 많던데. 뭐 제 생각에도 공인이고 청소년들한테 영향 많이 끼치는데, 그럼 안 되는 것 같아요. 사과해야죠.(안명희(가명), 여, 40대)

2012년 8월에 인기 걸그룹 '티아라'가 멤버 중 한 명을 따돌린다는 사실이 이슈화되면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 연예 뉴스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기사화시켰고, 심지어 어떤 초등학교에서 '티아라' 놀이, 즉 왕따시키는 놀이가 발생했다며 사과를 촉구하고 나서기도 하며 멤버들이 참여한 프로그램 등의 시청불가운동 등도

이어졌다. 이만큼 현재 아이돌 그룹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고 볼 수 있다. 과거 아이돌 그룹이 10대의 전유물이었다면 현재의 아이돌 그룹은 음악 프로뿐만 아니라 세대차를 넘어 텔레비전, 영화 등의 대중매체를 장악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이는 10대를 넘어 전 세대에 영향을 끼치는 대형 스타인 것이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은 대형 기획사들의 연습생 육성 시스템 속에서 다른 연령대나 메이저급 기획사가 아닌 곳 출신의 연예인들이 인기를 얻기 어려워지며 생긴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2000년 이전만 해도 길거리 캐스팅, 친구 따라 오디션 구경 왔다가 발탁되어 화려하게 데뷔한 신데렐라형 연예인 혹은 천재형 연예인들이 많았다면, 2000년 이후에는 외모는 물론 실력도 철저한 준비로 완벽하게 갖춘 스타들이 대중의 이목을 모으고 있다. 이는 최고를 지향하며 경쟁에 익숙해진 현대인의 모습과도 닮은 듯하다. 이렇듯 대중문화는 더욱더 전문화된 산업의 한 분야로 자리 잡아 가고 있고, 그 힘의 여파는 대중들의 삶 속 더 깊은 곳으로 파고들고 있다.





5

주민들의 살림살이

인류의 역사는 물건의 진화와 함께 발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도 수많은 물건들에 둘러싸여 있다.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주변의 크고 작은 물건들을 통해 우리 사회의 문화적 역사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한다.



1. 장롱
2. 라면
3. 핸드폰
4. 도장
5. 피아노

01 | 일상 속 물건들

인류의 역사는 물건의 진화와 함께 발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도 수많은 물건들에 둘러싸여 있다.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주변의 크고 작은 물건들을 통해 우리 사회의 문화적 역사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한다. 조사는 2012년 2월부터 10월까지 삼환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제보자들에게 가정 내 살림살이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인터뷰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제보자들의 물건에 대한 의미 부여도와 생활 속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대표적인 물건 다섯 가지를 선정하였다. 우리가 기록하는 물건은 ‘장롱’, ‘라면’, ‘핸드폰’, ‘도장’, ‘피아노’의 다섯 가지이다.

먼저, 장롱은 집안의 가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물건으로, 그 크기나 가격에서 단연 최고를 다투는 물건 가운데 하나이다. 이 때문에 신혼부부 등 새살림을 장만하는 가정에서 장롱은 단연 1순위의 입수품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불박이장이나 간이행거 등의 사용으로 장롱의 이러한 위상은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을 배경으로 삼환아파트의 다양한 주거양식과 가정별 특성에 따라 장롱의 쓰임과 그 인식의 변화들을 기록하였다.

두 번째 기록의 대상은 라면이다. 라면은 아파트 상가 할인마트의 한 면을 가득 채울 정도로 현대인들의 식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식품이다. 언제부터 라면이 우리의 식생활에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일까. 삼환아파트 주민을 대



상으로 라면과의 첫 만남부터 나만의 조리법까지 두루 조명하고자 하였다.

세 번째로는 핸드폰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였다. 휴대전화는 빠른 시간 안에 엄청나게 진화하고 발전하였다. 그 영향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현대 도시인에게 이제 핸드폰은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이 되어 가고 있다. 핸드폰의 전신인 삐삐와 시티폰에서부터 플립형, 폴더형, 슬라이드형 핸드폰, 터치폰, 현재의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삼환아파트 주민들이 경험한 핸드폰의 문화사를 살펴보았다.

네 번째로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과학기술을 엿볼 수 있는 살림살이로 도장을 선정하였다. 우리 사회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하나 이상쯤은 가지고 있는 물건이 도장이다. 도장은 개인의 신분을 증명하기도 하며, 법적인 인사 증거물로서 더 없이 중요한 물건이기도 하다. 삼환아파트 상가에는 도장을 제작하는 매장이 영업 중이며 삼환아파트 주민 중 대다수는 도장을 소지하고 있다. 인감도장에 얽힌 상징성부터 어린이의 일기장에 담임선생님이 찍어 주는 도장에 이르기까지 삼환아파트 주민의 도장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다섯 번째 기록의 대상은 피아노이다. 1980년대를 전후로 사교육의 열풍과 함께 ‘피아노’는 어린이들의 대표적인 교양학습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피아노는 예나 지금이나 고가의 물건이며, 피아노를 갖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 시절 어린이들의 동경의 대상에서 오늘날 대표적인 문화예술 활동의 대상으로 변천한 피아노의 문화사적 모습을 기록하였다. 현재 삼환아파트 상가에는 2개의 피아노 교습학원이 있으며, 많은 삼환아파트의 주민들이 피아노 교습을 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어머니의 어릴 적 피아노에 대한 추억이 자녀의 피아노 교육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다. 피아노가 귀했던 시절의 피아노에 대한 시선부터 현재 입시를 위한 피아노 교육에 이르기까지 피아노의 소지 및 인식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이상의 다섯 가지 물건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다음 제보자들의 도움으로 실시되었다. 익명을 요구하는 몇몇의 제보자들은 가명으로 기록하였다.

〈표 1〉 삼환아파트 살림살이 제보자

번호	성명	성별	출생연도(나이)	번호	성명	성별	출생연도(나이)
1	백순자	여성	1963년(50세)	14	송민경	여성	2003년(10세)
2	김현재(가명)	남성	1987년(26세)	15	송민승	남성	2003년(10세)
3	최현주	여성	1974년(39세)	16	배한석	남성	1944년(69세)
4	우정희	남성	1999년(14세)	17	김영숙	여성	1950년(63세)
5	우준희	남성	2002년(11세)	18	배진옥	여성	1977년(37세)
6	김원준(가명)	남성	1979년(34세)	19	이미원	여성	나이 미상
7	김혜경	여성	1961년(52세)	20	곽윤택	남성	1962년(51세)
8	김한선(가명)	여성	1972년(41세)	21	오미환	여성	1963년(50세)
9	조현진	여성	2000년(13세)	22	곽성은	여성	1991년(22세)
10	장인환(가명)	남성	나이 미상	23	곽재은	여성	1993년(20세)
11	조영애	여성	1968년(45세)	24	정영조	남성	1956년(57세)
12	김지수	여성	1997년(16세)	25	정서연(가명)	여성	1988년(25세)
13	조미란	여성	1978년(35세)	26	이지숙(가명)	여성	1960년(53세)

1. 장롱

장롱은 주로 주거공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있으며 의복이나 침구류를 보관한다. 더하여 19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혼례가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살림살이로 부동의 1위를 차지하였다.¹ 딸이 태어나면 훗날 시집갈 때 장롱을 짜 주기 위해 오동나무를 심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장롱은 혼수로 준비하여 죽을 때까지 사용하는 살림살이이다. 어머니가 혼수로 가져온 장롱은 딸의 어린 시절에 대한 추억도 담겨 있는, 세월을 지닌 물건이다.

1) 혼례가구 1순위 장롱

김정근²에 따르면, 조선시대 혼수 기물과 가구의 종류로는 농, 대고리상자, 설기, 나무궤, 탁자, 장, 침척, 경대 및 반진고리 등이 있었다. 이처럼 예로부터 혼수는 여자 쪽에서 시집에 들어가서 사는 데 필요한 물품을 중심으로 장만하였다. 그래서



배한석, 김영숙 부부의 자개장롱

현재까지도 혼수는 여성이 마련한다는 관념이 존재한다. 혼례가구 중에는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 조건 영향으로 많은 의복과 솜, 천, 버선 등을 보관하는 장과 놓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1977년에 결혼한 배한석(남, 69세)과 김영숙(여, 63세) 부부의 혼수는 김영숙의 친정에서 마련해 주었다. 김영숙의 언니와 형부가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어 장롱과 화장대를 세트로 제작해 주었다. 당시 제작한 장롱은 자개로 장식한 것이었는데 이사를 많이 다니느라 10여 년이 지나자 망가져 폐기하였다. 대신에 결혼 당시 만든 자개장보다 더 오래 전에 만든 언니의 자개장을 가져다 칠을 다시 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언니의 자개장을 들여올 적에 추가로 구입한 문갑도 나란히 두고 사용 중이다. 언니와 형부가 혼수로 자개장과 함께 제작해 준 자개화장대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언니가 혼수를 거의 해 주다시피 했으니까. 언니가 사 줬지. 아홉 자짜리 자개. 그때 자개 유명했지. 그거는 없어졌고. 우리 언니가 가구점을 했어. 우리 언니네서 자개를 했는데 나 해 주기 전에 자기가 자개를 좋게 했어. 그러다가 나는 몇 년 이사 다니고 하니가 망가져서 버리고 언니 거를 다시 칠해 가지고 갖다가 지금까지 쓰고 있어. 근게 내가 시집왔을 때 한 것보다 더 먼저 만들어 놓은 장롱이지. 우리 형부가 짠 거지. 직원들 데리고 공장을 하다시피 했지. 우리 언니 거는 특별히 그 당시에 더 좋게 했지. 내가 시집을 때 한 거는 한 십 년 쓰다가 버리고 우리 언니가 쓰던 장롱을 가져다 쓴 거지. <김영숙, 여, 63세>



김영숙의 자개화장대

1980년대가 되자, 형편에 따라 친정의 힘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구입하거나 부부가 함께 혼수를 마련하는 경우도 생겼다. 1986년에 결혼한 백순자(여, 50세)는 혼례가구로 장롱, 화장대, 책상, 책장, 서랍장, 장식장, 문갑 등을 장만했는데, 백순자의 부모가 구입해 준 것이었다. 반면 김혜경은 결혼 당시 장롱, 서랍장, 장식장, 문갑 등을 본인이 구입하였다. 세트로 구성된 기성가구를 구입했으며, 현재는 장식장을 제외하고 당시에 구입한 혼례가구를 모두 처분한 상태이다. 쓸 만한 가구는 계속 쓰고, 교체할 만큼 낡은 가구는 처분하였다.

개비(改備)했어요. 20년, 20년 쓰고 개비한 것 같애. 21년 쓰고. 낡아서. 그때, 여덟 자. 나무가. 지금도 집에 장식장은 하나 있는데 그게 티크, 티크(티크장)는 아니고, 앞에는 원목이고 옆에는 옆에도 저기고, 앞은 통나무로 돼 있고 뒤판 같은 게 합판이고 그럴 거야. 맞춘은 아니고 가서 샘플 보고 그거를 주문해 가지고. <김혜경, 여, 53세>

혼례가구로 장롱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1997년에 결혼한 최현주(여, 39



세)는 당시 형편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부모님의 경제적 도움 없이 결혼하였다. 간소한 혼례가구를 마련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장롱이 탈락되었다. 결혼 직후에는 행거로 대체하여 사용하다가 경제적 형편이 나아지자 장롱을 구입하였다.

우리는 혼수가 없었어요. 저도 어렵게 시작했고, 남편도 어렵게 시작해서 혼수라고 할 게 집에서 집을 마련해 줘서 한 게 아니라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집을 마련해서 거기에 맞는 가구를 들였기 때문에 혼수라고 해 봤자 침대, 화장대, 그리고 서랍장, 그게 전부 다였거든요. (장롱은 없으셨어요?)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조그만 옷걸이. (최현주, 여, 39세)

2) 장롱을 고르는 기준

김원준(가명, 남, 34세)에게 삼환아파트는 부부의 두 번째 보금자리이다. 김원준은 서울 상계동 출신으로 2006년에 결혼해 신혼집은 서울 화곡동에 마련했다가 2010년에 삼환아파트에 입주하였다. 결혼 6년차인 김원준은 현재 혼수로 마련했던 장롱을 사용하고 있다. 당시 집성목으로 된 아홉 자짜리 장롱을 구입하였는데, “디자인된 짠 것이 많아서 보고” 골랐다. 신혼집에서 마련한 혼례가구들은 그대로 삼환아파트로 가져왔다.

그때는 하이그로시 뭐 이런 게 유행이라서 그런 걸로 맞췄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도 신혼이라 디자인을 좀 봤죠. (김원준(가명), 남, 34세)

최현주는 앞서 말했듯, 결혼 직후에 장롱을 구입하지 않았다. 당시에는 장롱 대신 행거를 사용하였다. 몇 년 후 장롱을 구입하게 되었을 때는 ‘실용성’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선택하였다. 최현주는 특히 이불이 많았기 때문에 넓은 이불 수납공간이 꼭 필요하였다. 그래서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가구거리 매장을 찾아 기존의 가구에서 약간 변형된 디자인을 요구하였다. 직접 디자인을 한 것은 아니지만 ‘맞춤 주문’이었던 셈이다.

실용성을 가장 많이 보죠, 아무래도. 처음 사는 사람이 아니고 써 봤기 때문에 몇 년간을.



최현주의 자녀 방에 있는 부부장롱



최현주의 인방에 있는 부부장롱 일부와 세트로 산 화장대



부부장롱 내부

바꿀 때는 얼마나 더 옷이 더 잘 들어가는지 꼭 필요한 부분이 뭔지 그런 걸 먼저 보죠. …… 맞춘 거예요. 기성제품을 제가 원하는 대로 만들었죠. 이불이 많은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불 넣을 공간이 많았으면 해서 이불 넣을 공간을 두 곳을 만들었으면 해서 부탁을 드려서 했어요. 밑에는 약간 서랍 있고 한쪽은 그냥 그대로 바지 걸이라든지 그렇게 했는데 나머지 두 곳이 보통 그냥 옷걸이 식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이불을 넣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한쪽은 아예 이불장이고 또 하나도 위에 가 이불장이고 그런 식으로.

그랬을 텐데(신혼 때 혼례가구를 구입했다면 디자인이 우선시되었을 텐데) 살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다 두어야 되는지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불을 솔직히 밖에도 둘 수는 없잖아요. 옷은 그냥 행거에 걸어 놔도 상관없는데, 가구집을 여러 군데 다녀서 가격도 맞춰 보고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는지도 봐야 하고, 밖에 대부분 해 놔잖아요, 전시름요. 그러면 이렇게도 맞출 수 있냐 물어도 봐야 되고 하니까. <최현주, 여, 39세>



김혜경(여, 53세)이 장롱을 선택할 때는 '경제성'이 가장 중요하였다. 그녀가 말하는 경제성은 단순한 저가가 아니라 가격 대비 효율성을 뜻한다. 저렴하게 사더라도 이내 교체해야 한다면 추가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저렴하면서도 고가 못지않게 견고한 것을 원했다. 디자인에 치중하여 가격이 추가되는 것은 낭비라고 여겼다.

경제성이라는 거는 꼭 저렴하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하지만 봐서 절대적으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집에 있는 게 26년, 27년 됐는데도 지금 장식장은 아직 썩셈하거든요. 장식장, 장롱, 문갑 세트. 이태리가구 세트. 옛날에는 침대사용을 안 하면 문갑이 옆에 있고 문갑 가운데가 인제 좌식 그니까 화장 거울 있는데. 거울은 아직도 있고. 아직 멀쩡하니까.<김혜경, 여, 53세>

자녀를 위해 장롱을 구입한 경우 역시 '실용성'에 가장 비중을 두었다. 오미환(여, 50세)은 그중에서도 공간 활용이 가장 큰 관심사였다. 현재 자녀의 장롱은 집안의 가장 안쪽에 있는 잘 쓰지 않는 물건들을 놓아 둔 방에 있다. 작은딸 곽재은(여, 20세)이 초등학교 6학년 때 구입한 것이다. 원래는 같은 디자인으로 큰딸 곽성은(여, 22세)의 장롱과 함께 구입했지만 큰딸의 것은 처분하였다. 이 장롱은 책상, 책장이 모두 한 세트이며, 책장과 장롱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구조이다. 장롱의 상단 좌측부만 측면으로 책을 꽂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책장 중앙에 선반을 걸쳐 책상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상단의 좌측 일부를 제외하곤 여단이문을 열면 옷을 걸 수 있다. 두 딸이 성장함에 따라, 의류 수납공간도 필요해졌고 한창 공부할 나이이기 때문에 책상도 필요했기 때문에 최대한 공간 활용도가 높은 가구를 고르려고 했다.

이 장롱의 또 다른 특징은 곽재은과 곽성은이 함께 외부를 장식했다는 점이다. 단순한 디자인의 흰색 장롱 문 위에 아크릴 물감으로 칸마다 그림을 그려 장식하였다. 곽재은과 곽성은은 방의 벽면을 직접 페인트칠할 정도로 꾸미는 것을 좋아하였다. 자매에게 장롱은 단순한 수납공간이 아니라 취향에 따라 디자인을 직접 바꿀 수 있는 개성의 표현수단 중 하나였다.

실질적인 의류 수납은 자매가 함께 잠을 지는 방에 둔 행거에 한다. 대부분의 옷이 행거에 걸려 있고 가벼운 옷과 자주 입는 옷, 속옷, 바지, 스웨터 등은 서랍장에



곽재은이 어릴 적에 사용하던 책상걸 장롱



곽재은의 장롱 내부

개어서 넣어 둔다. 계절과 상관없이 모든 옷이 행거에 걸려 있거나 수납장에 보관되어 있는데 어디든 손이 닿기 쉽다. 그래서 딱히 계절이 바뀐다고 해서 옷 정리를 새로 하지는 않는다. 대신 해가 바뀌어 다시 그 옷을 입을 계절이 와도 더 이상 입지 않을 옷만 분리해 낸다.

자매는 함께 지는 방에 주된 의류를 수납하며 어머니 오미환의 의류도 함께 보관한다. 오미환의 옷은 자매의 행거와 장롱 사이의 수납장 안에 자매의 옷과 함께 보관되어 있다. 안방에 있는 부부의 장롱은 현재 주로 곽재은의 아버지 곽운택(남, 51세)이 사용한다.

조미란(여, 35세)도 이란성쌍둥이 송민승(남, 10세), 송민경(여, 10세) 남매가 성장하면서 장롱을 추가로 구입하였다. 안방에 있는 부부의 장롱과 비슷한 디자인으로 구입하여 각각의 방에 넣어 주었다. 송민경의 방에 있는 장롱은 쌍둥이가 3살 때



곽성은과 곽재은의 행거



오미환의 서랍장과 곽성은·곽재은의 장롱

구입한 것이다. 처음에는 쌍둥이의 모든 의류를 그 장롱에 보관하였는데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장롱을 따로 둘 필요가 있었다. 아이들이 7살이 되었을 때 송민승의 방에 있는 장롱을 추가로 구입하였다. 두 장롱 모두 화서동의 가구거리에서 장만하였다. 다른 디자인이지만 최대한 비슷한 것으로 선택하였다. 어린이용 디자인의 장롱은 많았지만 수납공간이 적어 실용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어른용 가구를 구입하였다. 흰색의 심플한 디자인으로 각각 아이들의 분위기에 맞게 조미란이 스티커를 붙여 장식하였다. 장롱에는 의류를 포함하여 이불과 가방을 보관한다. 각각의 장롱에는 사계절별 겨울옷과 여름옷이 모두 들어 있다.

너무 어릴 때 짐 들어갈 데가 없어서 쌍둥이라 물건이 많아 가지고 민경이 방에 있는 건 세 살 때, 민승이 방에 있는 게 일곱 살 때. 애들 거는 가구거리에서, 화서동. 애들 캐릭터도 있고 예쁜 건 수납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그냥 어른 거, 그래서 일반 어른 거 산 거거든요. 수납이 잘되고, 이불도 있고요, 가방도 들어 있고. 사계절 꺼 다 넣고 서랍장만 사계절로 나눠 가지고 겨울옷 여름옷. 작아지고 그런 건 싹 빼고. 사춘에서 옷을 많이 주거든요. 그런 거 정리해서 넣고. 물려받기도 하고 옆에 쌍둥이 한 살 더 큰애 있어요. 거기서 받기도 하고. <조미란, 여, 35세>



딸 송민경의 방에서 사용하는 장롱



아들 송민승의 방에서 사용하는 장롱

3) 새집에 새 장롱을 두고 싶은 여자의 마음

조영애(여, 45세)는 2000년에 삼환아파트로 이사 오면서 현재 사용하는 장롱을 구입하였다. 그전에는 전세로 살았기 때문에 가구에 투자하고 싶지 않아 혼수로 구입했던 장롱을 계속 사용하였다. 이사를 하다가 망가질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삼환아파트를 구입해서 이사 오면서 앞으로는 이사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나니 가구를 교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새로 구입을 하면 오래 쓸 생각을 하고 구입을 하잖아요. 저도 신혼 때 샀다가 여기 이사 오면서 다시 또 샀어요. 그때는 전세로 살았기 때문에 크게 좋은 건 안 쓰다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집은 내 집을 마련하면서 크게 이사 갈 생각을 안 하고, 대부분 여자들이 그렇거든요. 처음에 사 가지고 오면서 들어왔거든요. 저는 크게 가구에 연연하지는 않거든요. 보여 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좋은 걸 사진 않았는데 수납 위주로. 옛날 거는 수납이 다양하지 못했거든요. 애들이 크니까 수납이 아무래도, 메이커보다는 제가 보고 수납 위주로. <조영애, 여, 45세>

결혼할 때 구입했던 장롱은 친정어머니가 고르고 구입해 주었다. 당시에는 친정어머니의 안목으로 골라 줘서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처분하고 나니 영 아까운 마음

이 들었다.

그때 당시에는 안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왜 가구는 옛날 게 좋다고 그러잖아요. 조금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엄마가 사 준 거기 때문에 솔직히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냥 할 수 없이 사 주니까 썼는데 버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옛날 거는 더 가구가 좋잖아요. 비싸고 싼 거를 떠나서. 그게 살다보니까 그래요. 장롱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크게 그렇게까지 비싼 걸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주거환경에 맞춰서 사는 거지. 요즘은 장롱 안 사고 행거 사서 깨끗하게 커튼식으로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저도 그게 좋은 거 같아요.<조영애, 여, 45세>

조영애의 식구들은 침대와 소파를 사용하지 않는다. 좀 더 공간을 넓게 활용하고 싶어서 모두 처분하고 좌식생활을 한다. 대신 매번 이불을 깔고 개야 하기 때문에 이불 수납을 위해 장롱 대부분의 공간을 사용하는 편이다. 딸의 경우는 굳이 장롱에 이불을 넣지 않고 방 한 편에 쌓아 둔다.

이불 있어요. 이불도 요새는 다들 침대에서 사용하는데 우리는 다 없었어요. 이불 끼는 게 좀 귀찮긴 한데, 습관 들기 나름인 거 같아요. 침엔 불편한데 그냥 맞춰서 살다 보니까 살게 되더라고요. 딸 방은 옆에다 이불 놓고 아들하고 저는 장롱에 넣다가 뺐다가. 깔 때는 각자, 깔 때는 엄마가. 정했어요. 하나는 엄마가 해 줘야 하니까.<조영애, 여, 45세>

조미란(여, 35세) 역시 장롱을 고를 때 ‘실용성’에 비중을 두고 선택하였다. 조미란은 2001년에 결혼하여 직후에는 세류동에 있는 시댁에서 살다가 6개월 후에 분가하였다. 시댁에 “워낙 살림살이가 다 있었고 방 하나만 거기서 쓰게끔 해 줬기 때문에” 따로 혼례가구 없이 텔레비전 하나만 사서 들어갔다. 6개월간 세류동에서 살다가 시어머니가 소유하고 있던 삼환아파트로 이사하여 분가하게 되었고, 이때 집안에 둘 가구 일체를 마련하였다.

부부가 결혼 후 얼마간 살다가 분가한 경우라서 함께 모았던 돈으로 가구와 집기들을 마련하였다. 장롱은 근처 인계동 가구거리에 있는 ‘에몬스’에서 제작한 기성



조미란의 안방에서 사용하는 부부장롱

가구를 구입하였다. 조미란은 장롱 외부에 옷을 걸 수 있다는 점과 조명부분이 마음에 들었다. 자주 입는 가벼운 옷가지들을 걸기 위해 따로 세우는 옷걸이를 두지 않고 장롱 자체에 걸 수 있어서 편리해 보였다. 밀어 넣고 뺄 수 있어서 사용할 때는 빼서 옷을 걸고, 옷을 걸지 않는 부분은 집어넣어 두면 깔끔하다. 280만 원에 같은 브랜드의 화장대와 침대, 장롱까지 한 번에 구입하였다.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었고, 이게 마음에 들더라구요. 다른 거는 이게 없잖아요, 옷걸이가. 이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거든요. 그리고 조



조미란의 장롱 외부 옷걸이 부분





안방장롱에 옷을 정리하여 놓고 있는 이지숙

명이 또 나오니까. 그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때 붙박이장이 없었는데 이게 붙박이장 식으로 천장까지 닿는다고 했는데 삼환아파트는 높은지 안 닿아서. 넣으면 깔끔해지잖아요. 특이하죠. 다른 사람은 나무 옷걸이 또 사잖아요. 근데 살 필요가 없으니까.〈조미란, 여, 35세〉

이지숙(가명, 여, 53세)은 1986년에 결혼한 이후 10년간 잦은 이사를 했다. 그러다가 삼환아파트로 이사 오면서 더 이상 앞으로 이사를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장롱을 구입하

였다. 식구가 많아 수납공간이 가장 중요했던 이지숙은 안방 벽면 가득 장롱을 짜 넣었다. 벽면의 치수를 측량하여 기존의 디자인과 색상을 선택한 후 맞춤주문을 한 셈이다. 이사 오면서 전반적인 인테리어를 모두 손봤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 디자인을 정하였다.

그전에는 전세 살았으니까. 계속 이사를 다녀야 하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좋은 가구를 살 수가 없었죠. 그러다가 여기 오면서 딱 나는 정착해야겠다. 그래서 문이고 몰딩이고 전부 새로 했거든요. 밝은 좀 그래도 안은 새집처럼. 그래서 새로 해서 넣었어요.〈이지숙(가명), 여, 53세〉

4) 집안의 가장 깊숙한 곳

‘장롱면허’라는 말도 있듯이 장롱에는 잘 쓰지 않거나 귀한 물건들을 깊숙이 보관하곤 한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장롱에 숨는 것’은 매우 비밀스럽고 절대 들키지 않을 공간이다. 조미란의 쌍둥이 자녀 송민승(남, 10세), 송민경(여, 10세) 남매는 이불을 모두 꺼내어 놓고 장롱 속에 들어가 숨곤 했다. 아무리 말려도 듣질 않아 조미란이 매번 이불을 다시 개느라 곤욕을 치렀다.

저희 애들이요, 어릴 때 했었어요, 숨바꼭질. 방에 이불 다 꺼내 놓고 지들 숨어 있고, 손 다치니까, 문 닫으면 손 다치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해도 지들끼리 꼭 들어가 있더라구요. 제가 막 소리 지르면서 이불 이거 다 개야 된다고 막 했었어요. <조미란, 여, 35세>

배진옥(여, 37세)에게도 장롱 속은 숨바꼭질 단골장소였다. 많은 동생들과 어릴 때 장롱에서 숨바꼭질하기를 좋아하였다. 자매가 번갈아 가며 장롱 속에 숨곤 했었다. 한 명이 먼저 들어가면 다른 한 명이 밖에서 장롱 문을 닫아 주는 식이었다. 어릴 적 장롱 속에 들어가 숨바꼭질을 했던 배진옥과 여동생은 현재 결혼을 하여 삼환아파트를 떠난 상태이다. 배진옥의 친정부모인 배한석(남, 69세)과 김영숙(여, 63세)은 삼환아파트에서 거주 중이며, 배진옥이 뛰어놀던 자개장은 아직도 배한석과 김영숙의 침실에 놓여 있다.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들어가 있을게. 너는 문 닫고 넌 딴 데 숨어.” 이런 거. 동생들이 많으니까. “다음번엔 장롱을 내가 닫아 줄 테니까 니가 들어가 이런 거.” 옛날 자개장이 쪽 있었어요. <배진옥, 여, 37세>

어릴 적 추억이 있어서인지 배진옥에게 장롱 속은 여전히 비밀장소이다. 결혼 후에도 장롱 속에 예물과 같은 귀중품을 보관하고 있다. 위생용품도 서랍장에 보관한다.

(장롱에 귀중품을 보관하시나요?) 그렇죠. 예물이라든지. (생리대는) 거기(장롱에)다 안 넣고 서랍장이 따로 있으니까 서랍장에 넣죠.

이지숙(가명, 여, 53세)은 안방장롱에 여성 위생용품을 보관한다. 딸이 돌인 탓에 위생용품의 소비가 큰 편이다. 할인마트에서 한 번에 대량으로 구입해 두었다가 한 달분의 소량을 화장실에 보관하고 나머지는 장롱에 보관한다. 남편과 아들에게 가능하다면 적게 노출시키기 위해 화장실에는 쓸 만큼만 둔다. 조미란(여, 35세)은 안방 장롱에 의류와 침구류 외에 비상약품과 반질고리를 보관한다. 이지숙과 조미란





조미란의 안방장롱에 보관해 둔 반진고리와 비상약약품



이지숙의 안방장롱에 보관해 둔 위생용품

에게 안방장롱 한 구석은 여성만의 공간인 셈이다.

곽재은(여, 20세)에게 장롱 안은 특히 돌도 없는 보물창고이다. 장롱 본래의 의미를 살려 상단에는 자주 입는 가벼운 옷을 걸어 둔다. 그리고 하단의 서랍 두 칸 중 위칸에는 잡동사니를, 아래칸에는 구두를 넣어 둔다. 뜬금없이 장롱에 구두를 넣은 까닭은 아버지의 눈을 피하기 위함이다. 곽재은이 구두를 구입하여 모으길 좋아하는 것을 아버지가 탐탁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조차 열어 보지 않는 공간이 바로 장롱 가장 아래 서랍인 것이다. 실제로 구두를 잘 신지 않는 곽재은이지만 사 모으는 것 자체를 즐긴다.

장롱 속이 집안의 가장 깊숙한 공간이며 개개인의 비밀공간 역할을 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 버렸다. 그래서 더 이상 가장 안전하지 않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오히려 범죄의 표적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에 오히려 귀중품을 장롱 속이 아닌 다른 곳에 보관하는 경우도 있다. 대신 화장대 서랍이 또 다른 집안의 비밀 공간을 하기도 한다.

그런 거(귀중품)는 별도로 숨겨 놓죠. 혹시나 도둑 들면 모르니까. (장롱에 보관하시나요?) 아니요. (옷만?) 네. <김원준(가명), 남, 34세>

귀중품은 거의 보관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최현주, 여, 39세>

(장롱 속에 보관하는 것은) 의류하고 이불하고 가방 같은 거. 생리대는 화장실에 뒹요. 딸 이랑 있으니까. 화장대에 귀걸이 목걸이 팔찌 두고. 거기다가 집하고 보험서류 같은 거 증권 같은 거 두고. <조영애, 여, 45세>

5) 시대별 장롱에 대한 인식 변화

앞서 말했듯 혼수의 1순위로 꼽힐 정도로 예로부터 장롱은 필수적인 살림살이였다. ‘드레스룸’ 과 ‘불박이장’ 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의 주거양식에 도입되기 이전 까지 그랬다. ‘드레스룸’ 은 최근에 건설되고 있는 아파트 중 비교적 큰 평형의 아파트에서 선호되는 공간이다. 옷을 수납하는 공간만이 아니라 옷을 갈아입는 공간으로, 장롱을 하나의 공간개념으로 이해하여 발전시킨 것이다.³

<표 2> 수납공간에 대한 요구

(단위 : 건, %)

항목	주택규모			
	20평형	30평형	40평형	50평형
옷방(드레스룸)	46(30.7)	90(56.3)	85(47.0)	87(64.4)
안방 불박이장	76(50.7)	56(35.0)	71(39.2)	42(31.1)
아이방 불박이장	60(40.0)	63(39.4)	69(38.1)	42(31.1)
욕실 근처의 속옷수납공간	22(14.7)	24(15.0)	37(20.4)	29(21.5)

출처 : 장경수 · 김경순, 「공동주택 평형별 주민들의 주거관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vol.38, 2003, 122쪽.
비고 : 다중응답이다.

삼환아파트의 경우 1992년에 건설되었기 때문에 ‘드레스룸’ 이나 ‘불박이장’ 이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구조는 전혀 없었다. 그래서 조사를 진행했던 모든 가정에 장롱이 구비되어 있다는 점이 삼환아파트의 특징이다. 현재 삼환아파트에 살고 있는 배한석 김영숙 부부의 딸 배진옥(여, 37세)은 2012년에 결혼하였다. 배진옥도 결혼 전에는 개인의 장롱을 사용하였다. 배한석과 김영숙 부부의 안방에도 20년이라는 자개장이 놓여 있다. 그러나 배진옥은 혼수로 장롱을 구입하지 않았다. 신접





최현주 이상용 부부의 안방 붙박이장

살림을 차린 아파트에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삼환아파트에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필요에 따라 설치한 가정도 있다. 최현주의 경우 전 거주자가 안방에 붙박이장을 설치해 두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안방의 붙박이장을 최현주 부부의 주 장롱으로 사용하고 있다. 7~8년 전에 구입한 부부의 장롱은 분리하여 쓸모에 따라 각 방에 배치하였다. 처음 구입한, 전 거주지의 구조에 맞춰 제작한 장롱이 삼환아파트로 이사 오면서 해체된 것이다. 최현주가 주문제작한 장롱은 안방에 한 칸, 두 아들 우정희(남, 14세), 우준희(남, 11세)의 방에 두 칸씩 나누어 놓았다.

지금 분리돼 있거든요. 지금 요건 붙박이구요, 원래 가져온 게 열두 자인가? 열한 자 반인가? 처음에 집을 살 때, 보통 그렇잖아요, 집을 사면서 가구를 다시 들이잖아요. 집을 구입하면서 그때 가구를 다 들었어요. …… 아이들이 커 가면서 서랍장을 사야 될까 아님 어

떻게 해야 할까 그랬는데 불박이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마침 잘 됐네 그래서. 이 집에서 원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쓰던 거는 이쪽에 하나 저쪽에 하나 그렇게 분리를 시켰어요. 여기 원래 주인으로 있던 분께서 불박이를 설치해 주고 리모델링을 하신 거죠. 리모델링을 하실 때 불박이를 해 넣고 리모델링을 하신 거예요. <최현주, 여, 39세>

삼환아파트에서 행거 겸 장롱을 언니 광성은(여, 22세)과 함께 사용하는 광재은(여, 20세)은 드레스룸에 대한 환상이 있다.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하는 드레스룸을 가지는 것이 꿈이다. 광재은의 로망인 드레스룸의 한 쪽 벽면에는 전신거울이, 또 한 쪽 벽면에는 구두가, 그리고 다른 한 쪽 벽면은 의류로 가득 차 있다. 방의 중앙에는 유리로 된 탁자를 놓고 유리 아래에 액세서리를 수납한다. 바닥에는 폭신폭신향 러그를 깔다. 이 같은 광재은의 이상적인 드레스룸은 2012년 7월에 종영한 MBC 드라마 「아이두 아이두」에 나오는 주인공 황지안의 구두를 진열해 둔 방과 비슷하다.

2. 라면

라면은 매우 간편하게 조리하여 먹을 수 있는 음식이면서 매우 저렴하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현재는 가장 저렴한 인스턴트 음식의 대명사이지만, 출시 초기에는 손님들에게나 대접하는 고급음식이었다는 점도 재미있다. 처음 등장한 지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라면의 외양은 다양하게 변해 왔다. 제조사별로, 시대별로 라면은 포장의 무늬부터 국물을 내는 재료, 면발의 굵기에 이르기까지 민감한 트렌드의 중심에 있었다.

1) '꼬부랑국수'의 등장

만화 『검정고무신』에는 라면이 처음 나왔을 때의 반응이 코믹하게 묘사되어 있다. 아래는 만화 속에 등장하는 '꼬부랑라면송'이다.





만화 '검정고무신, 에 나오는 라면과 관련된 일화(형설아이 제공)

이 가게 저 가게 다니면서 라면을 보았네. 움찔움찔 움찔움찔 꼬불꼬불꼬불꼬불꼬부랑 국수 정말로 신기해. (이야) 꼬불꼬불꼬불꼬불꼬부랑국수 정말로 궁금해. 그게 바로 무슨 무슨 국수인지 정말로 먹고 싶어. (꼬불꼬불) 그건 그건 바로바로 라면이라네. 삼삼한 라면~. (후르르남남 후르르남남) 참참한 라면 맛 정말로 맛 좋아. (정말 좋아) 라면의 아찔한 국물은 정말로 잊을 수 없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라면의 그 맛~. (오예) …….

국내에서 최초로 인스턴트 라면이 생산되기 시작한 것은 1963년 9월 15일이었다. 삼양식품의 전중운 회장이 1960년대 초 남대문시장에서 한 그릇에 5원짜리 꿀꿀이죽을 사 먹으려고 길게 줄을 선 사람들을 목격한 것이 라면 등장 계기였다.⁴ 처음으로 출시된 라면 값은 1봉지에 10원이었다.⁵

라면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지금처럼 간편하고 저렴한 식사대용이 아니라 귀빈에게만 접대하는 귀한 음식이었다. 외식이 흔하지 않던 시절에 매콤한 라면스프 국물의 맛과 꼬불거리는 밀가루 면발은 신기해 보이기만 했다. 김혜경(여, 53세)과 김한선(가명, 여, 41세)은 어린 시절, 처음 라면을 먹어보던 때를 기억하였다. 정량에



삼양라면 광고(경향신문, 1963년 10월 2일)

상관없이 큰 솥에 물을 가득 끓여 라면스프로 맛을 내고 부족한 면발 대신 국수를 삶아 넣어 먹기도 했다.

라면 접대 받으면 그날은 귀빈 대접 받은 거였지. …… 처음에 나올 땐 하나에 20원. 처음 먹는 게 이혼 살인가? 열 살 안 됐어. 우린 처음에 삼양라면이었지. 거의 뭐 맛이 환상적이었지. 그때는 라면이 나왔을 때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냐 외국에서 만든 거냐 뭐 이래 가지고 그거 물 잔뜩 넣고 밥 말아 먹고 그랬어. <김혜경, 여, 53세>

초등학교 때? 거의 80년도 때 먹었죠. 농심. 우리 때는 농심. 라면을 한 박스씩 사다 놓으면 팍 채워 있잖아요. 그럼 꼭 하나를 빼 가지고 약간 손으로 좀 해 놓는 거야. 그래서 끓여 먹고. 그러면 나도 하나 빠지. 그럼 약간씩 눅혀지잖아. 저는 한 개에 150원 기억하거든요. 요즘이나 그렇지 당시에는 양 많게 하려고 물을 한 바가지를 넣고. 또 우리 때는 생라면을 과자 삼아서 스프는 스프대로 손에다 스프를 털어서 찍어 먹고, 시골에서는 그걸 또 스맹그릇에 타 가지고 국물을 세상에 그렇게도 먹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좀 그런데, 약간 조미료 맛에 길들여져서 그런가 봐. 엄마가 라면을 하면 식구들이 꼬불꼬불한 것만 골라서 먹어. 라면은 식구가 많으니까 국수랑 같이 끓이는 거야. 라면으로는 양이 안 되는 거야. 국수를 반 이상 넣는 거야. 그중에서 꼬불꼬불한 거 찾아 먹느라고. 국수 많이 넣어 가지고 양 이만큼 해 가지고. <김한선(가명), 여, 41세>

김영숙(여, 63세)이 제대로 라면을 먹어 본 것은 결혼 후였다. 결혼 직후에 남편과 단둘이 얼마간 산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가장 많이 먹었다. 점심에 혼자 끼니를 때



워야 할 때는 라면을 끓여 먹었다. 한창 아이들을 키우며 집안일을 할 때라 라면만 먹으면 배가 부르지 않아 밥을 말아 같이 먹었다. 라면을 끓인 것이 라면 자체를 먹기 위함이라기보다는 마땅한 국거리, 반찬거리가 없어 국 대용으로 먹은 것이다. 당시의 라면 가격은 밥 한 끼 사 먹는 것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하였다. 이때 먹었던 라면은 '삼양라면' 이었다.

그리고 라면은 인자 안 먹고 결혼해서, 결혼해서 라면을 쪼끔씩 끓여 먹었지. 보편화됐는지 어쨌든지 이제 시골이니까 (흔하게 먹지는) 못 했지 못 했지 인자. 결혼하고 나서도 라면을 인자 좀 끓여 먹었지. 둘이 사니까. 일 년 동안 둘이 살았지. 출근하고 나면 저의 집에서 주로 내가 라면을 먹었는데, 가격은 인제 잘 모르겠는데, 싸지 아무래도. 썼었지. 나는 주로 라면을 먹으면 주로 밥을 말아 먹었어. 밥하고 같이 먹어야 나는 먹은 것 같았어. 면, 라면만은 잘 안 먹었던 거 같애. 한창 애를 키우니까. 라면을 먹고 나서 밥을 국물에 말아 먹었지. 그때는 힘들지 이제 다. 주로 삼양라면이 많았지. 삼양라면, 신라면 그거는 한참 뒤에, 어느 땐가는 몰라도 어느 땐가 나오던데. 처음 기억을 하는 건 삼양라면이야. <김영숙, 여, 63세>

2) 개인의 다양한 라면 취향

라면을 끓이는 방법은 다양하다. 라면제조사에서 권장하는 조리법을 그대로 따르는가 하면 자신만의 노하우로 다양한 방식과 순서로 끓이기도 한다. 배진옥(여, 37세)이 처음 라면을 먹어 본 초등학교 6학년 때는 한창 라면에 부재료를 넣는 것이 유행할 때였다. 당시 배진옥의 기억에 따르면, 어머니 김영숙(여, 63세)은 '진라면 순한 맛' 을 선호하였다. 여기에 김치나 치즈 등 부재료를 이것저것 많이 넣어서 끓여 먹었다. 특히 치즈를 넣으면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대세”가 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처음 먹어 본 건) 초등학교 6학년 즈음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끓여 주시는 거. 엄마는 진라면을 좋아하셨어요. 맨날 진라면 순한맛 진한맛 그걸 먹었죠. 엄마가 끓여줬던 라면만. 치즈라면이 대세였죠. 치즈 넣고 끓이면 애들이 진짜 맛있다고. 라면에 뭐 넣으면 맛있더라 뭐 넣으면 맛있더라. <배진옥, 여, 37세>

배진옥은 요즘엔 라면을 잘 먹진 않는다. 그러나 남편은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먹을 정도로 라면을 좋아한다. 과거에 부재료를 많이 넣었던 것에 비해 라면을 먹을 때도 가끔 계란만 넣지 거의 “오리지날로” 먹는다.

예전에 중학교 때까지는 짬뽕으로 김치 넣고 그랬는데, 김치도 넣고 치즈도 넣고 다 넣어 봤는데, 그랬는데 아무래도 오리지날이 제일. 넣어 봤자 계란 정도. 지금은 저는 안 먹고 신랑이 주 1~2회(배진옥, 여, 37세)

조미란(여, 35세)의 가족은 다양한 라면을 선호한다. 조미란은 ‘오징어 짬뽕’을 선호하고, 자녀들은 ‘짜파게티’를 좋아한다. 자녀들이 어리지만 매운 ‘신라면’도 잘 먹는다. 조사팀이 조사를 위해 방문했던 2012년 8월 19일에도, 조미란의 남편이 전날 밤에 먹은 라면의 빈 봉지가 부엌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었다. 조미란이 라면을 끓일 때는 권장 조리법을 따르지 않는다. 물이 끓기 전부터 스프를 함께 넣었다가 물이 끓으면 라면을 넣는다. 라면을 먹을 때 사용하는 냄비도 정해져 있다. 한 그릇 분량의 작은 크기에 바닥이 얇은 스테인리스 스틸로 된 냄비이다. 예전에 양은냄비에 라면을 끓여 먹을 때는 뚜껑에 덜어 먹는 것이 맛있었다. 그러나 요즘은 뚜껑이 무겁기도 하고 공기구멍이 뚫려 있어 들고 먹기 불편하므로 그릇에 덜어 먹는다.

저는 물 바로 하고 스프랑 다, 물 바로 올릴 때 스프랑 다 넣어요. 물이 끓으면 면을 넣고 계란 넣고 터져서 딸군 다음에 그냥 저어요. 반숙 싫어해서 풀어요. 치즈 햄 이런 거 안 넣어요. 아빠는 냄비째 놓고 접시에 덜어 먹어요. 뚜껑이 요즘 구멍이 뚫려서 먹기가 불편하더라고요. 양은냄비가 거기다가 뚜껑에 먹으면 맛있는데 그거 들고 있으면 무겁고. (조미란, 여, 35세)

배한석(남, 69세)은 라면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먹어 왔던 삼양라면을 현재까지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몇 년 전부터 양파와 마늘, 파 등의 야채를 첨가하여 먹기 시작하였다. 처음 라면이 나왔을 때는 오로지 라면만 끓여 먹었지만 얼마 전부터 이것





조미란의 부엌에 보관된 라면들



조미란과 남편이 라면을 끓여 먹을 때 사용하는 냄비



배한석이 사용하는 라면냄비와 접시

저것 넣어 먹어 보니 더 맛있어서 첨가하여 먹고 있다. 라면을 끓이는 냄비는 많아야 2개 정도나 끓일 수 있는 소형 냄비였다. 집에 나무로 만든 젓가락이 있지만 평소에 쓰는 쇠젓가락을 이용해서 작은 접시를 놓고 덜어 먹는다. 주로 아내 김영숙이 부재한 상황에서 밥을 챙겨 먹기 귀찮을 때 라면을 조리해서 먹는다.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나빠하지도 않고, 필요할 때 심심하면 하나씩 먹고, 식사대용으로 먹죠. 라면 먹고 밥 좀 먹고 그런 식으로. 라면만 먹지 않고, 라면에다가는 양파라든가 마늘 이런 거 넣어 가지고, 계란도 넣고. 계란 깨뜨려야죠. (좋아하는 라면은) 삼양라면. 오래됐지. 처음에는 안 그랬고 그때는 라면만 그냥 끓여 먹었고. 요 근래라고 그럴까. 몇 년 전부터 먹을 때 양파라든가 마늘이라든가 파도 넣고. 그렇게 먹어야 맛있잖아요. 집에 아무도 없을 때. 김치 있어야지. 아무거나 관계없고 배추김치가 됐든 열무김치가 됐든 김치만 있으면 돼. 라면 먹을 때 이걸로 끓여 먹어. 두 개까지 끓일 수 있어. 젓가락은 그냥 일반 젓가락. 앞접시 이런 거 받쳐 놓고 먹으면 되는 거지. (배한석, 남, 69세)

맛있는 라면을 끓이기 위한 광재은(여, 20세)의 비법은 식초이다. 물에 식초를 붓

고 끓인 후 스프와 면을 넣는다. 그리고 불 끄기 직전에 계란을 넣고 터뜨리지 않는다. 그러면 식초가 계란을 “뽀뽀”하게 해 주고 “맛있다.”고 한다. 이러한 광재은의 비법에 언니 광성은(여, 22세)도 일부는 동의한다. 식초를 조금 넣으면 맛있지만 광재은은 “칼칼” 붓기 때문에 과하다고 눈살을 찌푸렸다. 광재은은 대부분의 라면에 식초를 넣어 먹는데 ‘너구리’ 에도 예외는 없다. 광재은이 끓이는 라면에서 주로 물과 식초의 비율은 1:1이다. 우유에도 라면을 끓여 먹는데 묘하게 치즈 맛이 난다. 우유를 넣은 라면을 끓일 때는 식초처럼 물이 끓기 전 단계부터 넣는 것이 아니라 물이 끓고 나면 붓는 방식이다. 라면을 먹을 때는 반드시 푹 익은 김치와 함께 먹는다. 광재은은 ‘스낵면’ 과 ‘비빔면’ 을 좋아한다. 특히 더운 여름에는 간편하고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비빔면’ 을 선호한다. 근래에는 ‘동지냉면’ 도 먹기 시작하였다.

앞서 언급했던 라면제조사에서 권장하는 조리법을 그대로 따르는 경우도 있다. 김현재(가명 남, 26세)는 다시마가 함께 들어있는 ‘너구리’ 를 선호하며 부재료를 전혀 넣지 않는다. 조영애(여, 45세)도 ‘신라면’ 을 선호하며 역시 부재료를 전혀 넣지 않는다. 신라면의 본연의 맛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단지 영양이나 약간의 감칠맛을 위해 계란을 넣는 정도이다. 계란 노른자를 휘저어 깨뜨리지도 않는다.

저는 너구리요.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뭐 더 넣지도 않고 많이 넣어봤자 계란 정도. 물 넣고 스프 넣고 끓여 버려요. 그다음에 물이 끓으면 면 넣고. <김현재(가명), 남, 26세>

저는 깔끔한 게 좋거든요 라면 자체로. 어쩔 수 없이 (식구들이) 좋아하니까. 그냥 톱. 안 터치고. 저는 그냥 라면 자체로 먹는 게 좋거든요. 깔끔하게. 이것저것 넣으면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해서. 그 스타일대로 먹고 싶어요. 아무것도 안 넣고. 근데 계란 안 넣어 주면 싫어해서. 옛날엔 라면 좋아했었는데 요즘은 별로 씩. <조영애, 여, 45세>

2011년 8월에는 ‘나가사키 짬뽕’ 과 ‘꼬꼬면’ 등 하얀 라면이 출시되었다.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없어서 못 판다는 소문이 돌자 라면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일부러 주문해다 먹을 정도였다. 광재은(여, 20세)도 하얀 라면





삼한이퍼트 상가 한아름마트에서 판매 중인 하얀라면들

이 처음 출시되었을 때 ‘나가사끼 짬뽕’과 ‘꼬꼬면’을 먹어 보았다. 하도 입소문이 나서 바로 먹어 보지는 못했고 조금 지난 후에야 구입할 수 있었다. 처음 먹어 본 하얀라면은 맛있었다. 하얀 라면 붐이 일었던 2011년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얀 라면에 호기심을 가졌다.

하얀 국물은 신기해서 몇 번 먹어 봤어요. <김현재 (가명), 남, 26세>

꼬꼬면, 기스면. 사기 힘들 때는 못 먹었어요. 없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먹고 싶더라고요, 어떤 맛인가. 그땐 못 먹고 좀 지나고 나서 먹었어요. <조영애, 여, 45세>

꼬꼬면이 유명하대서 먹어 봤죠. <조미란, 여, 35세>

꼬꼬면 한 달 만에 1,000만 개 돌파

지난 3월 KBS 예능프로그램인 「남자의 자격」을 통해 방송된 라면요리대회. 당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한국야쿠르트 F&B 마케팅팀 최용민 차장은 개그맨 이경규 씨가 직접 만든 ‘꼬꼬면’의 첫 국물을 맛보고는 무릎을 쳤다. 닭 육수의 담백한 첫맛과 청양고추의 칼칼한 끝맛이 기막히게 조화를 이뤘기 때문이다. 그는 순간적으로 “이거 물건 되겠는데 ……”라고 생각했다. 당시 심사위원에는 경쟁사인 농심과 삼양식품 관계자들도 참여하고 있었다. 그들도 같은 생각이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가위바위보 해서 이기는 회사가 상품화하자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다. 최 차장은 녹화 다음 날 새벽 이경규 씨에게 무작정 전화를 걸었다. 다른 회사들이 움직이기 전에 무조건 행동에 들어간 것이다. 이경규 씨는 “(상품화를) 하게 된다면 한국야쿠르트와 하겠다.”고 약속했고, 계약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꼬꼬면은 그렇게 해서 세상에 나오게 됐다.

요즘 없어서 못 판다는 꼬꼬면이 마침내 1,000만 개를 돌파했다. 7일 한국야쿠르트에 따르면 8월 2일 첫 출시된 꼬꼬면은 지난 4일 기준으로 출고량 1,000만 개를 넘어섰다. 한국야쿠르트 관계자는 “8월 한 달 동안 하루 평균 30만 개가 팔려 나

갔다.”며 “9월부터는 늘어나는 주문량 때문에 일평균 45만 개, 총 1,350만 개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세기에 가까운 우리나라 라면역사(48년)에서 꼬꼬면은 한 획을 긋는 일대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1986년 10월 출시 돼 지금도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농심 신라면 이후 25년 만에 최대 히트작이 등장한 것이다. …… 꼬꼬면 열풍에 라면업계엔 지각변동도 감지되고 있다. 농심, 삼양식품, 오투기에 이어 만년 4위였던 한국야쿠르트는 꼬꼬면 덕에 1990년 이후 처음으로 오투기를 밀어내고 3위 등극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회사 측은 봉지라면 형태의 꼬꼬면에 이어 10월엔 컵라면 형태의 꼬꼬면도 출시할 예정인데, 지금 돌풍이 이어진다면 내년엔 2위 자리도 넘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일보』, 2011년 9월 8일)

빨간 라면 vs 하얀 라면 승자는 누구?

최근 라면계에는 ‘나가사키 짬뽕’, ‘꼬꼬면’, ‘기스면’ 등 하얀 국물라면이 돌풍을 일으켰다. 온라인에선 “이제 꼬꼬면 이 대세”, “국민 라면이 하얀 국물라면으로 바뀔 것” 등의 이야기가 나왔고, “나가사키짬뽕 100배 즐기”, “꼬꼬면 맛있게 끓이는 법” 등 다양한 레시피가 소개되기도 했다.

하지만 빨간 국물라면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하얀 국물라면의 성장에도 여전히 소비자들은 빨간 국물라면을 더 많이 먹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시장조사전문기관 엠브레йн 트렌드 모니터는 최근 6개월 이내 라면을 먹어본 적이 있는 만 13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라면 소비에 관한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빨간 국물라면을 먹은 사람은 전체의 64.4%로 하얀 국물라면을 먹은 사람(32.6%)의 2배에 가까웠다. ‘향후 어떤 라면을 먹을 것인가’란 질문에서도 빨간 국물라면을 먹을 것 같다는 응답이 39.3%로 하얀 국물라면(13.2%)에 비해 높았다. 단, ‘지금보다 더 인기가 많아질 것 같은 라면’에는 하얀 국물라면(60.2%)이란 응답이 빨간 국물라면(20.1%)보다 많았다. …… (『조선일보』, 2012년 7월 10일)

3) 언제 라면을 먹는가?

조리과정이 간편한 것은 라면의 가장 큰 장점이다. 자취생들의 주식이기도 한 라면은 한때 부모님과 떨어져 살았던 김현재도 다르지 않았다. 김현재(가명, 남, 26세)의 어머니 백순자(여, 50세)는 라면을 잘 먹지 않지만 백순자가 부재중일 때는 김현재도 조리법이 간편한 라면을 즐긴다. 백순자가 집에 라면을 사 두지 않기 때문에 먹을 만큼만 김현재가 직접 필요한 때에 구입하는 식이다. 백순자와 함께 장을 보러 갈 때에도 백순자가 거의 모르게 구입하려고 노력한다. 지금은 집에서 통학을 하고 있지만 “거의 스무 살 넘어서는 집에 산 것보다 혼자 산 게 더 많”기 때문

에 거의 매일 라면을 먹다시피 했다. 친구들과 함께 자취생활을 했기 때문에 집에서보다 더 자주 먹긴 했다. 하지만 라면은 김현재에게 그저 간식이었다.

제가 작년까지는 밖에 살았거든요. 연구실에서도 일해 가지구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거의 밤에 열두 시까지는 학교에 있고 그래서. 그때도 라면은 그냥 간식으로 먹었구요. 라면은 거의 매일 먹을 때도 있었어요. 간식으로. 컵라면보단 봉지라면. 혼자 산 게, 오래 혼자 살아서요. 친구들과하고 자취를 하면 밥을 하는 동안에 시간이 걸리잖아요. 배가고파요. 그럼 라면을 끓여 먹어요. 셋이서 라면을 한 다섯 개 끓여 먹어요. 끓여 먹고 밥이 다 되면 밥상 차려서 또 밥 먹어요. 제가 집에 왔는데 어머니가 안 계시거나 혼자 있으면 끓여 먹죠. 어머니가 안 사다 놔도 제가 알아서 사 온 다음에 끓여 먹죠. 장 보러 가잖아요. 엄마 몰래 카트에 담아 놓는 거예요. 집에 와서 제가 알아서 갖다 넣어 놓고서 알아서 먹죠. <김현재(가명), 남, 26세>

조영애(여, 45세)의 아들에게 라면은 “살찔 수 있는 음식”이었다. 체질적으로 마른 체형이라 살을 찌우고 싶었는데 가장 쉽게 살이 찔 수 있는 방법이 “야식으로 라면 먹고 자는 것”이었다. 한창 노력할 때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자기 전에 치즈와 계란 등을 잔뜩 넣고 한 개씩 끓여 먹었다. 조영애는 딱히 건강에 나쁘다는 이유로 라면을 못 먹게 하지는 않는다. 다만 식구들이 다 같이 라면을 끓여 먹을 일이 없기 때문에 자주 못 먹는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인 자녀들은 매번 학원이나 독서실에 갔다가 늦게 귀가하고 남편도 밖에서 주로 식사를 해결하고 들어오기 때문이다. 주말에 어찌다 모이게 되어도 외식을 하는 편이지 라면을 끓여 먹게 되지는 않는다. 여러 개를 구비해 놓지도 않고 장 볼 때 식구 수 정도로만 라면을 사 두었다가 소비되면 다시 사 오는 방식이다.

라면은 어찌다 한 번씩. 좋아하긴 하는데. 우리 아들이 살이 없잖아요. 찢려고 지가 혼자 끓여 먹긴 했어요. 살찌려고. 혼자 학교 끝나고 와서도 저녁 먹고 왔어도 라면 끓여 먹었어요. 계란이나 치즈도 넣고. <조영애, 여, 45세>



삼환아파트 상가 한아름마트의 라면코너

배진옥(여, 37세)이 대학교를 다닐 때는 MT 갈 때 라면을 많이 사 가지고 갔다. 밤새 술을 마신 다음 날이면 누군가가 끓여 주는 라면으로 해장을 하곤 했다. 또한 배진옥은 오랜 시간 혼자 자취생활을 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라면을 먹었다. 여전히 혼자 있을 때 주로 라면을 먹는다. 원래 '신라면'이 입맛에 맞지만 배는 고프지 않은데 밥이 약간 남았을 때는 '스넥면'을 끓여 먹는다. 배진옥에게 '스넥면'은 양이 적어서 밥과 함께 먹기 적절하다.



조영애가 선호하는 신라면

(MT 가서) 다음 날 아침, 술 마신 다음 날 아침, 애들이 끓여 주면, 저는 아침잠이 많으니





정서연의 라면을 끓이는 이지숙



거실의 작은 상에 차려 둔 라면 차림상

까 누군가가 끓여 주는 거 먹고, 제가 끓이는 건 아니고, 혼자 있을 때 많이 먹었죠. 일주일에 한두 번은 먹었던 것 같아요. 신라면, 스낵면. 배는 많이 안 고프는데 먹고 싶을 때, 아니면 밥이 좀 남았는데 말아 먹어야 할 때, 신라면은 양이 좀 많고 스낵면은 딱 말아 먹을 수도 있고, 혼자 있으니까. <배진옥, 여, 37세>

이지숙(가명, 여, 53세)은 일주일에 적어도 서너 번은 라면을 끓인다. 집안 식구들이 모두 외출했을 때 혼자 끼니를 때울 때도 먹고, 라면을 좋아하는 식구들의 점심 식사 대용으로도 끓인다. 딸 정서연(가명, 여, 25세)은 다양한 라면을 즐긴다. 치즈를 넣고 끓일 때는 면발이 가는 ‘스낵면’을 끓이고, 짜장면이 먹고 싶을 때는 ‘짜파게티’, 김치와 고춧가루를 넣어 끓일 때는 ‘진라면 매운맛’, 여름에는 오이 등 부재료를 넣은 ‘비빔면’을 선호한다. 새로운 라면이 나오면 자주 사서 먹어 보기도 한다. 인터넷에서 ‘짜파게티’와 ‘너구리’를 섞어 만든 ‘짜파구리’의 레시피를 보았을 때는 따라해 보기도 했다. 매체를 통해 접한 라면 끓이는 비법을 자주 따라 하기도 한다. 다양한 라면을 선호하다 보니 외출을 하지 않는 날 점심 메뉴는 주로 라면일 때가 많다. 대부분의 라면에는 계란을 넣는데, 노른자를 터뜨리지 않고 흰자만 풀어 끓인다. 반숙된 노른자를 가장 먼저 건져 먹는다. 라면을 끓일 때 사용하는 한 그릇용 냄비가 정해져 있으며, 다른 그릇에 덜어 먹기보다는 냄비째 놓고 먹는 것을 선

호한다. 식탁에서 먹기보다는 거실에 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면서 작은 상에 두고 먹는다. 라면을 먹을 때는 평소 식사할 때 사용하는 쇠젓가락 대신 나무젓가락을 사용한다. 쇠젓가락은 라면을 건지는 동안 함께 뜨거워져서 불편하기 때문이다.

라면스프를 제외한 면발만 가지고 요리에 넣어 먹기도 한다. 조미란(여, 35세)은 부대찌개를 끓일 때 라면을 추가로 넣어 먹는다. ‘신라면’을 좋아하지만 스프를 제외하고 면만 넣기에는 아무래도 아까워 찌개에 넣는 라면으로는 저렴하고 면발이 가늘어 금방 익는 ‘스낵면’이나 ‘라면사리’만 따로 파는 제품을 별도로 구입한다.



삼환아파트 상가 한아름마트의 컵라면 코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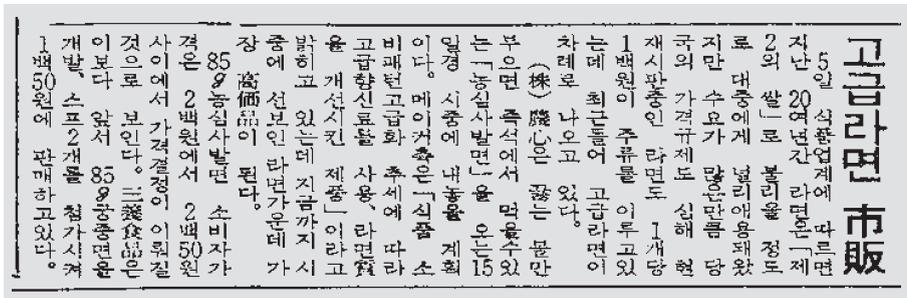
라면사리요, 부대찌개에. 그라면은 또 따로 스낵면을 사 가지고 부서 먹거나 거기다 넣어 먹거나. 신라면을 넣는 건 좀 아까워서. 삼양라면에서 나온 그런 거. <조미란, 여, 35세>

4) 편의점 간편식품 컵라면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라면을 가장 먼저 들여온 업체가 삼양식품이라면, 최초의 컵라면은 농심에서 보급하였다. 1981년의 일이다. 인스턴트식품의 장점을 더욱 부각시킨 컵라면은 조리도 설거지도 필요 없고 뜨거운 물만 부으면 바로 먹을 수 있는 패스트푸드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곽재은(여, 20세)은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자주 사다 먹었다. 주로 고등학교 때였다. 학원 쉬는 시간이나 간단하게 저녁을 해결할 때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구입하여 먹었다. 컵라면을 먹는 장소는 주로 야외이거나 집 밖이므로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을 때처럼 편리한 상황이 아닐 경우가 많다. 뜨거운 라면을 덜어서 식히기 위해 컵라면의 뚜껑을 벗겨 내어 반씩 두 번 접어 부채꼴 모양을 만든다. 간단한 임시 그릇





「고급라면 시판」(『매일경제』, 1981년 10월 5일)

이 되는 셈이다. 여기에 컵라면을 덜어 식혀 먹는다.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을 때는 라면만 먹지 않는다. 편의점에서 파는 주먹밥의 일종인 다양한 메뉴의 ‘삼각김밥’을 함께 구입하여 먹는다. ‘삼각김밥’은 한주먹 정도의 밥을 다양한 양념과 함께 김으로 싸 제품인데, 컵라면만으로는 허전한 여고생의 속을 든든하게 해주었다.

배진옥(여, 37세)은 중·고등학교 때 컵라면을 자주 먹었다. 도시락을 싸 가지고 다니며 저녁 끼니는 해결했지만 한창 나이에 학교가 끝나고 독서실에 가면 이미 소화된 후였다. 9시쯤 되면 졸리기도 하고 슬슬 출출해지기 시작한다. 이때 컵라면을 사다 먹었다. ‘튀김우동’이 한창 인기가 좋아서 배진옥의 친구들은 ‘튀김우동’을 많이 먹었다. 라면에서 우동 맛을 느낄 수 있었고 건더기로 튀김 몇 조각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좋아하는 컵라면에 꼬마김치도 사서 함께 먹으면 야식으로 더할 나위 없었다.

고등학교 2학년, 1~2학년 때 쯤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학교 끝나고 뭐 독서실 가거나 그럴 때, 출출하잖아요. 출출할 때, 밥 대신으로 먹을 때도 있고 도시락을 거의 싸 가지고 다니니까 도시락을 먹고 그다음에 출출할 때 한 아홉 시쯤? 그럴 때 나가서, 졸리기도 하고, 김치 하나 먹고, 튀김우동, 팔도 도시락인가 네모난 거, 저는 그게 좋아해서 친구들은 튀김우동 많이 먹고, 그땐 삼각김밥이 없었죠. 라면 하나에 꼬마김치 하나 먹고, 고등학교 때 내내 먹었던 거 같아요. (배진옥, 여, 37세)



컵라면과 꼬마김치, 삼각김밥



컵라면 뚜껑을 부채꼴 모양으로 접어서 먹는 모습

조미란(여, 35세)의 쌍둥이 자녀 송민경(여, 10세), 송민승(남, 10세)은 '짜장범벅'을 즐겨 먹는다. 맛별이를 하는 엄마 조미란이 집에 없으면 밥을 챙겨 먹을 정도로 의젓한 쌍둥이는 직접 컵라면을 조리해서 먹을 줄 안다. 사교성이 좋아 친구들을 집에 자주 데려오는 쌍둥이들이 사 놓은 라면을 모두 먹어 버리는 경우가 많아 집에 라면을 많이 사다 놓지 않는다. 쌍둥이는 용돈을 모아 라면을 먹고 싶을 때마다 사다가 조리하여 먹는다.



가장 작은 사이즈의 짜장컵라면

짜장범벅 있잖아요. 지들끼리도 해 먹어요. 밥 먹기 싫다고 그럴 때. 밥 먹고 또 간식으로 출출할 때. 애들이 커피포트 거기다가 물 넣어 가지고 놀러 가지고 끓으면 거기다가 선만 큼 물 부어 가지고 먹어요. 먹고 싶을 때는 슈퍼 가서 자기네들이 용돈으로 고때고때 사

다 먹죠. 제가 많이 사다 놓으면 애들 다 불러다가 하루에 다 끝내 버려요. 많이 못 사다 봐요. 우리 집 가자. 라면 있어 과자 있어. 음료수도 한 병 사다 놓으면 친구들 데려와서 다 먹고.〈조미란, 여, 35세〉

5) 부수어 먹는 생라면과 라면으로 만든 과자

라면이 귀했을 시절, 집에서 몰래 훔쳐 먹을 때는 끓여 먹을 여유가 없어 생라면을 부수어 먹는 경우가 많았다. 김혜경(여, 53세)은 라면이 귀할 때, 몰래 라면을 꺼내어 익히지 않은 생라면을 부수어 스프를 뿌려 먹기도 했다. 라면을 끓일 때 나온 부스러기를 모아서 생각날 때마다 간식으로 먹기도 했다.

옛날 라면은 지금보다 더 컸어요. 뚱뚱하고, 끓이기 전에 이거를 통째로 넣으면 이상해. 이걸 꼭 사등분을 해 가지고 부시래기는 다시 담아. 그래 가지고 생각나면 다시 꺼내서 간식으로 먹는 거야.〈김혜경, 여, 53세〉

김영숙(여, 63세)은 중학교 다닐 즈음에 처음 라면을 먹어 보았다. 그때는 끓여 먹는 것이 아니라 생라면을 과자처럼 부수어 먹었다.

그때 라면은 내가 맛을 처음 봤어. 열여섯 열다섯 살 그랬겠지. 끓여 먹도 안 하고 과자처럼 뽀개서 먹더라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라면이야, 그게. 그래서 내가 아저씨 줌, 조금씩, 하나도 통째로 먹은 것도 아니고 조금씩. 그러게 한 몇 번. 스프도 안 찍고 그냥. 그때 그래 줌.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라면이야.〈김영숙, 여, 63세〉

김영숙이 어릴 때, 집안일을 돕던 일꾼이 있었다. 집안일을 돕던 일꾼이 새참으로 라면을 얻은 일이 있었는데 이것을 김영숙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때 김영숙은 라면을 처음 먹어 보았다. 일꾼이 일하던 중이라 제대로 조리할 수가 없었고 급한 대로 생라면을 부수어 스프를 뿌려 먹었다. 바삭하고 고소한 생라면 면발에 짹짹하고 매콤한 간이 배어 있는 맛이 인상적이었다.

그때는 미스 때. 그게 내가 언제 그걸 먹어 봤냐면은 내가 중학교 다닐 즈음인가 지나선 가는 모르겠는데. 인제 우리 집에서 일꾼을 옛날 머슴살이라고 그라제잉. 머슴 사는 사람이, 우리 집에서 머슴을 데리고 살았는데, 우리 집은 좀 깊은 산속이고 산중이라고 그라지, 시골말로. 자기 친척이 자기 일일이 민방위훈련이라 그럴까, 옛날에 그 시골에 민방위훈련이라고 그러나 보초를 스러 와야 하는데, 우리 일꾼 사는 사람보고 보초를 서달라고 해 가지고 그때 라면을 준 것 같애. 보초 쓴 사람을. 그때 우리 집 일꾼 산 사람이 그거를 말하자면 보초를 쓴 대신 그거를 타 먹었나 봐. 그거를 간식으로 자꾸 먹드라고. 궁계나도 쪼끔씩 얻어 먹었지.<김영숙, 여, 63세>

김영숙이 열아홉 살 때는 라면을 튀긴 과자 '라면땅' 을 처음으로 먹어 보았다. 별사탕도 들어 있었고 심심풀이로 먹기 좋은 간식이었다.

그리고 인제 라면땅이라는 게 나왔지. 라면땅이라는 건 우리가 한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살쯤. 그때쯤 라면땅이라는 게 나왔던 거 같애. 그전부터 나왔겠지. 근데 내가 먹어 본 기억이라는 건. 라면땅이라는 게 나왔지. 튀겨 가지고 맞아 맞아. 별사탕 들었지. 한 봉지씩 쪼끄맏게. 가격은 모르겠어.<김영숙, 여, 63세>

조미란(여, 35세)은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라면을 먹어 보았다. 조미란이 어릴 때는 외부음식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끼니로 음식을 사 먹는 일이 드물어 라면을 자주 먹지는 못하였다. 끓여 먹기보다는 간식거리로 부수어 먹는 경우가 훨씬 잦았다. 라면을 사다가 끓이지 않고 생라면을 부수어서 스프를 뿌려 먹는 일은 비밀비재하였다.

고등학교 때. 흔하게 먹지는 못한 거 같아요. 라면에 대해서 거기 시골이라 저희는 뭐 사 먹는 음식은 거의 안 먹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라면을 그렇게 자주 먹거나 그렇지는 않았어요. 부서도 먹고. 부서 먹는 게 더 맛있었던 거 같애. 부서서 많이 먹었어요. 끓여 먹는 거보다 그게 더.<조미란, 여, 35세>

배진옥(여, 37세)은 중· 고등학교 때는 끓여 먹기보다 저녁에 출출하면 생라면에



삼환아파트 상가 한아름마트에서 판매하는 라면과자 '뿌서뿌서'

스프를 뿌려 먹는 것을 즐겼다. 그러다가 '뿌서뿌서' 라는 과자가 출시되었다. 라면 모양의 과자에 떡볶이맛, 바비큐맛 등 다양한 맛을 내는 가루를 뿌려 흔들어 먹는 방식이었다.

동생이 좋아했어요. 그냥 개가 좋아하니까 먹어 보라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별로였던 것 같아요. 생라면은 많이 먹었죠. 이상하게 생라면

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 생라면은 많이, 스프 이렇게 뿌려서 먹으면 맛있으니까. 뿌서뿌서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좀 늦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 친구들이 서로 이렇게 먹지 제가 좋아해서 계속 먹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신기한 한데. 떡볶이 맛도 있고. 떡볶이 맛 먹고. <배진옥, 여, 37세>

곽윤택(남, 51세)에게 라면은 간식이다. 특이한 것은 끓여 먹는 것이 아니라 '구워 먹는' 것이다. 먼저 생라면에 스프를 적절히 친다.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면 바삭바삭해진다. 이때 사용하는 라면에는 '스낵면' 이 적절하다. 면발이 얇아서 특히 바삭바삭하기 때문이다. 낮이나 밤이나 입이 심심하고 배가 출출할 때는 간편하게 조리해서 먹는다. 생라면을 먹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과자처럼 조리를 해서 먹게 된 것이다. 이처럼 삼환아파트 주민들은 각자의 스타일대로 다양한 방식으로 라면을 선택하고 조리하여 먹는다.

3. 핸드폰

손에 들고 다니는 전화여서 '핸드폰' 이라는 이름이 붙은 휴대용 전화기는 오늘

날 매우 유용한 매체이다. 처음 들고 다니는 전화기가 나왔을 때의 신비로움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발전하여 혁신적인 기능이 탑재된 신기종이 출시된다.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른 자신만의 스타일의 핸드폰을 구입하고 꾸미고 사용한다. 더 이상 핸드폰은 단순한 통신매체가 아니다. 핸드폰을 사용하는 사람끼리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고 개인의 여가생활을 풍요롭게 해 주는 물건이다.

1) 핸드폰이 없던 시절

1882년 3월, 김윤식이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전화기의 실물을 들여왔다. 그리고 1896년 8월 23일, 서울과 인천 간의 최초의 전화가 개통되었다. 공중의 관리하에 사용되다가 시대적 상황과 맞물리면서 사용과 중단을 거듭하였다.⁶

1902년 3월, 한성과 인천을 잇는 공무용 전화가 개설되었고 1908년에 ‘전화국 창구통화제도’가 시행되면서 일반인들이 직접 전화국에 가서 전화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다가 1930년 서울 시내에 ‘공중전화소’가 생겼고 1954년 국내 최초의 ‘흑색 탁상용 공중전화기’가 등장하였다. 현재 사용 중인 옥외 공중전화는 1962년 처음 등장하여 꾸준히 발전해 왔다.⁷

가정용 전화기는 1902년 6월부터 개설하여 사용할 수 있었다. 수화기를 들면 전화교환원이 나오고 원하는 곳을 말하면 연결해 주는 식이었다. 초기에는 외국인과 특권층만 사용하던 전화기는 1960년대에 들어 점차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 후반 전화기가 가정의 필수품이 되었음을 알리는 신문기사(「가정의 필수품화 80%는 국내생산」, 『매일경제신문』, 1968년 7월 22일)

최현주(여, 39세)가 어릴 때는 주변에 가정용 전화기가 흔치 않았다. 최현주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인 1970년대 후반에, 집에는 ‘까만 전화기’가 있었다. 버튼이 없고 몸체와 수화기만 있는 전화기였다. 수화기를 들고 전화교환원이 연결되면 교환원이 착신지에 연결해 주는 방식이었다.

저희 집엔 전화기도 있었어요. 새카만 거. 막 돌리고 어디 바꿔 주세요 하는 거. 누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돌리는 거. 그리고 나서 다이얼이 나왔어요. 저희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돌리는 거였어요. 번호가 없어요. 그냥 까맣고 수화기만 있고 막 돌리면요 그쪽에서 교환원이 나와요. 어디 대 드릴까요 그럼 어디 대 달라고. 거기서 연결이 되면 통화를 하고, 근데 전화를 함부로 쓸 수가 없어서. 그냥 관상용이었죠. 집에서 쓰는 건데 전화기 쓰면 요금 나온다고. 아버지가 아시는 분이 아버지가 거기서 출장을 자주 다니셨어요. 일본으로 출장 갔다가 가지고 오셨는데 쓰면 안 된다고 하셔서 저희는 그냥 쳐다보는 정도. 전화를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서. 저는 집에서 전화를 하는 거 받는 거를 전혀 집에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최현주, 여, 39세>

집에 전화기가 있었지만 최현주는 거의 사용하지 못하였다. 사용하는 것을 목격한 적도 없을 만큼 전화기를 사용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기회가 되어 전화기를 집에 구비해 두긴 하였지만 전화요금이 아까워 실용화되지는 못한 셈이었다. 그러

다가 최현주가 고등학생이 되었던 1980년대 후반에 분홍색 버튼식 전화기가 등장하였다. 각 전화기마다 전화번호가 부여되어 교환원을 거치지 않아도 되었다. 그때부터 최현주는 전화기를 사용하여 전화를 할 수 있었다.



분홍색 버튼식 전화기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인

제 정말 전화기가 나온 거예요. 누르는 전화기. 그때부터는 누르는 전화가 나오면서 그때는 전화가 집에 전화가 하기 시작했죠. 한참 됐어요. 저는 요거부터 다 봤죠. <최현주, 여, 39세>

유선전화 우리 집에 있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있었던 거 같아요. 까만색. 돌려서 거는 것. 돌려서 하는 거였어요. 바로 걸리는 거. <조미란, 여, 35세>

2) 최초의 전자식 이동통신 '삐삐'

유선전화기가 현재의 핸드폰으로 발전하기까지 그 사이에 '삐삐'가 있었다. 이동통신의 시초는 1910년 대한제국 정부에서 인천 월미도 무선 전신소와 선박 사이에 항로 표지의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었다.⁸ '삐삐'는 휴대하기 쉽도록 작게 만든 휴대형 수신기에 개별 가입자 전화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발신자는 전화로 삐삐 번호를 다이얼링해서 호출을 하거나 숫자를 전송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삐삐의 무선폭출 서비스를 시작한 것은 1982년 12월 15일부터였다. 한국전기통신공사(현 KT)에서 서울 시내를 중심으로 무선폭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⁹ 처음의 무선폭출 서비스는 일정한 신호음만 송출하는 신호음 방식이었지만 신호음이나 진동으로 호출인의 전화번호나 특정한 정보메시지를 알려주는 전화번호 표시방식으로 전환되었다.¹⁰

김한선(가명, 여, 41세)은 스무 살에 삐삐를 처음 사용해 보았다. 초기의 삐삐는 숫자만 전송받을 수 있었으므로 발신자는 자신이 하고 싶은 메시지를 숫자로 표현해야만 했다.

조그맣게 차고 다니는 거 그거, 보행할 때 만보기 그거처럼 생겼어요. 근데 그제 삐삐 소리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삐삐 소리가 나서, 진동도 있어 가지고. 상대방에서 나한테



과거에 사용하던 삐삐



tN 드라마 「응답하라 1997」 제3화 중 삐삐장면

전화를 주라고, 내 삐삐번호가 있잖아요. 내가 남기고 싶은 번호를, 서로 연락은 안 되잖아. 번호를 남겨야 해. 내가 어딴다는 번호를. 근데 삐삐로 많은 말들을 하는 거지. 내가 지금 싸우고 헤어졌어. 그래서 미안하면 사오사오(4545)를 치는 거고, 사랑하오 사랑하오. 애인인 경우에는 그렇게 사오사오 치는 거고, 진짜 미운 거면 일팔일팔(1818) 치는 거지. 그런 식의. 땡칠이냐? 하고 싶으면

땡칠이오(0725) 이렇게. 상대방에서 전화 올 때까지 한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하는 거야. 자리를 움직이면 안됐는데, 일로 전화가 오기로 했으니까. 여기 번호를 남겼으니까 여기 있어야지. 예를 들면 다방에 있으면 다방 번호를 남겨 두면,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여. 디제이들이 몇 번 호출하신 분, 이거 호출하신 분 하면 가서 받고. <김한선(가명), 여, 41세>

배진옥(여, 37세)이 스무 살이 되던 1996년, 숫자를 전송하는 삐삐를 처음 구입하였다. 요즘은 만원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저렴하였다. 전송하는 메시지의 개수는 중요하지 않았고 유지비만 내면 되는 방식이었다. 모토로라가 좋다는 소문을 듣고 구입하여 2~3년간 사용하였다. 배진옥에 따르면, 당시 자우림의 「171717771」이라는 노래가 유행했다. 암호와 같은 노래제목의 뜻은 '사랑해'였다. 삐삐에 17171771이라고 쳐서 보내어 뒤집어 읽으면 'I LOV U(I love you)'가 되는 데서 착안하여 노래 제목을 붙인 것이다. 이처럼 당시 숫자로만 메시지를 전해야 하니 다양한 암호들이 유행하였다.

대학교 때, 96년도에. 다들 갖고 있었으니까. 모토롤라. 모토로라가 좋았어요. SK였던가 뭐 그런 게 있었어요. 무슨 이동통신. 사용은 전화번호가 찍혀요. 그러면 031 뭐 이렇게 어디서 그 사람이 나한테 연락을 원하는 거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 주면 돼요. 문자메세지 같은 거죠. 근데 숫자로만 보내는 거죠. 사랑해 알러뷰 뭐 이런 것도 숫자로. 이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자우림 노래 177 어찌고 뭐 그게 거꾸로 하면 알러뷰 이렇게 숫



시티폰을 개통한 사람들(『시티폰 잘 나갑니다』, 『한겨레』, 1997년 4월 22일)

자가 된다고. 거꾸로 하면 알리뷰 이게 돼요. 이렇게 거꾸로 보면, 졸업할 때까지 2~3년 쓴 것 같아요. 그 후로 씨티폰 쓰고 그리고 휴대폰으로 넘어갔죠. (배진옥, 여, 37세)

요금이 만 얼마 정도고 굉장히 저렴했어요. 그냥 그 유지비만 내고, 만 원이 좀 안 됐다가 문자가 좀 많이 와도 내가 내는 건 없고 수신은 언제든지 내가 인제 보고 확인해서 당장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하고 연락을 하는 거니까. 기기 값은 팔만 원 정도 했던 거 같아요. 오만 원에서 팔만 원이죠. (배진옥, 여, 37세)

3) 발신전용 휴대전화 ‘시티폰’ 과 인터넷 폰, 최초의 핸드폰

‘삐삐’ 이후에는 ‘시티폰’ 이 있었다. 본격적인 양방향 휴대전화가 등장하기 전, 발신전용 휴대전화 CT-2(the second generation cordless telephone)가 출시되어 CT-2 또는 시티폰서비스라 했다. 서비스 반경이 100~150m 내외였으므로 기지국 내에 서만 발신전용 CT-2 무선단말기의 사용이 가능하였다.¹⁾ 1995년 시범운행을 시작으로 1996년부터 상용화되었다가 1997년 10월 1일부터 PCS(개인휴대통신)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시티폰 사용량이 감소하였다.

배진옥(여, 37세)은 시티폰을 사용한 적은 없으나 친구들이 사용하는 걸 본 적이 있다. 단말기를 들고 다니다가 CT-2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지국인 “전화박스” 옆에





곽윤택의 삼성 핸드폰 SCH-100S

만 가면 “터지는” 형식이었다. 통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한정적이었던 셈이다. 핸드폰처럼 생겼지만 착신은 불가능하고 발신만 가능하였다. 배진옥에 따르면, 당시 100여 명이 함께 수업을 듣는 대학교의 한 반에 2명 정도만 시티폰을 가지고 있었다. 배진옥이 기억하기로는 100만 원을 호가했다고 하는데, 흔하지 않은 ‘비싼’ 기기였던 셈이다.

시티폰은 전화박스 옆에서 터지는 전화기예요. 그니까 공간은 굉장히 한정적이던데 공중전화박스를 사람들을 기다리지 않고 내가 편할 때 쓸 수 있다는 거 그게 장점이예요. 지금 휴대폰같이 생겼는데 아무데서나 터지지 않고 차 타고 다니면서 터지지 않고 공중전화박스 근처에서만. 발신만 됐던 거 같아요. 그 당시에는 뽀뽀만 있었는데 좀 있는 집 애들이 저회 반에서 한 명이 있었거든요. 있는 집 애들이 쓰던 게 시티폰이고, 좀 쓰다가 휴대폰으로 넘어갔었으니까. 저는 휴대폰으로 넘어갔죠. 굉장히 비쌌죠. (배진옥, 여, 37세)

시티폰 살까, 휴대폰 살까 PCS는 또 어떨까

PCS 10월 본격서비스 대비 가입자 성실 3회선만
난입기 가격의 1/2 이하
가을 지나 구입하면 유리

통신사업이 도입된 지 얼마 안 되어도 벌써, 기존의 전화망에 비해 월등히 빠른 속도, 저렴한 서비스요금(중국이 1000원 이하인 반면 우리나라는 2000원 이상)을 자랑하고 있는 PCS는, 인터넷, 디지털 방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3세대 통신의 선두주자로, 인터넷, 디지털 방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3세대 통신의 선두주자로, 인터넷, 디지털 방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3세대 통신의 선두주자로...

도, 수송을 위한 배후망과 연결망이 구축되어 있는 PCS는, 기존의 전화망에 비해 월등히 빠른 속도, 저렴한 서비스요금(중국이 1000원 이하인 반면 우리나라는 2000원 이상)을 자랑하고 있는 PCS는, 인터넷, 디지털 방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3세대 통신의 선두주자로, 인터넷, 디지털 방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3세대 통신의 선두주자로...

통신사업이 도입된 지 얼마 안 되어도 벌써, 기존의 전화망에 비해 월등히 빠른 속도, 저렴한 서비스요금(중국이 1000원 이하인 반면 우리나라는 2000원 이상)을 자랑하고 있는 PCS는, 인터넷, 디지털 방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3세대 통신의 선두주자로, 인터넷, 디지털 방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3세대 통신의 선두주자로...

「시티폰 살까, 휴대폰 살까, PCS는 또 어떨까,」(「한겨레」, 1997년 4월 22일)

곽윤택(남, 51세)은 SCH-100S 기종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에서 만든 최초의 핸드폰으로 1996년 11월에 출시된 기종이다. 아직 뽀뽀와 시티폰이 혼재되어 있을 시기였다. 휴대폰이 처음 출시되어 가격이 만만치 않았다. 곽윤택은 근무하던 회사에서 기회가 되어 최초의 핸드폰을 마련할 수 있었다.

초창기에, 저게 언제지. 90년대 초쯤 될 것 같은데. 그 당시에 핸드폰 가입하면서 (산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게 가입할 때는, 그 당시에 좋았던, 아마도 그때는 제일 좋았던 가장 좋았던 (기종이었어요.) 약정 그런 거 없었을 거예요. <곽윤택, 남, 51세>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97」 제11화 중 플립형 핸드폰으로 통화하는 장면(씨제이이엔엠 제공)

백순자(여, 50세)는 과거에 대기업에 다니던 남편이 회사에서 받아온 구형 핸드폰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 애니콜에서 출시한 SPH-M1000 모델로, 삼성전자에서 출시한 최초의 인터넷폰이었다. 1999년 11월에 출시된 기종으로 플립형이었지만 키패드가 없었다. 대신 흑백 액정에 번호판이 뜨면 핸드폰 고리에 끼워져 있는 터치펜으로 자판을 입력한다. 플립을 닫은 제품의 전면에는 'SAM-SUNG Anycall' 이라는 브랜드명과 함께 'wide touch internet phone' 이라고 새겨져 있다. 1999년에 한솔PCS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018전용핸드폰으로 출시된 기종으로 터치스크린을 보유하고 있다. 펜 입력으로 음성전화의 기본기능과 간단한 개인정보관리가 가능했고 인터넷망을 이용한 데이터 전송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¹²⁾



백순자 남편의 삼성 인터넷폰 SPH-M1000





배진옥의 아이폰

핸드폰고리를 끼운 흔적이 남아 있는 조미란의 핑크색 레이저폰

4) 다양한 핸드폰 _ 폴더와 슬라이드, 터치폰

배진옥(여, 37세)은 1999년에 처음으로 핸드폰을 갖게 되었다. PC통신을 하던 중 경품에 당첨되었는데 그것이 LG전자의 플립형 핸드폰이었다. 배진옥의 지인들을 보았을 때, 핸드폰과 뽀뽀를 소지한 사람의 비율은 1대 1이었다고 한다. 배진옥은 2-3년 후에 모토로라의 제품으로 교체하였고 사용하던 LG전자의 핸드폰은 어머니 김영숙(여, 63세)에게 증여하였다. 모토로라 플립 핸드폰 이후, 2003년에 스카이 슬라이드폰을 구입하였다. 그 후 삼성 애니콜 핸드폰을 한 번 더 거쳐 2011년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을 구입하였다.

LG 플립, 손바닥만 했던거 같아요. 굉장히 두꺼웠어요. 저는 경품으로 받아서 그걸 쓴 거지. 뭘 했는데 어디에 당첨이 돼서. 인터넷으로 뭘갈 했던 거 같아요. 피씨통신. 그때 피씨통신을 했거든요. 그 답에 모토로라. 공짜로 다 됐죠. 98년 99년? 저희가 경품으로 받았던 거라 돈 주고 사려면 좀 비쌌는데, 오십 대 오십? 뽀뽀랑?한 그 정도 됐던 거 같아요. 약정이 있었던 거 같아요. 이삼 년 뒤에 바꿨어요. 모토로라도 플립인데 전 꺼는 뚜껑에 번호가 있었고 이거는 액정 바로 아래에 번호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스카이 슬라이드 쓰다가 중간에 삼성 애니콜 또 썼죠. 애니콜 좀 쓰다가 최근에 아이폰으로 바꾸고. <배진옥, 여, 37세>

조미란(여, 35세)은 4년 전 폴더형의 핑크색 레이저폰을 사용하였다. 이 핸드폰에는 스티커도 붙이고 커다란 인형을 핸드폰 고리로 달기도 했다. 한창 핸드폰 고리를 열심히 달 때는 핸드폰보다 인형이 더 클 때도 있었다. 핸드폰 고리는 회전이 빠른 소모품이었다. 마음에 드는 핸드폰 고리를 사서 끼우면 기존의 핸드폰 고리는 아쉬움 없이 처분하였다. 길게 달아 두지 않고 역시 금세 질리면 다른 핸드폰 고리

로 교체하는 식이었다. 현재는 2012년에 구입한 갤럭시 노트를 사용하고 있다.

곽재은(여, 20세)이 처음 핸드폰을 사용한 것은 중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였다. 중학교에 입학하면 핸드폰을 사 주겠다는 부모님의 약속 덕분이었다. 곽재은의 첫 핸드폰은 삼성애니콜의 SCH-V410 기종으로 언니 광성은이 사용



2012년에 구입한 조미란의 갤럭시 노트

하던 파란색 핸드폰이었다. 동영상 2시간이 재생된다고 세븐이 광고해서 '세븐폰' 이라고 불렸다. 중학교에 입학한 곽재은이 핸드폰을 사러 갔지만, 마음에 드는 기종이 고가라 아버지가 사 주지 않았다. 곽재은은 이왕 갖고 싶은 기종을 구입하지 못할 바에야, 언니의 핸드폰을 물려받고 싶어했다. 언니가 먼저 구입했으니 좋아 보였던데다가 익숙했기 때문이었다. 대신 언니 광성은은 주황색 방수폰을 새로 구입하였다. 아버지는 저렴한 핸드폰을 사 줄 수 있었고, 언니는 새 핸드폰을 마련할 수 있었고, 곽재은은 중고일지라도 마음에 드는 핸드폰을 구입할 수 있었으니 모두가 행복한 결말이었다고 한다.

(처음 쓴 핸드폰이) 그거 삼성 거였는데 언니가 쓰던 거였거든요 애니콜. 애니콜 동영상 두 시간 촬영된다고 한창 그 세븐 나와서 광고했던 거였나. 하늘색 은색인데, 앞이 이렇게 파란색이고, 중 1때 (받았어요) 원래 막 중학교 들어가면 핸드폰 막 사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때 핸드폰을 사러 갔는데 제가 사고 싶은 건 너무 비싼 거예요. 디카처럼 생긴 폰이었는데. 그거 갖고 싶었는데 그게 너무 비싸고, 아빠가 막 방수폰도 막 나올 때였거든요. 야 그럼 방수폰 이거 십이만 원이라고, 싸다고 사라고. 너무 투박하게 생긴 거예요. 그거 사기 싫은데. 자꾸 그거 사라 그래서. 언니도 있었거든요. 난 차라리 내가 살 거 못 살 바에, 제가 언니 핸드폰 되게 좋아했던 말이에요. 왜냐면 맨날 옆에서 쓰고 익숙





오미환이 사용했던
삼성 애니콜 슬라이드폰

하니까. 그래서 내가 익숙하고 나를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언니 핸드폰을 내가 쓸 테니 언니에게 핸드폰을 사 줘라. 왜냐면 내가 사고 싶은 거 어차피 못 사니까. 나는 그게 나한테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도 기분 안 상하고 아빠도 뭐 기분 안 상하고 언니도 기분 좋고. <곽재은, 여, 20세>

폴더형의 ‘세븐폰’을 사용하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작은 할아버지가 슬라이드 형식의 LG전자의 KV4200 기종을 선물해 주었다. 이 제품은 일명 ‘샤인폰’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었다. 슬라이드 형식의 핸드폰은 폴더형보다 편리하였지만 고장이 잘 나서 불편하였다. 곽재은의 어머니 오미환(여, 50세)도 한때 슬라이드폰을 사용한 적이 있다. 삼성전자 애니콜의 SCH V910 기종이었다. 슬라이드는 자주 올리고 내리다 보니 슬라이드의 앞판과 뒷판이 벌어지는 문제가 가장 심각하였다. 결국 접촉이 잘되지 않아 교체하였다.

1년쯤 사용하자 벨소리도 잘 안 들려서 사촌오빠 ‘민성이 오빠’가 쓰던 ‘뽀뽀폰’을 기증받았다. 역시 슬라이드 형식이었고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사용하였다. 아쉬운 대로 뽀뽀폰을 쓰던 곽재은은 사고 싶던 ‘아이폰4’가 나오기 직전, 뽀뽀폰을 분실하여 터치폰인 ‘연아햅틱’을 장만하였다.

중3 때 샤인폰으로 바꿨어요. 엘지 거. 폴더도 있고 슬라이드도 있는데 슬라이드. 핸드폰이 고장이 잘 나 가지고, 잃어버렸었나? 아마 좀만 툭 해도 꺼지고 좀만 세계 열면 꺼지고 그래서. 그것도 일 년 썼어요. 일 년 썼는데 쓰다가 이게 슬라이드가 세계 열거나 그러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가끔 벨소리도 안 들리고 그래서. <곽재은, 여, 20세>

그러다가 서울 큰집이 아니라, 금곡동 큰집 작은할아버지네 새해 인사 이런 거 드리잖아요. 갔는데 민성이 오빠 핸드폰이었지. 민성이 오빠가, 큰아빠의 아들. 그 오빠가 쓰던 핸드폰이 있는데 지금 안 쓴대요. 근데 나는 그때 바꾸기 싫었거든요. 왜냐면 내 손에 익고, 나는 뽀뽀폰이 싫고. 그 있잖아요 씨에프에서 어떤 여자가 헬멧 쓰고 누워 갖고 뽀뽀~ 오토

마이 사진 붙여 놓고 붕붕, 하얀 색깔. 그거예요. 붕붕.
 그거 받고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쓰다가 그걸
 잃어버렸어요. 이마트에서. 그게 아이
 폰4 나오기 전까지 썼거든요. 그래서 되
 게 서러웠어요. 아빠가 아이폰4 사 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빠랑 같이 가서 바꾼 게
 연택(연아햅틱).〈곽재은, 여, 20세〉



곽재은의 터치폰 연아햅틱

슬라이드 형식의 핸드폰은 키패드를 안 보고도 누를 수 있었지만 터치폰의 키패드는 반드시 눈으로 확인해야만 정확하게 누를 수 있었다. 곽재은은 터치폰의 이러한 특성 덕분에 “수업시간에 몰래 문자나 게임”을 하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곽재은은 연아햅틱을 사용할 당시, ‘프리존 데이터 요금제’를 사용하였다. 이 요금제를 통해 일정부분의 인터넷상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었고 주로 ‘트위터’를 이용하였다.

조영애(여, 45세)가 처음 핸드폰을 사용했던 것은 30대 중반 때였다. 당시에는 ‘슬라이드’ 형식의 핸드폰이 유행하였다. 그 이후에 폴더 형식의 ‘고아라폰’과 터치폰을 거쳐 지금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조영애의 스마트폰 기종은 ‘갤럭시 호핀’으로 2011년 7월에 구입하였다. 기존에 쓰던 터치폰이 고장 나는 바람에 약정기간이 다 되지 않았는데도 교체해야 했다.

LG전자의 KP500 모델은 ‘쿠키편’이라고 불린다. 키패드까지 터치패드로 되어 있는 ‘쿠키편’을 사용하는 조현진(여, 13세)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가 핸드폰을 사 주었다. 보안 목적으로 구입해 준 것으로 가장 많이 통화하는 사람도 어머니이다. 조현진은 가장 가지고 싶은 스마트폰으로 삼성에서 제작한 ‘갤럭시’를 꼽았다. ‘아이폰’은 ‘어른들’이 쓰는 핸드폰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엄마가 사 주셨어요. 돌아다닐 때 급한 일 있으면 전화하라고. (스마트폰은) 필요 없다고. 중2 때, 만약에 시험 잘 보면 5월에 바꿔 주신다고. …… (학교에 핸드폰을 가져가면) 끄고 내야 돼요. 끝나면 선생님이 주세요. 걸리면은 한 달 동안 압수예요.〈조현진, 여, 13세〉

미성년의 자녀에게 핸드폰을 소지하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학부모마다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오미환(여, 50세)은 꼭성은과 재은 자매 둘 다 중학교에 입학할 때 핸드폰을 구입해 주었다. 엄밀히 말하면 오미환이 아니라 남편 꼭유택(남, 51세)이었지만, 당시 핸드폰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었다. 뜻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핸드폰을 선물하는 대가로 성적 내기를 하기도 했다. 오미환은 미성년자의 핸드폰 소지가 요즘같이 범죄가 빈번한 세상에서 부모의 안심을 위한 장치라고 생각하였다.

평균 몇 점 이상이면 애가 원하는 거를 사 주겠다. 근데 애는 상관없는 애예요. 그런 걸 연 연을 안 해. 나는 제시를 안 하지, 아빠가 제시를 하지. 졸업선물 겸 입학선물 겸. 수업시간만 아니면 요즘은 세상이 하도 험악하니까. 그게 있어야지 집에서도 개가 어디를 가든지 그걸 알 수가 있으니까. <오미환, 여, 50세>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의 두 아들을 두고 있는 김한선(가명, 여, 41세)은 자녀의 핸드폰 소지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가능한 한 성인이 될 때까지 적어도 스마트폰은 사 주고 싶지 않다.

있었는데 지금 다 없었는데. 큰애는 스마트폰을 안 사 주니까 그냥 안 들고 다니고, 작은 애는 그냥 필요치 않으니까. 그래서 다음에 나 중학교 가면 스마트폰 사 줘 하더니 그냥 개는 없었고, 별로 스마트폰 필요가 없죠. 요금도 비싸고, 스마트폰 자체가 거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들고 다니는 컴퓨터나 다름없기 때문에. 애들하고 수시로 그냥 상대편만 없다뿐이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카카오톡 하고? 그래서 사실은 성인될 때까지 안 사 주고 싶어요. 돈을 떠나서 그때가 되면, 성인이 되면 절제가 돼서 자기 일을 하면서 하는데, 지금 학생이 밤 열두 시고 한 시고 그것만 할 거 아니냐. 저는 그거가 있어서 안전을 지켜 주고 그건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오히려 더 하면 더했지. 진짜 안 좋을 때는 그거 들고 있어도 뭐 똑같지 뭐. 아무튼 나는 핸드폰은 그걸 가지고 있음으로써 엄마는 어디 있는가 위치 확인하려고 하는 거지 애를 안전하게 지켜 준다 하는 생각 때문에 사 주는 건 아니예요. 애가 옆으로 새니까 여기서 저기로 열른가, 이거 하기 답답해서 부모님이 사 준 거지, 이 핸드폰이 있다고 해서 나쁜 사람들이 잡아가는 걸? 그거야

말로 개줄이지, 목걸이지. <김한선(가명), 여, 41세>

백순자(여, 50세)는 오히려 핸드폰을 소지하는 것이 범죄의 표적이 된다고 생각한다. 스마트폰은 기기 값이 비교적 고가라서 청소년이 소지하기에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성인범죄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또래 청소년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여 역으로 범죄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요즘은 또 핸드폰 빼기는 그런 게 또 많더구만. 역 같은 데 보면은, 학생들이. 내가 아는 엄마 딸내미도 끌러가 가지고 화장실에서 빼겨 가지고. <백순자, 여, 50세>

조영애(여, 45세)는 슬하에 두 자녀가 있다. 큰아이(남, 19세)는 중학교 입학 때, 둘째 아이(여, 16세)는 초등학교 5학년 때 핸드폰을 구입해 주었다. 둘째 아이는 딸이라서 남편이 일찌감치 핸드폰을 선물했는데, 조영애는 아직 어리다며 핸드폰 소유를 반대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딸에게 위치기반프로그램을 설치한 핸드폰을 사 주고 딸의 이동경로를 모두 확인하였다. 그러다가 조영애의 남편도 점점 위치기반프로그램의 안내가 “자꾸 톱톡 오니까 귀찮아” 지기 시작했고 결국 얼마 안 돼서 해지하였다.

(둘째 아이는) 딸이라고 아빠가 사 줬어요. 아빠한테 위치 그거 해 놔거든요. 아들은 중학교 들어갈 때도 겨우겨우 해 주더니. 딸이라고 아빠들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저는 너무 어릴 때는 좀 그럴 거 같아요. 저도 재 사 줄 때 반대를 하긴 했는데, 너무 빠르다고 했는데. 요즘 애들은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면 괜찮은데. 글썄 저는 너무 빠르다는 개인적인 생각이예요. 그게 너무 빠르면은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엄마들이 불안하니까. 이해는 하는데. 어린애들이 그런 걸 하면 전자파도 그렇고 안 좋은 것 같아요. <조영애, 여, 45세>

5) 2G 핸드폰과 스마트폰 사이

백순자(여, 50세)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다.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스마트폰과 폰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매장



백순자의 2G 핸드폰

것 외에 현재 소지하고 있는 핸드폰의 간단한 기능들만 있어도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의 기본요금이 비싼 것도 또 다른 이유이다. 그래서 백순자가 긴 통화나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을 경우에는 때때로 아들의 스마트폰을 빌리곤 한다. 스마트폰 요금제는 무료통화와 문자서비스가 많이 제공되기 때문이다. 아들의 스마트폰으로는 '카카오톡'이라는 무료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어 별도의 요금이 들지 않아 백순자도 함께 사용한다.

저는 전혀 그런 거(스마트폰이 아니라서 불편한 점) 없어요. 왜냐면 굳이, 이게 요금이 저렴하고 이거 암만 많이 써 봐도 이만 오천 원 안 넘어봤어요. 우리 아이도 그렇게 (요금이 많이) 나와요. 요금제 육만 오천 원짜리 쓰니까. 사백 분 무료통화 돼요. 그래서 통화할 일 있으면 우리 아들이, 엄마 이걸로 통화하세요.

문자할 일 있으면 개 거 갖다가 내 번호하고 고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쓰고, 집에 있을 때 가끔. 우리 지들 이모나 이렇게. 나 이모하고 문자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 아들이 이걸로 하세요 그리고. 또 카톡으로 하면 문자비가 안 들잖아. 저는 바꾸고 싶은 마음 없어요.〈백순자, 여, 50세〉



정서연이 갤럭시 넥서스로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

다양한 기관단체 활동을 겸하고 있는 백순자에게 핸드폰은 매우 중요한 연락수단이다. 바쁜 일정을 핸드폰 일정에 저장해 두기도 하고, 기관단체로부터 활동내용에 대한 안내문자 메시지도 받는다. 예전처럼 달력이나 수첩에 기록하는 대신 핸드폰 안에 일정을 기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메모도 하고 스케줄을 정리하기도 한다. 중요한 행사의 경우 주최 측에서 자세한 사항을 안내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주어서 잊지 않을 수도 있다. 매번 전화로 안내받는 것보다 간편하고, 저장이 되니 날짜와 장소와 같은 세부내용을 확실히 알 수 있어서 유용하다.

매일 나가야 되니까. 오늘도 지금 여기 발대식 갔다 왔지, 내일 같은 경우는 또 여기 수원 시에서 틀림축제 하잖아요, 틀림축제 하면서, 내일은 또 이렇게.〈백순자, 여, 50세〉

정서연(가명, 여, 25세)이 현재 사용하는 핸드폰은 스마트폰이다. ‘갤럭시 넥서스’를 사용하고 있다. 정서연에게는 두 번째 스마트폰이다. 2G폰을 사용하다가 약정이 다되어 교체를 해야 할 시기가 되었는데,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했던 때였다. 정서연은 모토로라 글램을 구입했는데 일 년 반 만에 고장이 나 버렸다. 정서연은 결국 새 스마트폰을 구입하기로 했고, 이전 스마트폰의 약정이 끝나지 않아 물어야 하는 위약금은 새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매장에서 부담해 주기로 했다. 2012년 1월에 정서연은 ‘갤럭시 넥서스’를 구입하였다.

마침 정서연의 남자친구도 핸드폰을 교체할 때가 되어 정서연의 핸드폰과 같은 기종으로 교체하였다. 정서연이 핸드폰으로 가장 많이 하는 기능은 게임인데, 이것도 그때 남자친구가 추천해 준 'RULE THE SKY' 이다. 이 게임은 농장을 운영하는 것인데, 다른 스마트폰에서 따로 접속하여 하나의 농장을 운영할 수 있다. 또 다른 커뮤니케이션의 장인 것이다. 평소에 대화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지만, 게임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남자친구와 만나 같은 농장을 키우며 공감대를 형성한다.

카톡하고 룰더스카이(RULE THE SKY)하고. 남자친구가 소개시켜 줬어요. 제 농장을 만들고 건물을 지어서 사람들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들어가 있는 게임. 좋아한다기보다는 그냥 중독성. 계속 케어를 그 게임 농장을 해 줘야 하는 거 때문에 수시로 들어가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하게 되는 중독성. 지금 핸드폰 살 때 시작해서 계속, 만난다고 표현하기보다는 같이, 얘기는 카톡으로 하고, 자기가 인제 그 농장을 꾸미고 그런 거 꾸며서 사람들이 오면은 같이 케어도 하고 다 같이 그냥 하는 거죠. 스머프 같은 다른 게임들은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혼자 그냥 하는 거고 이거는 여러 명이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케어도 해 줄 수 있고. <정서연(가명), 여, 25세>

곽재은(여, 20세)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연아햅틱' 이후, 2011년 9월 3일에 팬택의 '베가레이서' 를 구입하였다. 곽재은의 핸드폰은 눈을 뜨면서부터 자기 전까지 곽재은의 옆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손맛' 을 중요시여기는 곽재은은 여태껏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액세서리를 거의 착용하지 않았다. 현재 사용하는 '베가레이서' 는 처음으로 케이스와 액정보호필름을 장착한 제품이다.

별로 끼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잡고 핸드폰을 쓰기 불편하면 안 쓰는 편이에요. 케이스, 케이스를 안 씌워요. 근데 스마트폰은 씌워요. 액정필름은 붙여요. <곽재은, 여, 20세>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은 '카카오톡' 과 '페이스북', '멜론' 이다. 음

악을 듣거나 지인과의 소통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 것이다. 광재은이 소통하는 지인은 주로 친한 학교 선배라 스마트폰을 처음 구입했을 때는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잔뜩 받아서 하루 종일 이용하였다. ‘스머프빌리지’, ‘레스토랑 스토리’, ‘버블슈터’ 등 “아무것도 아닌데 시간 뺏기는” 게임을 6개월 하였다. 그러다가 모두 삭제하고 현재는 거의 게임 어플리케이션은 이용하지 않는다. 이 외에도 버스 도착시간을 알려 주는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생활에 편의를 주는 어플리케이션을 더러 이용하며,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선호하여 유료로 구입해 본 적은 없다.

카톡, 페이스북, 멜론 이렇게 세 개. 게임을 스마트폰을 처음 사고 무슨 중독, 거의 뭐 그랬어요. 스머프빌리지랑, 그 무슨 스토리, 레스토랑 스토리. 그리고 또 뭐지. 뭐 있는데. 버블슈터. 그런 것도 하고. 레스토랑 스토리를 시리즈를 하고 싶은 걸 한 세 개씩 다운받아 가지고 돌려가면서 계속 하고. 근데 그걸 계속 하니까 막 이거에 막 뭐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에 시간을 뺏기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 가지고 엄청 막 키워놨었거든요. 근데 맘먹고 그거 다 삭제했어요. 한 육 개월 정도 한 거 같아요. <광재은, 여, 20세>

조영애(여, 45세)는 인터넷을 이용할 때 주로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집에 컴퓨터가 있지만 트위터를 하거나 정보검색을 할 때는 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다. 스마트폰에 음악을 저장해 두고 이어폰을 연결하여 청취하기도 한다. 조영애는 아이돌가수 JYJ의 열성팬이다. 그중 특히 좋아하는 가수 김재중의 트위터를 리트윗해서 스마트폰으로 댓글을 달기도 하고, 관련 기사를 검색해 보기도 한다. JYJ의 음원을 다운받아 듣고, 김재중이 출연한 드라마의 한 장면으로 배경화면을 설정해 두었다. 조영애에게 스마트폰은 여고생처럼 연예인을 좋아하는 순수한 팬심을 드러낼 수 있는 장치이다.



조영애의 스마트폰 갤럭시 호핀

저는 그냥 좋아하는 음악 다운받아서 듣고, 카톡 요새 많이 하잖아요. 젊은 사람하고, 성당 사람들하고 카톡하고, 트위터, 제가 좋아하는 사람 트위터 들어가서 리트윗해서 답글도 올려 주고 그러거든요. 컴퓨터 쓰다가 핸드폰이 되니까 이걸로 인터넷도 보고, 음악 다운받아서 듣고, 젊은 사람들처럼 끼고 저도 밖에 나가요. 음악 듣는 거 좋아해서. 어우 쟁피해라, 다 알아요. 있어요 한 사람. JYJ 있잖아요. 김재중. 이는 사람은 다 알아요. 얼마 안 됐죠. 노래를 듣다 보니까 너무 잘해 가지고, 처음에는 노래로 좋아했어요. 동방신기 때부터 알기는 알았는데, 다들 의외라고. 트위터도 개 트위터 가서. <조영애, 여, 45세>

현재 중학생인 조영애의 둘째 아이는 야구를 좋아해서 관련 정보를 찾아보거나 친구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 '카톡(카카오톡)' 을 한다.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큰아이는 “다행히 어찌다 한 번” 게임을 할 뿐 주로 음악을 듣는다.

김현재(가명, 남, 26세)는 스마트폰 유저이다. 단순히 사용에 그치지 않고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할 정도로 능동적인 사용자이다. 2012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종은 팬택의 ‘베가레이서’ 이며, 곧 2년 약정이 끝나면 ‘베가레이서2’ 로 바꿀 예정이다. 김현재가 처음으로 휴대폰을 소유하게 된 것은 중학교 2학년 때였다. 당시 가진 핸드폰이 스카이(현 팬택) 기종이라 계속해서 같은 회사에서 출시하는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곧 교체할 기종 역시 팬택의 제품이다. 태블릿 PC도 유용하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사용하지는 않는다. 고성능의 노트북을 소지하고 있어 굳이 태블릿 PC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김현재는 스마트폰으로 주로 인터넷 서핑을 하거나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친구들과 대화를 한다. MP3 플레이어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음악을 청취하는데도 사용한다. 금융관련 어플리케이션도 자주 이용한다. 신용카드의 결제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따로 가계부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 국민은행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이므로 국민은행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결제 예정금액을 확인한다. 스마트폰을 처음 구입하였을 때는 호기심에서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사용하였지만 지금은 자주 사용하는 몇 가지의 어플리케이션을 제외하고는 모두 삭제한 상태이다.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는 김현재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제작하기도 하였다. 상용화를 시키는 단계에까지 이른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 학과 커리큘럼의 일환으로 시작했던 것이 대회에까지 출전하게 되었다. 1년 반 동안 시력을 검사하는 어플리케이션과 기계의 오류 발생을 점검하는 어플리케이션, 총 두 가지 제품을 제작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매번 팀을 꾸려 스터디를 하면서 이루어졌다.

4. 도장

도장은 인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금·은·옥·수정 및 돌·나무 또는 빨·뼈 등의 인쇄(印材)에 글씨·그림·문양 등을 조각하여 인주·잉크 등을 발라 찍는 것이다. 개인과 단체를 증명하는 신뢰를 상징하는 물건이었으나 요즘에는 장식용이나 '징표'를 모으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한다.

1) 인감도장과 막도장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개인 소유의 도장을 뜻하는 사인(私印)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 실인(實印)·인인(認印)·막도장이다. 인인(認印)은 흔히 성(姓)이나 이름만 새겨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일에 쓰는 도장이며, 실인(實印)은 면장·동회장 등에게 그 인감을 신고 등록하고 필요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법률상의 효력이 있다. 막도장은 문자 그대로 인감도장이 필요치 않은 경우에 손쉽게 찍는 도장이다.

인감도장은 예전에는 인감 떼러 가면은 인감도장이 필요했잖아요. 그리고 무슨 서류를 할 때 꼭 인감도장을 찍으라고 하잖아요. 인감증명서하고 같이 인감증명서하고 대조하기 위해서. 막도장은 그냥 왜 우리가 왜 특별한 거 아니고 도장 찍어야 되는 거는 막도장으로 쓰고 인감도장은 왜 집 거래나 무슨 거래할 때 꼭 인감도장을 사용하는 데가 있더라구요. 진짜 중요한 데는 이 인감도장을 사용하는 거지.(백순자, 여, 50세)

배진옥(여, 37세)은 실인과 막도장이 양 끝에 새겨진 가느다란 도장을 가진 적이 있었다. 스물 세 살에 들어간 첫 직장에서 증여한 것이었다. 가느다랗고 긴 노란색 플라스틱 도장이었다. 한 쪽 끝에 성씨인 ‘배’가 한자로 쓰여 있었고, 결제용으로 사용하였다. 한 쪽 끝에는 이름 석 자가 한자로 새겨져 있었으며, 막도장 역할을 하였다.

회사에 들어갔는데 새로 하나 파 주더라구요. 회사에서 받은 건 플라스틱. 노랗게 생긴 거 굉장히 싸구려. 막도장 있잖아요. 공무원 비슷한 거였거든요. 확인하면 팡 대신에 저는 도장 찍고. 선생님들 쓰는 거 있죠. 앞엔 찌꼬맣고 뒤는 넓고 연필같이 생겼는데 여긴 한 글자, 여긴 세 글자. 여기는 배, 여기는 배진옥. 그랬던 것 같아요. 한자로. 졸업하고, 그랬죠. 스물 세 살. <배진옥, 여, 37세>

배진옥에게 인감도장이 생긴 것은 직장에서 도장을 만들고 2년 정도가 지난 후였다. 막도장을 사용하고는 있었지만 인감도장으로 쓸 만한 도장이 필요하였다. 당시 배진옥의 어머니 김영숙이 검은색 플라스틱 인재로 도장을 제작하였다. 배진옥은 이것을 현재까지 인감도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감도장이라고 그냥 엄마가 찍으셨던 거 같은데, 까맣게 생긴 플라스틱으로 된 거 하나 있거든요. 엄마가 만드신 거예요. 인감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배진옥, 여, 37세>



벼락 맞은 대추나무 로 만든 곽윤택의 도장

곽윤택(남, 51세)은 도장집에서 도장을 제작하기보다는 방문판매 상에게 자주 구입하였다. 사무실을 돌아다니는 만물상 같은 방문 판매원이 있었는데,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제작하였다고 홍보하고

다녔다.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도장을 만들면 좋다는 것이었다. 업무를 보다 보면 급하게 막도장이 많이 필요했으니 하나에 3,000원씩 주고 필요할 때마다 만들어 사용하였다.



백순자가 항상 소지하는 막도장



백순자 남편의 다양한 막도장

백순자(여, 50세)는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고 항상 휴대하는 막도장을 한 개 더 가지고 있다. 백순자의 남편은 인감도장 외에도 여러 개의 막도장을 가지고 있다. 직장생활을 하는 백순자의 남편은 도장을 항상 휴대하기보다 외부에서 필요하면 그때그때 제작하여 사용한다. 장기출장이 잦은데다 부서 간 이동이 많다 보니 도장을 맡길 일도 많고 급하게 필요한 경우도 많아 여러 개를 소지하고 있다.

이게 싸니까 예전에는 도장 없이 다니다 보면 막 도장을 필요하면 왜 집에까지 왔다갔다 하는 차비면은 그냥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얘기아빠 같은 경우는 막도장이 또 많아요. 출장 가는 데마다 필요하면은. 예전에는 도장을 꼭 찍어야 한다 막 이랬지만은 요즘은 본인 서명이나 싸인을 더 중요시하잖아요. …… 이거는 얼마 전에 지방에 출장 가서 내려가 있을 때 우리 애가 학교에서 도장이 필요하니까 그러면은 왔다 갔다 하느라고 돈이 더 드니까 막도장 하나 새겨라 하면서 만들었던 거 같아요. (백순자, 여, 50세)

2) 도장 선물의 사회적 의미

도장은 공적인 문서에 본인이 동의했음을 인증하는 사회적 상징이다. 그래서 아직 사회적으로 위치가 미흡한 미성년자에게 도장을 선물한다는 것은 사회구성원





삼환아파트 상가 '삼환도장·열쇠'의 도장재료들

으로서 인정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이름을 수정하기 어려운 인쇄(印材)에 새겨서 준다는 것 역시 유사한 맥락에서 의미를 갖는다. 삼환아파트 상가에서 도장을 제작하는 '삼환도장·열쇠'의 대표 정인환(가명, 남)에 따르면, 손주에게 백일이나 돌 선물로 도장을 선물하기 위해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다.

안목 있는 분들은 비싼 거 찾으세요. 상아, 대추나무, 벽조목. 그리고 애들 백일 기념해서는 옥도장하고, 선물용으로. 그런 것들은 아시는 분들이나 오지. 어르신들이. 옛날 어르신들이 옥에서 좋은 기운이 난다는 그런 게 있어서 손주들 해 주려고 할 때 와서 하시지. 옥은 일상용으로는 안 써요. 주로 나무나 플라스틱으로 하지. <정인환(가명, 남)>

백순자(여, 50세)에게 도장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선물이었다. 백순자의 돌아가신 아버지는 어렸을 적, 자식들이 열 살이 넘으면 이름을 새겨 도장을

선물해 주었다. 백순자는 아버지가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뜻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백순자는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가 만들어 준 선물이 매우 소중하게 여겨졌다. 그래서 학창시절에 뜨개질을 배워 도장주머니를 직접 제작해서 도장을 보관하였다. 도장주머니와 함께 아버지가 선물한 도장은 인감도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오랜 시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



백순자가 직접 뜬 도장주머니와 백순자의 아버지가 제작해 준 인감도장

나는 처음 도장을 만든 게 초등학교 땀가 중학교 땀가, 우리 친정아버지가 도장을 만들어 주셨어요, 선물로. 그래서 그걸 지금까지 인감도장으로 제가 쓰고 있어요. 그니까 한 사십 년 썼어요. 그게 유일한 인감도장으로 쓰고 있어요. 이거(도장주머니)를 내가 학교 다닐 때 몇 개를 떠 갖고 선물하고, 코바늘로 떠 갖고 선물하고. 이게 유일하게 친정아버지가 해 준 건데 도장주머니를 내가 떠 갖고,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가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렇게 도장을 그때 당시에 이 목도장이 많았는데도 요걸 만들어 주신 거야.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형제들에게) 하나하나 졸업을 앞두고면서. 졸업선물 같은 걸로 볼 수 있죠. 그래서 갖고 있다가 이 도장을 인감으로도 쓰게 됐고. 유일하게 남아 있는 거고. <백순자, 여, 50세>

김현재(가명, 남, 26세)는 어릴 적에 아버지가 파 준 도장을 사용하였다. 아버지가 당시 다니던 회사에서 인채(印材)를 증여받았다. 이것에 아버지의 이름을 새기지 않고 아들의 이름을 새겨 선물하였다. 그때 김현재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도 전이었지만 아버지는 당신의 이름 대신 아들의 이름을 새겨 주었다.



김현재의 아버지가 제작해 준 도장



조미란(여, 35세)은 삼환아파트 상가 ‘삼환도장·열쇠’에서 자녀의 도장을 제작하였다. 송민경과 송민승이 여섯 살 때였다. 통장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제작한 도장이었다. 조미란은 용돈이나 세뱃돈을 모으는 통장을 만들어 직접 예금을 하는 법에 대해 교육할 생각이었고, 그러려면 도장이 필요하였다. 자녀들에게 선물하기 위해 제작한 도장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통장이라는 금융거래가 가능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던 셈이다.

제가 만들어 줬죠. 잘 생각 안 나는데 다섯 살? 여섯 살? 통장 만들어 주려고. 그냥 나무 도장. 요 상가에서. 기계가 있고 거기 열쇠랑 다 같이 하잖아요. 깊이 생각 안하고 당장 통장 만들어야 하니까 그냥 급히 만들었어요. <조미란, 여, 35세>



곽윤택과 오미환이 만들어 준 곽재은의 옥도장

곽윤택(남, 51세) 오미환(여, 50세) 부부는 둘째 딸 곽재은(여, 20세)이 여섯 살 때 옥으로 만든 도장을 선물하였다. 작명소에서 2만 원을 주고 제작한 것이었다. 언니인 곽성은(여, 22세)의 도장과 함께 제작하였다. 옥으로 도장을 만들어 이름을 새기면 아이의 ‘기(氣)’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오미환이 당시에 출근하던 직장에 작명하는 사람

이 오간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서 제작하였다. 사실 도장은 주인인 곽재은이 아닌 어머니 오미환이 보관하고 있다. 어려서 만들었을 때부터 현재까지도 계속 오미환이 가지고 있었다. 곽재은은 이러한 본인 소유의 오래된 도장이 있다는 것도 고등학교 때나 알았다. 오미환에게 곽재은의 도장은 “좋다니까 만든” 상징이었다.

한 98년인가 99년에 찍은 건데. 그때 니(곽재은, 여, 20세)가 몇 살이었지. 초등학교 못가서 그쯤 됐을 거예요. 좋다니까 그냥 했지. 옥이 옥으로 하면 애한테 좋다니까. 옥으로 이름 만들어 주면 좋다니까. 이름 하는 사람한테 만든 거예요. 작명소는 아니고 내가 어떤

사무실에 다녔을 때 거기 오시는 분.
(오미환, 여, 50세)

곽재은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처음으로 자신만의 도장을 가졌다. 일월초등학교를 졸업하였는데, 학교에서 졸업선물로 플라스틱 도장을 제작해 준 것이다. 중학교를 졸업할 때도 학교에서 도장을 선물받았는데, 현재 그 도장은 분실하였다.

초등학교 졸업할 때 이름을 새겨 줬어요. 중학교 때도 줬요. 중학교 때 거는 어딴는지 모르겠어요. <곽재은, 여, 20세>



곽재은이 초등학교 졸업선물로 받은 도장



김현재가 고등학교 졸업선물로 받은 도장

이처럼 졸업생의 이름을 새긴 도장을 졸업선물로 배부하는 전통을 가진 학교는 꽤 많았다. 조영애의 딸 김지수(여, 16세)는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일괄적으로 제작한 도장을 선물받았다. 김현재(가명, 남, 26세)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선물로 도장을 받았다.

지금 쓰는 도장은 고등학교 때요. 고3 졸업할 때. 제가 만든 건 처음 만든 거예요. 졸업하면서 학교에서 만들어 줬을 걸요. 졸업하면서. 그것도 그때 또 선택이 있었어요. 한글로 만들지, 한문으로 만들지. <김현재(가명), 남, 26세>

배진옥(여, 37세)은 대학교 졸업선물로 도장을 선물받았다. 꽤 괜찮은 나무를 인재로 사용한 도장이었다.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취직을 하면 필요할 것이라고 학교 측에서 졸업선물로 증여하였다.



졸업할 때 새겨 줬던 것 같아요. 대학교를 졸업할 때 도장을 하나씩 새겨 줬던 것 같아요. 너희 앞으로 회사에 나가면 필요할 것이라고. 학교에서 졸업선물처럼. 그랬던 것 같아요. 나무였어요. 괜찮았어요. 학교에서 받은 거. <배진옥, 여, 37세>

3) 손으로 파는 도장과 기계로 파는 도장

아파트 상가 1층에는 도장과 열쇠를 제작하는 가게가 들어와 있다. 현 사장인 정인환(가명, 남)이 내부 기계와 함께 가게를 인수받은 것이 2년 전이고 전 사업주는 십 년 가까이 해왔다. 삼환아파트 주변 상가와 아파트 곳곳에는 ‘삼환도장·열쇠’라는 상호명과 전화번호가 쓰인 스티커가 잠금장치가 달린 문이라면 어디에나 붙어 있다.

저 멀리서도 얘기 듣고 소문 듣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소문 소문 듣고, 멀리서 오신 분들도 있어요. 여기서 오래 했으니까. 한 십오 년 넘는 것 같애. 근처에는 없고 그러니까 알고 알고들 오시는 거지. <정인환(가명), 남>

정인환은 열쇠와 도장을 모두 제작하는 일을 하지만, 주로 열쇠를 제작한다. 도장을 제작하러 오는 고객은 한 달에 서너 명 정도고 최대 열 명을 넘지 않는다. 막도장을 파는 데는 5,000원이고 인감도장은 2만 원부터 5만~6만 원까지 다양하다. 막도장 파는 데는 3~4분 정도가 걸리고 인감도장은 10~15분 정도 걸린다. 막도장은 통일된 인쇄(印材)를 사용하며 “도장나무”라고 흔히 부르는 목재를 사용한다. 인감도장은 좀 더 좋은 인쇄를 사용하는데 “대추나무, 회양목, 사향, 상아, 벽조목, 옥” 등을 구비해 놓았다. 정인환은 직장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괜찮다.”는 이웃의 소개로 영업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컴퓨터를 다룰 줄만 알고 조금 감각 있으면 금방 하는” 도장 제작 기술을 익히게 되었다. 손으로 직접 도장을 제작하는 도구 역시 전 사업주로부터 넘겨받았으나 기술은 습득하지 않았다. 정인환은 기계로 제작하는 도장이 훨씬 위조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삼환아파트 상가의 '삼한도장·열쇠' 매장

손으로 만들어 달라고, 가끔 와요. 손으로 찾는 사람들. 근데 지금은 손으로 하면 그게 더 비싸지. 명장이라 그래 가지고 대기업 회장들 총수들은, 그 사람들은 몇 십만 원 몇 천만 원이래도 손으로 해요. 기계로 하면 가끔 그런 사람들 있지, 위조하는 거 아니냐고. 기계 보다는 사람이 더 정확하지. 위조지폐 사람 손으로 다 파요. 기계로 안 파요. 세계 어딜 가도 위조지폐 만드는 사람들 손으로 하지 기계로 안 해요. 기계로 하는 건 획일적인 게 있어서 안 된다고. 기계로 찍는 거는 다 똑같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다 틀려요. 예를 들면 감정사들이, 감정사들은 감정할 때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확대해서 현미경으로 보기 때문에 프로그램으로 다 글자들을 흐트려 버려요. 그러면 거기에 일미리짜리 자국, 백분의 일, 천분의 일의 자국이래도 다 틀려 버리지. 그런 조사를 하는 사람들이 감정사 아니에요. 기계로 만드는 건 다 똑같다고 하는 것도 우리 눈으로 볼 때나 똑같은 거지 감정하는 사람들이 보면 다 틀려요. 같은 프로그램으로 우리도 열 개를 봤다 그래도 똑같은 게 아니에요. 기계도 다 컨디션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기계 컨디션이 다르고 재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똑같다고는 안 나와요. 도장 표면도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다고 하면 안 돼요. <정인환(가명), 남>



정인환이 기계로 도장을 제작하는 모습



손으로 도장을 파는 데 쓰이는 도구

앞서 말한 백순자(여, 50세)가 아버지에게 선물받은 도장은 장인이 손수 제작한 것이다. 백순자가 고향 제천에서 살던 어릴 적에 선물받은 것이라, 아버지가 어디에서 만들었는지 알고 있었다. 백순자는 시간이 흐른 후 다시 찾아가 주의 깊게 볼 정도로 손수 만든 도장에 대한 애착이 강하였다. 몸이 불편한 장인이 직접 새겨 준 도장이라는 점 덕분에 백순자는 도장을 더욱 소중하게 여겼다. 요즘은 보기 힘든 수작업을 통해 제작된 도장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기계로 제작하는 도장에 비해 손으로 제작하는 도장의 가치를 훨씬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이걸 만든 데는 시골에서요, 제천. 기억나는 거는 그 장소가 얼마 전에 가 봤는데, 그냥 이렇게 간편한 도장 해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바뀌었더라구요. 그때 당시에는 키가 쪼그만 해 가지고 요즘 말하면 난쟁이래 가지고 등이 요래서 곱추? 그 분이 파 주셨죠. 그때는 손이었죠. 그니까 기술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요즘은 이런 거 뭐 아무나 기계로 파더라구요. 그때는 초안도 손으로 쓰고 그러더라고. 쪼그만 자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각 세워 가지고. <백순자, 여, 50세>

4) 타인이 찍어 준 ‘도장’ 을 모으는 것

곽재은(여, 20세)이 초등학교 2학년 때는 담임선생님이 찍어 준 ‘도장’ 이 학습에 대한 보상의 상징이었다. 일기를 쓰거나 숙제를 잘해 오는 등 착한 일을 하면 담임선생님이 도장을 찍어 줬다. 찍어 준 도장만큼 스티커를 받아서 게시판에 모으는 것이었다. 한 달 동안 스티커를 가장 많이 모은 학생에게는 시상식을 하는 기회도 있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일기 쓰고 그러면 어디 앞에 게시판에 스티커를 붙여요. 그럼 한꺼번에 모아서 선물을 준단던지 그런 게 있었어요. 한 달에. 그니까 도장을 받으면 도장을 받고 자기 오늘 일기에 대해서 도장을 받았다 그러면 스티커를 줘요. 그럼 그거를 자기 이름 있는 테다 붙이는 거예요. <곽재은, 여, 20세>

송민경(여, 10세)에게도 담임선생님이 찍어 주는 도장은 곧 칭찬이다. 일기를 잘 쓰거나 독후감을 잘 써 오는 등 일정한 성과가 있으면 담임선생님의 판단에 따라





송민경이 받은 도장과 스티커, 상장



송민승이 일기를 쓰고 받은 도장

별모양의 도장을 찍어 주었다. 도장을 모으는 것에 따라 스티커를 주는데, 과제와 달리 개인의 노트가 따로 있었다. 여기에 스티커를 모으면 상을 주는 방식이었다. 일정한 개수의 스티커를 모으면 학교 차원에서 시상을 했다. ‘으뜸 어린이상’이었다. 송민승(남, 10세)도 일기를 쓰고 도장을 받은 적이 많다. 도장의 종류는 각

각 반의 담임선생님이 선호하는 모양에 따라 다르다. 송민승의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의 도장은 ‘참 잘했어요’ 라는 글귀가 쓰인 것이었다.

도장으로 보상을 해 주는 것은 초등학교 시절 담임선생님뿐만 아니었다. 광성(여, 22세)이 모으는 커피전문점의 스탬프 카드도 비슷한 원리이다. 음료 한 잔을

구매하면 도장을 찍어 준다. 도장의 개수를 일정량 채우게 되면 무료로 한 잔을 받을 수 있다거나 커피전문점 측에서 제시한 사은품을 증정 받을 수 있다. 광성은은 요즘 ‘이디야’ 대학로점을 자주 찾는다. 벌써 10잔의 음료를 마셨고 2잔만 더 마시면 1잔을 무료로 마실 수 있다. 이 도장 때문에 광성은은 특정 커피전문점에 자주 가게 된다고 말하였다. 일부러 찾아갈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와 음료를 마실 거면 도장 찍는 스탬프 카드 제도가 있는 커피전문점을 선호하게 되는 것이다.



광성은의 커피전문점 스탬프카드

5) 항상 지니고 다니는 도장

백순자(여, 50세)는 막도장을 항상 휴대하고 다닌다. 금융거래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계약을 맺을 때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서명도 가능하지만 백순자는 굳이 도장을 항상 가방에 넣어 다닌다. 서명은 위조가 가능하지만 본인의 도장은 자기 자신만이 사용하는 것이라 더 확실하다는 믿음 때문이다. 인감도장은 별도로 집에 보관하고, 막도장을 항상 휴대하고 다닌다. 이 막도장은 중학교 때 지인에게 선물받은 인재(印材)를 가지고 있다가 도장집에 가서 본인의 이름을 새겨 넣은 것이다.

근데 저는 은행 가면 제가 싸인을 잘 안 하고 엔간하면 도장을 쓰려고 해요. 싸인은 누구나, 물론 자기필적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모방할 수가 있잖아요. 인감도장은 지금에나 그렇지 옛날에는 이걸 귀하게 두는 게 나만이 이 도장을 쓰는 거니까. …… 이거(항상 휴대하고 다니는 도장) 선물받았어요. 이게 도장 없이 이거를 누가 선물을 해 준 거예요. 글씨 안 새긴 상태로. 그때 당시에는 이게 참 예쁘더라고. 선물로 받아 가지고 파는 데 가서 내가 봤어요. 중학교 때쯤 됐을 거야. 결혼해서 한 거는 하나도 없으니까. 딱 두 개 만들어서 두 개로 끝났어요, 그냥. 안 잊어 버리고 갖고 있으니까. 이것(남편의 인감도장)도 우리 애 아빠 총각 때였으니까 30년도 넘었죠. 내가 결혼하면서 이거를 받아 가지고 갖고 있었으니까. <백순자, 여, 50세>

백순지는 집을 자주 비우고 바쁜 남편과 아들의 금융거래를 대신 해 주기도 한다. 그래서 대리인 자격으로 신분증과 도장도 백순자가 소지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아들 김현재가 직접 은행거래를 할 때는 서명을 선호한다. 도장을 챙기는 일이 번거롭기 때문에 서명이 여의치 않을 때는 지장을 찍는다.

제가 은행 같은 데는 다 그 도장을 쓰는데 막상 제가 은행 갈 시간이 잘 안 돼서요, 제 신분증이랑 도장을 어머니가 가지고 계세요. 제가 가면 서명 하구요, 어머니가 가서 제 걸 대리인으로 가면 도장을 사용하죠. 제가 갈 때는 손가락만 들고 가죠. 그런데 도장 없으면 지장이 있잖아요. “서명 안 된다.” 그러면 “지장 찍을 게요.” 그리고 저는 지장 찍는 편이예요. <김현재(가명), 남, 26세>

과거에는 도장이 가내 보물로 여겨져 장롱 깊숙이 보관하곤 했지만 요즘은 금융거래 시 ‘서명 및 날인(捺印)’이 가능하게 되어 개인의 취향에 따라 서명으로 대체되기도 한다. 최현주(여, 39세)는 본인의 막도장 한 개와 인감도장 한 개, 그리고 남편의 인감도장 한 개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백순자와 반대로 도장은 위조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크게 신뢰하지 않는다. 금융거래나 계약을 체결할 시에도 주로 지장이나 서명을 선호하는 편이다. 도장을 휴대하기보다는 소유하고 있는 모든 도장을 안방에 보관하고 있다. 본인의 인감도장은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기억을 더듬어 보아야 할 정도로 최현주에게 도장의 사용빈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그래서 딱히 새로 장만할 필요가 없어 도장을 한번 만들면 계속해서 사용한다.

저는 도장을 쓸 일이 거의 없어서 은행 갈 때 외에는 그냥 막도장 있는 거 그런 거 쓰고 남편도 크게 뭐 큰일 아니면 지장 많이 찍구요, 요즘 같은 경우엔 오히려 지장을 많이 권하고. 도장은 위조할 수 있다고 해서. …… 막도장은 고등학교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구요. 인감도장은 대학교 다닐 때. 직접 봤어요. 그냥 옛날에는 도장 하는 데가 너무 많아서 아무 데서나 그냥 가서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땐 손수 봤죠. 얼마 안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인감도장은 굉장히 비쌌던 걸로 기억을 해요. <최현주, 여, 39세>

김혜경(여, 53세) 역시 거래 시 '서명 및 날인'에 서명을 선호한다. 도장을 항상 소지하고 다니는 것이 번거롭다는 이유이다. 현재 인감도장을 하나 가지고 있지만 중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단체로 제작할 때 만든 것이다. 크게 쓸모가 없으니 어릴 적에 만들었던 도장을 아직도 인감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정영조(남, 57세)는 금융거래나 부동산거래 등에는 주로 도장을 찍는다. 막도장이 따로 있지만 막도장을 찍어도 되는 경우에는 서명을 하기도 한다. 금융거래나 부동산 거래, 사업상의 거래에서 도장을 찍을 때는 인감도장을 사용한다.

인감도장이라는 것이 꼭 필요할 때만 쓰는 거니까. 평소에는 일반 목도장 쓰다가. 뭐 주로 부동산을 사고팔고 한다거나 뭐 이런 중요한 시기에는 인감도장을 써야 할 때가 있죠. <정영조, 남, 57세>

정영조의 인감도장은 1985년 결혼 전 지금의 아내인 이지숙이 선물한 것이다. 부부가 약혼을 한 후였는데, 이지숙이 정영조의 인감도장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서 이지숙의 직장으로 찾아온 방문판매상에게 상아도장을 제작하여 선물한 것이다.

하나 필요할 것 같아서 만들어 줬어요. 그때는 도장이 상아가 최고였거든요. 그 당시에 삼만 원 정도 했으니까 비쌌죠. 보통 도장은 이천 원 삼천 원 뭐 이렇게 빨도장만 해도 오천 원이면 했었으니까. 제 꺼는 오천 원짜리구요, 우리 신랑 가는 인감도장이라 좋은 걸로 했어요. 직장 다닐 때 직장에서 그걸 하는 사람들이 가끔 왔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샀어요. <이지숙(가명), 여, 53세>

그러나 그때 새긴 도장을 여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5년 전 직인 부분을 갈아내고 다시 새겨서 사용하고 있다. 도장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이 성명풀이를 해주었는데 이름 뒤에 '인(印)'자 대신 '장(章)'자를 쓰면 좋다고 해서 다시 제작하였다. 이지숙이 구입할 때는 장인이 직접 초서체로 새겨 넣은 것이었다. 이것을 정영조가 다시 제작했을 때는 기계로 새겨 넣었다.





정영조의 상아로 만든 인감도장



정영조가 서류에 인감도장을 찍는 모습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사람이라. 도장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인데 도장 뭐 스탬프, 전단지 뭐 이런 소모품들을 영업하는 사람이예요. 오래했죠. 나이가 한 육십 가까이 육십이 넘었으니깐. 심심풀이로 이름풀이 한다고 여러 명 모여 있는데 너도나도 이름풀이 한다고 모여서 한 거야. 내 이름은 원래 도장에 인자를 붙이는데 내 이름은 인을 붙이니깐 가난한 횡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인도 붙이고 장도 붙이는데 장을 붙이면 횡수도 딱 맞아서 부자도 되고 가정이 잘된다 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인 있는 걸 깎아 내고 장으로 고쳤죠. 그때 한 도장이 이게 좀 좋은 거라 한 십만 원 들었던 거 같아요. <정영조, 남, 57세>

5. 피아노

1) 부잣집에만 있던 피아노

우리나라 최초의 피아노는 1899년 지금의 '동산의료원' 을 세운 존슨의 부인 파아커 여사의 피아노이다. 파아커 여사의 이삿집으로 1901년 5월에 부산에서 낙동강을 거슬러 화원선착장을 통해 대구로 들어왔다. 이 피아노는 1907년에 개교된 대구신명여학교(현재 성명여중)에 기증됨으로써, 피아노라는 서양악기가 신명여학

교 학생들을 통해 음악교육에 실질적으로 이용되고 소개되었다.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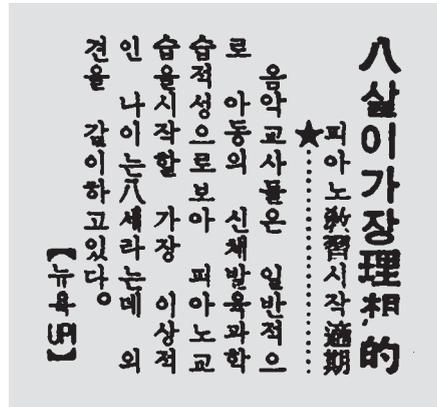
그 이후 피아노를 배우고자 하는 여성들과 자녀에게 피아노 교육을 시키고 싶은 학부모의 학구열에 발맞추어 사교육이 성행하였고, 이는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다. 1970년 2월 23일 『동아일보』 기사에서도 보듯, 자녀에게 더 나은 교육을 해 주고 싶어 하는 부모들의 관심은 과거나 현재나 크게 다르지 않다. 음악교육의 목표는 아이의 긴장과 갈등을 해

소시키고 노래나 리듬을 통하여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면서 감정을 순화하고 아름답게 하여서 원만한 인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자 함이다.¹⁴

그러나 피아노를 배우는 것도, 하물며 갖는다는 것도 흔한 일이 아니었다. 조미란(여, 35세)은 어릴 적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다. 등하굣길에는 읍내를 지나야 했는데, 길목에 피아노 학원이 있었다. 그곳을 지날 때마다 들리던 친구들의 피아노 연주소리는 선망의 대상이었다.

거기 시골에서는 읍내라고 그러죠. 거기에 피아노 학원이 하나 있었어요. 학교 갔다 오면 꼭 거기를 지나가야 하니까. 친구 잘 치는 거 보고 그랬죠. <조미란, 여, 35세>

조미란의 친구 집엔 피아노가 있었다. 그 당시에 치킨집을 할 정도로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집안이었다. 하필이면 친구의 집도 길가에 위치해 있어 조미란이 지나다닐 때마다 피아노 연주 소리가 들렸다. 부모님께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고 했지만 승낙이 떨어지지 않았다. 어릴 적에 배우고 싶었지만 가정형편상 못 배운 것에 대해 조미란은 꽤나 서러웠다. 이러한 마음은 조미란이 딸 송민경(여, 10세)에게 피아노 교육을 시작하게 된 데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상적인 피아노 교육 시기를 알리는 신문기사(『동아일보』, 1970년 2월 23일)

그때도 가게에 치킨집도 하고 그랬으니까. 거기도 도로가니까 들리거든요. 치는 게 들리고. 저는 어릴 때 피아노 학원을, 시골이잖아요 해남인데. 엄마한테 한번만 보내 달라고 했는데 돈이 아까워서 안 보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좀 서러워서 우리 딸내미는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죠)(조미란, 여, 35세)

최현주(여, 39세)가 초등학교를 다니던 1980년대 초반에는 피아노 교습을 위한 학원이 따로 있지 않았다. 대신 레슨이 가능한 강사가 집에 피아노를 몇 대 두고 학생들을 불러서 가르치는 식이었다.

교습소, 학원 뭐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집에서 부르서 가지고. 음대를 나오신 분이 집에서 아이들 불러서 알음알음해서 가르치고. 요즘 과외하듯이. 그렇게 하셨어요. (최현주, 여, 39세)

최현주도 어린 시절, 피아노를 배우긴 했지만 잠깐이었다. 함께 배우던 여동생은 고등학교 때까지도 피아노를 배우고 입시를 위한 레슨까지 받았다. 결국 여동생 역시 음악대학교로 진학할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못했지만,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 피아노 레슨을 받는 동생이 최현주는 꽤 미웠다고 말하였다.

제가 제일 후회되는 게 피아노를 배우다가, 그때는 인제 학원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소개소개로 해서 엄마 친구, 누구 뭐 이렇게 피아노를 배워서. 다녔어요, 피아노를. 옆집 옆집에서 다녔어요. 동생하고 같이 다녔는데 동생하고 경쟁하는 게 싫어서 안 한다고, 안 할 거야 하고 말았거든요. 근데 그게 가장 후회가 되는 게 나중에 대학교 가서 교대 쪽으로 가려고 처음에 했더니 피아노가 필수잖아요. 피아노를 못 치니까. 그렇게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국문과 쪽으로. 중고등학생들 가르치는 건 피아노 안 배워도 되니까.

이지숙(가명, 여, 53세)은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피아노를 보았다. 어릴 적에는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대구의 친척집에 놀러 가서 피아노를 구경하였다. 피아노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이지숙이 지금까지 칠 줄 아는 곡은 그때 사촌에게 배운 「고양이 춤」이라는 곡 딱 하나뿐이다. 그때 피아노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피아노가 신

기했기 때문에 증거를 남기고 싶었다고 했다.

제가 어릴 때요? 드물었죠. 거의 못 보고 자랐던 것 같아요. 부잣집은 있었겠죠. 보진 못했고 제가 처음으로 피아노를 본 건 고등학교 때였어요. 친척집에 가서 본 것 같아요. 대구에 친척집에 갔는데 피아노가 있었어요. 70년대 중반쯤부터 있었던 거 같아요. (사진을 왜 찍었냐면) 나도 좀 피아노를 치는 모습을 남기고 싶어서요. 피아노는 못 치지만. 내가 자주 보던 물건들이 아니니까 소리로 들어보고, 품도 잡아 보고 그랬죠. <이지숙(가명), 여, 53세>



이지숙이 고등학교 때 친척집 피아노 앞에서

2) 어린이의 필수교양

배진옥(여, 37세)은 일곱 살부터 피아노를 쳤다. 공무원이던 아버지와 함께 관사에 살았는데 주변에 피아노를 가르치던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이다. 집에 피아노를 3대 두고 알음알음 이웃들을 가르쳤다. 매일 선생님의 집으로 가서 1시간씩 교습을 받았다. 1~2년 정도 교습을 받다가 이사를 하게 되어 그만두었다. 이사를 간 후에도 떡업떡업 두세 달씩 교습을 받곤 했다. 성당에는 피아노가 있었기 때문에 여동생 배진영과 함께 젓가락행진곡을 치곤 했다. 체르니 40번까지 쳤지만 그만두었다. 배진옥은 피아노 교습보다 태권도 수련하기를 더 좋아했기 때문이었다.

일곱 살 때 배웠어요. 한 일이 년 다니다가 말았어요. 제가 손가락에 힘이 없어가지고. 엄마 위주로 보낸 거였기 때문에. 주변에 아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집에 있는 학원이었어요. 같은 관사에서 가르치는 분이 있었어요. 3대. 가면 한 시간씩 있었어요. 제가 별로 좋아했던 게 아니라서. 손에 힘이 없어서 소리가 잘 안 났거든요. 사진도 있고 그래서. 내가

어려서 피아노를 배웠구나. 동생도 치고, 치기는 꾸준히 쳤던 거 같아요. 교회 같은 데 가면 피아노 있고, 젓가락 행진곡 같은 거 치고, 다니긴 다녔던 거 같아요. 저희가 이사를 하도 많이 다녀 가지고, 시작은 일곱 살 때 했지만 띄엄띄엄. 길어야 두세 달 육 개월 다니다 말고 그랬는데. 체르니 삼십 번 사십 번 들어갔는데 그만뒀어요. 이사를 갔던가. <배진옥, 여, 37세>

곽재은(여, 20세)은 여섯 살 때부터 피아노를 쳤다. 피아노 학원을 다니는 언니인 광재은을 따라 간 것이 시작이었다.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삼환아파트 상가에 있는 삼영피아노학원에 다니면서 피아노 교습을 받았다. 초등학교 3학년 토요일 재량시간에 장기자랑으로 피아노 연주를 할 만큼 곽재은에게 피아노는 ‘특기’였다.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소나티네’ 1번곡으로 콩쿠르에 나갔다. 당시 성적이 좋아 본선에 진출하여 특선으로 입상하기도 했다.

제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재량시간 같은 거 놓고 그러잖아요. 그 때 장기자랑 같은 거 하고 그런데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피아노밖에 없어 해서 피아노 하고 그랬어요. 그 뭐지, 소나티네. 소나티네 1번이요. 그걸로 많이 쳤죠. <곽재은, 여, 20세>

그러나 어릴 때는 피아노를 치는 것이 지겹고 ‘배운다.’는 마음이 강해 내키지 않았다.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 자체가 싫은 것이 아니라, 멋모르고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피아노학원에 가는 것 자체가 어린 곽재은에게는 재미가 없었다. 그저 같이 학원에 다니는 친구와 함께 학원에 다녀와서 교습이 끝나면 놀이터에서 노는 것이 즐거웠던 어린아이였다.

콩쿨 한 번 나갔었어요. 그 콩쿨을 마지막으로 피아노를 그만뒀어요. 그때 본선 진출하고 특선 받았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그걸 마지막으로 피아노를 그만뒀던 거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하기 싫어 가지고. 그냥 지금은 그냥 배우면 좋고 막 그런데, 어렸을 때는 하나 뭐 오래하면 지그시 못하고, 지겹고, 막 그래 가지고. 맨날 엄마 피아노학원 안 가면 안 돼, 학원 가기 싫어 뭐 배우는 걸 싫어했던 거 같아요. 그 당시에는 멋모르고 치고 배우고

그러니까. 하라 그래서 하는 거니까. 생각을 갖고 그러진 않았던 거 같아요. 학원에 친구랑 같이 가서, 같이 레슨 시작하고, 같이 끝나고, 같이 나와서, 같이 놀이터 가서 놀다가 들어오고. 매일매일 갔죠. 어렸을 때는 맨날. <곽재은, 여, 20세>

이지숙(가명, 여, 53세)의 딸 정서연은 7살 때부터 피아노 교습을 받았다. 정서연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지만 이지숙은 꼭 필요한 교양이라고 생각하였다. 정서연이 어릴 때 잦은 이사를 다녔지만 이지숙은 이사를 가면 가장 먼저 자녀의 피아노학원을 알아봐서 등록하였다. 당시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피아노 교습을 받았던 점도 있었지만 이지숙은 자녀의 피아노 연주소리 듣는 것을 좋아하였다. 이지숙은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예체능 특기를 한 가지 가르쳐 두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정서연은 콩쿠르에도 한 번 나간 적이 있다. 좋은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예쁜 드레스를 입고 콩쿠르를 나간 기억은 정서연에게도 뚜렷하였다.



피아노 콩쿠르에 나간 어린시절의 정서연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는 정서연

피아노 치는 게 싫었어요. 피아노를 잘 알지 못했고 잘 못 치니까 엄마의 강압, 강제적으로 다녀야 하는 게, 그런 것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피아노를 잘 못 치니까 재미가 없었죠. 콩쿨을 나간 적이 있는데 그냥 참가상 비슷한 거 그런 거 받았어요. 사실은 그 콩쿨에 나가는 것보다 공주 같은 옷을 엄마가 사 줘서 그게 더 좋았던 거 같아요. 연습하는 건 진짜 지겨웠었는데, 지금은 그때 좀 열심히 할 걸 싶어요. 지금 배우는 건 또 막상 하려면 잘 안



되니까.〈정서연(가명), 여, 25세〉

남들 다 하나까. 주위에서 다 하나까. 음, 손가락을 많이 쓰니까 뇌 발달에도 좋고, 하나 정도의 특기를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시켰죠. 보통 중학교 될 때까지 시켰으니까 7년에서 10년 사이?〈이지숙(가명), 여, 53세〉

조영애의 딸 김지수(여, 16세)는 삼환아파트 상가에 있는 도미넌트음악학원에 다니면서 피아노 교습을 받은 적이 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4년간 정말 열심히 쳤다. 피아노 치는 것을 좋아해서 당시 장래희망이 피아니스트일 정도였다. 조영애도 드레스를 입고 콩쿠르에 나가 좋은 성적을 내는 딸이 자랑스러웠다. 2006년에는 조선음악신문사에서 주최하는 전국음악콩쿠르에서, 2007년에는 수원시 학생음악경진대회에서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두 번의 대상에서 매번 10만 원씩 상금도 주어졌다. 남편도 딸이 피아노 치는 모습을 매우 좋아해서 직접 악보를 구해다 줄 정도였다.

거기 원장님이 워낙 카리스마에 욕심이 있으셔서. 렉서리하면서 약간. 저는 재가 원해서 갔거든요. 저도 좋았어요. 나가 가지고 장학금도 타 오고. 그때는 드레스 대여를 했는데, 옷 이쁜 거 사 가지고 입혀 주고 대회 나가서. 그냥 평상복인데 드레스 대여해서 입은 적도 있는데 한 번 입긴 아깝잖아요. 평상시에도 입을 수 있는 걸로 사서 입혔죠.〈조영애, 여, 45세〉

아빠는 딸 그런 거 있잖아요, 악보를 컴퓨터로 뽑아서 줘요. 그러면 악보 보고 쳐 주고 그랬거든요. 그게 너무 아빠가 즐거워했는데. 나중에 지가 하고 싶으면 하겠죠.〈조영애, 여, 45세〉

송민경(여, 10세)도 도미넌트음악학원에 여덟 살부터 다니기 시작해서 2년째 레슨을 받고 있다. 엄마 조미란이 송민경을 학원에 보내기 전에 주위에 물어 조언을 듣고 학원을 선택하였다.

(도미넌트음악학원은) 되게 오래 됐어요. 원장님 멋있어요. 열성이 되게. 그거 보고 애들

말기는 거예요. 우선 소문을 들었죠. 어디가 괜찮은지 다 듣고, 여기 원장님이 되게 잘하신다고 그래서 갔죠. <조미란, 여, 35세>

송민경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학원에 가서 한 시간씩 레슨을 받고 온다. 오후 7시 이전에만 가면 레슨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교 후 다른 학원을 먼저 다녀오고 나서 피아노학원에 가기도 한다. 조미란은 송민경의 피아노학원비로 한 달에 12만 원을 지출한다. 피아노 교습 중 가장 초급단계인 바이엘은 원비가 10만 원인데 체르니 100번을 거쳐 체르니 30번을 치게 되자 단계마다 만 원씩 올랐다. 다른 학원에 비해 저렴한 편이라고 생각하여 조미란은 만족한다. 2012년 어린이날에는 피아노학원에서 송민경의 사진으로 쿠션을 제작해서 선물하기도 했다. 조미란은 어려서부터 손을 많이 쓰면 머리가 좋아진다는 소리를 듣고 딸 송민경에게 피아노 교육을 시키기 시작하였다.



도미넌트음악학원에서 어린이날 선물로 증정한 민경과 민승남매의 쿠션

여자애들은 감성 이런 거 중요시하고 또 손을 많이 사용해야 머리가 두뇌가 좋다, 뭐 이런 말도 듣고 그래서 피아노를 시작했죠. <조미란, 여, 35세>

3) 피아노를 갖는다는 것

배진옥(여, 37세)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집에서 피아노를 구입하였다. 갈색의 삼익피아노였다. 친구들에게 피아노 생긴 것을 자랑할 정도로 흔한 일이 아니었다. 어머니 김영숙에게 밤에 피아노를 치지 말라고 혼나기도 했다. 1년 정도 가지고 있다가 팔기는 했지만 배진옥의 피아노가 친구들 중에 유일한 것이었다. 하물며 그랜드

피아노는 구경도 못해 봤다. “잘사는 집 누가 가지고 있다더라.”는 소리만 들었다.

저희 집밖에 없었어요. 제가 5학년 때? 삼익피아노 갈색. 그때는 자랑했죠. 치기는 신나게 치는 데 밤엔 치진 말아라. 이사하면서 없었던 거 같아요. 한 일 년 있었던 거 같아요. 이사를 하면서 다시 팔았어요. (그랜드 피아노를)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잘사는 집에는 있다더라. <배진옥, 여, 37세>

정서연(가명, 여, 25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자 어머니 이지숙은 피아노를 사 주었다. 중고가 아닌 새 피아노였다. 정서연은 피아노가 가득한 악기상에 가서 이것저것 두들겨 보며 피아노를 골랐던 장면을 기억하고 있었다. 멜로디언을 붙여가며 연습을 했던 정서연은 피아노를 치는 것이 재미없긴 했지만 집에 피아노가 생긴다는 것은 매우 즐거운 일이었다고 말하였다.

큰애가 초등학교, 유치원 때 피아노를 치면서 피아노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80만 원 정도 주고 구입했죠. 중고 아니었어요. 새 거였어요. 제 주위에서는 다 그렇게 했어요. 중고는 피아노 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 갖고, 일반 가정에서는 새 피아노를 샀었죠. <이지숙(가명), 여, 53세>



정서연의 피아노

이지숙은 정서연이 피아노 치는 것을 즐기지 않아 그만두게 된 것이 못내 아쉽다. 악보라도 볼 수 있으니 때때로 연주를 해 보았으면 하는 마음에 피아노를 처분하지도 않고 있다. 오랜 기간 딸이 찼던 피아노를 팔아 봤자 큰돈이 되지 않을 뿐더러, 무엇보다 아쉬운 마음이 커서 여태 처분하지 않았다. 이지숙은 앞으로 처분하지 않을 예정이다. 정서연이 나중에 시집가서 손자, 손녀를 낳으면 그 때 피아노를 물려줄 생각이다.



송민경의 피아노



송민경의 콩쿠르 입상 트로피

아이들이 찼던 거니까 뭐 팔기도 그렇고, 또 아이들이 시집을 가거나 하면 자기 자식들 가르칠 때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두고 있죠.<이지숙(가명), 여. 53세)

송민경(여, 10세)이 피아노를 처음 배우고 1~2개월 정도 지나자 흥미를 느낀 송민경이 피아노를 갖고 싶어 했다. 그래서 조미란은 지인의 피아노를 중고로 50만 원에 구입하였다. ‘영창피아노’의 제품인데도 건반을 제외한 바디의 높이가 높은 구형 디자인이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다. 조미란은 관리만 잘한다면 송민경이 훗날 딸에게 물려줘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남편이 어려서부터 치던 피아노도 아직 큰택에 남아 있어 조카들이 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냉장고 측면에 부착해 둔 송민경의 콩쿠르 입상 상장



김지수의 피아노와 콩쿠르 입상 트로피

자기가 재미있으니까 집에 와서도 자꾸 치려고 하고 다른 친구들 집에 있으면, 엄마 나도 피아노 사 줘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사 준 거거든요. <조미란, 여, 35세>

피아노는 우리 어머니 집 세류동 가면 신랑 찼던 거 형님께 애들이 그걸 치거든요. 20년이 됐는데. 남편이 어릴 때부터 남편이 열 살 이럴 때부터 그걸 다 찼으니까 오래된 피아노가 있죠. 저희 어머니가 좀 또 극성어서 가지고 피아노, 주 산학원인가 이런 것도 보내고 머리 좋아지는 거 엄청 많이 보냈대는데. <조미란, 여, 35세>

한창 딸(김지수, 여, 16세)이 피아노를 열심히 칠 때, 그 모습이 기특했던 조영애는 피아노를 사주고 싶었다. 마침 이사 가는 지인의 사정이 어려워져서 피아노를 처분하려 한다 하여 중고로 70만 원에 구입하였다. “피아노는 옛날 거일수록 더 좋다.”고 들었던지라 굳이 비싼 신형을 구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5학년이 되자 김지수는 갑자기 피아노가 치기 싫어졌다며 그만두었다. 아끼는 피아노를 팔아 버리라고 할 정도였다. 조영애는 아쉬웠지만 딸의 생각을 존중해 주었다. 그래도 피아노를 버리지는 않았다. 딸이 좋아하며 배웠던 재능을 후에 취미생활로라도 이어 가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정식으로 초등학교 1학년 때 찼는데, 4학년까진 정말 찼거든요. 자기 막 피아니스트 된다고, 줄리아드 음대 유학 간다고 그러더니 지금은. 5학년 들어가니까 하기 싫다고 그래 가지고. 저는 좀 존중하는 편이거든요. 어차피 한 거니까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잖아요. <조영애, 여, 45세>

재가 안 칠 거니까 피아노를 팔으라고. 이제 안 할 거니까. 그때는 싫었던 거 같아요. 나중에 후회한다고 봐 뒤 보라고 했어요. 그 후로 한번 두 번 딱 치더라구요. 오래된 엄마들이



곽재은의 호루겔 피아노



곽재은의 디지털 피아노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애들이 한다고. 나중에 스트레스 받으면 이걸로 스트레스 풀어도 되잖아요. 지가 알아서 하겠죠. <조영애, 여, 45세>

곽재은(여, 20세)이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 집에는 신디사이저와 갈색 영창 피아노가 있었다. 영창피아노는 큰어머니가 처분하려던 것을 구입한 것이다. 그 후 작은어머니가 호루겔(HORUGEL)이라는 독일 브랜드의 피아노를 폐기하려 하자 곽재은이 증여받았다. 집에는 디지털 피아노도 있는데 곽재은의 아버지가 7-8년 전에 홈쇼핑에서 우발적으로 구입한 것이다. 곽재은이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면서 부터는 이 디지털 피아노를 많이 사용하였다. 음량을 줄일 수도 있고, 헤드폰을 꽂으면 밤늦게까지 연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전에 있던 피아노는) 갈색이었는데요, 국내 브랜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맨 처음에 신디였어요. 맨 처음에 신디였다가 그다음에 영창이었다가 그거 팔고 애(디지털 피아노) 사고, 애(호루겔 피아노) 사고. 애는 이거 홈쇼핑으로 산 건데요, 이게 아빠가 사신 거예요. 그냥 사신 건데 왜 샀냐고 하니깐 이런 거 있으면 좋다고. 이거는 거의 고등학교 때 많이



쳤어요. 이거(호루겔 피아노)는 밤에 못 치잖아요. 이거(디지털 피아노)는 소리 작게 해서 치거나 여기다 헤드폰 꽂고 치면 되니까. <곽재은, 여, 20세>

그거(영창피아노)는 샀어요. 사촌한테 샀어요. 그건 샀어요. 우리 형님 거. 그분이 이민을 가서. 그거는 팔고 가야 하는 입장이나 우리한테 우리가 사라 애네들 저기 하나씩 사라. 그래서 이거(호루겔 피아노)는 우리 동서네는 그냥 갖고 온 거고. 자기네 처리해야 하는 걸 우리가 처리해 준 거고. 어릴 때는 우리는 저 피아노가 아니라 디지털 피아노가 아니고 신디사이저가 있었지. <오미환, 여, 50세>

4) 대학입시를 위한 피아노 교육

곽재은(여, 20세)은 수원과학대학 실용음악과 1학년에 재학 중이며, 보컬을 전공하고 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노래를 부르는 데 관심이 생겨 실용음악을 전공할 마음이 들었다. 드림실용음악학원이라는 곳에 2개월 다니다가 그만두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화서시장에 위치한 한세실용음악학원으로 입시공부를 하러 다녔다.

노래 부르고 이런 거 관심도 많고, 계속 하고 싶고, 그래서. 그리고 막 대학도 가고 해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마침 그런 쪽으로 대학도 갈 수도 있다 그리고. 그래서 막 알아보다가 그렇게 됐어요. <곽재은, 여, 20세>

이 과정에서 곽재은은 피아노를 다시 배워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만두었던 피아노 교습을 고등학교 1학년 때 다시 시작하게 된 것이다. 어릴 적에 다니던 삼영피아노학원에 다시 다니기 시작하면서 피아노 이론 수업을 받기도 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실용음악 이런 거 하고 싶어 가지고 학원 한 2개월 다녔어요. 그만 뒀다가 고등학교 때 다시 학원 제대로 다니고. 실용음악은 보컬이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여기 앞에 상가에서 피아노 학원 다녔구요, 삼영피아노학원. 거기서 입시할 때 거기서 막 배우고 그랬어요. 원장님이랑 친해 가지고. 거기서 피아노 이론 이런 것도 많이 알려 주시고.

아파트 상가 3~4층에 위치한 도미넌트 음악학원에서는 피아노 연주법을 가르친다. 가장 많은 때는 전 원생의 80% 이상이 삼환아파트 주민이었던 데 반해, 현재는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학생들은 모두 외부 학생들로 주로 매통동, 서둔동, 정자동 등지에서 많이 온다. 지금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 제일 많다. 전반적으로 원생 수가 줄고 있는 실정이다. 이 학원의 원장인 이미원에 따르면, 학생들은 학교에서 주 5일 수업을 하다 보니 총 수업시간을 맞추느라 하교시간이 늦어져 피아노학원에 올 시간이 없는데, 학교에서도 음악시간이 점점 줄고 있어 음악적 소양을 키워야 한다는 의식 자체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원은 원생이 점차 줄어서 성인들이 취미로 배울 수 있는 반을 개설할 생각도 가지고 있다.

이미원이 대학원 시절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음악을 많이 배우는 곳이 수원이었다. “수원만 잡으면 다 잡는다.”고 레슨비도 가장 비쌌다. 이 학원은 원래 이미원의 대학원 후배가 운영하고 있었다. 후배가 임신으로 운영을 그만두게 되자 10년 전에 이미원이 다른 곳에서 운영하던 학원을 정리하고 인수하였다.

여기가 잘되는 거 알고, 수원시에서 여기보다 잘되는 데 없을 걸요. 왜냐면 문 하나 이거 밖에 없으니까. 정문 하나에. 이렇게 좋은 자리가 없어요. (이미원, 도미넌트음악학원 원장, 여)

그녀가 학원을 인수했을 때는 3층만 사용하고 있었다. 인수받을 당시 70명이었던 원생의 수가 점점 증가하여 4층까지 확장하였다. 이미원의 운영을 돕고 있는 보조강사들도 모두 도미넌트음악학원의 졸업생이다. 이곳에서 이미원의 지도를 받고 입시에 성공한 학생들이 이미원의 운영을 도우면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때때로 입시생들을 위해 유명한 교수님을 초청해서 레슨을 진행하기도 한다.

대학원 나오고 대학원 몇 개씩 나와도 음악이라는 게 어렵거든요.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유명한 교수님들 많이 모시고 레슨하고, 일부는 돈인데 그래도 교육을 넣고 돈이라는 거. 일부는 돈 벌려고 하는데 양심적으로 좀 벌지는 거지. 내가 모지라면 더 좋은 사람 불러놓고 하고, 내가 보니까 알더라. 진실은 다 아는 거 같애. 일 년만 지나



삼환아파트 상가의 삼영음악학원과 도미넌트음악학원



삼환아파트 상가 입구에 부착된 삼영음악학원과 도미넌트음악학원 포스터

면 알더라. 내가 아무 때나 해야지 하면 아무 때나 알고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알아주고.
<이미원, 도미넌트음악학원, 여>

부산 출신인 이미원은 서울에 올라온 지 28년이나 되었어도 말투가 그대로이다. 부산 말투를 쓰면서 열정적으로 학원을 운영하는 이미원 원장에 대한 신뢰는 학부모들이 피아노학원을 선택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도미넌트음악학원을 선택한 학부모들은 하나같이 ‘원장님의 열정 때문’ 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1. '옷' 에 담는 의미
2. 의복의 관리
3. 의복의 소비
4. 의복의 재활용

02 | ‘옷’, 삶에 스며들다

우리는 살면서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옷을 입는다. 옷을 입는 행위는 일상의 틀 안에서 늘 이루어지므로 우리는 옷에서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다. 세상에 갓 태어난 아기에게는 배냇저고리가 입혀지고 이승을 떠나 저승에 가는 사람의 마지막 길에는 수의(壽衣)가 입혀진다. 이처럼 인간의 출생과 죽음의 순간에 옷이 함께하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옷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의생활은 자연스럽게 개인적, 사회적 동기에 따라 또는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이나 집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었다.

조사지역인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삼환아파트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다양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 누구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같은 힘든 시절이 있었다고, 지금은 너무 살기 좋은 편한 세상이라고 말하고, 또 누구는 막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에 여념이 없다고 말한다. 이처럼 서로 다른 삶을 사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생활을 살펴보는 것은 삼환아파트라는 특정 집단을 넘어 이 시대 보통사람들의 의생활을 이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특정 시대에 어떤 패션이 유행했느냐를 조사하기보다는 삼환아파트에 거주하는 보통 사람들의 의생활 문화를 살펴보는 데 조사의 목적이 있다.

1항목에서는 삼환아파트 주민 4명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벌의 의복 중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옷, 소중한 옷, 아끼는 옷, 자주 입는 옷들을 조사



하였고, 2항목에서는 의복의 관리 방법 중 일상생활에서 행해지는 세탁과 보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3항목에서는 의복의 소비와 관련된 행위 중 의복의 구매 동기, 구매 정보 수집, 구매 결정, 구매 장소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4항목에서는 개인의 주변 환경적인 이유나 물리적인 요인으로 더 이상 착용하지 않는 의복들의 재활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는 2012년 2월에서 2012년 8월까지 수시로 실시하였다. 2~3월에는 삼환아파트 현장을 다니면서 제보자 목록을 작성하고, 의생활을 하는 데에 필수 활동인 의복의 관리, 소비, 재활용 등을 선정하여 분류하였다. 4~8월은 직접 조사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의생활에 대한 설문지 조사를 하고, 제보자를 섭외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설문지 조사는 조사지를 돌아다니면서 만나게 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가능했다. 그리고 설문지 조사 중에 본 조사의 취지와 의의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관심을 가지고 방문 면담을 흔쾌히 응해 주는 경우가 있어서 제보자 섭외가 가능했다. 면접조사와 설문조사는 제보자가 스스로 기록한 자료들을 최대한 활용하였고, 조사된 것들에 대해서는 실명 사용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신분 노출을 원치 않는 제보자의 경우에는 익명을 사용하였다.

1. ‘옷’에 담는 의미

1) 김혜경(여, 1960년생)

김혜경은 25살, 19살의 두 아들을 둔 가정주부로 삼환아파트에는 2007년부터 살기 시작해 올해로 5년째 이 아파트의 주민이다. 김혜경은 계절 적응의 필요성을 느낄 때에 의복을 구입하기 때문에 구매횟수는 따로 정해 두지 않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구입한다. 구매를 결정하기 전에 필요한 상품에 대한 정보는 자신의 이전 구매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주로 매장의 상품 진열, 전단지과 카달로그 등의 광고를 통해 얻는다.



〈그림 1〉 김혜경의 차마정장



〈그림 2〉 김혜경의 바지정장

또한 유행에 민감하지 않은 스타일을 선호하기 때문에 옷을 구입할 때 현재 소유하고 있는 옷과 잘 어울리는지를 생각하고 편안함과 쾌적성을 등을 함께 고려하여 구매를 결정한다. 구입 장소는 백화점에서 브랜드 옷을 정상 가격으로 구입하는 것 보다는 할인해서 구입할 수 있는 할인매장을 주로 이용한다.

저는 쇼핑을 원래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냥 한 번 사면 오래 입어요. 그래서 계절이 바뀌면 필요한 거 한 개나 두 개 사는 정도예요. 저는 요즘 생각 없이 많이 사고, 얼마 입지 않고 버리는 소비문화는 잘못 됐다고 생각해요. 살 때는 유행하는 것보다는 가지고 있는 옷하고 잘 어울리는 걸로 사요. 그래야 유행 안 타고 무난하게 오래 입을 수 있어요. 요즘은 옷값 거품이 심해서 제값 주고는 못 사겠고 아울렛 가요. 뉴코아 아울렛을 자주 가고 백화점은 브랜드테이라고 해서 세일할 때 가끔 가서 구입해요.



(1)가장 의미 있는 옷

김혜경이 가지고 있는 의복 중 가장 의미가 있는 옷은 큰아들이 선물해 준 정장 두 벌이다. 한 벌은 <그림 1>의 스트라이프 무늬가 들어간 치마정장인데, 고3 때에 수시에 합격하고 학원에서 일하고 받은 첫 월급으로 선물한 옷이다. 다른 한 벌은 <그림 2>의 스트라이프 무늬가 들어간 바지정장으로, 중학교 2학년 때 용돈을 모아 생일을 기념해서 선물해 준 것이다. 몸에 비해 커서 잘 입지는 않지만 보고만 있어도 아들의 사랑이 느껴지는 소중한 옷이다.

치마정장은 큰아들이 수시 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번 돈으로 사 준 거예요. 수시 합격하고 학원에서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으로 사 준 옷이라 의미가 커요. 바지정장도 큰아들이 사 준 건데 중학교 2학년 때 모은 용돈으로 제 생일 때 선물해 준 옷이에요. 그때 돈에 맞춰서 사느라고 아들이 모은 돈이 별로 없으니까 시장에서 샀는데 옷이 좀 커요.

(2) 낡았지만, 그래서 더 손이 가는 옷

<그림 3~6>의 치마들은 제보자가 결혼하기 전부터 착용했던 것으로, 시간을 초월해 삶 자체를 담고 있어 더욱 애착이 가는 옷이다. 20년도 더 된 옷들이지만 세탁과 보관을 잘해서 요즘에도 교회에 갈 때나 외출할 때에 자주 착용한다. 김혜경은 유행을 쫓아 의복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체형에 잘 맞고, 입어서 편안한 옷이면 유행과 가격에 상관없이 구매해 오래 입는 편인데, 이것은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거는 오래 됐어요. 아가씨 때부터 입었던 거예요. 나는 옷을 남이 많이 입거나 유행하면 나도 입어야지 하는 생각이 없어요. 난 내 마음에 들면 계속 입어요. 한 번 마음에 들면 좋은 것을 사서 오래 입는 스타일이예요. 순간 충동구매해서 잘 안 입고 버리면 이것도 낭비고 환경오염이잖아요. 한 번 살 때 신중하게 생각하고 사서 오래 입어야 훨씬 경제적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림 3〉 김혜경의 분홍색 주름치마



〈그림 4〉 김혜경의 회색 주름치마



〈그림 5〉 김혜경의 파란색 주름치마



〈그림 6〉 김혜경의 갈색 치마

2) 조미란(여, 1978년생)

조미란은 이란성쌍둥이인 아들 송민승과 딸 송민경의 엄마로 이웃들에게는 쌍둥이 엄마로 불린다. 조미란이 옷을 구입하는 가장 큰 동기는 아이들의 학교 행사에 참석할 때나, 집안의 경조사에 참석하기 위해서이다. 옷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정보는 이전 구매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인터넷이나 온라인 쇼핑몰의 광고 또는 패션

잡지 광고를 통해서 얻는다. 옷을 구입하는 데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품의 브랜드이다. 값이 다소 비싸더라도 보세'보다는 브랜드 옷을 더 선호하며 한 브랜드의 옷이 마음에 들면 꾸준히 그 상표만을 구입한다. 평균 의복 구매횟수는 2개월에 1번 정도이고, 브랜드 옷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할인매장을 자주 이용한다.

평소에 옷을 자주 사지는 않아요. 애들 학교 행사 갈 때나, 집안 경조사 같은 데 가려고 가끔 사요. 자주 안 사고 일 있을 때에 사니까 보세'보다는 메이커를 사요. 소재도 확실히 좋고 더 오래 입는 것 같아요. 백화점 가면 정가로는 비싸니까 주로 아울렛 가서 사요. 아울렛도 세일할 때가 있어서 그때 가면 더 싸게 살 수 있어요.

(1) 가장 소중한 쌍둥이들의 배넛저고리

조미란이 가장 소중하게 보관하는 옷은 본인의 것이 아닌 이란성 쌍둥이들의 배넛저고리이다. <그림 7>의 파란 배넛저고리는 아들 민승이가 입었던 것이고, <그림 8>의 노란 배넛저고리는 딸 민경이가 입은 것이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입는 옷인 배넛저고리를 소지하고 있으면 운이 좋다고 여겨 버리지 않고 보관하다가 시험을 치를 때, 소송사건이 있을 때 등의 중요한 일에 소지하고 갔던 풍습이 있었다. 제보자도 배넛저고리를 보관해 온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어렸을 때부터 배넛저고리는 버리지 말고 보관해야 한다는 말을 주위의 어른들에게서 들어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버리지 않고 깨끗하게 세탁해서 보관해 오고 있다.

배넛저고리는 제가 직접 구입했어요. 가격은 1만 2,000원에서 1만 3,000원 정도에 샀어요. 쌍둥이라는 거는 미리 알았는데 성별을 안 가르쳐 줘서, 병원에서 여자라는 거라도 알려 줬으면 핑크색으로 샀을 텐데 안 알려 줘서 그렇게 못 했어요. 옛날부터 주위 어른들한테 배넛저고리는 버리지 말라고 들어있어요. 그래서 민승이, 민경이가 나중에 커서 장가가고 시집갈 때 주려고 생각했어요.



〈그림 7〉 아들 송민승의 배넛저고리



〈그림 8〉 딸 송민경의 배넛저고리



〈그림 9〉 아들과 딸의 배넛저고리



〈그림 10〉 배넛저고리의 고름을 묶고 있는 모습

(2) 가장 의미가 있는 옷, 남편의 선물

조미란에게 가장 의미가 있는 옷은 남편이 선물로 사 준 옷들이다. 조미란은 전라남도 해남 출신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원에 있는 백화점에 취직하여 일하던 중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 〈그림 11〉의 검은색 코트는 결혼하고 나서, 〈그림 12〉의 바지정장은 연애시절에 남편이 선물해 준 것이다. 10년도 더 된 옷들이라 유행도 지났고 많이 낡았지만, 남편의 마음이 담긴 선물이라 버릴 수 없는 소중한 옷이다.



〈그림 11〉 조미란의 겨울 코트



〈그림 12〉 조미란의 바지정장

검은색 코트는 추운 겨울에 가끔씩 입어요. 길이가 길어서 따뜻하거든요. 저게 한 10년 정도 됐죠. 살 때 비싸게 주고 좋은 거 사서 그런지 아직도 입으면 따뜻해요. 바지정장은 바지 길이가 발목 정도 와서 요즘엔 안 입어요. 입으면 촌스러워요. 연애할 때 남편이 선물해 준 건데, 그때는 유행이었거든요. 안 입어도 남편이 선물해 준 거라 절대 못 버리죠.

3) 광성은(여, 1991년생)

22살의 대학생 광성은은 영화가 좋아 학교를 휴학하고 세라믹디자인을 전공했던 예술적 재능을 살려 영화미술을 공부하는 중이다. 광성은이 옷을 구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낡은 의복을 새 옷으로 대체해 새로운 유행의 흐름에 동조하기 위해서이다. 옷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정보는 친한 친구들로부터 얻거나 온라인 쇼핑몰과 패션 잡지의 광고를 통해서 얻는다. 옷을 구입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품의 가격인데, 그 이유는 아직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아서 생활하는 학생이기 때문이다. 가격 다음으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옷과 조화를 이루어 잘 입을 수 있는지

를 고려한다. 의복을 구매하는 횟수는 평균 2개월에 1번 정도이고 주로 인터넷을 통해 구입하지만, 친구들과 함께 구입하려 갈 때에는 서울의 명동이나 신사동의 가로수길에 간다. 명동에 가면 주로 ALAND라는 의류매장에 가는데 좋아하는 빈티지(vintage)² 옷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브랜드 옷은 학생인 본인 신분에 비해 가격이 고가여서 자주 구입할 수 없으므로 저렴한 가격의 빈티지 옷을 구입해 새롭게 수선해서 입는 것을 좋아한다.

(1) 제일 아끼는 옷

곽성은이 제일 아끼는 옷은 ALAND에서 3만 원대 초반에 구입한 <그림 13>의 빈티지 재킷이다. 많이 두껍지 않아서 한겨울에는 못 입고 초겨울과 초봄 사이 스웨터나 티셔츠와 함께 착용한다. 이 옷을 제일 아끼는 이유는 치마나 원피스를 입을 차림보다 바지와 티셔츠 차림의 캐주얼 스타일을 더 좋아하는 곽성은의 취향에 꼭 맞기 때문이다.

저는 비싼 옷이 없거든요. 비싼 옷 한 벌 사는 것보다는 같은 가격으로 저렴한 데서 여러 벌 사는 걸 좋아해요. 이거는 초겨울이랑 초봄에 되게 많이 입고 다녔거든요. 아래는 검은 바지나 청바지를 입고 소매 길이가 좀 짧아서 소매가 좀 긴 가디건을 안에 입고 입었어요.

(2) 자주 입는 옷

곽성은은 입었을 때 활동하기 편한한 옷차림을 좋아한다. 그래서 바지를 즐겨 입는데, <그림 14>에서 보이는 것처럼 상의는 셔츠를, 하의는 회색 바지를 입고 외투로 가죽 재킷을 입는 것이 평소 스타일이다. 가죽 재킷은 인터넷에서 6만 원에, 바지는 유니클로에서 구입하였다. 체크무늬 셔츠는 여동생의 것이지만 색이 마음에 들어서 자주 빌려 입는다. 또 가죽 재킷 대신 <그림 15>에서 보이는 맨투맨 티셔츠에 <그림 14>의 남방과 바지를 함께 연출해서 입는 것이 가장 자주 착용하는 스타일이다.



〈그림 13〉 광성은의 자켓



〈그림 14〉 광성은의 가죽재킷, 남방, 바지

입어서 편한 게 좋아요. 남방은 동생 건데 색깔이 맘에 들어서 제가 더 자주 입고, 바지는 유니클로에서 산 건데 가격은 기억이 잘 안 나요. 회색을 좋아해서 샀어요. 가죽 자켓은 진짜 가죽 아니에요. 인조예요. 그래서 6만 원에 샀어요. 가죽 자켓 안에 남방이나 티셔츠 입고 저 회색 바지 입고 자주 외출해요.

(3) 빈티지(Vintage)를 사서 수선한 옷

〈그림 16〉은 광성은이 명동에 있는 ALAND라는 상호의 의류매장에서 구입한 빈티지 원피스인데 원래 길이는 발목까지 오는 것이었지만 구입 후 아파트 상가 안에 있는 세탁소에 맡겨서 무릎까지 오는 길이로 수선하였다. 평소 치마를 자주 착용하지 않지만, 기분전환을 하고 싶을 때에는 꼭 이 원피스를 꺼내 입는다.

광성은이 즐겨 착용하는 빈티지 의상은 패션업계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유행 중의 하나로, 1990년대 말 미국 대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국내에



〈그림 15〉곽성은의 맨투맨 티셔츠



〈그림 16〉곽성은의 원피스

서도 빈티지 의류 마니아들이 널리 착용하고 있다. 낡고 오래된 제품을 그대로 현대의 패션에 적용하기도 하고, 그 제품에 곽성은과 같이 자신만의 취향과 감각을 담아 새롭게 만들어 내기도 한다.

명동에 있는 ALAND에서 샀어요. 거기 가면 빈티지 옷들만 모아 놓고 팔거든요. 가격도 얼마 안 비싸요. 3만 원에서 4만 원이면 자켓이나 원피스 살 수 있어요. 원래는 길이가 발목까지 오는 거였는데 제가 무릎까지로 수선했어요.

(4) 22살 여대생의 가방 속 물건들

곽성은은 가방 안에 이어폰, 핸드크림, 립글로스, 립스틱, 립밤, 지갑, 핸드폰 등을 넣어 다닌다. 〈그림 17〉의 가방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것으로, 핑크색이 마음에 들어 구매하였다. 평소에 화장은 잘 안 하고, 입술에 립스틱만 바르는 정도여서 색조 화장품보다는 여러 가지 색상의 립스틱과 립밤을 가지고 다닌다. 가방 안에 항상 넣어 다니는 지갑 안에는 현금과 카드 외에도 본인의 증명사진과 고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찍은 스티커 사진이 들어 있다.

화장 안 하고, 입술에 립스틱만 살짝 발라요. 비싼 거는 못 사고 제 용돈에서 살 때는 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사요. 샤넬 립스틱은 아빠가 엄마한테 선물해 주신 건데 제가 쓰고 있



〈그림 17〉곽성은의 가방과 가방 안의 물건들



〈그림 18〉곽성은의 지갑

어요. 스티커 사진은 고등학교 친구들인데, 지금은 잘 못 만나요. 엄청 친했던 친구들이라 지갑 열 때마다 사진 보면 생각도 나고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안 버리고 다른 지갑으로 바꿀 때도 꼭 챙겨요.

(5) 곽성은의 신발

곽성은은 신발에 열광하는 슈즈 홀릭(shoes hollic)³은 아니지만, 신발은 반드시 옷차림에 어울리는 것을 착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종류의 신발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개성과 특성이 있는 것을 구입해 그때그때의 옷차림에 어울리게 착용한다.

저는 퓨마 운동화가 좋아요. 편하고 이쁘기도 하고, 나이키는 신으면 좀 불편해요. 원래 신던 운동화가 있었는데 찢어져서 아빠가 불쌍해 보이셨는지 사 주셨어요. 굽이 낮은 구두는 아르바이트할 때 단화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샀는데 일하는 데서 신지 말라고 해서 지금은 외출할 때 신어요. 검은색 앵클부츠는 굽이 있는 신발을 신고 싶었는데, 굽이 휘어진 게 특이해서 샀어요. 검은색 워커는 2011년 겨울에 구입한 거예요. 5만 원에 샀는데, 따뜻해서라기보다 예뻐서 샀어요.



〈그림 19〉곽성은의 운동화



〈그림 20〉곽성은의 구두



〈그림 21〉곽성은의 부츠1



〈그림 22〉곽성은의 부츠2

4) 이슬아(여, 1995년생)

이슬아는 울천고등학교 2학년이 재학 중이다. 피아노와 바이올린 연주가 취미인 슬아는 이제 곧 3학년이 되는데 수능을 잘 봐서 중문학과에 진학하는 것이 목표이다. 방학을 제외하면 하루 중에 교복을 입고 지내는 시간이 사복을 입는 시간보다 더 길어 많은 종류의 옷을 가지고 있지 않다. 가족 모임이나 친구들을 만날 때에는 주로 청바지에 티셔츠를 착용한다.

이슬아가 옷을 구입하는 가장 큰 동기는 계절 적응의 필요성을 느낄 때이다. 교복을 입는 시간이 더 많아 평상복을 자주 구입하지는 않고, 겨울에 교복 위에 착용할 코트 같은 외투를 주로 구입한다. 옷을 구매할 때에는 주로 친구나 인터넷 광고,

자신의 구매경험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엄마와 함께 쇼핑하는 것보다는 용돈을 받아 친한 친구들과 함께 수원역에 있는 의류매장에 가서 구입하는 것을 좋아한다.

(1) 가장 자주 입는 옷, 교복

〈그림 23~25〉는 이슬아가 재학 중인 울천고등학교의 교복이다. 학생의 신분이라 교복을 입고 생활하는 시간이 평상복을 입고 생활하는 시간보다 훨씬 길다. 하복은 칼라가 달린 티셔츠에 회색 치마인데, 티셔츠는 한창 성장기에 있고 활동이 많은 아이의 움직임에 불편함이 없게 하도록 신축성이 있는 소재로 만들어졌다. 간복(間服)은 체크무늬 치마에 흰색 남방과 조끼를 입고, 넥타이와 보우 타이(bow tie) 중에서 원하는 걸로 바꿔 가면서 착용한다. 동복은 간복과 같은 차림에 위에 재킷만 입으면 된다.

친구들 사이에서 어디 교복 브랜드가 더 낫겠냐 보이나. 이뻐 보이나. 다 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교복은 엄마랑 같이 가서 샀는데 고등학교 교복은 친구들이랑 가서 샀어요. 교복 불편해요. 치마 입는 것도 불편하고, 그래서 학교에서는 체육복 바지로 갈아입어요. 남방에 넥타이 해도 되고 리본 해도 되는데 저는 넥타이를 더 좋아해서 리본은 거의 안 해요.

교복은 한 번 구매하면 보통 졸업할 때까지 입기 때문에 한창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의 신체 치수에 적합하게 늘리거나 줄여서 착용해야 한다. 잦은 수선과 세탁으로 교복은 빨리 닳거나 해지게 되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교복이 등장하고 있다. 아래의 기사를 보면 이슬아가 착용하는 하복 상의와 같이 여름을 대비한 기능성 원단 소재를 사용하는 것은 기본이고 활동 시에 불편함을 최소화한 과학적인 패턴과 실용적인 기능들이 추가된 교복들이 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즘 학생들은 좋겠네~” 진화하는 스마트 교복

여름철, 세탁비 줄이는 교복? 스쿨룩스는 땀이 많이 나는 여름, 하복 거드랑이 부분에 탈부착이 가능한 윈윈 패드를 붙여 땀 흡수는 물론 교복 세탁도 한결 편하도록 했다. 등판에는 쿨메쉬 원단을 덧대어 땀을 빨리 흡수하고 금방 건조시켜 쾌적한 착용감을 주는 등



〈그림 23〉 이슬아의 하복



〈그림 24〉 이슬아의 간복



〈그림 25〉 이슬아의 동복

시에 원단이 피부에 달라붙지 않도록 방지해 주는 기능도 한다. 또한 피부관리에 민감한 여학생 블라우스에는 자외선을 99.5% 차단하는 기능성 소재를 사용해 여름철 태양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준다. 하의에는 KS인증업체인 킥텍스의 연사 안감을 적용하여 통풍성을 높이고 땀이 나도 옷이 피부에 달라붙지 않도록 착용감을 높였다. …… ‘교복 디자인은 거기서 거기?’ 라인을 드러내는 교복 디자인은 단순하고 별 차이가 없을 것이란 생각은 오해다. 일반 의류와 달리 교복 제작은 성장기 학생들의 잦은 체형변화와 장시간 착용을 한다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더욱 정교하게 만들어진다. 스쿨룩스는 교복 업계 중 유일하게 최근 한국 청소년들의 신체 사이즈를 측정하여 변화된 체형에 맞춘 3D 바디를 통해 교복을 제작하고 있다. 상의는 뒷목과 어깨라인 등 인체의 굴곡을 반영하고 있어 옷이 뜨거나 끼는 현상이 없으며 여학생의 블라우스는 평균 가슴둘레 사이즈를 반영하여 가슴이 조이거나 헐겁지 않게 해 편안한 착용감은 물론 스타일까지 더했다. 남학생 하의는 최근 청소년들의 길어진 평균 다리 길이와 엉덩이의 비율을 고려해 바지가 불편하게 달라붙는 현상을 없앴으며 다리 길이 또한 길어 보이게 한다. …… 교복에 숨은 ‘똑똑한’ 기능들! 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기능들도 눈길을 끌고 있다. 스쿨룩스는 여학생 블라우스 상의는 활동 시 단추가 풀어져 벌어지기 쉬운 가슴과 하단 부분 안쪽에 에티켓 지퍼와 벌어짐 방지 단추를 달아 움직임에 제약이 없도록 했다. 또한 신체변화가 잦은 청소년기를 감안해 하의 사이즈를 좌우 1인치까지 조절할 수 있는 슬라이딩 매직 밴드를 달



〈그림 26〉 이슬아의 책가방 1



〈그림 27〉 이슬아의 책가방 2

아 학생들이 편안하게 교복을 입을 수 있도록 했다.⁴

(2) 교복의 짝꿍, 책가방

학생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이 바로 책가방이다. 〈그림 26~27〉은 이슬아가 책과 기타 학용품을 넣어서 다니는 책가방이다. 〈그림 26〉의 책가방에 달린 인형은 친구가 생일선물로 사 준 것으로 항상 달고 다닌다. 〈그림 27〉의 책가방은 중학교에 입학할 때 구입한 것인데,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

저는 메이커에 별관심이 없어서요. 비싼 메이커 가방이나 점퍼를 갖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학생 신분에는 너무 비싼 것 같아요.

(3) 가장 즐겨 입는 옷

이슬아는 아직 교복을 입는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평상복이 많지 않다. 학원 갈 때나 주말에 친구들과 만나러 갈 때는 주로 〈그림 28〉처럼 청바지에 니트나 티셔츠



〈그림 28〉 이슬아기 평상복으로 즐겨 입는 니트와 청바지

를 즐겨 입는다. 니트와 바지 모두 보세에서 산 것으로 교복으로 항상 치마를 입기 때문에 평상복으로는 치마보다 바지를 주로 입는다.

보세에서 산 거예요. 니트는, 요즘에 바지에 티셔츠 입는 게 편하고 제일 좋아요. 학원 가고 친구들 만나러 갈 때 또 치마 입기 싫어서요. 교복으로 매일 입으니까.

2. 의복의 관리

1) 세탁

의복은 착용 후 세탁하지 않고 보관할 경우 남아 있는 오염으로 얼룩이 생기고 약해져 쉽게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착용한 후에는 될 수 있으면 솔질하기, 얼룩빼





〈그림 29〉 멜로디 세탁기 출시 관련 기사(『동아일보』, 1982년 1월 16일)

기, 세탁, 건조, 다림질 순으로 손질해 줘야 항상 새 옷과 같이 착용할 수 있다.

세탁을 일주일에 몇 번 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40명의 응답자 중 52명이 일주일에 1~2회 세탁하는 것으로 응답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47명이 3~4회, 30명이 횟수를 정하지 않고 틈틈이 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일주일에 5~6회로 거의 매일 세탁하는 경우는 11명으로 가장 적은 수가 응답하였다.

제가 일을 다니기 때문에 빨래를 자주 못하고 몰아서 한꺼번에 해요. 근데 아이들 양말이나 교복 남방 같은 거는 퇴근하고 저녁에 손빨래로 빨아요. 양말은 이틀에 한 번 정도 손빨래 해 줘요. 급한 거는 손빨래해야죠. 아닌 거는 주말에 쉴 때 세탁기에 넣고 돌리고.〈양현숙, 여, 1967년생〉

오늘날 세탁은 상하수도의 보급 및 세탁기와 화학 세제의 발명으로 계절과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기구와 세제 발달 이전의 세탁은 냇가나 도랑, 샘 등

에서 빨랫돌 위에 빨랫감을 놓고 빨랫방망이로 두들기는 과정이었다.⁵

지금에야 세탁기로 편하게 빨래하지. 옛날에는 다 손빨래였어. 빨랫방망이로 두들기고 겨울에도 찬물에 빨래했어. 처음으로 세탁기 쓰기 시작한 게 1980년도쯤이었어. 그때 빨래가 다 끝나면 음악이 나오는 세탁기가 있었거든. 그거 사서 썼어. 세탁기 있는 집이 몇 집 없었어. 세탁기에 빨래하니깐 세상 편하더라고. 근데 그때도 걸레나 속옷은 다 손빨래 해서 입었어. 더러운 걸레를 옷이랑 같이 빨 수 없으니까 그리고 걸레 쓸 일이 많잖아. 일일이 세탁기 못 돌리지. 전기세, 물세가 많이 나와. <최옥례, 여, 1949년생>

조미란(여, 1978년생) 주부가 세탁하는 순서와 방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세탁 방법과 많이 다르지 않다. 세탁하는 순서는 저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 방법은 보편적이기 때문에 조미란의 세탁 방법은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주부들에게 통용되는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세탁 순서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세탁물을 손빨래할 것과 세탁기로 빨래할 것을 분류한다. 그다음에 옷감의 성분과 의복의 형태에 따라 분류한 다음 세탁기에 넣고, 세탁물의 성분과 오염의 종류에 따라 이에 알맞은 세제를 선택한다. 세제를 선택했으면 이를 세탁기에 투입하고, 세탁물에 알맞은 세탁온도와 시간을 설정한 뒤 세탁을 한다. 세탁이 끝나면 탈수를 하는데 약한 옷감의 경우 탈수 시간이 길어지면 외관이 변형될 수 있으므로, 의복의 성질에 따라 알맞은 시간을 설정하여 탈수한다. 탈수가 끝나면 건조를 하고, 완벽한 건조가 되면 가족별로 분류하여 정리한다.

(1) 세탁물 분류

성분별 분류 : 옷감의 성분은 옷의 안쪽에 부착된 성분표시와 취급표시를 참고하여 섬유유종의 종류에 따라서 면, 마, 견, 모 등으로 분류한다.

옷의 안쪽에 라벨이 부착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물세탁할지 드라이클리닝할지 다 적혀 있어요. 그거 보고 옷감 종류대로 분류해요. 한두 번 보면 다음 빨 때부터 기억이 나니까 안 보고도 분류하죠. 면이나 합성섬유는 세탁기에 빨아도 양모나 실크제품은 세탁소에

말려서 드라이클리닝해요.

형태별 분류 : 취급방법에 따른 분류가 끝나면 옷감의 형태와 색상에 따라 세탁 물을 분류한다. 흰 옷은 염색 옷과 분리해야 하는데, 이는 같이 세탁할 경우 염색 옷의 색이 흰 옷에 옮겨지거나 흰 옷의 보푸라기가 염색 옷에 붙어 외관을 해치기 때문이다. 또한 옷감이 약하고 형태가 변형되기 쉬어 손세탁해야 하는 것도 따로 분류한다.

흰 옷은 다른 염색 옷과 같이 세탁하면 염색 옷의 색이 흰 옷에 옮겨져요. 그래서 흰 옷은 흰 옷끼리 분류하고, 니트는 세탁기에 빨면 늘어나거나 모양이 변형되기 때문에 손빨래 하는 통에 따로 분류해요.

오염의 종류와 양에 따른 분류 : 옷에 묻은 오염은 크게 수용성, 지용성, 불용성으로 분류된다. 야채나 과일즙, 당분, 우유와 같은 수용성 오염은 물세탁에 의해 쉽게 제거되지만 식용유, 마요네즈, 버터, 아이스크림과 같은 동·식물성 기름이나 자동차 기름, 왁스와 같은 지용성 오염이 묻은 경우에는 취급표시에 물세탁 표시가 있더라도 드라이클리닝한다.

옷에 묻은 야채나 과일즙은 물세탁으로도 쉽게 지워져요. 그런데 식용유, 마요네즈, 버터, 아이스크림이 묻으면 물세탁을 해도 얼룩으로 남아요. 집에서 입는 옷 같으면 그냥 물세탁하지만 외출할 때 입는 옷에 묻으면 드라이클리닝해야죠. 외출할 때 입으려고 산 거는 돈 더 주고 좋은 거 사니까 관리를 잘해서 오래 입어야죠.

또한 오염이 심한 세탁물과 깨끗한 것을 함께 세탁하면 세탁물이 더 더러워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오염의 종류뿐만 아니라 오염된 정도에 따라서도 분류해야 한다.

오염이 심하게 된 옷이랑 깨끗한 옷을 함께 세탁하면 깨끗한 옷이 더 더러워질 수도 있어서 오염된 정도에 따라서 구분해서 세탁해요. 민승이, 민경이가 놀다 들어오면 옷이 많이



〈그림 30〉 조미란 집의 세탁실 내부 모습



〈그림 31〉 빨래 바구니에서 세탁물을 꺼내는 모습



〈그림 32〉 색상과 소재별로 빨래를 분류하는 모습 1



〈그림 33〉 색상과 소재별로 빨래를 분류하는 모습 2

더러울 때가 있어요. 일일이 손빨래하기는 힘드니까 애벌빨래 한 번 해서 다른 옷이랑 같이 세탁기에 돌려요.



〈그림 34〉 세탁기에 빨래를 넣는 모습



〈그림 35〉 세탁기의 코드를 꽂고 있는 모습

(2) 올바른 세제 선택과 투입

세제는 세탁물의 성분과 오염의 종류, 세탁 방법에 따라 선택한다. 흰색 면직물이나 합성섬유 제품은 약알칼리성 세제를, 양모와 견이나 아세테이트 같은 섬세한 옷감은 중성세제를 사용한다. 세제의 사용량은 세제의 종류, 세탁기의 종류, 세탁물의 양에 따라 일정하지 않으므로 세제와 세탁기의 설명서에 따라 세탁기에 설정된 수위와 권장 사용량을 참고하여 적당량을 첨가한다.

양모나 실크는 세탁소에 맡겨서 드라이클리닝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울삼푸에 살살 흔들어서 줘요. 가루세제는 드럼용으로 사서 써요. 일반용이랑은 다른 점이 있으니까 나왔을 것 같아서 맞춰서 쓰죠. 세제는 어쨌든 더러운 걸 빼주는 거니까 많이 쓰면 안 좋을 거 같아요. 아무리 잘 행귀도 옷에 남아 있을 거 같아서 빨랫감이 적을 땐 많이 안 넣어요.

(3) 세탁물에 알맞은 세탁온도 설정

세탁은 찬물보다 더운물에서 잘되지만 섬유와 오염된 정도에 따라 조절



〈그림 36〉 세탁기 안에 가루세제를 넣고 있는 모습



〈그림 37〉 세탁기 안에 섬유 유연제를 넣고 있는 모습

한다. 섬유에 따라 면제품은 높은 고온에서 세탁해도 되지만 견, 모, 합성섬유 또는 색상이 짙은 제품은 낮은 온도에서 세탁한다. 세탁 후 행구기를 할 때에는 냉수보다는 세탁온도와 같거나 다소 높은 온도에서 한다. 그 이유는 행굼온도가 세탁온도보다 낮아지면 세탁 시 팽윤되었던 섬유가 수축하여 행구기 액이 침투하기 어려워지고, 섬유 내부로 침투된 세제를 제거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겨울에는 찬물에 세제가 잘 안 녹아서 옷에 세제가 묻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미지근한 물로 세탁해요.

(4) 의복의 성질에 따른 탈수와 건조

탈수방법은 옷감의 성질에 따라 선택한다. 면과 마를 제외한 모 제품이나 견 제품은 눌러 짠 다음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하고, 합성직물은 그대로 널어 말린다. 면, 마, 레이온, 폴리에스테르, 백색 직물을 제외하고는 그늘에서 건조한다.



〈그림 38〉 세탁시간과 물의 온도를 설정하는 모습



〈그림 39〉 뒷정리를 하는 모습

모가 들어간 옷이나 실크로 된 옷은 드라이클리닝 못 할 때는 울 샴푸에 살짝 흔들어 주고, 비틀어서 안 짜고 마른 수건으로 물기만 제거해 줘서 말려요. 나일론 같은 거는 탈수 하니까 구김이 심하게 가더라구요. 매번 다려 입을 수도 없고. 탈수하기 전에 꺼내서 몇 번 털고 널어 말려요. 하얀색 옷 말고, 색깔 있는 옷들은 어느 정도 물만 빠지면 방 안에 말려요. 그늘에 햇빛 아래 말리면 아무래도 변색이 되더라구요.

(5) 의복의 소재별 세탁방법

의복은 만들어진 소재의 종류에 맞는 세탁과 관리를 해 줘야 오래 착용할 수 있다. 마, 레이스, 니트, 가죽, 스웨이드 같은 소재는 특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알맞은 방법으로 세탁한다.

마소재 : 옷걸이에 걸린 상태에서 대충 형태를 잡아 준 다음 가볍게 다림질해서 후들거리는 부분을 펴 주고 잘 개어 옷장에 넣어 둔다. 평소 입을 때는 스프레이 폴을 뿌려 다린다.



〈그림 40〉 빨래가 끝나고 건조된 옷을 분류하는 모습



〈그림 41〉 분류가 끝난 옷들을 개고 있는 모습

마웃은 여름에 시원하기는 하는데 구김이 너무 잘 가잖아요. 입고 집에 오면 물을 흠뻑 스프레이로 뿌려 놔요. 그럼 안 다려도 구김이 좀 퍼져요. 다림질할 때는 스프레이폴 뿌려서 다리면 뽀뽀하게 퍼져요.〈이규자, 여, 1963년생〉

레이스 : 조직이 성글어 쉽게 뜯기거나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비비지 말고 살살 주무르면서 손빨래하거나 세탁망 속에 넣어 세탁한다.

찢어지기 쉬우니까 거의 손빨래해요. 메리야스는 테두리가 레이스로 장식된 게 많으니까 될 수 있으면 손빨래하고 세탁기에 빨 때는 세탁망에 넣어서 빨아요.〈조미란, 여, 1978년생〉

니트 : 미지근한 물에 세제를 넣고 잘 저어 준 후, 단추를 모두 채워서 뒤집어 잡고 세제를 푼 물에 넣어 양손으로 눌러 뺀다. 오염이 심한 부분은 비비지 말고 손바닥 위에서 가볍게 두드린다. 잘 헹군 후에 건져 올려 훑듯이 물기를 빼고 타월 위에



펼쳐서 돌돌 말면서 수분을 제거한 후 형태를 가지런히 하여 건조대 위에 뉘어 말린다.

니트는 손빨래하고 말릴 때 옷걸이에 걸어서 말리면 그대로 축 늘어나요. 꼭 건조대에 뉘어서 말려야 돼요. 요즘 보풀제거기도 팔던데 저는 테이프로 보풀을 들어 올려서 가위로 잘라 줘도 되더라고요. <이민지, 여, 1980년생>

가죽 : 먼지는 마른 수건이나 솔로 가볍게 털어 준다. 물에 젖으면 가죽이 수축하므로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한 후 그늘진 곳에 널어 말린다. 딱딱해진 부분은 주물러 펴 주고 가죽 전용 크림을 발라 준다.

가죽 가방이랑 신발은 비 맞으면 집에 와서 마른 수건으로 닦아 주고 가죽 전용 크림 팔 거든요. 그걸로 닦아 주죠. 가죽 가방이나 신발은 비싸게 주고 샀으니까 아무래도 신경을 더 쓰죠. 다른 것보다. <조미란, 여, 1978년생>

스웨이드 : 부드러운 솔을 이용해 털 방향으로 수시로 빗겨 주고 오염물이 묻은 곳은 지우개로 문지르고 다시 솔로 빗겨 준다.

스웨이드로 된 구두가 몇 개 있는데 눈이나 비 오는 날에는 절대 안 신어요. 더러워지면 구둣솔로 살살 털어 주면 돼요. <곽성은, 여, 1991년생>

모피 : 드라이클리닝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며, 그렇지 않을 때에는 뜨거운 물에 적신 타월을 물기가 없도록 꼭 짜서 위아래로 쓰다듬듯 닦아 준다.

드라이클리닝 자주는 못하는데 그래도 2년에 한 번은 해 줘요. 옷 살 때 알려 준건데 수건을 뜨거운 물에 적셔서 짜 준 다음에 위아래로 닦아 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는 가끔 하는데, 자주는 안 해요. 그것도 안 좋을까 봐. <배한순, 여, 1961년생>

2) 의복의 보관

의복을 계절과 사용 목적 및 빈도에 따라 분류해서 보관하면, 꺼내 입기에도 쉬울 뿐만 아니라 관리하기에도 편리하다. 수납에 앞서 먼저 의복을 분류하고 정돈해야 하는데 분류방법은 가족수, 생활 정도, 환경 조건에 따라 다르다. 의복을 용도별로 나누고, 이것을 다시 계절과 가족별로 분류하여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필요한 의복만 꺼내어 사용한다. 계절이 바뀌면 그동안 입었던 의복은 잘 손질하여 용도와 종류별로 분류하고, 가족별로 보관함을 따로 사용하여 방충 방법·습도·온도 등을 고려하여 보관하는데, 더 입지 않는 의복 가운데 재생이 가능한 것은 재활용하고 사용하지 못할 것은 처분한다.

곽성은(여, 1991년생)의 경우 <그림 42>와 <그림 44~46>에서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입는 옷은 장롱, 서랍장, 행거 같은 곳에 걸거나 개서 보관하지만, 자주 입지 않는 옷들은 잘 개어서 큰 상자에 따로 보관한다. 옷을 보관하는 장롱, 서랍장, 행거 같은 가구는 옷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르게 사용한다. 양복, 재킷, 코트 같은 겨울철에만 입거나 착용 횟수가 적은 옷들은 먼지가 쌓이지 않게 하고, 구김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옷걸이에 걸어 장롱에 보관한다. 그리고 티셔츠, 바지, 니트, 속옷, 양말 같은 부피가 작은 옷들은 개서 서랍장에 보관한다.

식구들 옷이 이 방에 다 있어요. 이 방에서는 저랑 여동생이랑 잠만 자는 방이라 식구들 옷도 다 여기 있어요. 자주 입는 옷은 행거에 걸어 놓구요. 얇은 옷은 지금 안 입으니까 옷장 안에 있어요. 양말은 서랍장에 다 있어요.

조미란(여, 1978년생)의 경우 <그림 47~48>에서 보이듯이 거의 모든 옷을 장롱에 보관하고, 장롱 안쪽 문에 달린 걸이에 벨트와 머플러 같은 부피가 작은 액세서리를 보관한다. 장롱 안에 선반이 있기 때문에 티셔츠, 속옷, 양말 등은 접어서 정리한다. 한복 같은 경우는 조미란 본인은 성당 행사 때에 자주 입지만 남편은 거의 입을 일이 없어서 남편의 것은 <그림 49>에서처럼 종이로 만들어진 한복 상자에 담아 장롱 선반에 보관한다.





〈그림 42〉 광성은과 가족의 옷들이 보관되어 있는 옷장과 행거



〈그림 43〉 광성은과 조사자의 인터뷰 모습



〈그림 44〉 광성은과 가족의 옷이 걸려 있는 행거



〈그림 45〉 양말을 보관하는 서랍



〈그림 46〉 장롱에 보관되어 있는 광성은과 여동생의 옷들

남편 옷하고 제 옷하고 따로 분류해서 보관하고요. 벨트나 스카프 같은 거는 옷장 문 옆에 거는 데가 있어서 거기에 한꺼번에 걸어 놔요. 한복은 저는 성당에서 행사할 때 종종 입어서 걸어 놔는데 남편은 입을 일이 없어요. 일 년에 한 번도 안 입을 때가 많아서 한복 상자에 따로 보관해요.



〈그림 47〉 조미란과 남편의 옷이 걸려 있는 옷장



〈그림 48〉 벨트와 머플러가 보관되어 있는 조미란의 옷장



〈그림 49〉 한복 상자에 보관되어 있는 조미란의 속치마와 손가방, 남편의 한복



〈그림 50〉 옷걸이에 걸어 보관하는 조미란 남편의 겨울 모직 코트



〈그림 51〉 옷걸이에 걸어 보관하는 조미란의 원피스



〈그림 52〉 삼환아파트 상가 안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방취와 제습 관련 공산품



〈그림 53〉 삼환아파트 상가 안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섬유유연제 관련 공산품

의복을 보관할 때, 습기와 방충(防蟲)으로부터 보호하고 향기를 나게 하기 위해서는 방충, 제습, 의향(衣香)의 역할을 하는 공산품을 사용한다. 가죽이나 모피, 실크 같은 동물성 단백질로 이루어진 소재의 경우에는 방충을 위해 나프탈렌을 사용한다.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습제를 사서 옷장에 비치해 놓고, 옷에서 향기가 나게 하기 위해서는 세탁 시 맨 마지막에 행굴 때 향기를 나게 해 주는 제품을 첨가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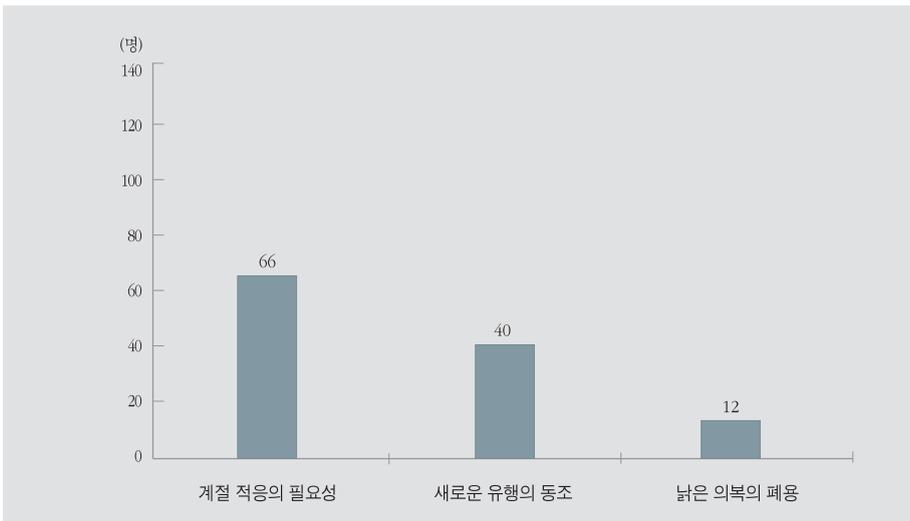
제습제는 통으로 된 거 사서 바닥에 놓는 것보다는 옷장에 걸려 있는 옷 중간 중간에 걸어 주는 게 제습이 더 잘되는 것 같고 걸이형이라 공간도 덜 차지해서 좋아요. 좀 안 슬게 하려고 나프탈렌도 쓰고, 향기 나게 하는 거는 어떤 사람은 옷장에 포프리 넣기도 하던데 저는 그냥 세탁하고 마지막에 행굴 때 섬유유연제 몇 방울 넣고 행귀요. 정전기도 안 나고 향기도 나고 좋아요. (김혜경, 여, 1960년생)

3. 의복의 소비

1) 구매 동기

우리는 옷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의 차이뿐만 아니라, 낡은 의복의 폐용, 계절적응의 필요성, 체형의 변화, 새로운 유행의 동조, 상황의 적합성 등의 이유로 옷을 구입한다. 이렇게 옷을 구입하는 동기가 다양한 것은 문화가 발달하고,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영역이 확장될수록 옷 입기는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단순한 목적을 넘어 자기표현의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옷을 구입하게 되는 개개인의 다양한 동기 중에서 낡은 의복의 폐용, 계절적응의 필요성, 체형의 변화, 새로운 유행의 동조, 상황의 적합성 등의 요인을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삼환아파트 주민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동기는 140명 가운데 66명이 '계절 적응의 필요성' 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새로운 유행의 동조' 가 40명으로 2위, '낡은 의복의 폐용' 이 12명으로 3위로 나타났다.



〈그림 54〉 의복의 구매동기

김해란(여, 1984년생)의 경우 계절이 바뀔 때 옷을 구입하는데, 유행하는 스타일은 디자인이 독특한 것으로 값싸게 구입하지만 겨울 코트는 돈을 들여서라도 좋은 것으로 구입한다. 또한 봄옷과 여름옷은 보세에서 저렴하게 사도 가을옷과 겨울옷은 가격이 비싸도 백화점에서 좋은 품질로 구입하는 편이다.

유행하는 거는 비싼 거 안 사고, 보세에서 사요. 유행이 빨리빨리 바뀌어서 한 해 입으면 다음 해에는 잘 안 입게 돼서 비싼 거 사면 돈이 아깝더라고요. 여름 티셔츠 같은 거는 자주 자주 빠니까 목 같은 데가 잘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1만~2만 원짜리 사 입어요. 겨울 코트는 가볍고 따뜻한 걸 좋아해서, 메이커가 비싸도 확실히 따뜻하고 가볍거든요. 그래서 코트는 백화점 가서 사요.

김한순(여, 1971년생)은 아들이 또래와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비싸지만 무리를 해서라도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노스페이스 점퍼를 구매하였다. 고가의 제품이지만 우리 아이만 없으면 혹여나 요즘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되고 있는 학교에서 따돌림이라도 당할까 봐 가게에 부담되지만 구입해 주었다.

요즘 애들 옷도 비싸요. 우리 아들 노스페이스 잠바 하나 사 주려고 갔는데, 친구들이 다 입고 있어서 하나 사 주려고 갔는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사 줬어요. 친구들이 다 입는데 우리 아들만 없으면 따돌림이라도 당할까 봐요. 요즘 그런 사건도 많이 있었고.

다음의 신문기사를 보면 자녀들 의복 구입비용을 지급하는 부모들이 특정 브랜드 제품의 비싼 가격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정 제품이 십대 또래들 사이에서 열풍을 일으키는 이유는 단순히 의복 자체의 유행이 아니라 동료집단에 동조함으로써 원만한 집단생활을 하려는 하나의 행동양식으로 볼 수 있다.

노스페이스 광고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가 장안의 화제다. “중·고생들이 노스페이스에 죽고 못 산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끄는 가운데 ‘교복 위 교복’, ‘제2의 교복’으로 불린다. 가히 노스페이스 광풍이다. 노스페이스는 한낱 의류 브랜드에 불과하지만 청소년 사회에선 ‘계급’을 나타내는 대명사로 취급된다. 최근 인터넷에선 ‘노스페이스 계급도(圖)’까지 나돌고 있다. 계급도는 노스페이스 제품을 종류별로 제시한 다음, 해당 제품을 입은 학생들이 어떤 계급에 속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25만 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눅시’는 가장 낮은 계급인 ‘찌질이’가 입는 옷이다. 너나 할 것 없이 입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30만 원대는 ‘중상위권’, 47만 원짜리 ‘노스페이스 드라이로프트’는 ‘양아치’, 60만 원대는 ‘있는 집 날라리’, 70만 원대는 ‘대장’이다. ‘노스페이스 드라이로프트’부터는 부모님의 등골을 휘게 한다는 의미로 ‘등골브레이커’라는 별칭이 붙는다. 학생들 사이에선 노스페이스 점퍼가 없으면 ‘왕따’ 시키는 현상까지 나타나 사회 문제다. 이에 부모들은 수십만 원에 달하는 옷이 가게 형편상 무리인 줄 알면서도 행여 자식이 왕따를 당할까 등골이 휘어도 노스페이스를 입게 해 준다. 그렇게 못 하는 부모는 가슴이 찢어진다.……〈『경기일보』, 2012년 1월 13일〉

김소현(여, 1985년생)은 출퇴근 시 정장차림에 운동화를 신으려고 구입했다. 처음에는 운동화가 정장차림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신경이 쓰였지만, 막상 신어 보니 발이 편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운동도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운동화 예찬론자가 되었다.

처음에는 다이어트하려고 아침에 집에서 화서역까지 걸어서 다니고 퇴근하고도 화서역에서 집까지 걸어서 다녔는데 하이힐은 너무 높아서 발이 아프고 플랫도 굽이 오히려 너무 없어서 발이 아파요. 지하철에서 계속 서서 올 때도 있고 그래서 운동화를 자주 신어요.

다음 신문 기사를 통해서도 최근 건강에 관한 관심이 커지면서, 스타일보다는 신어서 편하고 건강에도 좋은 제품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킬힐에 지쳤어”…… ‘운도녀’가 온다

최근 치마 또는 바지 정장에 운동화를 신고 출근하는 이른바 ‘운도녀(운동화 신고 출근



하는 도시여자)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출퇴근 시간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을 가 보면 이런 경향은 두드러진다. 사무실이 밀집한 서울 여의도, 광화문, 강남 일대에는 점심 시간마다 운동화를 신고 산책하는 직장 여성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직장여성들 사이에서는 굽이 10cm가 넘고 앞코가 뭉뚱한 ‘킬힐’이 인기였다. 하지만 높은 굽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다리에 무리를 주지 않는 운동화가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백화점에서 킬힐과 하이힐의 매출은 떨어지고 있다. 현대백화점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킬힐이나 ‘펌프스(발등을 덮고 굽이 있는 정장용 구두)’의 매출은 8% 감소한 반면에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운동화나 스니커즈, 플랫슈즈의 매출이 각각 10% 이상씩 늘었다. …… <『동아일보』, 2012년 4월 2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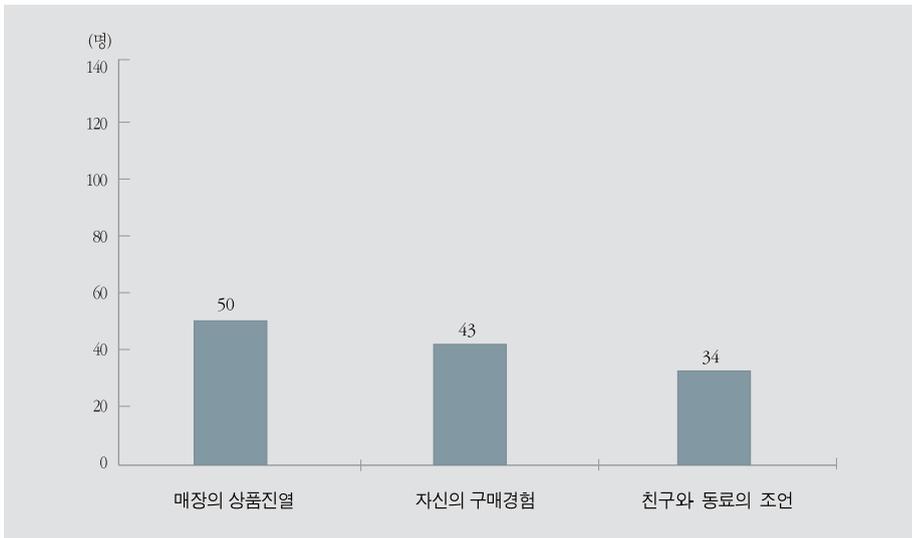
2) 구매정보 수집

옷을 구입할 때에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을 거친 후, 제품의 사용 시기와 할인 판매시기를 고려하여 구입을 결정하게 된다. 구매자가 어떤 정보원을 이용하며 어느 정도의 정보를 추구하는가는 개인이 처한 상황과 의복에 대한 관심의 정도에 따라 각기 다르며,⁶ 구매정보 수집은 구매자가 구매하기에 앞서 더 나은 구매 결정을 하기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원천으로써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⁷

구입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정보탐색활동은 내부탐색과 외부탐색으로 나누어진다. 내부탐색이란 구매자가 기억하고 있는 정보를 재검토하는 과정이며, 외부탐색은 기억된 정보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추가로 외부 정보원천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으로 잡지나 텔레비전, 가족, 매장의 디스플레이, 인터넷쇼핑몰과 같은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과정이다.⁸ 구매자는 이러한 여러 정보원을 통하여 의복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는 구매의사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삼환아파트 주민들이 옷을 구매를 할 때 가장 많은 정보를 얻는 매개체는 설문조사 결과 140명 가운데 50명이 ‘매장의 디스플레이’⁹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자신의 구매경험’이 43명으로 2위, ‘친구나 동료의 조언’이 34명으로 3위로 나타났다. 집단에 따른 차이를 보면 여대생 집단은 친구와 동료, 자신의 구매경험,

매장의 상품진열의 순서로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가정주부는 가족의 조언, 자신의 구매경험, 매장의 상품진열 순으로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여성은 매장의 상품진열, 패션잡지 광고, 친구와 동료의 조언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장인이 인적 정보원을 가정주부집단보다 적게 활용하고 디스플레이를 정보원으로 활용하는 데에 더 적극적임을 의미한다.



〈그림 55〉 구매정보수집

이자현(여, 1979년생)은 의류매장에 디스플레이되어 있는 옷들을 살펴본 후 제품의 가격이 계획한 예산과 맞으면 직접 착용해 본다. 특히 마네킹에 입혀져 있는 옷들은 실루엣과 소재 등을 한눈에 알 수 있기 때문에 구매 전에 매장마다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마네킹들을 살펴본다.

옷 살 때 백화점 같은 데 가면 마네킹이 입고 있는 옷을 일단 쪽 한 번 둘러봐요. 마네킹에 입혀져 있는 게 신상품이기도 하고 제일 잘 팔리는 거기도 하니까. 그중에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매장에 들어가서 얼마지 물어봐요. 맘에 들어도 비싸면 안 입어 봐요. 만약에

입어 봤다가 마음에 들면 어떻게 해. 예상한 가격 내에서 사야 하니까. 가격이 적당하다 싶으면 입어 보는 거죠.

강금순(여, 1967년생)은 의복의 구매정보를 수집할 때 매장에 진열된 상품보다는 자신의 이전 구매경험을 바탕으로 선택한다. 백화점, 아울렛, 가두매장 같은 경우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지만,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제품은 교환이나 환불이 까다롭고, 불가능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옷을 구입할 때에는 자신의 이전 구매경험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구매한다.

옷을 계속 사다 보면 자기한테 어울리는 스타일을 알게 되잖아요. 백화점이나 길거리에 있는 옷집들은 교환이나 환불이 되는데 인터넷 쇼핑몰은 교환은 되고 환불이 안 되니까. 그리고 교환도 왕복 배송비를 같이 보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살 때는 주로 가는 사이트만 가고, 전에 샀다가 실패한 스타일은 안사죠. 이렇게 하니까 인터넷에서 사도 웬만하게 잘 어울리고 잘 맞더라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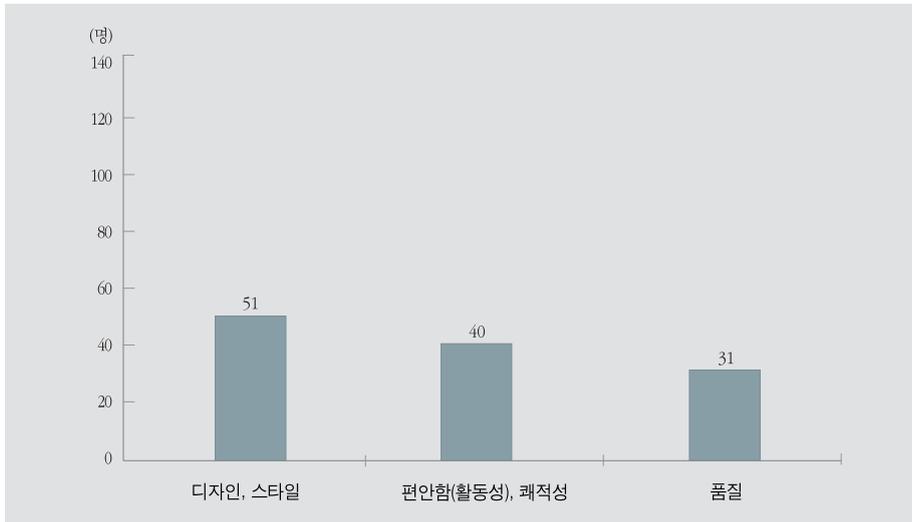
이규자(여, 1963년생)는 인터넷을 통해 구매정보를 수집하는데, 포털사이트의 배너 광고 문구를 보고 평소 본인의 스타일과 비슷한 사이트에 접속하여 옷 입는 방법이나, 현재 유행하는 스타일에 관한 정보 등을 얻는다.

옷 사기 전에 인터넷 같은 데서 눈으로 보긴 해요. 어떤 게 나와 있나. 사지는 않아도. 네 이버 같은 데 보면 뜨더라구요. 뭐 40대가 즐겨 입는 옷. 중년 옷. 아니면 44사이즈 입는 키 작은 여자 사이트. 그러면 사이트 들어가서 한 번 보고, 백화점 가서 사요.

3) 구매 결정

의복의 선택은 현재의 유행, 생활 방식, 수입, 성별, 연령, 지역, 문화, 직업, 경제성 등의 다양한 요인에 근거를 둔 개인의 결정이다. 우리는 의복을 구매하기 전에 어떤 옷을 구입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것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최종 용도와 품목의 실용성

을 고려하고 의사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때 가격, 색, 소재, 스타일, 내구성, 관리성, 쾌적성 등 여러 개념의 중요도 순서는 개인마다 다르다. 설문조사 결과 구매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140명 가운데 51명이 ‘디자인/스타일’ 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편안함(활동성)/쾌적성’ 이 40명으로 2위, ‘품질’ 이 31명으로 3위로 나타났다.



〈그림 56〉 구매 결정

의복구매 결정 요인 중에 1순위 요인으로 ‘디자인(스타일)’ 을 선택한 응답자 가운데 최혜순(여, 1959년생)은 자신의 나이, 피부색, 체형에 잘 어울리는지를 살핀다. 이 중에서도 보기에 예쁜 것보다 입었을 때 자신의 체형과 잘 맞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일단 활동하기 편해야 돼요. 소재도 좋고, 안 편하더라도 멋 내고 입고 싶은데 그게 활동하기 불편하니까 자꾸 편한 거 찾게 돼요. 힐을 신고 청바지를 입으면 예쁘잖아요. 그걸 알긴 하는데 다리 아프고 그러니까 그렇게 못해요. 겨울 코트 같은 거는 비싸도 돈 주고

좋은 거 사요. 근데 여름옷은 동네에서 사기도 해요. 티셔츠 같은 거는 3만 원 4만 원 주고 가볍게 사 입기도 하는데, 근데 겨울옷은 그렇게 안 사 입어요.

가격을 중요시하는 응답자 중 박세준(남, 1983년생)은 의복을 구매하기 전에 먼저 가격의 범위를 정하는데, 디자인이나 소재 같은 외형적인 부분들이 마음에 들더라도 예상한 가격의 범위에서 벗어나면 무리해서 구입하지 않는다. 그 대신 여러 의류매장을 돌아다녀 본 후 비슷한 스타일의 저렴한 옷을 찾아 구입한다.

굳이 무리해서 비싼 거 사진 않아요. 카드를 안 써서 그런지. 현금으로 사기엔 부담이 가는 옷들은 안 사게 돼요. 그래서 옷 사러 가기 전에 금액을 정해 놓고 가죠. 티셔츠는 3만 원, 바지는 5만 원. 그리고 여러 군데 돌아다녀서 조금이라도 싼 데서 사요.

또한 의복의 구매 결정에서 편안함(활동성)과 쾌적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응답자 중에서 한정아(여, 1978년생)는 평소 자신의 활동 범위를 고려하여 서 있을 때, 걸을 때, 앉아 있을 때 등의 다양한 자세에서도 편안하고 외관이 변하지 않는지를 살핀다. 특히 운동복이나 등산복같이 활동량이 많은 옷이나 트임이 있는 옷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구입한다.

저는 등산을 많이 다녀요. 요즘 등산복 파는 매장 많이 있잖아요. 살 때 여기저기 좀 보고 사요. 산 타야 되니까. 저는 등산복 사서 평상복으로 입어요. 가볍고 기능성이 들어가서 편하고 좋아요. 근데 좀 드레시하게 입는 게 아니라 좀 그런데 편해서 아주 좋아요.

다음 기사에서는 야외 활동을 하지 않아도 아웃도어 의복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등산과 골프 같은 스포츠 활동을 할 때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아웃도어 의복이 편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착용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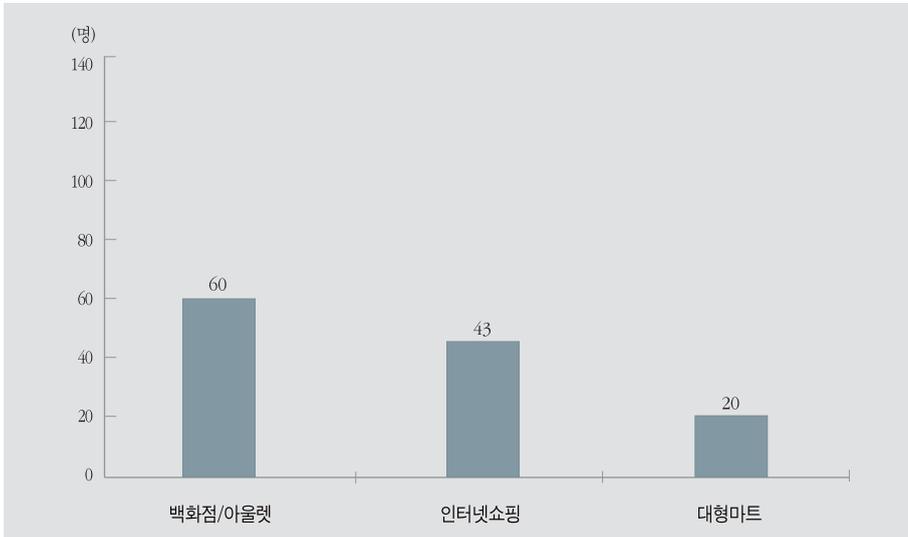
아웃도어 상품, '평소에도 많이 입어요.'

흔히 '등산복'이라고 불리던 아웃도어 상품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아줌마, 아저씨들이 단체로 등산 갈 때나 입는 옷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감안하면, 놀라운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중략) 아웃도어 활동을 하지는 않아도 일상생활에서 착용하는 경우도 흔해지고 있으며, 이용 연령층은 20대뿐 아니라 10대로까지 낮아지고 있다. 아웃도어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하나쯤 가지고 있어야 할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조사전문기관 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http://trend-monitor.co.kr>)가 서울 및 주요 광역시에 거주하고 아웃도어 의류제품에 관심 있는 성인 남녀 1,050명을 대상으로 아웃도어 상품구매 관련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전체 10명 중 8명 정도가 아웃도어 상품의 구매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59.6%가 직접 입기 위해 구입하였으며, 19.5%는 선물용으로 구입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 번도 구입해 본 적이 없는 응답자는 20.9%였다. 보통 1년에 1번(36.2%) 또는 2번(35.3%) 정도 구입을 하였으며, 1회 구입 시에는 평균 10~20만원(46%) 정도 비용을 지출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 평상시 아웃도어 상품을 아웃도어 활동 시에만 활용하는 경우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웃도어 상품 구입자의 74.8%가 아웃도어 활동 때 뿐만 아니라 평상복으로도 활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아웃도어 활동 시에만 활용하는 응답자는 20.5%에 그쳤으며, 거의 일상복으로 활용하는 사람은 4.7%였다. …… <『아크로팬』, 2011년 12월 19일>

4) 구입 장소

삼환아파트 주민들은 보통 매월 1~2회 정도 의복을 구입하는데, 주로 이용하는 장소는 수원역 AK플라자, 인계동 뉴코아 아울렛, 이마트 서수원점, 화서시장 등이다. 설문조사 결과 140명 중 60명이 수원역 AK플라자와 인계동 뉴코아 아울렛을 이용한다고 하여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인터넷 쇼핑을 통한 구입이 43명으로 2위, 대형마트에서의 구입이 20명으로 3위로 나타났다.

이렇게 백화점을 선호하는 이유는 백화점이 질적인 면에서 신용을 확보하고 있고, 교환이나 환불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수선이나 배달 등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편리하기 때문이다.



〈그림 57〉 구입 장소

가까우니까 애경백화점으로 가죠. 백화점 가서 누워 있는 거 사거나 좀 저렴한 것들. 아니면 좀 중저가 브랜드들 있잖아요. 올리비아 로렌 같은 것들. 근데 인터넷 쇼핑물에선 안 사요. 쇼핑물에서 사서 다 후회했지 후회 안한 적이 없어요. 아니면 백화점은 브랜드 세일할 때 사죠. 딸 옷 사 줄 때는 꼭 백화점 가서 메이커 사 줘요. 아직 어리니까 잘 모르니까. 지금은 새내기라 옷을 잘 볼 줄 몰라서 이왕이면 싼 거는 한 해 입고 버려야 하니까 이왕이면 좋은 거 사서 오래 입는 게 좋으니까. 그런데 백화점 가서 정장이 주고 산 적은 거의 없어요. 메이커가 좋은 건 아니니까 가격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백화점 가요. 〈이규자, 여, 1963년생〉

백화점을 이용하는 경우는 일상복을 구입하기 위해서보다는 집안행사와 같은 경조사에 필요한 특별한 의류를 구입하기 위해서이다. 백화점에서 구입하는 옷은 다른 곳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비싼 금액을 지불하더라도 그만큼 유행이 빨리 변하지 않고 오래 입을 수 있는 정장을 구입하며,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의 옷보다는 어른들의 옷을 더 많이 구입한다.



〈그림 58〉 수원 역사 내 AK플라자 입구



〈그림 59〉 AK플라자 내 의류매장에서 쇼핑하고 있는 사람들

백화점은 가격이 다른 쇼핑몰에 비해 비싸잖아요. 그래서 친지 결혼식이나 중요한 모임 같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가요. 주로 애 아빠 양복이랑 내꺼 정장 사고, 애들은 비싼 거 잘 안 사 줘요. 저는 아울렛은 잘 안 가요. 이월상품을 많이 팔아서 그런지 눈에 들어오는 게 별로 없더라구요. 아무래도 유행이 자주 바뀌고 하니까 신상품으로 들어온 게 더 이뻐 보여요. 백화점 가면 기획으로 좀 저렴하게 나온 게 있어요. 그거 자주 사요. <조미숙, 여, 1961년생>

삼환아파트 주민의 구매 장소 설문조사 결과 아울렛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수가 1위인 백화점과 동등하였다. 이처럼 아울렛 이용자수가 많은 것은 정상매장에서 판매하던 재고와 특가 상품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업태(業態) 특성상 제품의 질은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상품 가격은 저렴하기 때문이다.

뉴코아 아울렛으로 다녀요. 여름에 가면 겨울옷 할인을 크게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계절에 맞게 안 사고 미리 사요. 자주자주 안 사고 한 번에 몰아서 사고 안사요. 그럼 진짜 싸요. 발품 팔아서 잘만 고르면 좋아요. 브랜드 제품이라 질은 좋은데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 경제적이지요. <정윤재, 여, 1970년생>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 응답자 중 이민희(여, 1985년생)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점 때문에 인터넷으로 쇼핑을 많이 한다. 속옷, 화장품, 신발 등 일상생활 필수품을 거의 인터넷으로 구입하는데, 퇴근시간이 백화점이나 가두매장의 폐점 시간보다 늦은 경우가 많아 일반매장을 이용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직장 다니니까 쇼핑할 시간이 없어요. 회사가 서울이라 서울로 출퇴근하는데, 수원역에 와도 아홉 시 정도 되거나 넘거나 하면 너무 늦기도 했고, 피곤해서 쇼핑할 기운이 없어요. 그런데 인터넷은 집에서 편하게 여기저기 둘러보고 살 수 있으니까 좋아요. 택배도 경비실에서 잘 보관해 주고, 주말에는 결혼식 다니고, 집안일 하고 그러면 쇼핑하러 나가기도 귀찮고 또 쉬어야 월요일에 출근하니까 잘 안 나가게 되고요.

김하나(여, 1992년생) 역시 아직 대학생이라 부모님께 받은 용돈으로 의복을 구

입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인터넷 쇼핑물을 이용한다. 의복을 구입하는 데 제품의 질이나 착용할 수 있는 기간보다는 유행을 따라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최신 유행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인터넷 쇼핑물을 선호한다.

제가 아직 학생이라 용돈 받아서 생활하니까, 사고 싶은 거 다 못 사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백화점 쇼핑 가서 보고 집에 와서 인터넷 쇼핑물 찾아보고 사요. 그럼 비슷한 스타일로 살 수 있거든요. 제 친구 중에는 사진 보내 주면 진짜 똑같은 거 파는 쇼핑물 찾아 줘요. 질은 백화점에 비해 떨어지지만 아직 어려서 그런지 질 같은 거는 별로 안 따지게 돼요. 이쁘고 싼 게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취업해서 돈 벌면 그때 좋은 거 사 입으려구요.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응답자 중 김유정(여, 45세)은 대형마트의 의류 코너에서 편하게 입을 수 있고 저렴한 옷들을 구입한다. 집에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이나, 옷 속에 받쳐 입을 수 있는 티셔츠 종류를 많이 구입한다. 주로 흰색 티셔츠를 많이 구입하는데, 이는 아들이 교복 속에 속옷 대용으로 입기 때문이다.

집 안에서 잠옷 말고 편하게 입는 옷은 마트에서 많이 사요. 마트 좌판에서도 많이 사고, 정장 살 때는 백화점 가도 안 그럴 때는 싼 거 사요. 자주자주 새 걸로 바꿔 입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아들 교복 속에 받쳐 입는 흰티를 많이 사요. 싼 거는 잘 사면 만 원에서 만 오천 원 정도 주면 사요.

4. 의복의 재활용

현대사회는 합성섬유의 개발과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의복을 얻기가 쉬워졌고, 경제력 향상에 따른 소득 증가로 생활이 다양화되어 의복의 소비가 점점 증가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패스트패션¹⁰이 급증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유행에 따라가기가 쉬워졌고, 가격이 저렴해 많은 소비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패스트패션은

싸게 산 만큼 짧게 입고 폐기되어 환경오염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다음의 신문 기사를 통해서도 재활용되지 않은 의류들의 매립이나 소각으로 환경오염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패스트 패션’ 유행으로 의류수거함 넘친다 - 의류수거함 배출량, 하루 평균 세대당 1kg
패스트 패션이 급증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유행에 따라가기 쉽고 가격이 저렴해 많은 소비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패스트 패션에 익숙해져 싸게 산 만큼 짧게 입고 버려져 환경오염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전국환경단체협의회 한재욱 대표는 “의류업체가 빠른 회전을 조장하고 있어 패스트 패션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며 “슬로우 패션을 통해 옷을 오래 입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동네의 의류수거함도 넘쳐나고 있다고 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의류 폐기물 배출량은 지난 2008년 5만 4,677t에서 2010년 6만 4,057t으로 9,380t(17%)이 늘어났다. 1kg짜리 보통 청바지로 따지면 2010년 한 해에만 청바지 6,405만 장이 가정에서 버려진 것이다. 이는 최근 환경 의식 강화로 생활 폐기물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와 역행하는 것으로 생활폐기물 중 의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2년 동안 3.54%에서 4.29%로 증가했다. 실제로 현 의류를 수거하는 원주현의류에 따르면 한 달 평균 300세대당 300kg에 육박하는 의류폐기물이 발생된다. 그중 실제로 오래되지 버리는 것도 있지만 입을 만한 옷도 유행이 지나거나 질린다는 이유로 버려지는 게 많다는 것이다. 이렇게 수거가 된 헌옷은 대부분 재활용되기도 하지만 일부 매립이나 소각처리된다. 이는 곧 환경과피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의류산업 자체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먼저 가죽의 경우 독성화학약품이 사용되고 합성품은 휘발성 물질이 사용되고 있어 에너지 소비와 생산에 따른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 <『메디컬 투데이』, 2012년 5월 5일>

과거의 의복 개념은 현재와 많은 차이가 있었다. 유행에 따라 새 옷을 구매하고 유행이 지난 옷은 버리는 오늘날과는 달리, 과거에는 의복을 구성하는 직물 자체가 희소하여 가치가 높았던 까닭에 의복 자체가 귀하고 소중한 재산이었다. 따라서 못입게 된 의복을 다른 용도로 재활용하거나, 어른의 옷을 아이가 물려 입는 행위는 일상생활에서 행해지는 당연한 풍속이었다. 낡은 의복은 이불이나 걸레, 행주, 아이들의 옷이나 포대기 및 기저귀, 생리대를 뜻하는 개짐 등으로 재생되었다. 걸레나 행주로도 너무 낡아 아궁이에 태워 버리기 전까지 여러 번 재활용되었다.¹¹

치마는 해질 때까지 입었지. 못 입게 생겼으면 찢어서 행주치마나 걸레를 만들어서 또 썼지. 절대 그냥 버리는 법이 없었어. 옷감이 얼마나 귀했는데. 지금처럼 흔하지가 않았어.〈입귀자, 여, 1936년생〉

낡은 한복 치마는 걸레로 쓰고 한복 저고리는 행주나 애들 옷을 만들어 입혔어. 치마는 큼지막하니 쓸모가 좋아서 이불보로도 만들어 썼어. 저고리 곁에 걸로는 행주 만들고 안에 걸로는 걸레 만들었지.〈박순례, 여, 1935년생〉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의복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입을 경우가 적기 때문에 가정마다 버려지는 의복의 양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관자로서의 류의 사용과 폐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물리적으로나 외관적으로 수명이 다해 더 착용하지 않는 의복의 후처리 방법에 대해 삼환아파트 주민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140명의 응답자 중 72명이 ‘아파트 안에 있는 의류수거함에 넣는다.’로 가장 많은 수가 응답하였고, ‘주위 사람들에게 물려준다.’가 30명으로 2위, ‘폐기한다.’가 25명으로 3위로 나타났다.

1) 헌 옷의 기부

김은혜(여, 1982년생)는 옷감이 악화되거나 파손되었을 때, 의복의 치수가 변하거나 체형이 변했을 때, 유행에 뒤떨어졌을 때, 옷감이 나빠지거나 변색 또는 착색되었을 때, 제거될 수 없는 오염이나 구김살이 생겼을 때 아파트단지 내에 비치된 의류수거함에 넣는다고 한다.

안 입는 옷들이요. 주위에 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아파트 의류수거함에 넣어요. 헌 옷 판매해서 불우이웃 돕는 데 쓰인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쓰레기로 버리는 것보다는 의류수거함에 넣는 게 좋을 거 같아서 꼭 의류수거함에 넣어요. 유행에 뒤떨어진 옷이나 얼룩이 묻었는데 안 지워지는 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의류수거함에 넣어요.

의류수거함에 넣어 기부하는 것 이외에도 요즘에는 의류브랜드에서도 자사의 옷

을 기부받아 난민캠프에 후원하는 등의 자선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기부하기도 한다.

유니클로 매장에서 유니클로 옷을 기증받는 캠페인을 보고, 안 입는 옷들 가져다가 기부했어요. 솔직히 아파트 단지 내에 넣으면, 어떻게 쓰이는지 잘 모르잖아요. 이왕 주는 거 좋은 일에 쓰이면 좋을 것 같아서 기부했어요. (박태민, 남, 1993년생)

다음 기사를 통해서 의류 브랜드들이 폐기되는 의류에 대한 환경오염도 줄이고, 옷이 필요한 지역에 기부도 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헌 유니클로 옷 기부하세요” - 세계 난민 위해 300만 벌 회수 프로젝트



유니클로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전 세계 유니클로 매장에서 300만 벌의 옷을 회수해 기증하는 리사이클 캠페인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더 이상 입지 않는 유니클로 제품을 가까운 매장에 기부하면, 회수된 의류 중 입을 수 있는 제품 선별 작업을 거쳐 난민캠프로 전달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UNHCR(유엔난민기구)에서 집계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 아이들이 옷이 없어 학교에 다니지 못하거나 질병이나 상처로부터 무방비하게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니클로는 300만 벌 회수 프로젝트를 통해 전 세계 난민들에게 오는 8월 말까지 총 300만 벌의 리사이클 제품을 기증할 계획이다. 유니클로는 현재까지 전 상품 리사이클 캠페인을 통해 총 520만 벌의 옷을 세계 난민에게 기증해 왔으며, 한국 유니클로는 지난해 3월부터 이 캠페인에 함께하고 있다. 유니클로 관계자는

“국제 난민지원을 위해 범세계적으로 전 상품 리사이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고객들과 함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뜻을 나누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2012년 6월 20일)

2) 옷 물려 입기

의복의 재활용에는 기부하는 것 이외에도 물려주는 방법이 있다. 지속적인 착용이 가능하지만, 개인의 신체적 변화나 환경의 변화 등으로 더 이상 입지 못할 경우



〈그림 60〉 삼환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의류수거함



〈그림 61〉 조미란이 지인에게 물려주기 위해 보관해 온 포대기들

가 있다. 이럴 때 폐기하지 않고, 옷을 필요로 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물려주기도 한다. 조미란(여, 1978년생)의 경우 〈그림 61〉의 초등학교 쌍둥이 아이들이 쓰던 포대기를 버리지 않고 지인에게 물려주려고 챙겨 두었다고 한다.

저희 언니가 결혼을 늦게 해서 이제 곧 출산하거든요. 그래서 주려고 챙겨 뒀어요. 저도 이거 형님이 쓰던 거 물려받았어요.

이규자(여, 1963년생)는 딸아이의 옷을 물려 입히기도 하고, 또 물려주기도 하는데 저렴한 옷들은 의류수거함에 버리고, 고가의 옷인 경우에는 주변의 지인 중에서 비슷한 체격의 딸에게 물려준다고 한다.

우리 딸이 44사이즈를 입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혹시 작은 사이즈 옷 입으면 버리지 말고 달라고 해서 얻어 입거나, 우리가 입었던 거 돈 좀 많이 주고 사서 버리기 아까운 것만 주고 그래요. 얼마 전에 우리 딸이 입던 청바지 작아서 누구 줄 사람이 없는데 친구 딸도 말라서 그 애 줬어요. 중·고등학교 교복은 3년 동안 그대로 입어서 낡아서 더 이상 입을 수가 없어서 그냥 버렸어요.



〈그림 62〉 교복 나눔 장터(수원 YMCA 제공)

사용 후 의복은 타인과 환경을 고려하여 기증하거나 물려주는 행동을 취하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많이 물려주는 옷이 교복이다. 임미숙(여, 1964년생)의 경우 딸이 입었던 중학교 교복을 같은 동의 주민에게 물려주었다고 한다.

딸이 입던 율현중학교 교복을 아래층 사람한테 물려줬어요. 우리 아파트에서 가는 중학교는 거의 율현이니까 가지고 있으면 줄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있다가 물려줬어요. 비싸게 주고 사서 버리기도 아깝고, 그리고 딸애가 깔끔해서 옷도 깨끗하게 잘 입었거든요. 저 어렸을 때는 옷이나 교복 같은 거 다 언니들 거 물려받아 입었어요. 어렸을 때는 새 옷을 거의 못 입어 봤어요.

또한 근래에는 교복을 가족이나 주변의 지인들에게 물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교복을 판매하는 장터를 지속적으로 열어 옷 물려주기가 사회적인 운동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신문 기사를 보면 교복 물려주기 행사가 시행되었는데,

**교복 물려입기 행사 이 정도는 해야지요 – 화성YMCA, 화성시 공동 행사 전개 ‘인기 폭발’
“단돈 2만 원으로 새학기 교복 한 벌 맞췄어요.”**

21일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반석아트홀 지하 1층 로비. 이곳에서 뜻깊은 행사가 전개됐다. 다음 아년 교복 물려 입기 행사, 이곳에는 이른 아침부터 교복을 사러 온 학부모와 학생들이 줄을 서서 입장을 기다리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이들은 모두 한 벌에 2만 원 하는 저렴한 교복을 구입하기 위해 입소문을 듣고 모인 인근 학교의 학부모와 학생들. 이들 학생들은 자기 치수에 맞으면서 보존상태가 좋은 옷을 남들보다 더 먼저 고르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모여든 것이다. 이날 행사는 화성YMCA와 화성시 동부출장소가 자원을 재활용하고 저소득층 자녀의 교복을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교복 물려입기 나눔 장터’를 개설했다. 특히 이 행사는 3일 동안 계속(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돼 그 인기는 더욱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교복을 ‘코트 1만 원, 교복 상의 9천원, 교복 하의 4천 원, 체육복 1천 원’ 등 시중에 판매되는 교복값의 10분의 1 정도 되는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것. 이 교복은 시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관내 19개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작아서 못 입거나 졸업으로 입지 않게 된 옷을 기부받은 것이다. (중략) 이렇게 판매된 교복금액의 80%는 교복을 내놓은 학생에게 돌아가고, 20%는 시 동부지역 지역아동센터나 저소득층자녀의 교복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수원일보], 2011년 2월 22일)

기존 교복 값의 10분의 1 정도로 판매하였다. 이는 의복의 기본적인 본질과 실용적인 기준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의복의 수명을 좀 더 늘리는 방식이다.

제4부 시간으로 본 주민들의 삶과 문화

01 | 일상의 중요한 순간들

- 1) 이광규 외, 『한국인의 일생』, 형설출판사, 1985, 16~17쪽.
- 2) 이광규 외, 『한국인의 일생』, 형설출판사, 1985, 39~40쪽.
- 3)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인의 일생』, 2006, 68쪽.
- 4) 『현대 관혼상제』, 필문당, 2006, 127쪽.
- 5) 『한국민속대사전』 2, 민족문화사, 1991.

02 |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일년 열두 달

- 1) 이두현 · 장주근 · 이광규, 『한국민속학개설』, 일조각, 2004, 243쪽.
- 2) 임동권, 『한국세시풍속연구』, 집문당, 1985, 9~10쪽.

03 | 주민들의 삶과 함께한 드라마와 가요

- 1) 「여로」, 1972, KBS 방영. 이남섭 감독, 태현실 · 장옥제 · 송승환 · 박주아 출연 : 1970년대 초 대단한 시청률을 기록했던 KBS 일일연속극으로 불우한 운명 속에 태어난 분이(태현실 분)라는 여인이 가난에 못 이겨 술집 작부, 사창가를 전전하다 남의 집(영구 : 장옥제 분) 씨받이로 들어갔으나 쫓겨나는 수난을 겪다가 다시 부와 행복을 찾는다는 내용이다.
- 2) 「꽃피는 팔도강산」, 1974, KBS 방영. 김희갑, 황정순, 최은희, 장민호 출연 : 1남 6녀를 둔 협동한 약방의 김희갑, 황정순 부부는 전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자식들을 만나기 위해 전국일주를 한다. 노부부는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자식을 만나면서 재미있고 감동적인 에피소드를 보여 준다. 더불어 각 지역의 명승지와 경제개발이 한창이던 전국의 산업현장을 소개한다.
- 3) 「사랑과 야망」, 1986, MBC 방영. 남성훈, 이덕화, 김청, 차화연 출연 : 가난한 형제 태준(남성훈)과 태수(이덕화)를 중심으로 남자들의 야망과 사랑에 대해 밀도 있게 묘사한 MBC TV 드라마로 당시 스타 배우들이 총출연, 1986~1987년 총 98회로 방영돼 당시 방영 시간에는 주부들이 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일화를 남김 만큼 큰 화제를 모았다. 드라마는 가파른 성장곡선을 그렸던 1970년대의 사회 문화를 엿볼 수 있다.
- 4) 「절투아」, 1992, MBC 방영. 최진실, 최수종, 이웅경, 김주영 출연 : 삼각관계와 애증을 젊은이들의 감성에 맞게 섬세하게 그려내 신세대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 최고 시청률 56.1%를 기록한 청춘 드라마이다.

- 5) 이영미, 『한국대중가요사』, 민속원, 2009, 343쪽.
- 6) 「모래시계」, 1996, SBS 방영. 최민수, 고현정, 박상원, 이정재 출연: 암울한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격동의 대한민국 현대사를 세 명의 주인공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그린 드라마이다.
- 7) 「에인」, 1996, MBC 방영. 유동근, 황신혜, 이응경, 김병세 출연: 신드롬과 함께 '아름다운 불륜'이란 유행어를 낳은 화제의 드라마로, 통속적인 관념이 지배하는 우리 사회에 가려진 30대 남녀의 실상을 조명하였다.
- 8) 「파리의 연인」, 2004, SBS 방영. 박신양, 김정은, 이동건, 오주은 출연: 가난과 불운에 시달리지만 삶을 열심히 살아 나가는 여주인공과 차갑고 이성적인 재벌가의 남자가 파리에서 우연히 알게 되어 인연이 이어지면서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는 이야기를 그렸다.
- 9) 「시크릿 가든」, 2011, SBS 방영. 하지원, 현빈, 윤상현, 김사랑 출연: 무술감독을 꿈꾸는 스타트업 우먼 길라임(하지원)과 '까칠한' 백만장자 백화점 사장 김주원(현빈)이 영혼이 바뀌면서 벌어지는 일을 다룬 로맨스 판타지 드라마이다.
- 10) 「인생은 아름다워」, 2010, SBS 방영. 송창의, 이상우, 남상미, 이상윤 출연: 한가족이 제주도의 테두리 안에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모습을 담은 드라마이다.
- 11) 「응답하라 1997」, 2012, TVN 방영. 서인국, 정은지, 은지원 출연.
- 12) 「신사의 품격」, 2012, SBS 방영. 장동건, 김하늘, 김민중, 김수로 출연.
- 13) 「꽃보다 남자」, 2009, KBS 방영. 이민호, 구혜선, 김현중, 김범 출연.
- 14) 이영미, 『한국대중가요사』, 민속원, 2009, 273~274쪽.
- 15) 손정목, 『서울 격동의 50년과 나의 증언-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한울, 2003, 12쪽.
- 16) 황선우 작사, 황선우 작곡, 조용필 노래.
- 17) 배명숙 작사, 조용필 작곡, 조용필 노래.
- 18) 박건호 작사, 조용필 작곡, 조용필 노래.
- 19) 이주현 작사, 조용필 작곡, 조용필 노래.
- 20) 이영미, 『한국대중가요사』, 민속원, 2009, 303~304쪽.
- 21) 서태지 작사, 작곡, 서태지와 아이들 노래.
- 22) 이혜숙·손우석, 『한국대중음악사』, 리즈엔북, 2003, 363~375쪽.

제5부 주민들의 살림살이

01 | 일상 속 물건들

- 1) 김정근, 「한국 혼수와 혼례가구의 구입 실태 및 전망」, 『한국가구학회』 12, 2001, 59쪽 참조.



- 2) 김정근·홍형욱, 「흔레변화에 따른 혼수기물과 흔레가구의 변천」, 『대한가정학회지』 vol.34, 1996, 199쪽.
- 3) 김재현, 「아파트의 드레스룸 수납면적에 관한 연구: 공공발주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17쪽.
- 4) 노완섭, 「라면의 역사」, 『동아시아식생활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06, 50쪽.
- 5) 정지애, 『라면』, 김영사, 19쪽.
- 6) 진용옥, 『봉화에서 텔레파시통신까지』, 지성사, 1996, 329~339쪽.
- 7) 김찬호, 『휴대폰이 말하다: 모바일 통신의 문화인류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8, 113~114쪽.
- 8) 우종성 외, 『CDAMA 이동통신 이해를 위한 휴대폰 프로그래밍』, 홍릉과학출판사, 2007, 19쪽.
- 9) 「무선호출 서비스 실시」, 『매일경제신문』, 1982년 12월 1일.
- 10) 안성수·권영달, 『최신이동통신개론』, 문운당, 2011, 13쪽.
- 11) 안성수·권영달, 『최신이동통신개론』, 문운당, 2011, 8~9쪽.
- 12) 김충남, 『차세대 이동통신 실무기술』, 진한도서, 2000, 435쪽.
- 13) 손태룡, 『음악이란 무엇인가』, 영남대학교 출판부, 2006.
- 14) 박현아, 「조기피아노 교육에 대한 지도방안」, 『교과교육연구』 vol.3, 2000, 188쪽.

02 '옷', 삶에 스며들다

- 1) 브랜드 없는 의류제품 혹은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의류제품을 통틀어서 보세라고 한다.
- 2) 복식 용어에서 말하는 빈티지란 빈티지 와인(풍작의 해에 양조한 명품 연호가 붙은 정선된 포도주)의 빈티지에서 전해져 온 용어이다. 즉 어느 일정한 기간을 경과해도 광채를 잃지 않는(가령 한때는 광채를 잃어도 어떤 계기로 돌연 불사조와 같이 되살아나는 매력을 가진) 어떤 특징의 두드러진 유행 또는 유행품을 가리킨다.
- 3) 구두에 열광하는, 구두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아지며 생겨난 신조어이다.
- 4) http://bntnews.hankyung.com/apps/news?popup=0&nid=02&c3=00&nkey=201205071134553&mode=sub_viewb. 검색일자 2012년 8월 18일.
- 5) 한지희, 「문헌으로 본 한국 전통 의복 관리법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11, 5쪽.
- 6) 정혜영, 「여대생의 패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의복구매행동」, 『服飾』 제25호, 1995, 201~213쪽.
- 7) 제은숙, 「여가활동 소비자의 패션관여와 의복선택기준, 패션정보원에 관한 연구」, 『服飾』 제61호, 2011, 55~56쪽.
- 8) 송용섭, 『현대의 마케팅론』, 법문사, 1997, 197쪽.
- 9) 디스플레이는 중세 유럽의 공방에서 완성품을 고객에게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단순히 전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일종의 판매연출로서 상품을 효과적으로 배열하는 것

뿐만 아니라 상품을 판매 촉진시킨다는 목적 아래 단순히 진열이나 장식이라는 공간조형의 영역을 넘어서 고객의 심리적인 조건을 기본으로 하여 그 점포의 이미지와 상품의 컨셉트를 한층 더 부각시키기 위한 판매연출을 말한다(이소은, 「쇼윈도우 디스플레이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디자인학연구』 제32호, 2011, 553~554쪽).

- 10) 최신 유행을 즉각 반영한 디자인, 비교적 저렴한 가격, 빠른 상품 회전율로 승부하는 패션 또는 패션사업을 뜻하는 말이다. 주문을 하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인 패스트 푸드(fast food)처럼, 빠르게 제작되어 빠르게 유통된다는 의미에서 패스트 패션(fast fashion)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 11) 한지희, 「문헌으로 본 한국 전통 의복 관리법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73~75쪽.



집필위원(가나다 순)

김현경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총괄)
윤주리 국립민속박물관 연구원
정세영 중앙대학교 비교민속학과 석사
최미진 중앙대학교 비교민속학과 석사
최수영 국립민속박물관 연구원

사진지원 박민구

수원시사 15

수원 아파트 주민의 생활과 문화

발행일

2014년 6월 25일

발행처

수원시사편찬위원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031-228-3475 / www.suwon.go.kr

디자인 · 인쇄

홍익문화사

서울시 중구 을지로 12길 28

02-2274-8110 / www.honggeeg.com

발간등록번호

ISBN 978-89-87738-75-8

ISBN 978-89-87738-60-4(세트)

